

第3章 言論·出版

第1節 新 聞

I. 日帝下の 大邱新聞

1. 일어신문

대구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문은 1905년 6월의 「조선」이라는 순간신문이었는데 일본인 승려 釋尾하루노가 발행인이었다. 다음해인 1906년 3월에는 일본인 목사 周라는 사람이 大邱實業新報¹⁾를 격일간으로 발행하여 약간의 신문체제를 갖추어나간 인상을 풍겼다.

대구실업신보는 1907년 大邱日日新聞으로 改題하더니 그 이듬해는 또 대구신문으로 했다가 1912년 3월에는 다시 朝鮮民報로 바꾸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대구에서 신문이 발간된 것은 비록 일본어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일보·동아일보(1920년창간)보다 15년이나 앞선 1905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으로는 대구지역에서 우리말 신문을 발행할만한 선각자도 없은듯 했고 또 일본인들이 한글판신문을 허가할 정치 사회적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신문은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 상대의 것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맞서 대구일보라는 신문이 1928년 8월 일본인 河谷靜夫에 의해 새로 발행됐다. 처음부터 8페이지로 출발한 것을 보면 대단한 의욕을 가진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구에는 조선민보와 대구일보라는 양대신문이 1928년이후 병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신문의 발행부수는 경북도내 합해서 7천5백부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년후인 1941년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진주만공격을 개시하자 전체언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제가 가해졌고 대구의 두 신문도 자연 통합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대구일보와 조선민보가 통합해서 나온 신문이 대구일일신문이었던 것이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대구에서 일본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신문이었다.

1) 일본인 木村裕之가 발행인이라는 설도 있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3, p. 693.

대구일일신문이 명맥을 유지해 오는 동안 여타신문의 발행노력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4년에는 南鮮經濟新聞이 발행되었는데 사장은 韓翼東씨였고 일본어와 우리말을 병용하는 경제지였다. 이 신문은 주로 대구경제계의 중추라 할 수 있는 米穀取引所의 매매 상황과 서문시장의 물가동향을 보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는 역할을 했다.

이밖의 일어신문으로는 순간지인 實業新聞이 있었는데 이 신문은 요즘 말하는 엘로페이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구시민에게는 별 흥미를 끌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경향이 짙었다. 인쇄조차도 일본에서 해오는 신문이었다.

1930년대에는 韓應烈씨가 발행한 慶北公論과 尹炳殷씨가 경영한 「관문과 경북」이라는 한·일어공용의 인쇄물이 있었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신문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 중앙 3대민간지(우리말 발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어판신문은 주로 일인을 상대로 보급돼 왔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통한 몇몇 우리나라 시민을 빼놓고는 읽지 못했다. 우리 향토의 우리말언론은 역시 서울에서 발행하는 3대민간지를 통해서 보급되는 수 밖에 없었다. 3대민간지가 1920년대에 발행되자 민중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다투어 지국설치에 열을 올렸고 신문이 인쇄돼 나오자 너도나도 구독에 열을 올렸다. 당시의 신문사 구성원은 사장에서 사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민족의 지사나 독립투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지국장이나 특파원이나 기자 사원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 사상운동의 선봉장같은 기백으로 신문사에 종사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었다.

단순히 상업주의적 목적에서 벗어나 「민중의 혈맥이 상통하는 일대 민족적 조직」²⁾으로 운영됐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지국장 선정에 있어서도 애국적 유력인사들이었고 지국 본국의 기자들도 상당수는 그 지방의 민족운동에 앞장선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위 신문사의 일개 지방조직이 아니라 민족운동이나 애국운동의 휘하조직 같은 인상을 풍겼던 것이다. 그 예로서 동아일보에 있어서 대구지국장은 徐相日, 부산지국장에 安熙濟, 평양지국장에 李德煥 등의 인물이 선정된 것만 봐도 저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거의 같은 경향을 띠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의 대구지국장은 張仁煥씨를, 「중앙」은 金成國씨를 등용한 것은 같은 맥락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사의 경영을 수지타산에 의존하는 것보다 志士風의 인물들로 구성되는 소위 문화사업

2)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1, 1975. 참조.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상업성은 보잘것 없었다. 합리적인 경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신문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 경영주가 바뀌거나 폐문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의 지국으로서는 박봉이나마 종업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해야 했고 본사에 납입금을 미룰 수가 없었다. 동아지국의 경우 신문이 폐간된 뒤에도 본사에 납금할 지대를 4개월이 걸려서까지 완전 청산하는 성실성을 보였다 한다.

3. 중앙지들의 대구지국 활동상

1) 조선일보지국

이 신문의 대구지국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운영되었는지 확실한 자료는 없다. 다만 20년대에 신문이 창간되자 가름에 비오듯 독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사실로 미뤄봐 조선일보가 창간되자마자 곧 지국도 개설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張仁煥씨가 1926년부터 근10년간 대구지국을 맡아서 운영해 왔다고 한다.³⁾

장씨는 8·15이후 미군정의 경북지사를 지낸바 있고 그가 쓴 어떤 종류의 기사가 문제가 돼 필화사건으로 비화, 공판에 회부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1923년 7월 22일에 처음으로 4페이지의 경북판을 발행했다가 11월에 중단한 일이 있는데 지방기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35년 가을에는 대구에 신문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실험도 했다. 38년에는 도청소재지의 지국을 지사로 승격시키고 특파원 2명과 통신원을 두었고 영남판도 발행했다. 이 때의 신문구독료는 한달에 80전, 1원, 1원 20전으로 여러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2) 동아일보지국

이 신문의 지국은 창간과 동시에 설치됐다. 韓翼東, 崔元澤, 張鴻植씨 등이 맡아 왔으나 운영난으로 1923년에 徐相日씨에게 넘어갔고 강제폐간을 당할때까지 그가 계속 운영해 왔다.

서상일씨는 대구출신으로 호를 東庵이라 했고 23세에 보성전문을 졸업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영남 여러곳의 민중시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만주등지로 보내는 한편 파리 長書사건을 후원하여 여비를 조달하는 등의 활약을 한 인물이다. 그는 동아일보지국을 1923년에 인수, 17년간 운영해 왔다. 이 때의 부수는 대개 2천부 전후였었다.

3) 李興魯씨의 증언. 金鎭和, 〈日帝下의 大邱언론연구〉, p.87.

3) 기타의 여러지국

「동아」·「조선」이외 대구에는 중앙일보·시대일보·조선중앙일보 같은 지국이 있었으나 별로 독자층이 두텁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길이 없다.

II. 解放以後 激動期の 大邱新聞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대구에는 유일하게 대구일일신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신문은 대구일보(1928년 8월 창간, 사장에 일인 河谷靜夫)와 조선민보(1906년 창간된 대구일일신문→1907년 대구일일신문→1908년 대구신문→1912년 조선민보로 바뀜)가 통합된(1941년) 신문인데 일본어 전용이었다.

해방을 맞아 대구의 원로 언론인이었던 尹洪烈이 중심이 돼 대구일일신문의 후신으로 대구시보⁴⁾의 창간을 보게 됐다.

1. 대구시보

1945년 10월 3일 창간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신문은 대구일일신문을 바탕으로 창간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敵産으로 인해 관리권을 둘러싸고 당사자(옛직원과 대구의 언론인)간에 대립하다가 美軍政 도공보과장 당간중위의 결정으로 尹洪烈·張仁煥 두사람이 공동 인수하여 발행했다.

2. 영남일보

1945년 10월 11일 해방후 지방지로서는 제빨리 민족지를 지향코 창간된 신문이다. 당시 좌우의 사상대립 등 복잡한 여건과 굴레를 벗고 韓應烈·趙若瑟·石輔 등 10여명의 인사가 4면의 「동인제」(同人制)신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초대사장엔 金泳甫씨로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잡다한 신문가운데 불편부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자로부터 비교적 호평을 받은 신문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1946년에 들어와 동인제에서 탈피 주주 2백여명의 주식회사로 발족하여 비약의 발판을 굳혀 나가던중 동년 10월 1일 철도파업으로 인해 대구부를 비롯 영남일대에 좌익계열의 폭동이 일어나자 계엄령이 내려져 영남일보는 대구시보 등과 더불어 1일간 자연 휴간했다. 그러나

4) 한국신문연구소발행 《한국신문백년》에 의하면 이때 〈대구일보〉라는 설도 있다.

이에 굴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은 호의를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단 하루의 휴간도 없이 동일한 제호로 안정된 지방지의 위치를 굳혀 나갔다.

1957년 7월 제3대 사장으로 李淳熙씨가 취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사시도 「신속 정확·직필정론·산업건설·통일축성」을 내걸어 지방지의 면모를 일신해 갔다.

3. 대구신보

1947년 5월 張仁煥사장이 경북지사로 취임함으로써 대구시보가 金在權씨에게 임대돼 한때 대구신보로 불렸다. 그뒤 장씨가 다시 인수, 대구시보로 발행됐다. 동지는 1949년 3월 23일자로 폐간됐는데 이유는 「허위보도로 인심을 현혹케 하고 官民離間을 도모하여 官을 중상하였다」는 것으로 光武新聞紙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4. 남선경제신문

1946년 3월 1일 창간된 이 신문은 발행인 禹炳進(뒤에 李慶容), 제1면에 사실과 경제정책·정치기사등으로 메우고 2면을 경북도내 경제 및 체육·시장경제 등을 실었다. 전국최초의 지방경제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시의 정치적 이슈보다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자금난, 경제지의 특수성, 경영진의 불화, 용지난등이 겹쳐 창간 한달도 못돼 제1차 휴간에 들어갔다. 이 신문은 나중 천주교대구교구유지재단에 인수되기까지 무려 다섯차례의 휴간사태를 면치 못했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영압박과 방향감각의 무분별이었다.

만성적인 용지난은 경영을 가장 어렵게 했다. 용지를 구하기 위해 선금을 걸어 놓고도 어려운 판인데 「남경」과 같은 약체경영으로는 용지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와 같은 경영난에 겹쳐 또 한번의 치명타를 안긴 사건은 1946년 10월 1일 소위 10·1사건이 일어나서 폭도들이 대안동사옥을 습격, 활자를 뒤엎고 인쇄시설을 파괴했던 것이다. 이 때 「남경」의 논조는 분명한 좌익도, 확고한 우익도 아닌 「좌경적인 회색중용」이란 어정쩡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좌익진영에서 보면 우익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일 수 있었으므로 좌익의 골수들이 사옥을 습격해온 것이다.

회색중용이 빛은 「남경」의 비극이었다. 그렇다고 우익진영에 호소해 동정을 구할 형편도 못되었다. 우익은 우익대로 이 신문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가끔 협박전화를 하는 판국이

었다하니까.

창간 반년만에 두번째의 휴간을 면치 못하자 극도의 운영난으로 결국 경영권을 넘겨 주지 않으면 안되게 돼 1946년 11월 李慶容씨(대구옥잠공업사장)에게 운영권이 넘겨 지게 되었다.

이사장은 약 2년동안 「남경」을 착실하게 이끌어 왔고 사옥도 대안동(경찰측의 요청으로)에서 태평로사옥(전 평안외과)으로 옮겨 각종 사업과 문화행사등을 벌이면서 경제지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결손이 누적, 도저히 경영을 유지해 나가기 힘 들어 1948년 9월 운영권을 金洪植씨(고령출신 재산가, 후에 국회의원 역임)에게 넘어 가고 社是를 「자강·일통한 민주주의·民族均榮 국가건설」로 정하고 지면쇄신에 나섰다. 김사장은 인수당시 상당한 포부를 보여 지면쇄신에 그치지 않고 제호조차 「중외일보」로 바꾸어 전국지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공언했다. 그러나 그뒤 이 계획은 결실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때 김홍식사장은 정계로 진출하고 제4대 사장직을 맡은 사람은 초대 대구부윤을 지낸 李慶熙씨였다. 이때가 1949년 7월경이다. 李慶熙씨는 독립투사로서 명망과 다양한 경륜의 소유자였으나 자본투자가 없는 들러리사장에 불과했다. 거기다 신문경영에 일가견이 있는것도 아니고 하여 뚜렷한 업적을 남지기 못한채 불과 5개월만에 자리를 물러서고 말았다.

그뒤 몇사람의 경영주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 제6대사장으로 李相祚씨(당시 경북 유업사장, 뒷날 국회의원)가 1950년 2월경 취임했다. 창간 4주년을 맞은 「남경」은 3월 21일을 기해 「남산」을 빼고 「경제신문」으로 개제했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5백만원의 자금을 털어놓고 사장이던 이상조는 이제 막 신문경영에 눈뜨려 하자 마자 6·25사변을 맞게 된다. 전란속에서 경제지라는 특수지로는 중군보도의 제한은 물론 가판과 일반보급에도 지장이 많아 일반지로 바꾸기로 결심, 당시 대구에 있던 육군본부의 李瑄根정훈국장의 소개로 李喆源공보처장을 만나 교섭끝에 동년 8월 1일자로 「대구매일신문」으로 改題했다.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한 후 웅비의 꿈을 안고 도약하려는 순간 뜻하지 않는 액운이 대구매일에 닥쳐 왔다. 1950년 8월 29일자(또는 30일자) 1면 톱기사의 본문중 「이대통령」이란 활자가 「이건통령」으로 오식된 사건이 일어 났다. 개제한후 한달만의 일이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은 두달간 재판없이 옥고를 치러야 했고 신문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했다. 이 때 이사장은 새주인을 물색하던중 그해 10월 1일 천주교대구교구장 崔德弘주교에게 경영권을 넘겨 주게 됐다.

5. 민성일보

이 신문은 1945년말 대구부 본정 일정목47에서 李穆사장에 의해 창간된 타블로이드판 2면제의 일간좌익지였다. 당시 대구에서 제1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던 대구시보(사장 장인환)를 능가하는 3~4천부를 발행했던 동지는 남로당 지령에 따라 움직여 선동과 비방 파괴를 위주로 한 신문제작을 일삼다가 격분한 우익청년단체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1947년 3월 29일밤 9시경 권총과 곤봉 도끼따위를 가진 30여명의 청년들이 사옥을 습격. 활자 및 인쇄기를 파괴한 후 간판까지 떼어가 버렸다. 1947년 10월 1일 이후 자취를 감췄던 동지는 李榮根등의 진용으로 속간되다 1948년 8월 11일현재 제885호까지 발행했다. 이 신문에 대항해서 나타난 우익지가 경북신문(발행인 盧錡)이었다.

6. 매일신문

1946년 3월 1일 창간된 남선경제신문(발행인 禹炳進)이 1950년 8월 1일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된지 두달후인 동년 10월 1일 천주교대구교구유지재단에서 이를 인수하여 신문을 속간했다.

초대사장에 崔德弘주교. 최주교가 신문을 인수한데는 교구내의 반대등으로 고심이 컸었다. 최주교가 신문을 처음 인수하겠다고 발설하자 교구내의 많은 성직자들이 「성당도 못지어 찢을 때는 판에 신문사와 같은 세속사업을 뒤편에 하는가」하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쪽의 이론도 정연했다. 「시대가 점차 개명해가니 문화사업으로 해보는게 좋겠다」는 주장도 있어 최주교는 어려운 결단을 결국 내리고 말았다. 1950년 10월 1일이 정식 인수 인계되는 날이었다. 과도적 대구매일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언론창달의 기치를 든 정통 대구매일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옥은 대구시태평로 1가. 남선경제신문의 지령을 계승한 대매는 1960년 7월 7일자 제4780호부터 현재의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꾼 것이다. 「대구」를 뺀 이유는 대구·경북지방의 지역성을 탈피하고 전국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위명·업이었던 것이다. 사시는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7. 시사신보

1951년 9월 재구신문인 출신들이 同人制를 형성 10월 1일자로 「시사신보」라는 제호 아래 趙若瑟씨 사장으로 창간. 일간 종합지로 발행해오다 5·16혁명 후 제호를 「대구경제신문」으로 바꾸었다. 72년 4월 1일 경영난으로 자진 폐간하기까지 지령은 6640호.

8. 기 타

1) 경북신문

1945년 12월 발행인 朴錫洪씨에 의해 창간. 타블로이드 2면 일간. 좌익지인 민성일보에 대항해서 강력한 반탁의 논조를 폈다. 민족진영의 경북대변지를 자처코 동인제로 출발한 동지는 경영난에 빠져 사장에 盧錡씨가 취임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朴錫洪씨가 맡았다. 金九선생을 따랐던 동지는 1947년 7월 부녀일보·신라공보와 통합, 대구합동신문으로 발족했다.

2) 부녀일보

1946년 12월 5일 具滋權씨에 의해 창간. 타블로이드 2면 발행. 편집국장에 崔錫采. 동지는 미군정청이 신문발행허가 관계로 부녀일보란 제호로 창간됐으나 논조는 일반 경제시사지와 다를바 없었으며 제호탓으로 가정란을 많이 취급했다. 1947년 7월 경북일보 신라공보와 함께 대구합동신문으로 통합됐다.

3) 대구공보

1946년 6월 29일 吳在東씨에 의해 창간된 타블로이드 2면 일간. 보도중심의 지방지로 경북일원이 취재대상. 동지94호 (1948년 12월 10일)에는 일본에서 발간되는 매일신문·시사통신·일본타임즈·인터내셔널 타임즈·세계경제·공동통신편집자들이 선정한 1948년도의 세계 10대 뉴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4) 신라공보

1947년 1월 吳在東씨에 의해 창간된 타블로이드 2면의 일간. 1947년 7월 경북신문 부녀일보와 통합, 대구합동신문으로 재출발했다.

5) 대구합동신문

경북일보·부녀일보·신라공보가 통합, 1947년 7월 창간된 일간지. 사장에 吳在東씨의 타블로이드 2면. 약 1년간 발행하다가 경영난으로 1948년 5월 폐간됐다.

해방을 맞아 누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리게 되자 우후죽순처럼 신문이 발행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된바 있거니와 이 당시의 신문발행의 특징을 살펴 보면 혼란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조명해 보는데 좋은 참고가 될듯 하다.

① 대부분의 신문이 짧은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이때의 시설과 자본은 열악하기 짝이 없

었으며 더구나 용지난으로 재고가 없는 신문들은 선화지나 창호지등을 모아 몇백부씩 인쇄해 내는 형편이었다. 해방직후 2개월만에 폐간된 남선민보⁵⁾가 하나의 좋은 예이다. 더구나 언론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될 결정적요인은 미군정법령 제88호이다. 이 법령은 1946년 5월 25일자에 나온 것인데 각종 간행물의 무질서한 범람을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간행물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었으며 「일간신문은 10일, 주간신문은 3주일, 월간은 3개월이상 휴간할 때는 허가가 취소」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② 1948년 정부수립후 左翼紙는 완전히 도태됐다. 해방후 일시적 혼란과 10·1사건과 같은 좌우익의 대립기를 거치면서 여러형태의 신문발행이 계속되더니 정부수립이후는 좌익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우익지가 언론의 주도권을 형성해 갔다. 정부수립후 정부의 언론정책은 미군정때보다 더욱 강경해졌고 초대 공보처장 金東成은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국시위반으로 엄중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③ 편집과 경영이 분리돼 있었다. 민성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은 구 대구일일신문출신 신문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사주는 따로 있어도 편집간여는 거의 없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III. 6·25戰爭과 大邱의 新聞

정부수립 3년째 접어들면서 국가행정의 기틀도 잡혀가고 사회질서도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잡아 갔다. 언론계도 해방직후와 같은 난립상은 점차 정비되고 기세등등하던 좌익계열의 신문도 자취를 감추면서 좌익적 강경논조조차 지면에서 사라져 감에 따라 이번에는 保守野黨⁶⁾의 논조가 크게 부각하게 된 것이다. 소위 政論紙의 성격의 논조가 햇볕을 보게 된 것이다.

대구신문계도 대구민보가 대구공보와 대구합동신문을 통합하여 대구신보로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언론기관의 난립에 종지부를 찍고 3대신문(매일신문·영남일보와 더불어)이 정립하여 건전한 기반과 선의의 경쟁하에서 지방언론의 기초를 닦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뜻하지 않는 6·25동란이 터지고 만 것이다.

삼시간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남으로 남으로 피난길에 내몰았으며 정착지는 자연 대구·부산지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대구는 피난문인들이 크

5) 《大邱市史》, 1973, p.695.

6) 《大邱市史》, p.697.

게 몰려 왔고 서울의 신문들도 대구에서 지방신문과 제휴, 발행을 계속하는 바람에 지방신문이 전국지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영남일보는 당시 정훈국기관지인 승리일보와, 대구일보는 평화일보(대한일보 전신)와, 그리고 매일신문은 경향신문과 제휴하여 각각 전시판신문을 발간했다.

대구의 신문들은 이후부터 일요일 휴간제를 폐지하고 5·16직후까지 연중무휴의 신문으로 계속돼 왔다. 전시중 대구의 각 신문이 크게 사세를 떨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蒼空俱樂部(중군작가단체)를 비롯한 피난문인과의 접촉이 잘 이루어져 그들의 기고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지방지는 정론지적 성격이 강하여 정치기사 일색이던 지면에 문학 예술적 기사가 크게 틈입하기 시작했고 문화면이 이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줬던 것이다.

이 때 대구에 온 서울문인들의 활약상이 어떠했는가를 원로시인 楊明文씨의 글⁷⁾을 통해 알아 보기로 한다.

『6·25동란당시 우리 문인작가들의 피난지였던 대구와 부산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대구에 대한 가지 가지의 추억은 더욱 잊을 수 없는 회상의 章들로 남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던 작가들은 소위 문총구국대라는 것을 조직하여 모두 구국대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4후퇴때는 육군정훈부와 연계가 되어 문인들은 정동예배당으로 집합되었다. 鮮于輝·李容相등이 연락과 안내로 활동하였고 작가들은 집단으로 피난열차에 올라 탔던 것이다.

대구에 도착한 시인작가들은 대략 40명에 가까운 인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51년1월이던가 그무렵 대구에 집결돼 있던 시인작가들은 銃劍대신에 펜을 들고 국군에 종군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해공군에 각기 중군작가단이 조직되었던 것이다.

육군중군작가단장에 소설가 崔獨鵬, 부단장에 金八峰·具常, 중군작가로는 鄭飛石·金利錫·朴榮濬·張德祚·孫素熙 등의 소설가들과 靑馬 柳致環·尹石重·朴薰山·朴貴松·李德珍·楊明文 등의 시인들이고 극작가 金鎮壽·金永壽, 수필가 田淑禧·朴琦俊, 작곡가 金東振 등 다채로운 멤버였다.

한편 공군에 종군한 문인들은 창공구락부라는 명칭밑에 중군 작가단이 조직되었는데 단장에는 馬海松이었고 중군작가로는 趙芝薰·朴木月·朴斗鎭·李潤守·金潤成·김요섭·李相魯 등의 시인들과 소설가로는 崔貞熙·崔仁旭·柳周鉉·方基煥등 등이었다.

7) 《竹旬》17, p.180.

이리하여 대구를 근거지로 하고 종군을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고독한 시인 空超 吳相淳 선생도 여기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따스한 두손으로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고 하며 좀해서 나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대구에서 〈문학의 밤〉이니 〈문학강연회〉니 〈무슨 좌담회〉니 〈출판기념회〉니 하여 부지런히 모였고 具常·芝薰등이 사회를 맡아보곤 하였다.

종군작가단에서는 전선문화라는 기관지를 발간했다. 여기에도 종군기니 전쟁시니를 발표했고 이 무렵에 영남일보에 시〈7월의 노래〉등을 발표했었다. 박목월은 창조사라는 출판사를 냈고 趙芝薰은 〈풀잎 斷章〉이란 시를 출판했었다….

또 한번은 정훈국주관 육군종군작가단 주최로 문인극 〈돌아온 사람들〉을 공연하게 되었다. 김영수작·연출이었다. 이 공연은 성공작이었다…。 우리들의 문인극이 호평이고 신문에 나자 이번은 전국문총의 초청공연으로 釜山극장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공연하게 되었다…。 大邱로 다시 돌아 온 우리 일행에게 육군본부는 축하연까지 열고 대단한 환영을 해주었다.』

IV. 大邱每日 백주테러事件

대구언론사에서 대매 백주테러사건은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건은 1955년 9월 14일 오후4시 25분께 일어났는데 사건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태평로 본사 현관입구에 市營420호의 변호관을 단 시영버스 한대가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자 곧봉과 해머등을 든 金民 (국민회 경북도본부 총무차장), 洪永燮 (자유당 경북도당 검찰부장)등이 이끈 괴한 20여명이 뛰어 내려 본사 공장쪽으로 몰려 갔다. 이때 공장안에선 채출을 끝내고 지방에 발송할 신문뭉치를 점검 하는 등 공무국사원 10여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괴한들은 고함을 지르며 자물쇠로 잠겨 있는 공무국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소지하고 있던 대해머로 문선케이스를 비롯한 인쇄기재·통신시설 및 공장 내부시설을 닥치는대로 부수어댔다. 만류하던 사원들을 곧봉과 주먹으로 구타하는 한편 지방에 발송하려던 당일의 신문뭉치를 모두 탈취해 갔다. 괴한의 일부는 2층사무실과 사장실등을 오가며 온갖 기물을 부수거나 뒤엎고 하는 난장판을 벌였다. 약 10분간의 난동테러였으나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일이어서 피해정도는 의외로 컸다. 피해상황을 보면

△ 부상자—禹宗九(정관부장)안면과열상. 기타사원 8명 타박상.

△ 시설피해—신문인쇄기 2대 일부 파괴. 인쇄중의 연판 4매 파손. 7마력발동기 1대 일부 파손. 활자케이스다수 파괴.

이때의 전체 피해를 환가하면 당시 돈 2백만원(당시 신문 월구독료 3백환)이었는데 경제적 피해도 피해이지만 내외에 준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더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시설물들의 파괴로 인해 1주일동안 신문의 정상발행을 못한것만 봐도 저간의 사정은 짐작할수 있다.

대매 백주테러의 직접적 동기는 55년 9월 13일자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崔錫采 주필이 쓴 사설이었다. 「白晝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희한한 문구를 남긴 이 사건은 우리 언론사상 큰 파장을 안고 오래 기억될 것이다.

문제된 사실은 당시 학무당국이 顯官들의 내구환영에 빈번하게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테러단체들은 적성감시위원회 축출시위가 한창인 때를 이용, 이 사설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였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즘에 와서 중·고등학생들의 가두행렬이 매일의 다반사처럼 되어 있다. 방학동안의 훈련을 겸한 모종행렬만이 아니라 최근 대구시내의 예로서는 현관의 출영에까지 학생들을 이용하고 도열을 지어 3~4시간동안이나 귀중한 공부시간을 허비시키고 잔서의 폭양밑에 서게 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 현관이 대구시민과 무슨 큰 인연이 있고 또 거시적으로 환영하여야 할 대단한 국가적 공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수천 수만 남녀학도들이 면학을 집어치워 버리고 한사람 앞에 십환씩 돈을 내어 수기를 사가지고 길바닥에 늘어서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못한다.

또 학생들은 그러한 하등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괴이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학교 당국자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갑자기 행해졌다는 것을 들을 때 고급행정관리들의 상부교제를 위한 도구로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입을 벌리면 학생들의 질을 개탄하고 학도들의 풍기를 운위하는 지도층이 도리어 학생들을 이용하고 마치 자기네 집안의 종부려 먹듯이 공부시간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을 볼때 상부의 무제한 탈선과 그 부당한 지시에 유유하게 순종하는 무기력한 학교당국에 대해 우리들 학부모 입장으로 분개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위원급이상의 현관이 내왕할 때에 경찰당국이 경호규정에 의해서 연도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아 어마어마한 출동에도 우리들은 아무타을 하지 않으리라. 또 행정고위층이 출영하는 것쯤도 의례히 해야 할 의례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출영소동은 도리어 그 현관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번처럼 학생들을 동원하고 악대까지 꺼낸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는 알바 없으나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다. 그로 인하여 고위현관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비교하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2. 이 기회에 학생들의 동원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솔직히 토론한다면 근자의 경향은 「너무 심하다」는 일언에 그친다. 국경일같은 행사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학도라 할지라도 시민에는 틀림없으니 같이 나라의 축하일을 기념하고 그날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산교육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국경일도 아닌 다른 행사에 교육을 위한 아무런 환경의 고려도 없이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령한장으로 손쉽게 동원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혹자는 말하리라. 「외국서도 국난을 당하면 학생들이 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 그러나 외국의 민족운동이나 국민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개 정열에 불타는 대학생들이란 말은 들어도 철부지한 중고등학생들이 그 중심부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일찌기 듣지 못했다.

어떤 시위나 대회라도 그 시위하고 호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인식하고 심중에서 우러나는 共鳴의 자의식이 발동되어야만 그 표현에도 나타나고 시위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대회의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지 아직 15~16세 정도의 미숙한 학생들에 어찌 그러한 자각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효과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대외적시위라면 외국인이 볼때 한국국민의 조숙에 놀라기보다 관제동원임을 먼저 깨닫게 할 것이요, 국내적 께기라면 대회의 효과에 앞서서 학부형들의 반감이 먼저 그 대회를 옥할 것이다.

문교행정이 도지사의 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도당국이 팔세못할 각종단체의 행사에 관성적으로 이러한 학생동원의 폐풍이 만연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행사 — 즉 읍저버격으로 참가하여 그 대회나 행사의 의의를 실습할 수 있는 동원에 한하여 참가토록 하고 기외는 일절 동원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당국자가 인습적인 「상부지시 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는 결속해서 도당국이나 교육구청에 그 비를 건의 할 수있는 박력과 학도애호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주필의 이 사설로 신문사가 습격을 받은 것은 물론 17일 오후에는 집필자인 최주필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대구경찰서에 구속시켰다. 테러의 주범과 중범들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유독 최주필만 어거지로 구속시켰는데 自由黨정권이 어느정도 미련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일개 지방지의 파괴사건이 아닌 전국의 언론과 여론이 들끓기 시

작한 것이다.

9월 22일에는 국회조사단이 내구하여 시비곡직을 가리게 되자 집권당인 자유당은 「테러사건은 자유당과 무관하다」는 공언을 하게 되고 사건은 대매의 유리쪽으로 반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구속된 최주필을 조속히 석방하여 누명을 벗겨 주는 일이었다. 최주필은 사건이 터진지 꼭 한달만인 10월 14일 불구속기소로 석방됐다. 당시 대구지검 韓沃申부장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던 최주필은 曹在千, 林文碩 등 야당변호사들의 자진변론을 받던 중 「국가보안법 4조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던 것이다.

이미 여론은 보안법위반이란 최주필의 구속사유에 냉소를 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自由黨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진상조사위의 조사결론도 「치안책임자와 사건관계자를 처단할것을 건의」할 정도였다. 兪鳳淳(자유당)의원 등 7명의 국회특별조사위는 피습현장을 돌아보고 증언청취 등을 마치고 10월 7일 본회의에 제출한 67페이지에 이르는 조사보고서의 조사결론은 이상과 같이 치안책임자와 사건관계자를 처단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자유당소속 崔昌燮의원이 「애국심에 불타서 테러한 청년들에게 훈장이라도 달아주고 싶다」고 망언함으로써 큰 파문을 던졌다.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란 신수사과장의 발언과 함께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거니와 당시 여당이나 관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나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에 속한다.

9·14테러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주필이 법정투쟁을 벌이는 동안 테러의 주범인 金民과 洪永燮은 아무런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었고 金鍾洙 등 중범 3명이 6개월내지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끝으로 테러범에 대한 처리가 일단락된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최주필이 무죄가 선고되자 서둘러 주범의 한사람인 金民을 서울서 체포하여 왔고 洪永燮을 밀양서 체포하여 대구로 압송 공판에 회부됐다.

첫 공판은 1956년 3월 22일 오전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다. 金民은 대구매일의 문제사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반공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동사설을 묵인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배후세력」으로 부터의 「의리있는 지원」을 겨냥한 강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다만 洪永燮은 「직접 못입었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따를 뿐이라」고 답변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테러를 지휘한양 얼버무렸다. 더 이상 진상을 캐지 못하고 3월 30일에 열린 공판에서 각각 실형 2년을 언도했다가 7월 13일의 고법결심공판에서 金民에게는 징역 1년 6월, 洪永燮 에겐 1년을 각각 언도했다.

崔주필의 1차공판은 11월 8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호법정에서 개정되었다. 한부장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자유언론의 한계」라는 논고와 曹在千 등의 「개인을 매장하기 위한 사건」이란 내

용의 변론이 맞서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한검사는 이날 외국의 판례를 인용 최주필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의 정치적상황으로 보아 이 형량은 한검사가 최주필의 의기를 이해한 나머지 최대한의 자제를 보이고 내린 사실상의 무죄와 다름없는 형량이었다. 12월 6일 언도공판에서 담당 金龍圭판사에 의해 정작 무죄가 언도되었을 때 환호의 함성이 터졌다. 대구매일이나 崔錫采주필 개인의 승리만이 아닌 한국언론계 전체의 사활이 걸린 승리였기 때문이다. 9·14테러사건이 터진지 만2개월 22일만에 맞보는 민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김판사의 무죄판결이 있는지 2주일만인 12월 20일 대구고법 제2호법정에서 홍남표재판장주심, 이일빈 문양두판사 배석아래 고검 李鎬容검사관여로 열린 첫번째 공소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듬해인 1956년 1월 27일에 열린 공소심언도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무죄가 확인됐다.

기각이유로 ①「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을 북한괴뢰집단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하나 실지 사실과 방송은 불연락된다. ② 피고는 동사설이 북한에서 방송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③ 적성감위 축출운동이라고 해도 동원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언론자유와 한계와 건설적인 비판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사건을 1월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사법권은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1956년 5월 8일 金炳魯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합의하여 무죄를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재판례를 한국언론사에 남겼다. 정부권력의 무분별한 작태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기도 했다.

대매 필화 사건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판결문

(전략) 심안컨대 공소사실과 여히 적성감위단 축출데모시위가 우리 겨레의 원치않는 소위 휴전협정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아국에 주둔하고 있는 중립국감위단이 우리 건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국헌을 파괴하려는 기도하에 갖은 간첩행위를 감행한다는 이유로써 우리 민족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총궐기하여 이를 세계에 호소하고 동적성감위를 아국으로부터 축출하여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하에 거족적으로 전개된 성스러운 시위이며 이 시위를 의혹케 하거나 모독 또는 멸시한다는 것은 민족적 정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며 피고인의 당공정에 있어서 진술 및 압수된 증제2호(9월 13일자 대매사설)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4288년 9월 13일자 대구매일사설로써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하에 공소사실에

서 인용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집필 계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증인 박인규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의 증인 金振煥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년 9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공소사실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내용의 북한괴뢰집단의 평양방송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첫째로 전시「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내용이 전시 감위축출 데모를 의혹하거나 모독 또는 멸시한 논지인가의 여부를 안건대 전시 압수된 증제2호 전시 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당공정에 있어서 진술을 종합고찰하면 동사설은 그 제 1단에서 동년 9월 10일 林炳禎대사가 대구에 왔을 때 그 환영을 위한 학생들의 동원이 너무나 심하였다는것을 통렬히 공격한 후 제2단으로서 근래의 학생동원에 대하여 국경일도 아닌 다른 행사에 교육을 위한 아무런 환경의 고려도 없이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지령한장으로 손쉽게 동원된 예를 많이 보았다. 또한 외국의 민족운동이나 국민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개 정열에 불타는 대학생이란 말은 들었어도 철부지한 중고등학생들이 그 중심부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일찌기 듣지 못했다. 아직 15~16세 정도의 미숙한 학생들은 어떤 사위나 대회의 시위하고 호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인식할 수 없으니, 그들을 동원하여도 대회나 시위의 효과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대외적시위라면 외국인이 볼 때 한국국민의 조숙에 놀라기보다 관제동원임을 먼저 깨닫게 할 것이요, 국내적결기라면 대회의 효과에 앞서서 학부형들의 반감이 먼저 그 대회를 요구할것이니 그러한 동원방법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동사설 모두에 방학중 훈련을 결한 모종행렬이란 어구중에 포함된 감위축출 데모를 포함한 모든 행사및 시위에 있어서의 학생동원의 방법에 대하여 논평한 것이며 앞으로의 학생동원에 대한 제언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여사한 시위를 위한 학생동원 방법에 대한 논평 및 제언을 범법행위라고 인정키는 난할 것이며 타에 피고인이 감위축출 데모를 의혹하거나 모독 또는 멸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좌는 없다.

다음 피고인이 전기 사실을 쓴 것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이 실행 또는 자진 방조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안건대 ① 피고인은 당공정에 있어서 전시 자진방조할 의사는 전연 없었을 뿐 아니라 동사설자체가 북한괴뢰집단에 입수되어 악선전의 자료가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극력 그 범의를 부인하고 ② 전시 인정한 4288년 9월 17일 북한괴뢰집단의 평양방송에 의하면 동방송은 서울로부터의 합동통신보도에 의하면 동아일보에 대한 테러가 있는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9월 14일에는 또 다시 경북도 대구시내에 있는 대구매일신문사가 테러단의 습격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그 원인은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9월 13일자 동사설을 쓴데 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에 인용한 바와 여한 악선전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쓴 사실 그 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한괴뢰집단에 입수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고 ③ 검사의 증인 허금룡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피고인이 청년운동 및 언론인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 8·15해방후 좌익진영과 싸워 왔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한 그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급작히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실의 실행을 자진방조할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외 피고인이 전시 사실을 쓴 것이 전시 북한괴뢰집단 또는 전시 적성감위의 목적사항의 실행을 자진 방조할 목적 내지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적합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다.

단기 4288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판사 金龍圭

2. 제2심 판결문

판결

본적 경상북도 금릉군 조마면 신안동 650번지

주거 대구시 전동 48번지 대구매일신문사 주필 崔錫采(당40세)

우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8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검사가 적법한 공소를 하였음으로 당원은 검사 李鎬容관여 심리를 마치고 좌와 여히 판결한다.

주 문

본 건 공소는 차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75년 일본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 4279년 4월경부터 건국공론 편집부장, 경북신문사 편집국차장, 광복청년회 경상북도부위원장, 부녀일보사 편집국장, 대동청년단 경북도단정치위원장, 건국공론사 주필등에 종사하다가 동 4282년 2월 26일 경감에 임명되어 경상북도경찰국 사찰과과료, 성주·문경·영주 등 각지 경찰서장 등을 역임하고 동 4285년 12월 15일 의원면직된 후 대한청년단경상북도단부부단장, 대구일보사 출판국장, 국민회 경상북도본부부회장 등을 거쳐 동 4287년 8월 1일 대구매일신문사 논설위원으로 동사에 입사하여 동 4288년 2월 5일부로 동사 편집국장 동년 5월 23일부로 동사주필로 취임하여 현재에 지한 자인바 단기 4288년 8월초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행하여진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단축출데모 시위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빛나는 3·1운동, 반탁운동 휴전반대의 시위운동과 같이 국난을 극복하기,위하여 민족의 의분을 참을 길 없어 전개된 거족적

인 시위로서 그 숭고한 정신과 영광스러운 시위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시일 것이고 전시 적성감시위원단 축출 데모시위는 소위 우리 겨레가 거족적으로 반대하는 휴전협정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적성중립국감시위원단은 우리 건국의 광휘있는 역사를 무시하고 국헌을 파괴하려는 기도하에 갖은 간첩행위를 거듭하므로 우리 민족은 총결기하여 이를 전세계에 호소하고 그 죄악사는 우리 민족의 골수에 사무쳐 이를 지탄하는 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비상한 결의하에 적성감시위원단 축출데모(이하 감위축출데모라 칭함)로써 전개된 것인즉 국민된 자는 단지 그 시위의 능력과 목적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영원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감위축출데모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을 양성하거나 그 시위 전통의 목적을 모독 또는 멸시하는 소위는 우리 건국의 대본을 소란케 하는 사상을 조장하는 소인이 될 것이고 북한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지령사항에 관하여 악선전의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8년 9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 사설에서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하에 제1단 9행째에서 「모종행렬만이 아니라」 하여 감위축출데모를 지적한 다음 동 제4단 2행째에서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령 한장으로 손쉽게 동원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동단 23행째에서 「대외적 시위라면 외국인도 볼 때 한국국민의 조속에 놀라기보다 관제동원임을 먼저 깨닫게 할 것이요, 국내적 쟁기라면 대회의 효과에 앞서서 학부형들의 반감이 먼저 그 대회를 욕하게 된 것이다」라고 논술 게재하여 감위축출데모에 학생을 관제동원된 것 처럼 논술하므로 금년 9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괴뢰평양방송은 「조선중립감시위원회의 경상북도 투쟁위원회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국감시위원을 반대하는 소동에 학생을 강제로 동원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의 정전협정을 파괴하려는 흉악한 목적에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라고 악선전 케하여 적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조장케 함으로써 전시 목적사항의 실행을 전시 논지로써 자진 방조한 것이다... 라는 것인바 심안전대 피고인이 당공판정에 있어서의 피검이래 일관한 진술과 압수된 신문 일매(증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기 4288년 9월 12일경에 대구매일신문에 게재키 위하여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공판사실에 적시한 것과 같은 내용의 논설을 집필하여 동년 13일자 신문사설란에 게재한 것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의 당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인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증인 박인규에 대한 신문조서, 동 검사의 증인 김진영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들의 각진술기재에 의하면 동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에 북한괴뢰집단의 평양방송국에서 우공소사실에 적시한 것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던 것을 인정함에 족하다. 그러므로 먼저 동사설 내용을 검토한즉 피고인의 당공판정에 있어

서의 일관한 진술과 우사설(증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년 9월 10일에 대구에서 林炳禪대사를 환영함에 있어서 수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오전 7시부터 동 12시반경까지 가도에 도열시켜 염천하에 혹은 기진하여 쓰러지게 하는등 광경을 목도하고 동신문사설을 담당한 주필로서 이에 대한 일반여론을 환기시켜 그 시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우사설을 쓰기에 이른 것과 그 논설에 있어서 첫단에서는 학무당국이 현관들을 환영하는데 학생들을 주착없이 동원한다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제2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이 분명한 바 우 제2단중 「근래 학생동원에 대하여 국경일도 아닌 다른 행사에 교육을 위한 아무런 환경의 고려도 없이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중의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지령 한장으로 손쉽게 동원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또한 외국의 민족운동이나 국민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개 정열에 불타는 대학생이란 말을 들었어도 철부지한 중고생들이 그 중심부대가 되었다는 소식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아직 15·16세 정도의 미숙한 학생들은 어떤 시위나 대회의 시위하고 호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인식할 수 없으니 그들을 동원하여도 대회나 시위의 효과를 바랄수 없다. 따라서 대립적 시위라면 외국인이 볼때 한국국민의 조속에 놀래기보다 관제동원임을 깨닫게 할 것이요, 국내적 쟁기라면 대회의 효과에 앞서서 학부형들의 반감이 먼저 그 대회를 욕할 것이니 그러한 동원방법을 삼가야 할 것이다」는 것과 동 첫단 모두의 「방학중 혼련을 겸한 모중행렬」이란 각구절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시위행위에 있어서도 미숙한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실시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운동이 우공소사실에 적시된것과 같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시이고 국민된 자 단지 그 시위의 능력과 목적을 최고도로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 국법하에 있어서 이 운동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불법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사설을 집필함에 있어 우시위운동을 의혹하거나 모독하거나 또는 멸시할 목적이 있었고 또 同社說이 객관적으로 우시위운동을 의혹한것 이고 모독한 것이고 또는 멸시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단지 모든 시위운동에 있어 연소한 학생은 동원치 말라는 방법론을 제시한데 불과한 것이니 차는 하등 범법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가당한 건설적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우사설을 쓴 것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이나 또는 동집단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적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조장하는 목적사항의 실행을 자진방조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구하건대 피고인이 우사설을 쓰게 된 동기과 목적은 전기한바와 같고 그외에 피고인이 우사설을 북한괴뢰집단의 선전자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썼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설을 쓰면 우집단에서 대한민국을 악선전

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사실을 썼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빙이 없고 도리어 전기평양방송은 『서울로부터의 합동통신 보도에 의하면 대구매일신문사가 데모단의 습격을 받았다. 그 원인은 동월 14일자 동신문에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을 게재한 데 있다』고 우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악선전을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쓴 사실이 선전재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로 말미암은 테로가 그 선전재료가 된 것임을 규지 못 할바 아닐 뿐더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신문조서와 증인 허금룡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등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긍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8.15해방이래 청년운동가. 언론인 또는 경찰서장등으로서 우익진영에 분투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 그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의 실행을 방조할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은 전시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시위운동을 비판하는 것이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범죄의 증거가 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공소는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본건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기 4289년 1월 2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제1부

재판장 판사 洪南杓

" 李日彬

" 文 洋

3. 대법원판결문

판결

본적 경상북도 금릉군 조마면 신안동 650번지

주거 대구시 전동 48번지

우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적법한 상고가 있으므로 본원은 변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본 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李鎬容의 상고이유는 제1점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과급할

사실의 오인이었다. 이에 원심이 취조한 각 증거를 검토 고안컨대 피고인이 본건 사설에서 논평한 것이 감위축출데모를 현혹하거나 또는 멸시인가의 점에 관하여 감위데모를 포함한 모든 행사 및 시위에 있어 학생 동원방법에 대하여 논평한 것이고 앞으로의 학생동원에 제언이라고 인정한다 하나 본건 사설이 감위데모를 포함한 시위에 대한 논평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자인할 뿐 불시라 판시자체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이것이 학생동원에 대한 제언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여사한 표시범은 게재내용 자체의 성질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보도를 받은 우리 국민 사회상태 즉 일반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집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판단의 수준을 전문지식층에 의거하고 당시 데모가 계속되고 있던 점은 종합하지 않고 판단한 점은 사실인정에 있어 합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이 자유로운 판단이라 함은 실제적 진실발견에서 인정된 것이고 자유라 하여 재판관의 자의를 허용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자유심증주의는 「페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감상주의에 흘러서도 안될 것이고 증거의 평가는 성실상 직감적요소를 포함하나 전체로서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상의 법칙에 종하여야 되는 것이고 소박적인 것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고 과학적 경험법칙과 심증형성을 유지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본건 사설에 있어 모종 행렬이라는 것은 감위데모를 포함한 것이라고 자인하였고 이 서설적인 어절과 관제동원관계가 연관성이 있게 결부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주관적인 견해로서 일반시위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변명하더라도 국내에 적성감위가 현존하고 인접한 곳에 괴뢰정권이 감위존치를 유지코자 방해공작이 국내외에 전개되는데 이에 관련된 언론표현에는 우리 건국의 대본을 파괴기도 하는 그 목적결의를 조금이라도 강하게 정신적으로 방조케 하는 자료는 여하한 고려없이 우리 국가에 악영향이 초래된 것은 당연한 사리이며 감위데모의 본질을 지실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국시인 것을 전제로 한 본건사설이 괴뢰정권에서 악선전의 자료에 인용된 점을 보면 이복동포가 우리 민국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다는 반사적인 효과에 앞서 국내에서 축출될 운명에 놓여 있는 적성감위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정신적 소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제2점원판결은 표시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본건은 국가보안법이라 할지라도 그 구성요건적 사실이 사상에 의하여 표시된 관계로 일종의 표시범적 방조사실이 있으면 그 구성요건의 이론 충분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진방조할 의사가 없었다고 극력 범의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나 본건은 신문에 의한 표시범이므로 범의의 인용표상은 그 표현자체에 범의의 비약적표동이 있었다고 보는 동시에 그 범의표상에 있어 국가를 변란케 하려는 목적동기와 인식

은 필요치 않은 것이며 그 게재사실로 인하여 국시인 감위시위에 관련되어 의당 일정한 악영향이 과급될 것이라는 당급성을 예견하면 본건범죄에는 범의가 있다 할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牧野英一박사는 형법연구 제1권(310이하)에서 「일정한 기사를 쓰면 일정한 영향이 올 것이라고 그 게재내용이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당연 그 일정한 영향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자 견해에 의거하여도 본건표시범의 특수성격의 범의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법리를 오인한 점을 명백히 간취 할 수있고 이 점에 있어서도 그 과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3점 원심판결을 그 이유에 불비가 있어 그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원심은 본건사실이 직접 간접으로 북한괴뢰집단에 입수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다 하나 증인 朴仁圭 金振模의 증언및 판시 모두의 본년 9월 17일 공소사실에 인용한 것과 동일한 북한괴뢰집단의 평양방송사실이 존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매테로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손쳐서 백보를 양보하여도 간접적으로 입수될것 이 명백하고 그 내용에는 감위데모를 반대하는 학생을 강제동원하고 있다는 점까지 악선전한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정은 채증법칙의 위반이요, 이 이유불비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이 확실한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론사실은 피고인이 적성감위단 축출시위운동을 의혹·모독하거나 멸시할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전기 시위운동을 의혹·모독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며 단지 시위운동에 있어 연소한 학생을 동원치 말라는 건설적 의견의 제안이요, 또 설혹 전기사실의 집필발표가 북한괴뢰집단 내지 작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조장하여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함에 있는바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의 전기 확정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할 뿐 아니라 전기사실의 취의가 서상인정과 같은이상 괴뢰집단의 전기 사실 입수여부는 확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기 4289년 5월 8일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 대법관 金炳魯

대법관 金世玩(출장중 서명불능으로 재판장이 대리서명함)

대법관 金甲洙

대법관 許 璫

대법관 白漢成

V. 4·19와 地方言論

1960년 4월 19일 이 날은 우리 민족사에 찬연히 빛날 민주혁명일이다. 이승만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화 물결이 온 세상을 뒤엎게 되는 계기가 됐다. 언론도 자연 자유당정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행과 논조를 펴는 계기가 됐다.⁸⁾

허정과도정부도 동년 7월1일 군정법령 제53호를 폐기하고 「신문등 및 정당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종전까지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년 5월30일에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하여 언론제한조항이 삭제됐다. 또 6월2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언론단속조항이 삭제되었다. 민주당정부는 과도정부에서 채택된 자유주의적 언론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제2공화국치하에서 언론은 미증유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자유가 있으면 무책임이 뒤따르는 법으로 한번 풀린 자유의 고삐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하고 말았다. 해방직후 각종 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사회적 정치적 물의를 일으켰던것처럼 이때 역시 비생산적인 인신공격, 과거 들추기식의 기사로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가뜩이나 자유의 물결로 국민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선동적이고 인신공격적 제작태도로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자극시키고 흥분시켜 사회의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켰다.

주체성을 상실한 이념과 사상의 분열, 정치불만을 터뜨리는 연속된 군중들의 데모,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당정부의 허약성이 어울어져 제2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만약 언론이 군중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이성적이고 유효적절한 시대상황을 인식하도록 지도 계몽했다라면 제2공화국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더 나은 국가건설로 매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자성이 후세언론인 사이에는 일고 있었음을 기억해 봐야 할것이다.

4·19직후 대구에서 발행된 신문및 통신들은 다음 표와 같다.

8) 《大邱市史》 3, p. 700.

〈表 3-1〉

4·19후에 나타난 신문 통신

사 명	등록연월일	발 행 소	발 행 인	비 고
한 국 학 생 신 문	1960. 7. 27	칠성동 640	김 동 영	일 간
대 구 일 일 신 문	1960. 11. 21	전 동 21	李 相 祚	"
동 양 교 통 통 신	1960. 9. 10	공평동 59	金 千 守	"
대 구 일 일 통 신	1960. 7. 1	남일동 118	강 신 용	"
한국학생일일통신	1960. 9. 21	칠성동 640	金 東 永	"
영 남 매 일 통 신	1960. 10. 7	신천동 162	權 祥 寅	"
신문비판매일통신	1960. 10. 19	칠성동 640	金 東 永	"
교 육 시 보	1960. 7. 1	봉산동 7	李 鍾 德	주 간
가 톨 릭 시 보	1960. 7. 1	남산동 255	서 기 호	"
경 북 시 보	1960. 7. 1	대안동 58	辛 道 煥	"
혁 신 시 보	1960. 7. 27	동문동 9의5	鄭 寅 柱	"
한 국 노 동 신 문	1960. 8. 20	동문동 90의5	權 雲 鉉	"
대 구 시 보	1960. 9. 23	삼덕동 1가 39의18	李 相 祚	"
민 주 경 찰 신 문	1960. 10. 4	비산동 158	金 廣 烈	"
민 족 신 문	1960. 10. 17	비산동 410	朴 聲 根	주 간
주 간 대 구 신 문	1960. 10. 19	동성로 1가 53	許 全	"
산 업 노 동 신 문	1960. 10. 25	동인동 302	김 재 환	"
영 남 산 업 신 문	1960. 10. 27	남일동 34	金 容 珏	"
경 북 신 문	1960. 10. 26	남산동 351	高 義 煥	"
사 회 신 문	1960. 12. 23	태평로 1가1	金 春 燁	"
명 료 신 문	1961. 1. 23	동인동 3가 145	柳 義 濬	"
사 회 비 판 통 신	1960. 7. 1	원대동 1174	이 정 진	"

자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연감》, 1968, p. 620.

VI. 5·16以後의 言論整備

4·19이후 언론기관의 난립을 정비하기 위해 언론계는 자체정화와 윤리강령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61년 2월 한국편집인협회는 신문윤리기구 설치를 위한 각국의 자료수집과 신문 윤리위원회 창립을 위한 회칙과 윤리강령의 실천요강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4월 6일에 열린 편협정기총회서는 우선 집행부가 마련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설치안과 윤리강령 작성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놓고 그 구체적 추진은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일임했다. 그러나 언론계의 이러한 자체노력이 결실을 보기 전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군사정부는 대대적인 언론정비를 단행하게 됐다.⁹⁾

5·16은 언론계가 자체정화로 수습하려던 찰라에 일어나 타률에 의한 정비작업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말았다. 5월 23일에 공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는 신문이나 통신은 발행에 필요한 자체시설을 갖춘 것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일간지 27개, 통신 64개, 주간지 1백29개가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일간지는 24개, 통신은 없고, 주간지 1개만이 남게 됐다.(표 참조)

〈表 3-2〉 5·16후 신문·통신사 수

	지 방 일 간 지	지 방 통 신	지 방 주 간 지	계
등 록	51	64	130	245
취 소	27	64	129	220
남 은 것	24	—	1	25

혁명정부는 62년 6월 14일 신문정책 10개항목을 발표하여 조석간제를 금지하고 단간제 발행만을 허용했다. 동시에 일요일에는 모든 신문을 휴간하도록 조치했다.

이때부터 상업주의 경향의 신문과 정론지 경향의 신문이 더욱 뚜렷한 한계를 갖게 된다. 어떤 지방지는 정부의 방대한 자금지원을 받아 시설의 현대화와 언론의 기업화에 큰 공헌¹⁰⁾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 언론의 자주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반면에 독립불기, 시시비비를 부르짚던 매일신문은 정부에 대한 저항기질은 여전하여 63년 3월 사설을 휴재함으로써 군정연장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1964년 8월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사설을, 1969년에는 3선개헌반대의 사설을 실었다.

1964년 8월 공화당정부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개정 통과시켰을 때는 전국언론계와 발맞춰 대구언론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여 그 시행을 보류시켰다. 동년 8월19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위해 경북언론인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9) 鄭晉錫, 《한국언론사 연구》, p.337.

10) 《大邱市史》 3, p.702.

VII. 第5共和國의 言論統廢合

1980년의 소위 「언론 대학살」은 대구에서도 서슴없이 진행됐다. 언론대학살의 구체적 내용을 들추기 앞서 80년전반기에 들어닥친 이 사건의 진상은 어떤 것인지 「언론청문회」의 결과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한다.

언론대학살은 전통성없는 정권창출을 노린 신군부세력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신군부세력이 정권찬탈을 위해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이 일어났으며 이는 곧 바로 언론기본법 제정과 보도지침등으로 이어졌다.

1980년 언론대학살이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노린 사전계획에서 비롯됐음이 밝혀지자 해직언론인의 선정기준은 비판정신을 간직하며 전통성없는 권력탄생에 방해가 되는 기자들의 추방에 있었고 통폐합의 근본목적 역시 언론의 저항체질을 구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데 있었음이 입증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율을 가장한 엄청난 횡포가 자행됐음이 밝혀졌다.

10명 미만의 장기근속자가 이끄는 보안사언론대책반이 언론통폐합의 실무진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언론대책반은 청문회서 보안사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지만 대책반요원과 당시 보안사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상당부분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보안사 언론대책반은 해직언론인 명단작성을 전달했고 통폐합과정에서도 물리적 강제력을 제공했음이 확인됐다.

보안사 장기근속자를 주축으로 10명미만의 언론대책반이 한나라의 언론구조를 개편하는 주역을 맡았다는 것은 한국 언론사의 최대치부로 기록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추진한 통폐합공작은 1980년 5월 17일이후 1980년말까지 언론인구속, 기자해직, 정기간행물폐간, 언론기관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등 일련의 언론말살정책으로 이어졌던 극비의 언론 장악작전이었다.

이 결과 711명의 언론인이 해직되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이 폐간됐으며 44개의 언론기관이 통합되는 등의 대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언론 초토화작전에서 그들은 부패언론인, 시국관이 잘못된 언론인, 언론검열거부와 제작거부에 앞장선 언론인의 숙정기준에 의거 1980년 7월말부터 작업에 착수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사이비기자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결국 1980년 8월중순께 기자강제해직작업을 모두 매듭짓고 전국에서 711명, 대구·경북에서는 34명의 기자가 일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매일신문 6명, 영남일보 19명, 대구MBC 2명, 기독교방송 3명, 포항KBS 2명, 포항MBC 2명이었다.

언론학살팀은 해직기자로만 만족치 않고 11월초에 들면서 통폐합작전을 시작했다. 언론대

책반은 이미 통폐합지침을 마련, 지방언론은 일도일사로 하고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소속기자의 자질등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통폐합반은 보안사의 각 지역보안대를 비롯 안기부, 경찰등에서 올린 자료를 토대로 1980년 11월 25일 통폐합결과를 통고했으며 대구·경북권은 영남일보의 폐간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영남일보는 1980년 11월 25일자로 폐간되고 대구매일신문에 흡수된 결과를 놓고 말았다. 영남일보가 폐간된 사실을 두고 국회청문회등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영남일보가 대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중의 하나 인데 대매에 흡수된 것은 대매측의 신군부에 대한 막후로비에 힘입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실례로 1988년 11월 22일 국회언론청문회에 나온 전 영남일보사장 이재필씨의 증언을 들어보자¹¹⁾ 이날 민주당의 강삼재의원이 이증인에게 심문하기를

— 영남일보는 언제 창간됐고 또 대구매일신문의 창간은 언제인가.

△ 영남일보는 1945년 10월 11일에 창간된 신문으로 서울에 있는 몇개 신문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졌고 대구매일은 1950년에 창간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른바 언론대학살때 영남일보는 몇명이나 해직됐는가.

△ 19명이다.

— 증인이 해직시켰는가.

△ 당시 우리 회사에 출입하던 보안사 요원이 와서 편집국장과 중역들에게 명단을 제시하며 강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 19명 명단을 주면서 해직을 요구했는가.

△ 한꺼번에 19명 명단을 준것이 아니라 3~4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다.

— 당시 보안대요원의 성명을 달수 있는가.

△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않겠다.

— 1980년 11월 12일 대구상의 박윤갑회장으로부터 통폐합 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 그렇다.

— 뭐라고 하던가.

△ 통폐합얘기는 8월부터 나왔다. 영남일보는 유일하게 편집국장이 해직되었다. 당시 사장

11) 《韓國日報》, 1988년 11월 22일자.

인 본인은 편집국장을 해직토록 요구한 보안사의 조치에 대해 참을 수가 없어 한때 보안사 대구대장을 지낸바 있는 정도영보안사처장을 찾아가 구명운동을 펴기도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 증인이 11월 12일밤에 서울자택에서 편집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 △ 대구보안대장실에서 편집국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 그날밤 자정께 보안사로 가서 폐간각서를 작성했는가.
- △ 자정무렵 불려가서 과장이란 자가 포기각서 원본을 내놓고 서명을 요구해서 4~5시간 버티었다. 내손으로 쓸수 없다고 버티자 보좌관이란 한 젊은이가 대필을 해줘 서명을 했더니 보안사 지프로 새벽 우리집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었다.
- 언론 통폐합은 전혀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란 말인가.
- △ 그렇다. 강요에 의해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한편 뒤이어 崔珏圭(공화)의원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이재필씨에게) 적정보상을 받았는가.
- △ 광주의 경우 51대 49로 통합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매일과 영남일보가 1백대0으로 통합했다. 일도일사가 국가이익에 도움된다는 논리에 따라 순응할 수도 있는 문제이나 이런 무원칙에 더욱 통분을 느꼈다.

이 같이 영남일보측은 무원칙한 통합에 대해 격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대구매일신문측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¹²⁾ 대매는 일부 주장처럼 신군부세력에 대한 막후로비를 통해 명맥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사전에 세월둔 통폐합지침에 의거 존속케 됐다」는 것이다. 정권안보의 사활을 언론계 장악에 두고 있던 신군부세력들이 추진한 언론통폐합작전은 극비중에서도 극비작전이었다. 같은 보안사내에서도 통폐합팀들의 움직임을 베일에 가려질 만큼 비밀이었다는 당시 관련자들의 얘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언론통폐합이나 기자해직등에 대해서는 통지받는 당일까지 담당자들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엇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로비를 어떻게 벌일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도 쉽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당시 관련자들에 의해서 일부 밝혀진 진실은 매일신문의 폐간이 상당히 깊숙하게 논의됐었다는 것이다. 당시 통폐합의 권한을 주

12) 《毎日新聞》, 1988년 12월 14일자.

도적으로 행사했다고 보여지는 權正達 및 李相宰씨는 원칙적으로 매일에 대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자유당정권 말기에 정론직필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매일은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에게는 눈의 가시같은 존재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새 정권하에서는 매일이 직필을 휘두를 경우 「가톨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골치 아파지니 이 기회에 아예 폐간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때 매일이 폐간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이들 핵심세력들의 대 매일 증오감은 엄청난 사세의 차이라는 객관적 사실앞에서 어쩔수 없이 매일존속－영남폐간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의 자료들은 군부핵심세력들이 8월 초순께 영남폐간의 원칙을 세우고 영남측이 이 원칙을 거부할 경우 검찰권 발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아래 내사에 들어 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영남의 폐간에 따르는 뒷처리 문제이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영남은 매일에 주식비율 100으로 강제폐간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도일사의 원칙아래 존속되지 못하는 회사는 폐간되는 것이 당시의 기본 방침이었던 만큼 여기서 주식비율 운운의 표현은 당시상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한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가 「통합」될 경우에만 주식이 배당되는 것이 폐간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에 의해 영남폐간 조치가 인력과 자재흡수 이전에 단행됨으로써 영남의 존속은 이미 사라진 것이며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이때 해직된 기자는 인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제지침에 따라 매일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142명의 영남인력을 흡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때 매일은 인력 및 시설기자재를 적정수준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영남인력을 흡수하라는 당국의 강요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영남인력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시설기자재까지 싯가보다 월등하게 고가(1억 6천 7백 2만 6천원)로 매입, 그 자리서 10분의1 남짓한 고철값(1천 9백 46만 5천 4백 50원)으로 팔아 넘기는 부담을 겪어야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대구 서문로의 영남일보사옥등 부동산은 인수치 않았는데 이는 양사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요는 일도일사라는 원칙을 내세워 폐간을 강행한 신군부세력에 책임이 있는것이며 매일은 오히려 똑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 놓였었다는 것이다. 단지 신군부세력이 당시 내세운 기준 즉 △재무구조 △경영상태 △기자자질등 객관적여건으로 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1980년 12월 영남의 인력을 흡수한 뒤 대매(이 때 매일의 제호가 대매로 바뀜)의 경영상태는 상당기간동안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과다하게 인수한 142명의 인건비 부담이 3천4백62만4백원으로 56%나 증가됐고 불필요한 인쇄시설 및 기자재대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영남폐간으로 증가한 발행부수는 6천부¹³⁾ 남짓했다는 것. 광고 수입면에서는 다소 이익이 있었지만 손익면에서 실질적인 흑자를 기록한 것은 흡수 4년만인 1984년께부터였다고 한다.

어떻든 향토의 2대일간지였던 영남이 신군부세력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된 것은 향토언론발전이란 측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일반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었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폐간당시(1980년 11월 25일) 영남은 슬픔과 아쉬움을 못이겨 1면을 통해 고별사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백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고별합니다」라는 제목아래

(一) 영남일보는 오늘로써 5백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이별하는 고별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스럽고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4일에 열린 한국신문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일도일지등 7개항의 결의에 따라 영남일보는 오늘 11월 25일자로 종별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돼서 착잡한 심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 있어서 영남일보가 우리 신문을 아껴 주셨고 또 채찍질 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날을 회고하여 그 발자취를 정리해 두려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15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이란 짧지 않는 세월을 「영남일보」라는 제호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여러분과 얼키고 설키면서 살아 온 그 정을 생각할 때 「영남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그것만으로도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35년이라면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는 외국의 신문들에 비교하여 오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80년의 파란만장했던 신문사에서 본다면 결코 짧은 역사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아·조선을 빼고 난 어느 신문도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령를 거듭하기 1만1천4백99호 그 어느날의 지면을 내보아도 국가시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낙과 고를 함께 하여 이의 전진과 발전을 바라는 충정이 가득 찬 봉사의 사명을 소홀한 곳이 없었다는

13) 영남인들은 영남일보가 폐간될 당시 실질 유가부수가 5만부는 됐다고 주장한다.

것을 자부할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방위했고 민주를 수호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발자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二) 신문의 보도와 논평이 하루만의 눈앞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치는 것일 수가 없음은 모든 언론인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국가 민족의 수백년의 앞날을 내다보아 현실과 미래를 조화시키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문의 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현실과 맞섬하면서 미래의 이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도에 비추어 생각할 때 영남일보가 견지해 온 태도와 방향은 올바르고 당당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시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신속보도 직필정론 산업건설 통일촉진」이 민족과 사회의 뜻을 신문의 뜻으로 표현했던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뜻을 가장 잘 살려온 것이 영남일보였고 그 정신이 기사의 행간마다 넘치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격심한 좌우대립의 물결속에서 의연한 민족지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반공과 안보를 잊지 않으면서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사회의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언론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영남일보였습니다.

6·25동란때는 국토방위와 북진반격에 어느 신문보다 큰 공적을 남긴 것이 영남일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밀어닥친 수십만의 피난민에게 패배의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우엔군과 함께 전투하는 국군장병에게 반격의 용기를 고무하기 위해 희망과 격려에 찬 보도로써 군관 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희생제로서의 영남일보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아침 영남일보!」를 목마르게 기다린 것이 피난민들이었고 손바닥만한 신문이었으나 그것을 목을 길게 하여 기다린 것이 전선의 국군장병이었습니다.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는 장병의 손에는 영남일보가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지들이 후퇴를 해서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침략군을 격퇴하는 반격의 기지에서 보도와 논설을 통해 군민의 진격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국가보위의 거대한 사명을 다 했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三) 1945년 10월 해방의 기쁨에 피끓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열렬한 욕구를 받아들여 창간한 것이 영남일보였습니다. 한글 활자도 없고 인쇄시설도 없는 일제가 짓밟아 놓은 황무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영성한 지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시작 한것이 오늘과 같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신문으로 자라왔던 것입니다.

10여인의 동인제로 발족한 것이 곧 주식회사로 개편되었고 2백여명의 지역사회의 지도급인사가 주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영남일보가 전체 대구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정수로서 이곳의 뜻을 대표하는 신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2백여명의 지도급인 사라면 이 사회의 총의가 망라된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좌우의 대립이 격심한때 였습니다. 좌우익이 격돌하는 와중에서 본연의 자세를 지니면서 사명을 다 하기는 어려운 일이였습니다마는 영남일보의 창간의 초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시대적 요구인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정의화의 구현을 기면서 통일의 뜻과 그 방향을 그때마다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4·19의 민권투쟁을 겪는 등 몇차례의 충격을 당하는 간난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李淳熙사장이 사를 맡게 된뒤 본기업이었던 내외방적을 희생해 가면서 평생사업으로서 신문을 키워나갈 결심을 자주 천명했던 것이고 민족의 뜻인 통일과업 달성의 주춧돌의 하나가 되기를 소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사원들 귀에 아직도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작고하신 일은 통한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5년의 영남일보사(史)에서 이미 작고한 회장·사장으로 金宜均·金泳甫·朴魯益·李源璣씨 등이 있고 값진 청춘을 여기에다 투입하여 이제는 백발만 남은 사우가 많음도 잊을 수가 없는 일임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영남일보도 가난한 길의 연속이였습니다마는 현재의 진용으로 개편한 뒤의 영남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일로서 사세가 날로 확대되고 지면이 더욱 빛나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서 부수 광고의 신장에 놀랄 만한 발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알찬 지면과 알찬 경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운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내일이 약속되는 중흥과 약진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四) 이시간부터 영남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이 또 다시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라는 제호밑에서 생각할 때 실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선가 「始가 있으면 終이 있고 本이 있으면 末이 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류사회가 생성한 이래 영원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생명이 억조년을 지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역시 언제인가는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자연과학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문의 제호가 시공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것은 始가 있는 뒤에 오는 終이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이러한 고별의 인사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남일보의 폐간은 1980년 11월 25일이었고 매일신문에 흡수된 날은 동년 12월 1일이다.

매일은 이날자부터 매일신문에서 「대구매일신문」으로 改題됐는데, 1면사고를 통해 『본지는 12월 1일부터 새 제호「대구매일신문」으로 발행합니다. 한국신문협회 결의에 따라 본지는 30년 동안 써온 제호 「매일신문」을 개제하오니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경북의 유일한 신문인 「대구매일신문」을 더욱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본지는 영남일보 흡수원칙에 따라 동종업원중 비사원등을 제외한 1백56명 전원을 12월 1일자로 받아들였으며, 인쇄시설은 현재 진행중인 감정이 끝나는 대로 인수함을 밝혀 둡니다』

뒤 이어 대구매일신문은 사설 「제호를 바꾸면서 -무거운 책임감 앞에 독자의 성원을-」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이 그 뜻을 쓰고 있다.

(一) 매일신문이 12월 1일자부터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되어 발행된다. 매일신문에 「대구」라는 지역표시가 붙어 나오지만 여태까지의 논조나 지면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자들도 알고 있다시피 언론의 통폐합 결의에 따라 영남일보가 매일신문에 흡수되어 발행될 뿐이다.

두종류의 신문이 하나로 흡수통합되어 제호가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제작진이나 독자에게 다소 복고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왜냐 하면 1960년 7월 7일 이전까지는 「대구매일신문(대매)」으로 발행 돼왔기 때문에 그때의 인상이 향수처럼 마음속에 와닿기 까닭에서이다. 많은 독자들은 「매일신문」으로 개제된뒤에도 계속 그때의 이름 그대로 「대매」로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대매시대로 환원되었으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그때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건 아니다. 영남일보의 부수가 합쳐질뿐 아니라 많은 사원도 흡수되어 그야말로 대단 위 신문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은 건축단계에 있으나 11층의 새 사옥이 완성되고 새로 도입한 윤전기가 가동되면 대매가 지역사회에 투영할 발자취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언론매체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1980년 12월 1일은 30년역사의 본지제작에 하나의 「에포크」를 긋는 날이 될것이다. 그 동안 독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일취월장의 진보를 하여 왔고 이 나라 이 지역의 문화창달에 커다란 공헌을 했음을 자부한다. 거기다 힘찬 사세를 가편하여 어느 지방의 신문보다 알차고 신속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앞장설 계기가 마련되고 보니 대구의 언론사에 신기원을 획하는 날이 안될 수 없는 것이다.

(二) 대매의 이런 가능성앞에 사원일동은 조금도 자만하거나 독선의 사고를 가지지 않는다. 자칫 경쟁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만에 빠지거나 독선의 위험에 부닥치기 쉽다. 그러나 대매가

처한 역사적 위치나 시대적 좌표를 인식할 때 결코 퇴영적이고 독단적이며 고식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항상 겸허하게 앞뒤를 돌아 보아 약한 곳은 보완하고 강한 곳은 연화시키는 그야말로 사회의 소금역할을 아끼지 않아야 할 각오인 것이다.

흔히 사회의 공기구실을 하는 신문의 존재의의에 대해 회의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언론이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가 하고. 꼭히 신문의 역할을 교과서처럼 열거할 수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어떠 어떠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독자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말해서 소임을 다 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없다. 독자의 감시안을 용감하게 맞쳐다 볼 수있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신문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비슷한 것이었다.

언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또 사회를 계몽하고 편달한 점도 수긍해야 한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경영내용도 충실치 못한 신문사도 있었고 일부재벌이 자기네 사업의 방패로 이용한 일도 있었으며 과다한 경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일도 많았다. 이런 점을 광정하고 새시대 새물결에 호응하기 위해 언론의 자체정비의 소리가 높았고 그 구체적인 결론이 바로 통폐합형태로 우리앞에 부각되어 나온 것이다. 이런 역사적 추이를 감안할 때 언론인의 사명은 크고도 막중한 것이다.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동업지 영남일보의 종간은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독자들과 호흡을 같이 했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남긴 정치적·문화적 업적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더러는 시민과 같이 울고 때로는 웃어 주기도 한 동반자의 구실을 해온 것이다. 이 신문을 오래 애독한 많은 시민은 친한 벗과 헤어지는 순간처럼 섭섭하고 애타는 심정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가관소년의 메아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기약도 없이 먼길을 떠나버린 향토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가눌길 없으리라.

(三) 그러나 영남일보가 종간사에서 밝혔다 싶이「시가 있으면 종이 있고 본이 있으면 말이 있는」것이다. 「인류사회가 생성한 이래 영원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 신문의 제호가 시공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것은 시가 있는 뒤에 오는 종이라 믿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철리를 기초삼아 오늘의 진행을 회의의 눈이 아닌 수궁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종간된 신문을 이해하고 위무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대매의 역할과 책무는 그러므로 더욱 광범하고 무겁다. 두가지 신문이 맡았던 역무를 한 신문이 맡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매의 종사자는 항상 새롭고 유익한 내용을 신문에 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할 것이다. 자칫하면 나태하고 옹졸하기 쉬운 독점지의

단점을 언제나 반성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싱싱하고 알찬 보도를 독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을 약속한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언제나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후퇴와 실패는 없을 줄로 안다. 주마가편격으로 독자제위의 끊임없는 관심과 독려가 뒤따라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80년 12월 1일은 「대매」의 재탄생일로 길이 새겨 역사속에서도 도도히, 그리고 면면히 흘러 갈것을 독자와 아울러 기대해 마지 않는다.

VIII. 第6共以後의 大邱言論界(復刊 및 新生新聞)

1. 영남일보

이 신문은 1945년 10월 11일 해방이후 가장 먼저 창간된 신문중의 하나이다. 어느 개인이나 특정재단이 아닌 순수민간자본에 의해 발행되어 지역공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향토대변지였다. 영남일보가 복간된 이후 그의 발자취를 소개한 특집¹⁴⁾을 통해 창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면을 훑어보자.

『지역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지 48년, 그리고 인내와 도약, 희망의 4년이였다. 19일로 영남일보가 창간48주년, 복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5년 10월 11일 해방후 지방신문으로서는 꽤 빨리 창간된 영남일보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사 강제통폐합조치에 따라 폐간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9년 뒤인 1989년 4월 19일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복간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긴 세월만큼이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영남일보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해방의 기쁨에 들떠 있던 1945년 10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열렬한 요구를 받아들여 창간한 것이 영남일보였다. 10여인의 同人制로 발족한 것이 곧 주식회사로 개편되었고 좌우의 대립이 격심한 와중에서도 언론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대적요구인 정치의 민주화, 사회정의의 구현을 소리높이 외쳤다. 이 같은 편집방향은 곧 독자들의 지지를 받아 영남일보는 순조롭게 발전해 갔다. 1946년 3월 3일에는 자매지인 주간 「영남경제신문」이 창간되어 상당기간 발행되었다. 창간과 더불어 영남일보는 가난과 무지, 허탈감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각종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우선 해외동포를 구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영남일보 민단구호사업」을 실시했으며 문맹퇴치사업도 전개, 기자들로 조직된 國民皆學추진대를 경북도내 곳곳에 파견했다.

14) 《嶺南日報》, 1993년 4월 19일자 12·13면.

그러나 우리의 지난 역사가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못했듯이 영남일보도 강제폐간이라는 큰 시련을 겪는다.

10·26이후 무대 뒤편에서 나타난 신군부는 정권장악을 위해 언론에 탄압을 가하고 있었다.

80년 7월 언론통폐합설이 언론가에 흘러 나오자 언론은 제빨리 「충성경쟁」에 돌입, 새로운 권력의 주인공들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재권력을 거부하는 대구 경북민들의 애타는 갈구에 발맞춰 창간 이래 자유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영남일보는 신군부에 의연히 맞섰다.

유신말기 다른 신문에서 미온적으로 다루었던 吳元春씨 사건을 사회면 6단기사 또는 박스 기사로 게재하였고 金泳三총재의 의원제명 기사를 집중보도하였다. 10·26이후에는 당시 금기시되었던 金大中씨를 기사화함으로써 뒷날 강제해직사태 때 이 기사를 취재한 崔榮一기자가 해직되는 원인이 되었다. 광주민주화항쟁은 삼엄한 계엄령하에서도 무자비한 학살의 의미를 전달해 주려 노력함으로써 독자의 격려를 받았으나 신군부의 미움을 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영남일보는 1980년 11월 25일 지령 11,499호를 마지막으로 신군부에 의해 통한의 통폐합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걷다 희생양이던 영남일보는 9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을 딛고 다시 태어났다.

6공화국 들어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물결속에 지역민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1989년 4월 19일 지령 11,500호로 복간되었다. 통폐합 당시의 직원 대부분이 다시 모여 명실상부한 지역대변지로서 다시 일어선 것이다. 향토기업 갑을이 인수한 영남일보는 최첨단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대폭적인 지면혁신을 꾀해 전국의 창·복간신문가운데 가장 알찬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4월에는 녹색바탕에 한글과 영문으로 된 현재의 제호로 바뀌 급변하는 시대상에 발 맞추려는 의지를 새겼다.

이와 함께 1994년에는 현 대구시 서구 원대3가 1124의 임시사옥에서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1 동대구로에 위치한 영남타워의 새사옥으로 옮겨 갈 계획이다. 750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8천2백30평, 지하 3층, 지상 24층의 매머드사옥이다.

복간이후 이 같은 외적성장과 함께 질적향상도 돋보인다. 1991년 하반기에 지방지 최초로 24면 컬러 합쇄판 발행에 들어간 영남일보는 현재 매일 28~32면의 알찬 지면과 함께 매주 목요일에 타블로이드판 32면의 「주말영남」을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간과 복간을 통해 48년간 이어온 영남일보, 그 발전의 역사는 곧 우리 지역의 역사이며 우리언론의 역사이다. 지역민들의 성원속에 참다운 언론을 구현하고자 한 48년, 해방동일로 태어나 6·25, 4·19, 5·16, 10·26, 5·17, 폐간, 복간에 이르기까지 영남일보는 항상 역

사의 현장에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 왔다.

지난 1989년 4월 19일 복간호에서 영남일보는 「독자와 우리 향토가 추구하는 이상과 해결해야 할 난제를 실현하고 대답하는 길이 되고, 마당이 되고 공기가 될 것」과 「영남민과 우리 지역이 이룩한 빛나는 성취와,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적응해야 할 새시대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가를 모색, 실현하는 향토공동체의 公器로 영남일보의 기능을 다 하겠다」고 독자에게 약속했다.

그 정신에 따라 앞으로도 영남일보는 항상 독자곁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참다운 언론문화를 가꿔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영남일보는 1989년 4월 19일 복간하여 1994년 7월 1일현재 호수 13,093호를 발간하면서 지역언론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회장 朴昌鎬, 발행인 韓明煥, 편집인 金相台, 논설주간 朴容圭, 편집국장 皇甫武一씨가 신문제작에 책임을 맡고 있다.

2. 대구일보

이 신문은 1989년 11월 1일 창간된 신문으로 여러 고비의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1994년 9월 현재 착실한 지역언론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창간4주년에 실린 「대구일보의 발자취」이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에 결탁하지 않고 어렵지만 올곧게 걸어 온 4년. 창간 4돌을 맞는 대구일보는 지방신문으로의 고집스런 편집과 지역민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활동, 큰 역사의 흐름에서 지역을 반추해 미래를 제시하는 지역의 여론메카로 굳건한 자리를 잡았다.

1989년 11월 1일 흑백 12면으로 시작된 순수 지방지 1호를 발간한 대구일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독일 MAN PLAMAG사 제작의 CROMOSET옵셀컬러 윤전기의 본격가동으로 획기적인 제2도약기를 맞게 된다.

또한 내년말께 완공되는 지하3층 지상12층의 매머드 신축사옥 준공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른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제8기까지 진행돼 온 공채의 제도화, 매주 1회씩 개최되는 편집국 연구모임을 비롯한 교육시스템, 하루 한번씩 실시되는 부서원들의 자유토론등 지방언론이 나아가야 할 실험적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문화행사에서 소외를 받아 온 대구·경북지역의 문화불모지에 주도적인 각종 문화행사로 지역정서의 상향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 주최한 행사만 해도 지난 9월 15일 감동의 밤을 엮어내 갈채를 받았던 Cho Trio(조영방·영창·영미)의 공연을 비롯, 천사의 소리로 찬사를 받고 있는 구 레닐그라드(페테르 브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등 크게 관심을 모았던 세계적인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12월에는 연변가무단의 대구공연으로 중국에 뻗힌 우리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게 됐고 일생의 감동으로 격찬받는 레링그라드의 공연, 「교향곡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념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급하지도 늦지도 않는 야무진 걸음으로 나아가는 대구일보는 지난 9월 25일 중국동포의 최대신문인 「길림신문」과 자매결연을 맺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를 통해 먼저 연변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는 경상도출신 동포들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다.

양대방송사와 함께 벌이기로 된 이 계획에 따라 벌써부터 중국동포들의 애절한 사연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중국처녀-농촌총각 맺어주기」 사업도 함께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세부적방침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봄날 얼음 밀물같은 우리민족의 동일체의식을 심기 위해 연변동포와의 각종 연수교육, 문화교환행사, 역사탐방 등 모범적인 지방신문간의 국제적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민의 이해대변이 집단이기주의로 퇴락하는 오류를 거부하는 대구일보는 민족의 족쇄가 돼 온 지역감정을 부수기 위해 영·호남 화합의 장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말에는 제1회 「영·호남 바둑대회」를 열어 「소백산맥」의 높이만큼이나 큰 감정의 벽을 허무는데 첫발을 딛는다.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원의사를 표명했으며 시상도 「문교부장관배」로 격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구일보는 어둡고 혼탁한 곳을 비추기만 하는 기성의 언론형태를 답습하지 않고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의 손을 맞잡은채 비를 들어 청소해나가는 지역의 우뚝 솟은 참된 지방언론의 역할을 자임 할 것이다.¹⁵⁾

서광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구일보는 1993년 11월현재 회장에 朴東植, 사장에 申海澈, 전무에 金有信, 이사겸 편집국장에 孫錫琦, 이사겸 업무국장에 李哲등 제씨가 신문경영 및

15) 《대구일보》, 1993년 11월 1일자 14면.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일보의 설립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 사 연 혁

- 1989. 6. 2. (주) 大日新聞社 회사설립
자본금 50,000,000원
- 1989. 7. 26. 공보처 정기간행물 등록필(일간신문 등록번호 가-88호)
- 1989. 8. 24. 제1대 대표이사 金恪鉉 취임
- 1989. 11. 1. 大邱日報 창간(흑백 12면 발행)
- 1990. 3. 20. 제2대 대표이사 高義植 취임
- 1990. 6. 27. (주)大邱新聞社로 상호변경
- 1991. 2. 26. 제3대 대표이사 朴東植 취임
- 1991. 9. 28. 제4대 대표이사 朴權欽 취임
- 1991. 12. 22. 자본금 200,000,000원으로 증자
- 1991. 12. 29. 자본금 600,000,000원으로 증자
- 1992. 1. 5. 흑백 16면 증면 발행
- 1992. 11. 1. 대구일보 신축사옥 공사 착공
(대구시 동구 신천동 81-2번지 연건평 3,000평 15층)
- 1992. 11. 20. (주)大邱日報社로 상호변경
- 1993. 5. 27. 제5대 대표이사 申海澈 취임
- 1993. 8. 7. 독일제 CROMOSET컬러 윤전기 도입계약 체결(컬러 24면용)

3. 경북일보

경북일보가 창간호를 낸 것은 1988년 7월 30일자이다.

1980년까지 대구에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일간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었다. 1980년 5공화국정부가 신군부에 의해 수립되면서 신군부 세력은 「1시·도 1신문」이란 언론정책을 내걸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흡수 통폐합, 대구에는 「매일신문」 제호의 일간지만 남게 했다.

이후 6공화국정권의 들어서기까지 대구에는 매일신문이 유일한 활자언론매체로 존재해야만 했다.

이 시기는 자유당 독재와 맞서 왔고 5·16군사정권세력도 비판해 왔던 경력을 가진 매일신문도 제대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힘드는 암울했던 때였다.

이 같은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매일신문 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때 6공화국을 맞게 되어 정부의 언론정책이 다소 완화, 「1시도 1사」의 통제적 언론정책이 폐지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신문이 경북일보였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 창간된 경북일보는 한때 대구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에게 신선하게 비쳐져 환영을 받았다.

영남일보 출신이었던 安有鎬씨에 의해 1987년 11월 16일 주식회사 경북일보사의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동월 20일 동구신천동 동양고속빌딩 402호에 설립준비위원회사무실이 개설되어 주식공모에 들어가 이듬해인 1988년 7월 30일에 창간호를 내었다.

대구시 북구 대현1동 229의 1 오복예식장의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하여 창간 발행되기 시작한 경북일보의 초대 편집국장에는 전대구일보(1972년 4월 1일 폐간) 편집국장이었던 金文大씨가 영입됐고 裴孝德, 李吉容, 金楨運, 申成求, 金喆升, 李哲, 禹石泰, 李鍾文씨등이 편집, 광고, 업무, 공무, 판매등을 맡으며 참여했으며 李源栽씨 (당시 KDI경북지부장)등도 비상임논설진으로 위촉되었다.

이렇게 서둘러 발족한 경북일보사는 신문창간과 더불어 많은 문제가 노출돼 그 진통이 오래 계속되어왔다.

그 첫째가 인력문제였다. 한국언론사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5공화국 8년여 기간동안 대구에는 유일한 활자 언론매체가 매일신문으로 기자직종 육성은 매일신문만의 독점이 되어 기자가 양성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일보가 창간될 시점에서 전국에는 우후죽순처럼 신생 신문사가 창간되었기 때문에 경력기자의 절대수가 부족했다.

경북일보도 창간과 함께 인력난을 겪어야만 했다. 1기 사원을 공채했으나 10여명 내외의 경험없는 기자로서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경력기자를 수시 채용하면서 경북일보사 주식을 일부 사원에게 인수시킨 것이 문제가 돼 이들 주주사원의 문제는 오래 해결을 두고 논란이 되어왔다.

또한 자금사정도 문제였다. 이 문제는 신생 신문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으로 경북일보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기 경북일보 경영주 安有鎬씨도 경영과정에 자금에 무리가 따라 끝내 퇴진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경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안씨가 1988년 12월 퇴진하고 이듬해 1월 신일전문대학 창설자이며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申鎭洙씨가 경북일보를 인수 학교법인 신일학원(신일전문대 재단)이사장 고흥석씨가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고 다시 동년 4월에는 신일전문대 부학장 金良浩씨가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경북일보는 안정을 찾아 공무시설을 컴퓨터화하는 한편 편집진을 쇄신, 前영남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역임한 申東潤씨를 편집국장에 영입했고 1990년 11월에는 대구시 동구 효목동 286번지에 사옥을 신축 이전하고 이해 12월 1일을 기해 석간에서 조간으로 변경발행을 단행하는 한편 종래 12면이던 지면을 16면으로 증면하며 제2창간을 선언하는등 사세를 넓혀갔다.

또한 1991년 7월에는 창간3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으로 「포토경북」(월간제)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해 12월에는 일본으로 부터 「하마다크라우너」 윤전기를 도입 색도인쇄를 기했으며 이와 함께 일부지사의 조직을 개편, 경주지사를 동부지역본부로 상주·안동지사도 중부지역본부와 북부지역본부로 각각 승격시키는 한편 본사에 기동취재반을 편성 취재에 원할을 기했다. 또 1992년 1월 고흥석 전사장을 재영입하면서 동년 4월 주말경북을 발행했고 10월에는 또 하나의 일간지 대구·경북경제신문을 창간했으며 1993년 2월에는 20면으로 증면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세확장은 자금이 필수조건이나 이 과정에서 신일전문대학의 교자금을 경북일보사에 전용한 것이 문제되어 문민정부하의 사정바람에 휩쓸려 동년 7월 실질적인 사주 申鎭洙씨가 구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영진은 감량경영을 위해 대구·경북경제신문, 주말경북, 포토경북을 휴간하고 280여명에 이르던 인원도 160여명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경북일보마저 발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4.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993년 9월 11일까지 불과 9개월만에 문을 닫은 단명신문이다.

언론자유화 이후 많은 신문들이 새로 태어 났으나 경상매일신문은 창간 준비과정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창간 후에도 실사주가 드러나지 않는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약간은 별난 신문이기도 했다.

폐간 임박해서야 창간과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지역 모방송국 기자로 재직중인 K씨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K씨는 1992년초 친분이 있는 지역 중소사업자 3~4명을 규합, 3억원규모의 자본금으로 신문사 설립을 계획하고 연극인 李泌東씨에게 실무책임을 맡겼다고 알려졌다.

이씨등 실무진들은 2월 27일 창간 준비위원회를 구성, 대구시 서구 원대2가 98-5 3층건물을 사옥으로 임대하는 한편 윤전기등 시설을 갖추고 9월 21일 공보처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쳤다.

그해 10월 16일 지역 일간지에 창간안내와 사원모집을 겸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진 경상매일은 기존 경북일보·대구일보 출신을 주축으로 1백20여명의 직원들을 뽑고 편집국장에는 경북일보 편집부국장 金楨運씨를 임명했다.

특이한 것은 창간 준비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던 李泌東씨가 창간 직전에 문화부장대우로 내려 앉고 매일신문 경제부장 李圭益씨를 대표이사 사장에 새로 영입한 인사였다. 그러나 그 인사권자는 베일에 쌓여 직원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보안이 유지됐다.

1992년 12월 7일 창간를 낸 경상매일은 대표이사 李圭益씨의 창간사를 통해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닌 꼭 있어야 할 신문, 이제까지의 신문과 전혀 다른 신문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앞뒀던 컬러, 16면체제로 발행된 경상매일은 매킨토시 기종을 도입, 1백% 실현되진 않았으나 CTS에 의한 풀 페이지네이션(Full Pagenation)편집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 신생 지방신문사들 보다 직원 급여를 비교적 높게 책정(기자 초임 70만원선)한 것 등에서 다소 신선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드러나 있는 약체 주주·이사진들은 눈가림용이고 배후에는 막강한 실력자가 포진해 있다는 풍설을 낳게 했다.

소문을 사실화하기라도 하듯 1993년 3월 초순 金斗煥 전대통령의 실제 金敬煥 전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경상매일신문사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일부신문에 보도돼 시중에 화제를 몰고 왔다.

그러나 전씨의 회장취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산되긴 했으나 전씨의 신문사 인수와 회장 취임설은 관계자들의 애기와 사옥내 회장실을 긴급히 만들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거의 실현단계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정바람 등 시국의 미묘함 때문에 전씨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인 경상매일 창간이 애초부터 전씨의 의중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씨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빈약한 자본과 영세 주주들로 지탱해온 경상매일은 급격한 자금난에 빠져 들었다.

·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실상의 배후 주역으로 알려진 K씨는 신문사와의 관계를 끊었고 6월분 급여 체불을 시작으로 자금회전은 거의 마비상태가 됐다.

결국 대표이사 이씨가 잠적한 상태에서 8월 16일 부도가 터진다.

전씨 회장 취임 무산과 경영 악화를 기점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인수자를 물색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2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채와 회사 내외의 분위기등이 걸림돌이 돼 성사되지 못한다.

부도 발생 이후에는 주재기자들이 1백만~2백만원씩의 성금을 모아 12~8면 발행을 계속 하면서 자구노력을 쏟기도 했으나 본사가 와해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역시 역부족일수 밖에 없었다.

9월 11일로 마지막 신문에 휴·폐간사 또는 안내문조차 실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경상매일은 휴간되고 말았다.

짧은 해프닝처럼 끝난 경상매일의 운명은 빈약한 자본, 무모한 계획으로 창간된 신문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IX. 大邱의 言論關係事件

대구언론계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커다란 필화사건은 대구매일필화사건(전술 제4장)으로 이미 논술했다. 이 사건은 다시 요약하자면 1955년 9월 13일자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崔錫采주필의 사설이 발단이 돼 대구언론계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계로 비화,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1956년 5월 8일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테러범 金鍾洙(당시 37세 전경찰관), 崔明洙(당시 22세서울모신문사 경북지사사원), 金潤廷(26세 무직) 등을 특수주거침입손괴 업무방해 절도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나중 공판에 회부돼 金鍾洙는 징역 8월, 崔明洙·金潤廷은 징역 6월이 선고됐지만 신병을 이유로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최주필에 대한 보안법위반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재확인될 무렵인 1956년 1월 23일 김민(당시 국민회 총무부차장)이 서울에서 체포됐고 자유당경북도당 감찰부장 洪永燮은 2월 6일 밀양에서 체포됐다. 이들도 모두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김민에게 징역 1년 6월 洪永燮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 매일신문 간첩기사 필화사건

1965년 12월 23일 매일신문 金昌式편집국장과 安德煥편집부장, 李相寬취재부차장 등 3명이 반공법 제4조 및 7조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

12월 18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전「권총·무전기등 발견」제하의 영덕발신 3단기사가 보도됨으로써 간첩을 도주케 했다는 혐의이다. 내용은 「영덕군 영해면 뒷산에서 간첩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권총, 무전기, 농구화 등을 토끼잡으려고 산에 갔던 중학생등 4명이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찰이 간첩잡기에 나섰다」는 요지였다.

이 기사는 매일신문 영덕주재 朱鎮圭기자가 송고한 것으로 송고당시 주기자는 「보도금지요청 있었음」이란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이 기사를 받은 李相寬차장은 「보도금지요청」을 묵살(또는 보지못했다는 설도 있음)하여 보도했다는데 문제의 초점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편협보도자유위원회는 24일 진상파악조사단 朴權相·任洪彬씨를 현지에 파견키로 결의했고 동시에 대표단은 대검을 방문, 검찰총장에게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구속조사를 요청했다.

27일 대구로 내려온 편협조사단은 현지에서 기협조사단(金榮洙보도자유위원, 殷鍾官사무국장)과 함께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번 매일신문 편집간부 피검사건은 비단 매일신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기사에 따른 전체신문의 모델케이스로 본다」고 전제, 「설혹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치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함부로 인신구속을 한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협조사단의 입장표명이 있는 뒤인 27일 오후7시반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金昌式국장, 安德煥부장은 구속이 해제되고 李相寬차장만이 기각되어 구속상태에 있었다. 대구지검은 28일 金昌式국장은 기소유예로, 安德煥부장은 불구속으로, 李相寬차장은 구속으로 기소됐다.

편협은 조사단의 보고를 들은 뒤 「이번 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신문간의 대공관계보도에 관한 명백하고 확고한 한계와 원칙이 조속히 합의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화 그 사회적책임에 대한 사법당국의 깊은 배려와 공정한 법의 판단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필화사건은 2년후인 1967년 12월 18일 대구지법 韓柄棠판사는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법 제4조 1항을 확대해석하여 언론자유를 제압할 위험이 있는 처벌은 할 수 없고 결코 고의적으로 대간첩공작을 와해시키고 모면케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를 들어 두 피고인(安·李)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사의 항고로 대구고법까지 올라 갔으나 1969년 11월 7일 「항고이유 없다」고 기각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은 끝을 맺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2월 29일 「매일신문 필화사건」에 관하여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냈다.

① 신문의 사실보도로서 중요 편집간부가 반공법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② 그와 같은 불상사는 비단 「매일신문사건」에 국한된 관심사가 아닐뿐 아니라 전체 언론 기관에 공통된 문제로서 또 다시 그러한 사태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신문간의 대공보도에 관한 명백하고 확고한 한계와 원칙이 조속히 합의돼야 한다고 본다.

③ 「매일신문 필화사건」은 입건과 수사과정을 통하여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인신구속의 남용이 없기를 관계당국에 당부한다.

④ 끝으로 「매일신문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깊은 배려와 공정한 법의 판단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대구매일신문기사필화사건 일심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사건65고 8762 반공법위반

피고인 李相寬 (매일신문취재부장)

피고인 安德煥 (매일신문편집부장)

검 사 김용목

변호인 박찬, 최상택, 김순택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범죄사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인적사항략)

피고인들은 1965년 12월 9일 오후9시경 영덕군 영해면 괴시동 후산에서 동년 12월초순경 북괴간첩이 침투하여 대남공작으로 본 무전기·권총·북괴의 선전문등 30여점을 밀장하여 둔 것을 발견한 소할 영덕경찰서에서는 동간첩이 발굴차 출현하면 검거코자 은밀리에 공작진행 중인 사실을 동신문사 현지특파원기자 주진규가 입수하고, 단순히 정보보고로서 우송하여 온 데 대하여 동사실이 보도되면 경찰이 전시한 간첩체포공작이 와해되고 따라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① 피고인 이상관은 1965년 12월 17일 오전10시경 동신문사 사무실에서 전시 주진규로부터 우송되어 온 정보보고를 접수하고 동 보고 두서에 「이 사건은 보도할 경우 범인이 도주한 우려가 있다고 정보부 및 현지경찰에서 보도금지의 요청이 있음」이라는 주의의 첨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월 18일자 기사로 「지난 9일 하오 3시경 영덕군 영해면 괴시1동 뒤산에서 북괴간첩이 물어둔 것으로 보이는 각종장비 및 소지품등을 발견한 소할 영덕경찰서에서는 간첩의 소행이라고 보고 간첩잡기에 나섰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정리하고, 상 피고인 안덕환에게 이를 인계하고 ② 동 안덕환은 동일 오전11시경 동신문사 사무실에서 상 피고 이상관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전시한 내용의 기사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 편집함에

있어 직책상 기사의 취사선택권이 있으므로 「보도금지 요청이 있음」이라는 주의첨기를 발견한 이상 그 경위를 알아보고 보도하지 않아야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기사에 「권총·무전기등 발견」「북괴간첩이 묻은 것?」「영덕 서」라는 제목을 부쳐 동지 3면 사회면기사로 게재할 것을 결정하여 편집하고 이를 공무국에 인계하여 전시 1965년 12월 18일자 대구매일신문(3만내지 5만)의 3면기사로 게재함에 가공하여 이를 보도함으로써 대남 간첩공작을 와해시켜 간첩체포를 모면케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간첩활동을 이롭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 보면 피고인들 및 증인 주진규, 등 남효대, 동 황철규, 동 조덕조, 동 권혁조, 동 김은식의 검증결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중 압수된 증제1호의 1·2호 및 증 제2호(피고인 쪽지 및 신문기사)의 기재내용을 합하여 보면 1965년 10월 9일 21시경 영덕군 영해면 괴시동 뒷산에서 동년 12월초순경 북괴간첩이 침투하여 대남공작용으로 가지고온 무전기등 30여점을 밀장하여 둔 것을 증인 남효대등 4인(학생)이 뒷산에 놀러 갔다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접한 영덕경찰서에서는 이를 묻은 간첩이 발굴하러 다시 출현하면 검거하고자 공작중인 사실을 대구매일신문사 현지 특파기자 주진규가 이를 알고 본사에 우송한데 대하여 피고인 이상관은 1965년 12월 17일 10시경 동신문사 사무실에서 주진규로부터 우송되어 온 위 기사를 접수하고 그 기사 표제에 「이 사건이 보도될 경우 범인이 인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정보부및 현지 경찰서에서 보도금지요청이 있음」이라는 첨기가 있는 것을 주선으로 삭제하여 이를 파기하고 동월 18일자에 기사케 하기위하여 「지난 9일 하오 3시경 영덕군 영해면 괴시1동 뒷산에서 북괴간첩이 묻어 둔 것으로 보이는 각종장비 및 소지품등을 발견한 소할 영덕경찰서에서는 간첩의 소행이라고 보고 간첩잡기에 나섰다」는 요지의 기사를 정리하여 상피고인인 안덕환에게 동일 오전11시경 이를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동 안덕환은 편집담당(증인) 김은식이 「권총 무전기등 발견」「북괴간첩이 묻은 것?」이라는 표제를 부친 것을 신문에 게재할 것을 취사선택하여 편집하도록 이를 공무국에 보내어 그대로 1965년 12월 18일 대구매일신문 3면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당심증인 김상준, 동 박신규, 동 이정수, 동 최종경, 동 김승록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사법 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관계진술조서 및 일건기록을 살펴 보면 당시 영덕경찰서 정보계장 황철규가 동아·서울신문등 기자들에게 형사를 시켜 보도관제를 하게 했다는가 서울신문 특파원 조덕조에게 영덕소재 7·7다방에서 보도관제를 하여 달라고 구두로 말 하더라는 등의 방법으로 보도관제를 했을 뿐이고 동 수사계장이 경비전화로 경찰국에 간첩출현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동기사에 대한 보도관제요청이 종전의 예대로 경찰국장이나 정보부 및 방첩대의 책임자로부터 서면 등의 형식으로 정식 보도관제의 요청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사실은 영덕부근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실들을 보면 동사건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보도관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뿐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만 이상적인 국민 전체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민권을 방어하고 비판과 사실보도로써 조국발전의 창의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 「死活의 문제」라는 것에서 보면 더구나 대중적 성격을 가진 신문의 언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정식으로 보도관제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방첩대 및 공보장관이 공문과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를 요할뿐, 반공과 보도가치를 비교 교량해서 그 보도의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일개 수사기관의 보조자인 수사담당자들이 보도관제의 요청이 있다는 주의문구가 기사표제에 부기된 것을 지실하고, 주선으로 삭제하고 그 부분을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본건의 여러가지 사항을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의 간첩체포·공작을 방해하여 간첩을 도피시켜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 소위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동보도가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토끼를 잡으려 간 학생들 수인이 산에서 무전기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간첩신고를 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간첩신고의 계몽을 시키는 의의도 전연 없다 할 수 없고, 또 국내에 현존하는 그 많은 정보 및 수사기관에 그 본건의 의무인 간첩공작에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의의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을진대, 피고인들이 게재한 동 기사가 결코 대간첩공작에 일부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수단으로서 대간첩공작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위험성이 있는 보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해악의 중대한 발생이 긴급하고 절박하여 이러한 언론의 남용으로 구제 될수 없는 불가피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 건 소위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확장해석하며 언론의 자유를 제압할 위험이 있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기사로 인하여 사회의 해악을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피고인들의 본건소위는 결코 고의적으로 대간첩공작을 와해시켜 모면케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간첩활동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1967년 10월 18일

판 사 한 병 채

2. 甘浦「私錢」보도와 기자 구속

1962년 7월 24일 조선일보경북지사 崔順福기자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3항(허위사실유포) 위반혐의로 경북경찰서에 구속됐다. 이어 29일에는 대구일보 李祥雨기자와 朴武林통신원 등 2명이 경북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3명의 허위사실유포혐의와 관련된 기사는 화폐개혁후 경주군 감포면에서는 1원권에서부터 5원까지의 잔돈이 순환되지 않는 부작용으로 7월 13일부터 주민들간에 자기 도장을 찍고 액수를 기입한 잔돈표를 만들어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요지였다.

“괴! 사전이 나돌아 (경주군하 감포면에)”

“쪽지에 액수쓰고 도장찍어 통용”이란 제목으로 7월 22일 조선일보 사회면 톱으로 보도됐다. 이 무렵 대구일보도 감포주재 朴武林통신원이 송고한 것을 본사편집부 李祥雨기자가 정리하여 크게 보도했다.

그 다음날인 23일에는 역시 崔順福기자 발신의 “잔돈기근...감포의 실정”이란 제하의 큼직한 박스기사를 본 주민들이 농협지소에 잔돈을 요구했지만 잔돈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 문방구점이나 잡화상등에서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의 말까지 들어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자들이 구속되자 조선일보는 진상확인을 위해 본사 목사균(睦四均) 사회부차장을 현지에 급파했다. 사실여부 조사에 나선 목차장은 “현지경찰 돈 쪽지 통용사실 확인”하면서도 “사전이란 말이 정부비방이라고”한 제목으로 최기자의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조금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현지로부터 송고받은 조선일보사는 「돈 쪽지」 「잔돈 표」가 사전이나 아니냐에 대한 경제학자들과 관계자의 견해를 들어 “엄중한 사전이다”라고 보도했다. 여하튼 경주군 농협이 23일(사전보도 다음날) 1원권 2만원을 감포에 보내주었고 그후 재무부도 1원권 추가발행을 지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崔順福기자와 대구일보의 朴武林통신원과 李祥雨기자 등 3명을 구속 수사해온 경주경찰서는 8월 2일 경주지구 계엄군법회의에 송치했다.

그간 이 사건을 주시해 온 편협은 운영위원회와 보도자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와 대구일보의 잔돈표 유통기사와 관련된 필화사건으로 구속중인 언론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언론인들의 구속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언론창달과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과 언론인의 신분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구속처리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니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협은 조선일보와 대구일보의 잔돈표 유통사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반을 파견하기로

결정, 林芳鉉·張龍 두 보도자유위원을 4일밤 현지로 떠나보냈다. 이렇게 떠들썩했던 감포의 잔돈사건을 송치받은 경주지구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의 법무부가 조사한후 8월 20일 조선일보 崔順福기자와 대구일보의 李祥雨, 朴武林기자를 기소유예로 모두 석방했다.

3. 대구일보 편집인 모욕사건

〈사건개요〉

사장 呂相源씨가 도일부재중인 지난 1970년 4월 26일 상오 6시 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는 기획관리실장 呂萬榮씨(사장의 아들)가 중역들과는 아무런 사전합의도 없이 부장급 이상의 전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는등 월권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상무 2인과 편집부국장 1인, 경리부장 1인 등 4인만 참석) 상무이사겸 편집국장인 具球書씨를 해임한다고 선언하고 구씨의 책상을 임의로 들어내고 명패를 부수는등 난동을 자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¹⁶⁾

呂萬榮씨는 呂相源씨의 장남으로서 1970년 3월 16일 기획관리실장으로 취임했다. 具球書씨는 난동이 있는 후 4월 27일부터 사에 출근치 않고 사장이 귀국하여 공정한 처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5월 2일에 돌아온 呂相源사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편집국에서는 취재부장 金基喆씨가 언론인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내외근 기자들이 서명하여 김취재부장의 불신임결의서를 사측에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선 기업주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하여 취재부장인 安有鎬, 李吉容 양씨를 해임 발령하였다.

呂相源사장은 그후 편집인에 대한 모욕적행패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난동을 당한 具球書편집국장을 서울지사 근무로, 김문대편집부국장을 사업부장으로 발령함으로써 편집부기자 33명 중 26명이 부당한 조치에 반발, 「횡포를 자행한 呂萬榮실장을 퇴진시키고 구편집국장을 즉시 복귀시킬 것」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여사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具球書씨를 논설위원으로 발령하고 서울로 올라왔으므로해서 17일까지는 사내공기가 격화되고 있었다. 19일에는 편집인협회와 기자회견등 중재로 전원 복귀하였으며 具球書편집국장과 金文大부국장의 인사만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

〈조사시일 및 조사대상〉

1970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5월 20일 서울.

金承祿씨 (매일신문 편집국장)

16) 《한국편집인협회보》.

吳判龍씨 (영남일보 편집국장)

金文大씨 (대구일보 편집부국장)

李鳳善씨 (대구일보 상무이사)

呂學龍씨 (")

具球書씨 (대구일보 편집국장)

呂相源씨 (대구일보 사장)

〈면담인사 발언내용〉

金承祿씨=呂相源사장이 선처할 것으로 알고 관망하고 있었다. 경북지부회원도 지부장의 일이라 경솔히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여사장의 인사조치는 관여할 수 없으나 呂萬榮씨의 행동은 편집인에 대한 모욕임에 틀림 없다.

吳判龍씨=이번 대구일보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편집권에 대한 침해가 사장이 아닌 사장의 아들이 횡포를 했다는데 더욱 그러하다.

金文大씨=26일 상오6시에 비상이 있어 나가보니 呂萬榮씨가 具球書국장을 해임한다면서 책상을 들어내고 명패를 발로 밟았다. 구국장과 나는 사장이 돌아 오면 선처하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장은 呂萬榮씨만 두둔하고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 나 자신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도리가 없다. 이러한 사측처사에 기자들이 분개 하여 현재 농성투쟁을 계속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李鳳善, 呂學龍씨=①26일 상오 6시 나와 달라고 하여 나가 보니 呂萬榮씨가 구국장을 해임한다고 하면서 책상을 들어냈다. ② 구국장 해임이유를 물으니 사원을 선동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여 와전이 아닌가 하고 말하니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③ 좌우간 편협에까지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④ 여사장이 돌아와서 원망히 해결될 것으로 안다. ⑤ 具局長을 논설위원으로 발령한 것은 具局長이 몸이 약하니 좀 쉬라는 뜻인듯 싶다. ⑥ 사장은 서울로 가면서 한사람도 희생은 시키지 말고 희망하면 전원 받아 들이라고 하였다.

具球書씨=① 나는 철모르는 사람이 한 일이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해서 呂社長이 돌아오면 정당한 처사를 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 여사장이 呂萬榮씨로 하여금 사과만 시켰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다. ② 사정은 누구보다도 사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장에 구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③ 지난 26일에는 새벽 2시에 呂萬榮씨가 내집으로 전화를 하고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기에 밤이 늦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고 술히 취한것 같아서 잘 자라고 했는데 金文大, 黃東燮 양 부국장의 사표를 아무 이유없이 받으라고 하기에 그런 일은 사장이 하셔야 옳은 일이 아니냐고 했다. ④ 26일 상오 6시 비상소집문제는 상의 받은

바도 없고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

呂相源씨 = ① 내 자식이 具局長의 책상을 들어내고 명패를 부수고 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과한다. ② 우리의 일로 편협에까지 누를 끼쳐 미안하다. ③ 사원 전원이 복귀하고 단합대회를 여는 등 정상으로 돌아갔다. ④ 구국장과 金文大부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쩔 수 없다. ⑤ 呂萬榮실장에 대한 조치문제는 당장 뭐라 답변할 수 없고 1개월이내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겠다. ⑥ 呂萬榮이를 입사시키는 것은 내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 구국장이 세번이나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입사시켰다. (이상에 대한 결론은 운영위에서 결정)

〈대구일보사장에 보낸 공한〉

귀지의 번영을 축하합니다.

금반 폐협회서는 지난 4월 26일 이래 귀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류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그 진상을 파악코자 조사위원을 파견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귀하가 베풀어 주신 협력을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폐협회는 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5월 22일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한 결과 4월 26일과 27일에 귀사 기획관리실장 呂萬榮씨가 아무런 권한이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상소집」운운한 것과 또한 귀사의 상무이사이며 편집국장인 具球書씨에 대하여 자행한 난폭한 행동은 귀하의 증언대로 「사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는 일개직원」이 사장 아들이란 신분을 藉勢하여 공공연히 상사인 편집인을 모욕한 것으로 규정 짓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귀하께서 납득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도리어 편집국장과 동부국장을 좌천 시켰다는 것은 귀사의 정관이나 사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관여 할 바 아니오나 사회의 공기인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기업의 체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 하는 바입니다.

폐협회는 귀사의 경영이나 인사문제에 개입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자본과 경영, 경영과 편집의 한계를 짓밟고 신문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야기될 언론의 위신저하와 편집인의 권익 침범에 대하여 심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과 편집인의 위신회복을 위한 공정한 조치 있기를 추구해 마지 않습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최 석 채

第2節 出 版

I. 序言

지금까지 대구의 출판에 관해 敘述한 文書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대구라는 고장에서 출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는지를 서술한 기록문서가 눈에 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의 있을만한 곳은 빼놓지 않고 다 뒤지고 다녀 봐도 그런 記錄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어느 지방보다도 儒敎思想이 강렬했던 고장이었었고, 그에 따라 學問崇尚의식도 높았고 두터웠던 사회 여건들을 감안해 본다면, 畢竟 여러가지 출판물이 있었을법 한데도 기록된 문고를 찾기가 힘들다.

하다못해 많은 氏族들의 각종 族譜 출판도, 상당한 종류가 있었을터인데도 기록된게 없는 것 같다. 필자의 과묵으로 돌리고 싶다.

이러한 실정은 무엇보다도, 古今을 통한 當該 행정관리들의 역사 안목의 결여와 시대상황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大邱市史》(1973)에 출판부분이 수록된 기록은 있으나 前時代의 기록들이 미비하여 집필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대구의 출판역사 기록이 뒤늦었기는 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定立해 보려는 노력만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구에서 현대적 모양을 갖춘 출판물이 활발하게 出刊되기는 아무래도 해방 이후부터라고 해야 되겠다. 質·量으로 해방 이전의 출판활동은 극히 微微했을 뿐 아니라 출판물도 품질이 粗雜하고 저질이었다.

II. 本文

대구에서 출판이 처음으로 선 보인 것은 지금부터 570년전(世宗 5年;1423)의 일인데, 당시 慶尙監營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冊紙를 만들게 한 것이 시초인 것이다.

대구의 출판은 이렇게 탄생했으며, 그 출판물의 版種은 물론 木版이었다. 이렇게 목판출판이 刊行되면서 朝鮮 末期까지 대구에서는 자그마치 241種의 목판책들이 출간되었다는 설이 있을만큼 출판이 제법 盛行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간행물들의 종류가 어떤 책인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도 드러난 출판물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 것은 達城徐氏門中會에서 발간한 氏族文集들이다. 달성서씨를 말한다면, 대구의 토착성이며 최대 姓氏이고 氏族財産도 방대하여, 龜岩書院을 운영, 깊은 학문을 닦아 온 명문씨족이라고 하겠다.

그 씨족들의 문집을 적어 보면, 모두 개인의 저술이 아닌 서씨문중회에서 저술한 것들인데, 《樂齋集》(1602년刊), 《爲國強恕圖》(1630년刊), 《誠幾德圖》(1651년刊), 《誠敬圖》(1675년刊), 《三勾圖》(1695년刊), 《日新圖》(1705년刊), 《看文字圖》(1720년刊), 《律呂圖》(1735년刊), 《于戈目錄》(1740년刊), 《臨齋文集》(1761년刊), 《梅山先生終禮說》(1775년刊), 《東臯集》(1780년刊), 《望潮堂集》(1791년刊), 《全歸堂集》(1795년刊), 《龍溪文集》(1801년刊), 《南隱文集》(1810년刊), 《海防集》(1815년刊), 《軍國總簿》(1820년刊), 《朝野記聞》(1825년刊), 《歷代宰相年表》(1830년刊), 《東人詩話》(1831년刊), 《兵家勝算》(1835년刊), 《神話講義》(1840년刊), 《眞理圖說》(1845년刊), 《三問一答》(1851년刊), 《梧山集》(1860년刊), 《海東農書》(1865년刊), 《會三經》(1871년刊) 등인데 거의 木版本이다.

한편 李仁榮이라는 사람은 어떤 책자에서 〈大邱刊行的 朝鮮本〉이라는 日文小論을 《大邱府史》에 기고했는데, 그 글에서 그는 대구에서 간행된 출판물이 85종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목판 출판만은 물론 아니나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기록돼 있지 않다.

일본글로 記述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미루어 봐 아마도 1920년대 쯤에 쓴 글로 여겨진다.

그런데 대구부사에 출판상황이 기록된 걸 본다면 日政때는 출판기록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슨 책인지는 몰라도 한지방에서 10여년 사이에 85종의 출판물이 출간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판활동이 제법이었다 할 수 있겠다. 그 찌든 가난과 암울했던 그 시대를 상기 한다면 더욱 그런 평가를 아니 할 수 없다.

1920년대에 명확하게 드러난 출판물은 1925년에 창간된 金昇点의 《黎明》이란 詩集, 그리고 1927년 향토체육인들에 의해 창간된 월간잡지 《體育界》와, 1929년 柳隻影에 의해 창간된 《東聲》지 등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창간된 《黎明》은 창간호가 곧 종간호가 되고 말았고, 《東聲》 또한 3호 발간으로 폐간되고 만 것이다. 徐相喆이 발행한 《體育界》도 2호 발행으로 그치고, 회사도 설립된지 5개월만에 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비록 두번 밖에 발간되지 못한 《體育界》지만, 체육전문잡지 발간은, 향토 스포츠계는 물론 출판계에서도 길이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그뒤 1938년 申三洙가 발행한 문예지 《文園》이 창간됐으나 이 역시 더 속간되지 못하고 폐간하고 말았다. 이처럼 어렵게 창간된 간행물들이 몇달을 못 견디고 폐간되는 까닭은, 日帝의

탄압도 한 이유는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발행인들의 빈약한 財政 거기다 책 사불 독자층이 거의 全無했다 할 정도로 앞았기 때문인 것이다.

독자층이 얇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굶주리는 시대였었고, 또한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국민전체의 90퍼센트도 더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던게 광복과 함께 꽃을 피운 언론자유, 해방 조국을 하루 속히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애국적 정열이 ‘사상의 그릇’인 출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것이다.

이 무렵의 출판물은 印刷本뿐 아니라 프린트물까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인쇄시설이 빈약한 속에도 하고저 하는 말들은 저마다 많았기 때문이다. 해방후 몇년동안의 우리나라의 출판성향을 한 원로 출판인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이야기한다.

“1945년 8월부터 약 1년동안은 정치사상의 판폴렛의 시절이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 1년간은 만화와 교과서와 참고서의 시기였다고 하며, 판매는 서점보다 街頭판매가 더 盛行했고, 또한 발행한 출판사의 주소조차 명기되지 않는 책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하기가 그 무렵에는 비단 출판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가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엉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대구에서 발간된 최초의 출판물은 建文社 발행의 《無窮花》라는 잡지였다. 4·6배판 32페이지(정가 15원)의 이 잡지는 해방되던 해 9월에 창립된 건문사(대표 李光雨 대구시 대안동)에서 발행한 것으로, 대구지방 최초의 종합잡지인 것이다.

잡지 《無窮花》는 그후 金漢聖, 林永暢이 차례로 물려받아 월간으로 발행했으나, 그 뒤 운영난으로 몇번의 缺刊 끝에 1년여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無窮花》다음으로 발간된 잡지는, 그해 12월에 창간호를 낸 《建國公論》이다. 《建國公論》은 45년 12월 建國公論社(대표 趙相元 대구시 교동)가 발행한 월간 종합지로 체제는 4·6배판 32페이지(정가 45원)였다. 그뒤 《건국공론》은 49년 11월까지 28호를 발행하고, 그 해 12월에 題號를 《韓國公論》으로 바꾸었다. 《韓國公論》은 1952년 5월호까지 12호를 끝으로 중단되고, 전년인 1951년 4월에 창간된 姊妹誌 《慶北行政》이란 월간지를 계속 발행했다.

4·6배판 50페이지로 발행된 이 《경북행정》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지방행정에 관한 잡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6·25동란을 전후하여 출판사업이 더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물가폭등이었다. 한 실례를 든다면 1949년 12월에 발간된 4·6배판 46페이지의 《韓國公論》의 정가가 150원이었는데, 1952년 4월에 발간된 4·6배판 96페이지의 12호의 정가는 7천원이었으니, 그러니까 2년 5개월 사이에 책값이 무려 24배나 뛰어 올랐다는 셈이다.

《建國公論》, 《한국공론》 그리고 《경북행정》은 각기(各己) 10수호씩 발행되다 폐간되고 말았으나, 이 잡지들을 펴냈던 趙相元은 그뒤 사업지를 서울로 옮겨 출판업 玄岩社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양서들을 출판, 서울시의 출판문화상까지 수상하며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建國公論》이 창간된 후 6개월뒤인 1946년 5월에는 시전문잡지인 《竹筍》이란 책이 창간되었는데, 그 《竹筍》은 49년 7월 중간호까지 11집을 펴 냈었다.

《竹筍》은 李潤守, 이영도, 柳致眞, 爾豪雨, 李應昌, 金尙洙등으로 구성된 죽순시인구락부(대구시 서문로2가 32)에서 펴 낸 시전문지로 잡지체제는 역시 4·6배판에 46페이지였다.

《竹筍》은 시전문지로서는 당시 全國 최초였었는데, 창간호 필진은, 李潤守, 崔武永, 金東史, 吳蘭淑, 崔揚鷹, 이영도, 李炳和, 柳致眞, 爾豪雨, 朴木月, 崔海龍, 鄭信永, 李甲得, 金漢英, 金尙洙, 李應昌, 朴泳鎬등이었다.

11집 중간호까지의 발행 연월일과 版型 및 정가는 아래와 같다.

1집: 1946년 5월 1일 발행, 4·6배판 46페이지 15원

2집: 1946년 8월 15일 발행, 국판(菊判) 51페이지 15원

3집: 1946년 12월 23일 발행, 국판 46페이지 20원

4집: 1947년 4월 18일 발행, 국판 42페이지 40원

임시중간호: 1947년 5월 18일 발행, 국판(프린트) 14페이지 15원

5집: 1947년 8월 1일 발행, 국판 28페이지 20원

6집: 1947년 10월 1일 발행, 국판 58페이지 50원

7집: 1947년 12월 25일 발행, 국판 65페이지 65원

8집: 1948년 3월 25일 발행, 국판 62페이지 150원

9집: 1949년 1월 12일 발행, 국판 42페이지 150원

10집: 1949년 4월 1일 발행, 국판 70페이지 100원

11집: 1949년 7월 1일 발행, 국판 70페이지 100원

11집 발행동안 《竹筍》에 기고한 사람은 위의 창간호 집필자 외에 朴斗鎭, 趙芝薰, 金達鎭, 金相沃, 柳示葉, 金春洙, 趙鄉, 李승자, 趙演鉉, 白相鉉, 成耆元, 姜冕星, 金耀燮, 尹根弼, 李相魯, 朴和穆, 尹崑岡, 李海文, 具常, 李正鎬, 薛昌洙, 金樹月, 李敬純, 鄭鍾喜, 한솔, 殷安基, 趙靈岩, 申瞳集, 李潤成, 朴陽均, 崔啓洛, 朴東錫, 朴魯春, 孔仲仁, 玄一文, 許人, 李明徹, 千祥炳, 李明子 등 전국의 문인들이 網羅돼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 보급되던 《竹筍》지는 49년 7월 12집(임시중간호 포함

으로 중단되었으나 그후, 30년뒤인 1979년 1월 발행인 李潤守에 의해 복간되어 82년 8월 17집까지 속간됐다.

復刊號: 1979년 1월 1일 발행, 국판 20페이지 800원

14집: 1980년 1월 10일 발행, 국판 24페이지 1,200원

15집: 1980년 11월 30일 발행, 국판 252페이지 2,000원

16집: 1981년 9월 1일 발행, 국판 232페이지 비매품

17집: 1982년 8월 1일 발행, 국판 228페이지 2,000원

竹筍은 93년 현재 24집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있다.

《建國公論》, 《竹筍》과 함께 해방후 대구에서 발행된 중요 출판물로는 嶺南日報가 발간한 《慶北年鑑》을 들 수 있다.

《慶北年鑑》은 1946년 12월 제1집으로 《慶北總覽》이란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47년부터 《경북연감》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1집인 《경북총람》은 4·6배판 500페이지로 책값은 300원이었다.

제2집은 47년판부터 《慶北年鑑》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나 판형은 4·6판으로 53년판까지 발행하고 54년부터는 판형을 국판으로 바꾸었다.

그뒤 연감발행이 몇해동안 결간되기도 했으나 70년초 판형은 4·6배판으로 다시 환원시키며 복간해 1980년 12월 嶺南日報社가 大邱每日新聞社에 병합될 때까지 매년 출간되었다.

《경북연감》은 제호가 설명하듯 대구 경북도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등의 활동상황을 그해 그해 정리 수록한 것으로 경북지역의 발전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郷土史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발행자인 영남일보사가 每日新聞社에 흡수 통합되면서 《慶北年鑑》은 자동 폐간 되었다.

그 뒤 每日新聞社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경북도에서 독립, 행정영역이 분리된 1984년에 《每日年鑑》이란 제호로 재창간 발행했다. 그 뒤 《每日年鑑》은 1988년까지 5년간 속간되다가 그 역시 폐간되고 말았다.

그런데 《경북연감》 47년판에 수록된 당시의 대구의 출판상황을 살펴 보면, 해방 12년의 출판관계는 해방직후의 혼란상태가 점차 정비돼 가는 한편 신문 잡지등 재력이 빈약한 정기간행물이 자태를 감춘 것이 허다하다. 그리고 일시적 현상으로 속출했던 “프린트”업도 인쇄업의 번창에 따라 점차 감소되면서 “프린트”출판물이 사라져 갔다.

用紙문제는 해방직후 혼란기의 여파로 극도로 악화되어, 在庫紙도 없는 경영체가 허약한 신문 잡지등은 자멸되지 않을 수 없었고, 1947년 6월에 이르러서는, 신문(日刊)은 10일, 週刊은

3회, 月刊은 3개월간 휴간할 때는 법령 88호에 의해서 許可가 자동으로 취소되게 되어 유명무실한 정기간행물들을 정리했다.

당시 정비된 신문 잡지들을 살펴 본다면, 《尙州日報》《南鮮日報》《民鼓》《勞働者新聞》《時事新報》《嶺南經濟》《南鮮商工週報》 등의 신문과 《어린이》《新文化琢磨》《嶺南教育》《鷄林世界》《유모어 選集》《圖書月報》《嶺南스포츠》《基督農民會報》《햇불》《雄辯》 등 잡지의 21종이다.

위의 기록으로 미뤄 보면 해방이후 대구에서는 각종 잡지가 활발히 발간됐고 특히 스포츠, 유모어, 어린이책 등 專門誌까지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47년판 《경북연감》에 실려있는 출판물은 다음 도표와 같다.

〈表 3-3〉 해방직후 발행된 잡지류

제 호	창 간 연 도	종 별	발 행 지	발 행 인
새 싹	1946	월 간	대 구 시	邊 海 泰
무 궁 화	1945	"	"	李 光 雨
건 국 공 론	1945	"	"	趙 相 元
아 동	1946	"	"	金 尙 信
竹 筍	1946	"	"	李 潤 守
아 동 회 그 림	1946	"	"	金 尙 信
협 동 전 선	1946	"	"	경북금융연합회

일반출판물로는 교과서와 참고서류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데, 출판인은 金益達, 金相文, 경북도학무국이 가장 많았고 崔正浩, 沈萬澤, 徐載煥 등의 실적도 눈에 띈다.

해방직후 발행된 문예물로는 아래와 같다.

〈表 3-4〉 해방직후 발행된 문예물

책 이 름	발 행 년	발 행 지	저 자
詩 集 들 국 화	1947	대 구 시	이 용 수
학 생 문 예	"	"	최 영 기
한 양 5 백 년 가	"	"	권 우 상
해 바 라 기	"	"	서 수 근

이밖에 기타 출판물로는 〈表 3-5〉와 같다.

〈表 3-5〉

해방직후 발행된 기타 간행물

제 호	창 간 연 도	종 별	발 행 지	발 행 인
古 今 流 行 歌 集	1946		대 구 시	裴 誠 道
流 行 歌 大 全 集	"		"	金 益 達
丁 亥 年 日 曆	"		"	"
국 민 도 덕 과 성 경 연 구	1947		"	오 성 용
국 민 도 덕 강 연 집	"		"	"
列 車 時 間 表	"		"	정 용 학
경 북 회 사 총 랑 及 신 사 례	"		"	李 春 得
大 邱 市 街 公 圖	"		"	徐 海 龍
聖 火	"		"	黃 基 錫
실 험 가 정 치 료 (百 草 醫 學)	"		"	姜 南 周

위의 기록에서 보듯 유행가집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발행되는가 하면, 도덕서가 발행되고, 대구시가지도, 열차시간표, 日曆, 가정의학서적과 人名錄까지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7년도에는 또한, 《蔡園詩抄》(黃允燮, 태평출판사), 《옛터에 다시오니》(朴광, 평화도서), 《동산》(黃允燮, 대기사), 《청과집》(윤계현, 동화사), 《해바라기》(徐守根, 교문사), 《동화》(朴泳鎭, 동화사), 《대낮》(李敬海, 교문사)등 문학서적과 《경북연감》(영남일보사), 《大邱스타일》(李植樹, 대邱스타일사), 《流行歌全集》(張永九, 문창사), 《常識書式集》(李振鎬, 대구능무연구소), 《民族》(이정진, 건설문화사), 《애창곡집》(安德園, 무궁화출판사), 《民衆》(이정진, 건설문화사), 《靑年의 常識》(姜海公, 대동청년단 경북도본부), 《治心三敎道術》(김운곤, 웅원사), 《整枝煎定提要》(劉鳳林, 문화서원), 《道路포장과 交通經濟》(章文熙, 대구보도사)등이 출판됐다.

이 당시의 독서경향을 참고삼아 살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러가지 생활여건들을 미뤄 봐 비교적 독서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국공론》자매지였던 《民論》(타블로이드版)이 조사한 분야별 독서경향은 아래와 같다.

〈表 3-6〉

해방직후 독서경향

과 목	백 분 율	과 목	백 분 율
국 문 학	20%	법 률	3 %
국 사	15%	지 리 · 역 사	10%
어 학	10%	사 상	10%
과 학	10%	기 타	5%
경 제	7%		

6·25전란이 발발하면서 서울의 출판사와 문인들은 대부분 대구로 모여들어 한때는 대구가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대구로 모여든 문인들은, 國難을 이겨내야 한다는 자세로 蒼空俱樂部와 육군중군작가단을 결성했고, 공군중군작가단은 시집 《蒼空》《코메트》등을 발간했다. 《蒼空》은 4·6배판으로 2집까지 출간됐으며 《코메트》는 국판이었다.

대구로 피난 온 문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펜으로 전쟁을 돕고자 《戰線詩帖》을 발간한 것은 1951년 1월20일이었다. 4·6배판 100페이지의 《戰線詩帖》은 글로 표현한 신념의 彈丸인 셈이다.

당시의 대구는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국가의 각기관들과 정부의 각部處들이 피난해와 임시首都가 됐다.

대구로 모여든 문인들은 이런 전쟁의 渦中에서도 개인 작품활동이 활발해 많은 출판물을 내어 놓았다. 50년부터 54년까지 전쟁중에 출간된 개인작품집은 시집이 26권, 소설 23권, 수필 7권 등 모두 56권이었다. 저자와 책명을 적는다면 다음과 같다(괄호안 숫자는 출간년도).

具常 《具常詩集》(51), 金冠植시집 《落花集》(52), 金松 소년소설 《고향없는 아이들》(54), 金永三시집 《푸른 섬》(53), 金耀燮시집 《體重》(54), 金長壽 장편소설 《白馬高地》(50), 金宗文시집 《壁》(52)·《不安한 土曜日》(53)·《TS. 엘리오토시론》(譯.53), 金淳基 시집 《용사의 무덤》(53)·《二等兵》(53)·《무너진 地層》(54), 金春洙 시집 《부다페스트에서의 少女의 죽음》(51), 馬海松 수필집 《戰塵과 人生》(53)·동화집 《떡배 단배》(53)·수필집 《사회와 人生》(53), 朴斗鎭 시집 《午禱》(53)·《해》(54), 朴木月 시집 《山桃花》(54), 朴暘均시집 《두고 온 地標》(52), 朴榮濬 단편집 《그늘진 꽃밭》(53)·장편소설 《愛情의 溪谷》(53), 方基煥 소설집 《童妾》(52), 柳周鉉 단편집 《姊妹系譜》(52), 柳致環 시집 《보병과 더부러》(51)·《靑馬詩集》(53)·수상록 《예루살렘의 닭》(53), 李相魯 시집 《歸路》(53), 李雪舟 시집 《순이의 가족》(54)·《流水曲》(53), 李容相 시집 《아름다운 생명》(51), 李孝祥 시집 《바다》(51)·《인생》(54), 張德祚 장편소설 《十字路》(53)·《女子三代》(54)·《女人哀歌》(54)·《狂風》(54), 張虎崗 시집 《銃劍賦》(52), 鄭飛石 장편소설 《番地없는 酒幕》(52)·《홍길동전》(53)·《人生旅情》(53)·《世紀의 中》(53)·《山有花》(53), 《趙芝薰》시집 《풀잎신斷章》(52)·시론 《詩의 原理》(52), 崔仁旭 소설집 《底流》(53)·《幸福의 位置》(53)·소년소설 《일곱별 소년》(54), 崔貞熙 수필집 《사랑의 履歷》(53)·소설집 《장다리꽃 필 때》(54)·장편 《綠色의 門》(54), 崔泰應 장편소설 《戰後派》(51), 黃順元 단편집 《曲藝師》(52)·장편소설 《카인의 後裔》(54), 金宗吉 시집 《譯 20세기 英詩選》(51), 崔泰應·崔仁旭·柳周鉉·張德祚·金東里등의 작품을 묶은 《傑作小說選集》과 文星堂에서 발간한 53·54년도 《年刊詩集》과 《韓國詩人選集》上·下권 및 《韓

國愛情名詩選》등이 출간되어 대구의 피난문단은 자못 활기를 띠었다.

위의 작품집 출판에서 보았듯이 대구는 6·25동란 이후 일시적이거나 우리나라 문단의 중심지가 됐었고, 출판사들 또한 거의 대구로 모여들어 이 나라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 당시 대구에서 활동했던 출판사는 啓蒙社 金源大, 英雄出版社 韓秉庸, 研文社 崔水鳳, 太陽堂, 文星堂등 10여개사가 넘었다.

休戰이 되고 서울이 수복되면서 피난 문인들과 출판사들이 대부분 還都한 뒤에도 대구를 중심한 경북지방은 창작활동이 왕성했고 따라서 작가들의 작품집도 활발하게 출간 됐다. 그러나 실력있는 출판사는 거의 서울로 환도했기 때문에 향토작가들의 작품집이 서울에서 출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 무렵 1955년 1월 경북도 공보실 간행으로 월간잡지 《道政月報》가 창간됐고 58년 3월에는 경북문학협회 기관지인 《文學界》가 英雄出版社에서 창간되기도 했다.

한편 56년 10월에는 白晝의 테러사건등 자유당정권에 온갖 迫害를 받았던 대구매일신문사의 主筆이던 崔錫采가 《庶民의 抗章》(凡潮社)이란 시사평론집을 펴 내었고, 몇년후에는 그 후편인 《續庶民의 抗章》(螢雪出版社刊)도 출간했으며 이어서 《夢鄉갈람》을 펴 냈다.

잡지 《道政月報》는 발행처는 비록 관청이었으나 기실 잡지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문예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꾸며져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잡지체제를 갖춘 대구 유일의 종합잡지였던 것이다.

5·16혁명후에는 제호를 《再建》으로 바꾸었고, 戲曲작가 金燦虎가 편집을 맡으면서 내용이 더 한층 충실해져 향토 문인 문필인들의 작품 발표지가 돼 주었고, 또한 국민 모두가 窮乏했던 그 시절에 글쓰는 사람들이 다값 소득원으로 여겼을 만큼 원고료도 꼬박 꼬박 지불되었다.

63년 제3공화국 새 민정이 들어서면서 잡지 《再建》은 제호를 다시 《躍進慶北》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뒤 순탄하게 발간되다 70년초 편집자 金燦虎가 MBC방송국으로 전직되면서 15년간의 발행기록을 남기고 폐간되고 말았다. 대구에서 단 하나의 잡지도 보존할 수 없다는 실증을 보는 것 같아서 글쓰는 사람들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5년간의 이 《躍進慶北》을 빛내 준 집필자들을 부문별로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金鎮和(大邱日報 論說委員), 朴洙榮, 裴漢基(慶北大 講師), 白再基(毎日新聞 論說委員)

② 행정：李相培(前 서울市長), 申宗淳(靑丘大學 教授), 崔泰鎮(당시 道內務局長), 李경雨(농촌문제 연구가).

③ 경제：李潤根(靑丘大 교수), 金在東(中小企業銀行 大邱支店長), 金珣信(한국일보 記者),

呂乾東.

④ 문예 : 朴薰山(시인), 徐貞喜(시인), 徐錫達(소설가), 鄭夕茅(시인), 李雪舟(시인), 柳騎榮(소설가), 李豪雨(시조시인), 呂榮澤(수필가), 李萬澤(극작가), 芮鍾淑(시인), 石貞吉(수필), 西汀(시인), 李相範(수필), 權泰乙(소설가), 李丹媛(수필가), 黃大淵(작가), 田龍烈(自由寄稿家).

1950년대의 출판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57년 3월에 창립된 대구아동문학회의 기관지 발간이다. 58년 4월 《달 뜨는 마을》, 59년 7월 《꽃과 언덕》, 66년 6월 《오손 도손》, 67년 7월 《나무는 자라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펴 냈다.

60년에는 金島陽이 수상집 《돌폴》을 발간했고, 61년에는 여류시인 徐貞喜의 시집 《배암》이 출간됐다.

한편 대구를 중심한 경북은 아동문학 활동이 활발해 서울을 능가할만한 작품업적을 쌓아 왔는데, 대구아동문학회 기관지 말고도, 개인 작품집으로 신현득 童詩集《아기눈》(61년)·《고구려의 아이》(64년)·《바다는 한순갈씩》(64년), 김종상 동시집《계절의 선물》(64년), 윤사섭 동화집《외작 아기신》(66년), 윤여춘 동화집《바람을 그리는 아이》(67년), 손춘익 동화집《천사와 꿈추》(70년)·《소년소녀 한국고대소설전집 4권》(69년), 이오덕 동시집《탱자나무 울타리》(69년) 등이 출간됐다.

그 밖에 아동문학지로 《꽃과 향아리》, 《잎 다섯》 등도 있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문학동인지가 활발히 출간됐었는데, 65년 4월 창립된 경북시조문학동호회(뒤에 영남시조문학회로 개칭)의 《洛江》과, 경북수필동인회의 《隨筆文學》의 오랜 실적을 쌓아 오고 있고, 《에스프리》《純粹年代》《脈》《나래》《自由詩》《形象》《詩藝》《新年代》《文學京釜線》《以後文學》 등이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明滅을 반복하면서 속간됐다.

한편 67년 4월에는 金燦虎, 李炳泰, 朴榮洙의 《3人창작집》(평화출판사刊)이 출간됐고, 향토 청년운동가 孔元相이 《人間釋迦》란 당행본을 출간했다.

그리고 희극작가 金燦虎의 《바람난 빌딩》(용범출판사刊)과 《김찬호 극작전집》 전6권 (이학출판사刊)이 66년 5월에 출판되었다.

金燦虎의 이 《바람난 빌딩》과 《김찬호 극작전집》은 “라디오 드라마”의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방송되기도 했다.

이 밖에 50·60년대에 출간된 향토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 보면, 柳致環 시집《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60년), 許萬夏 시집《해조》(60년), 李雪舟 시집《不毛의 領土》(60년)·《受難의 章》(56년)·《미륵》(57년)·《巨火》(57년), 徐貞喜 시집《배암》(61년), 李崇子시집《湖心の 曲》(56년), 洪永義 장편《愛情白書》(55년), 李珉永 《잃어버린 体温》(59년), 李鍾澤 동시집《새싹의 노

래》(56년), 洪性文 시집《꽃과 鐵條網》(58년), 이영도 수필집《靑芹集》(58년), 呂榮澤시집 《淚香》(58년), 申瞳集 시집《第2의 序詩》(58년)·《빈 콜라병》(68년), 尹惠昇시집 《애가》(58년), 李星水 시집《候鳥》(64년)·《裸木의 章》(64년), 全尙烈 시집《白衣祭》(56년)·《下午一時》(59년)·《新綠序詩》(69년)·수필집《바람부는 마을》(66년)·시화집《시의 생명》(60년)·시집《생성의 의미》(65년), 鄭旼永시조집《採春譜》(69년), 李文熙 수필집《들장미》(55년), 金長壽 장편《大地여 나를 안아다오》(56년), 李在徹 시집《石象의 노래》(60년), 洪鍾勲 시집《墓碑》(62년), 徐錫達 창작집《엽사전》(69년)·《금붕어》(63년), 兪炳奭 시집《마음의 版圖》(60년), 金潤植 시집《오늘》(57년)·《아직은 諦念할 수없는 까닭》(60년), 朴薰山 시집《날이 갈수록》(58년). 申瞳集 시집《矛盾의 물》(63년), 金元重 시집《별》(69년), 朴陽均 시집《氷河》(56년), 朴鍾禹 시집《濕地》(61년), 崔果 창작집《惑不惑》(67년), 宋永澤 역시집《가을序情》(59년), 尹伯 수상집《風鈴記》(62년), 呂榮澤 시집《입체해도》(62년)·《詩를 보는 눈》(69년), 李鎬雨 시조집《休火山》(68년), 이영도 시조집《石榴》(68년), 尹章根 창작집《도라온 사람들》(67년), 鄭在攄 시조집《第三樂章》(66년)·수필집《문구멍으로 본 人生》(66년)·시집《모과》(69년), 李萬澤 희곡선집《무지개》(68년), 金春洙 시집《打令調》(69년), 李雪舟 시집《風雨속의 祖國》(65년)·시집《三十六年》(68년), 李潤守 시집《人間溫室》(60년), 崔光烈 작품집《個人雜誌》등이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다른 문화활동이 그랬던 것처럼 출판분야도 더 한층 활발해졌다.

대구에는 문인들이 각 부문별로 많은 구락부들을 창립해 저마다 따로 동인지 회지 기관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1946년 5월에 창립된 죽순시인구락부의 동인지 《竹筍》은 지금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고, 1954년 3월에 창립된 대구아동문학회(대표 신송민) 동인지는 전국 최고령동인지(34호)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965년 4월에 창립된 영남시조문학회(대표 김상형)도 동인지 《洛江》을 25집까지 펴 내고 있으며, 1968년 지방에서는 가장 앞서 창립된 영남수필문학회(회장 빈남수)도 현재까지 24집을 펴 내었으며, 82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부터 우수동인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1983년 창립된 대구수필문학회(대표 서석구)도 동인지 《大邱隨筆》을 11집을 내놓고 있으며, 83년 12월 창립된 대구문인협회(대표 조기섭)도 기관지 《大邱文學》을 지금까지 13집을 발간하고 있고, 또한 84년 결성된 오류시조동인회(대표 민병도)도 동인지를 7집까지 펴 내고 있다.

1982년 4월 결성된 영남아동문학회(대표 강영희) 동인지 《능금 꽃 피는 마을》은 12집을 내놓고 있고, 새바람아동문학회(대표 권기한)도 87년 5월 동인지를 창간하고 현재까지 6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부문에는 대구소설가협회(대표 서석달 작고)가 동인지 3집을 펴 내

놓았다. 또한 84년 3월에는 아동문학잡지 《소년과 소녀》(대표 장호병 대일출판사刊)가 창간되어 8호를 내고 있다.

한편 학교동문들이 문학회를 만들어 문학회지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大倫高동문으로 구성된 대륜문학회(회장 李星水)는 1976년 2월에 창립되었고 77년 9월 회지 《合奏曲》를 발간하여 79년부터는 제호를 《대륜문학》으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7호를 펴 내고 있고, 啓聖高의 동문회지인 《계성문학》은 1981년 10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10호를 펴 내고 있는데 연간(年刊)으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嶺南高 동문회지 《文學嶺南》도 1983년 창간되어 동창회(회장 박유정)의 주간으로 지금까지 연간으로 7호를 펴 냈다.

그리고 以後文學會(회장 朴仁述)는 동인지 《以後文學》을 연간으로 7집「그루출판사刊」을 내고 있고, 女流文學會도 동인지 《女流文學》「그루 출판사刊」을 13집째 펴 내었다. 또 대구아동문학회는 기관지 《늘푸른 언덕》을 83년 창간하여 「그루출판사刊」으로 펴 내고 있고, 대구아동문예연구회는 기관지 《大邱文藝》를 「계몽출판사刊」연간으로 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五月文學會는 회지 《五月文學》을 「그루출판사刊」으로 13집을 출간했고, 서설시동인회는 회지 《서설시》「그루출판사刊」으로 3집을 펴 냈다. 오류시조문학회는 회지 《오류》를 「그루출판사刊」으로 9집을 내고 있고, 물빛시동인회도 회지 《물빛》을 역시 「그루출판사刊」으로 9집을 펴 내었고, 전개시전문지도 기관지 《전개》를 4집째 출간했고, 문화비평지도 기관지 《문화비평》 9집을 펴 냈다.

한편 70년대의 개인별 출판활동을 살펴 본다면, 문학박사 임무출의 장편소설 《回天記》(文昌社刊)와, 이강언의 《아름다운 노을》(文昌社刊), 백신종의시집 《철든 내수이야》, 홍성호 시집 《세상 사는법》, 김한연 시집 《하얀 울타리》, 박종섭 시집 《거창의 전설》(文昌社刊)등과, 김두한의 《김춘수의 시세계》, 김은철의 《한국근대시 이해》, 서정옥의 《국어정서법의 이론과 실제》, 영남어문학회의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한국현대시의 이해》,朴지성스님의 《나의 연꽃》(文昌社刊) 등이 있다.

수필집 이동철의 《洗草》(형설사刊)가 나왔고, 최동서의《생명》(형설사刊)도 출간됐다. 또한 시집에는, 申瞳集시집 《送信》(76년)·《申瞳集詩選》(76년)·《해뜨는 법》(78년 學文社刊)·《暗號》(78년 學文社刊), 朴柱逸시집 《牟陽城》(77년 學文社刊), 金順澤 梁淳秘 共著시집 《바닷가에 서》(76년 學文社刊) 李潤守시집 《戰線詩帖》(學文社刊), 姜熙根시집 《사랑祭》(76년 學文社刊), 朴沆植外7인시집 《原流》(78년) 등이 있다.

수필집에는, 박태권수필집 《나무거울》(78년 學文社刊), 姜南周수필집 《떠다니는 섬》(78년 學

文社刊), 李周洪수필집 《진달래를 주제로 한 명상》(78년 學文社刊), 李海珠수필집 《소외시대의 證言》(78년 學文社刊), 李圭善수필집 《무궁화 교본》(81년 學文社刊), 金正薰수필집 《聖書의 脈》(81년 學文社刊), 全在昊수필집 《국어사랑 계레사랑》(81년 學文社刊), 秦聖麒수필집 《南國의 傳說》(82년 學文社刊), 張世紀수필집 《象牙塔에서》(82년 學文社刊), 全在昊수필집 《영원한 안식》(82년 學文社刊), 원종린수필집 《사랑과 미움》(83년 學文社刊), 朴雅晴수필집 《이모습 이 대로》(83년 學文社刊), 유상중수필집 《궁지와 전진》(83년 學文社刊) 등이다.

80년대에 들어 중반까지는 출판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였으나, 후반에 들어서는 출판 활동이 그야말로 百花齊放 그대로였다. 출판사는 雨後竹筍격으로 불어났고, 출판물 또한 책 방들이 넘치도록 形形色色的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可謂 폭발적인 活況相이라고 할만 하다.

대구의 이런 출판호황은, 특히 활동이 微微했던 향토 문인들의 작품활동을 振作시켜 많은 문인들이 활발하게 작품집을 펴 내고 있다.

특히 문학동인회의 회지나 동인지들과 수필집들이 눈에 띄게 활발한데, 동인지로는, 《여백집》(노인집 87년), 《이후문학》(이후문학회 88년), 《대구소설》(대구소설가협회 88년), 《금이라 할까 이바람을》(대구시인협회 89년), 《시회집》(문학동인회 88년), 《추억의 머물러》(대구시인협회 시화집 89년간), 《청구문학》(청구문학동인지 시 소설 수필등 수록 89년刊), 《영남수필》(嶺南隨筆文學會 89년刊), 《大邱隨筆》(대구수필문학회 89년刊)등이고 수필집은, 서상은수필집 《사랑이 쓴 주례사》(88년 향토사刊), 이주희수필집 《까치야 까치야》(89년 향토사刊), 성교진수필집 《명상의 오솔길》(88년 대일사刊), 조만울기행물 《동서문화》(89년 대일사刊), 정재진칼럼 《이런세상 저런얘기》(89년 대일사刊), 김재덕수상집 《農都待望論》(85년 대일사刊), 柳騎榮수필집 《中國古事》(87년 동학사刊) 등이다. 文學관련 연구서로는, 秦東赫著 《古代調文學論》(88년 형설사刊), 徐元燮著 《時調文學研究》(89년 형설사刊), 《歌辭文學研究》(89년 형설사刊), 《歌辭文學論》(87년 형설사刊), 金俊榮著 《鄉歌文學》(88년형설사刊) 徐鍾文著 《관소리 辭說研究》(87년 형설사刊), 려중동지음 《배달문학통사1》(88년 형설사刊)·《배달문학통사2》(89년 형설사刊), 金光淳著 《天君小說研究》(87년 형설사刊), 《愁城誌 天君本記》(88년 형설사刊), 尹榮玉著 《新羅詩歌의 研究》(87년 형설사刊), 이임수 《麗歌研究》(87년 형설사刊), 金榮喆·朴鎭泰·李圭虎共著 《한국詩歌의 再照明》(88년 형설사刊), 金俊榮著 《韓國古典文學史》(88년 형설사刊), 李圭虎 《開化期 變體漢詩研究》(88년 형설사刊), 韓國語文學會編 《古典小說選》(87년 형설사刊), 鄭鏞東著 《古代小說編》(88년 형설사刊), 姜漢永校註 《申在孝 관소리辭說 여섯마당集》(89년 형설사刊), 金侯榮·崔三龍共編 《古典文學集成》(87년 형설사刊), 金光淳著 《한국口碑傳承의 文學》(87

년 형설사刊), 李敏弘著 《士林派文學의 研究》(88년 형설사刊), 編輯部編 《韓國短篇小說選》(88년 형설사刊), 李養鎬著 《農民小說論》(87년 형설사刊), 姜南周著 《反應의 詩論》(88년 형설사刊), 배달말학회편 《배달말》(89년 형설사刊)등 등 형설출판사 발간이 일색인데, 향토의 출판사인 螢雪은, 과연 전국 굴지의 출판사답게 경이적인 실적을 쌓고 있다. 이 밖에도 螢雪은 語文叢書란 大作을 펴 냈는데, 그 書名들은 다음과 같다.

(表 3-7) 螢雪 語文 叢書

출판구분	서명(책이름)	저자명
語文叢書 1	慶北民謠	趙東一
" 2	申緯作品集	柳晟俊
" 3	劉忠烈	徐大錫
" 4	金鈴傳, 金圓傳	申東益
" 5	南國의 民譚	秦聖麒
" 6	一然作品集	宋百憲
" 8	野遊, 五廣大	康龍權
" 9	윤선도 작품집	윤성근
" 10	壬辰錄	蘇在英
" 11	雲英傳, 淑英娘子傳	金一烈
" 12	彰善感義錄	車柱枉
" 13	九雲記(1)	尹榮玉
" 14	九雲記(2)	尹榮玉
" 15	九雲記(3)	尹榮玉
" 16	天君演義	金光淳
" 17	趙雄傳	曹喜雄
" 18	全北民譚	崔沃洙
" 19	慶北民譚	金光淳
" 20	李奎報作品集	張德順
" 21	崔載愚作品集	金仁燮
" 22	鬱陵島民謠, 歌辭	徐元燮
" 23	民間誠女書	成炳禧
" 24	忠南民譚	韓相壽
" 25	內房歌辭	崔台鎬
" 26	東人詩話	朴成奎

이 밖에도 형설출판사는, 학술서적 교양서적 각종 교재등 이루 다 枚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책명들을 모두 收錄하지는 못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대구의 출판현황은 80년대에 이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의 동인구락부나 기타 동문단체들의 출간활동도 계속 활발하며, 개인적 저술활동은 더 경이적이라고 할만 하다.

직업적인 저술활동은 더 말할 나이다 없겠으나 新人들의 비직업적인 발간활동도 괄목할만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런 현황들이 90년대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개인적인 출판물가운데는 詩集들이 양적으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도 기성시인 못지 않게 신인들의 창작활동은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다소 윤택해진데다 용지 출판비등 책 제작비 부담이 무겁잖은 것에 연유했다 할 수 있겠다.

향토의 유명시인인 申瞳集이 90년대에 들어 일찌감치 또 한권의 시집을 펴 냈는가 하면, 自由寄稿家 田龍烈이 30여년간 써 모은 글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냈다.

한편 韓國藝總大邱支會(지회장 李重雨)서는 회지 《月刊 大邱藝術》을 1992년2월에 창간했는가 하면, 시인 全尙烈은 古稀기념문집을 펴 내기도 했는데, 90년대에 들어 출간된 출판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출판실적이 월등히 돋보이는 대일출판사의 간행물을 먼저 적는다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책 이 름	저 자	연 도
아 동 문 학	하늘 꽃	홍 기	1990
"	별이 사는 아파트	김 정 일	1990
"	참 말	이 무 일	1990
"	아침이 되면	오 두 섭	1990
"	하늘 과수원	양 경 한	1990
"	하늘에서 온 편지	정 정 희	1990
"	분이네 빈 집	김 용 근	1990
"	국화꽃 피는 계절	신 홍 발	1992
현 대 시	새로 태어남의 이유	정 민 호	1990
"	群 島	박 성 철	1990
"	울음 우는 사람아	이 철 화	1990
"	경칩이지난 하늘아래서	이 근 식	1990

구 분		책 이 름	저 자	연 도
현	대 시	바다는 왜 잠 못 이루는가	임 병 태	1991
	"	낮게 흐르는 악보	이 장 희	1992
	"	낮잠 속 얼굴	석 병 호	1992
	"	두 사람	신 후 식	1992
	"	안 드로메타	신 동 집	1992
	"	접시꽃 마을	이 희 목	1992
	"	눈부신 아침	정 민 호	1991
	"	사모곡	김 상 형	1992
시	사	선거는 춤춘다	정 영 진	1992
르	뽀	길에서 만난 사람	신 왕	1992
수	상	영혼의 미소	聖 邱	1991
에	세 이	대추나무 청진기	이 극 로	1991
	"	청담 예찬	배 화 열	1990
시	사	地方政街政治史	김 한 길	1992
수	필	오 늘	성 기 열	1992
에	세 이	겉질을 트면서 자라는 나무	김 세 영	1990
	"	田龍烈 시사에세이	田 龍 烈	1993

이 밖에도 김요안의 시집 《아빠가 대신 부른 농아형제의 노래》(92년 대일사刊)와 성운사의 시집 《당신이 주신 두손 고이 모으고》(91년 대일사刊), 그리고 이문길시집 《주인없는 산》(92년 대일사刊), 윤용화의 제2시집 《세상이 물구나무로 춤추며 오더라도》(93년 대일사刊)도 있다.

92년 2월에 창간된 藝總大邱支部 회지 月刊 《大邱藝術》이 지금까지 12집을 발간하고 있고, 소설가 이재윤이 소설 《연암朴지원》(93년 그루사刊)을 펴 냈다. 또한 역학자 鄭鉉祐도 《이야기 四柱八字》를 지어 냈고, 詩와反詩社는 季刊잡지 《詩와 反詩》(92년 향토사刊)를 발행했고, 시인 천명일시집 《네게 보낸 풀잎편지》(향토사刊 92년), 김종운시집 《님의 마음》(92년 향토사刊) 金 垣·朴相勳·오현주·이은재·후꾸다 노리코의 공조수필집 《日常에서 주운 이야기들》(92년 그루사刊) 등도 발간됐다.

그리고 향토의 여성운동가로 사회봉사활동에 일생을 바친 曹潤南여사의 회고록 《回想的 날개》가 (92년 그루사刊)으로 출간됐고, 자유시인이며 대구교대 교수이기도 한 강형국시집《절망

의 이삭》이(92년 문학세계사刊)으로 나왔다. 또한 영남대학교 李成大교수의 《낙엽의 미덕》(92년 일봉사刊)이란 수필집도 출간됐으며, 대구대학교 權五宅교수의 자신의 네번째 시집인 《백원짜리 행복》이(92년 일봉사刊) 발간 됐고, 자유시인이며 고교교사이기도 한 朴海水의 肉筆詩集 《별속에 사람이 산다》(92년 일봉사刊)도 나왔다.

한편, 신세훈외에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종군작가들의 陣中詩集인 《머나먼 정글》(92년 일봉사刊)이 출간되기도 했다. 또한 향토의 수필가인 金鍾旭의 수필집 《누워서 보는 하늘》(90년 그루사刊)이 나왔고, 식이요법 연구인 金鍾吉의 《마늘건강》(92년 그루사刊)도 출간됐다.

그리고 동인지인 《嶺南隨筆》 24집(92년 그루사刊)이 출간됐고, 대구문인협회 회지 《大邱文學》 13호(92년 대일출판사刊)도 발간됐으며, 대구수필문학회 회지 《大邱隨筆》 11집(92년 대일사刊)이 나왔고, 문학영남회 회지 《文學嶺南》 8호(92년 일봉출판사刊)도 나왔으며, 대륜문학회 회지 《대륜문학》 7집(92년 일봉출판사刊)이 발간되기도 했다.

III. 結言

위에서 살펴 본 것 처럼 대구의 출판현황은 1990년대 前半期 현재 외형상으로는 한마디로 활황이라 할 만큼 호황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季刊紙, 연간지, 不定期간행물 등 갖가지 간행물이 책방들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반갑게만 여길 일은 아닐 것 같다. 무슨 뜻이나 하면, 그 많은 간행물들이 독자들 손에 들어가지 못한채 폐지로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이다. 대구의 경우 극소수의 간행물은 그런대로 제작비는 건지는 모양이나, 그 밖의 출판물은 대부분 묶음뭉치 그대로 휴·폐지로 처분되고 만다는 것이다.

애써 만든 책들이 이런 식으로 폐지되고 만다면, 정녕 출판의 참뜻은 찾기 어렵다고 해야겠다.

책들이 이렇게 시민들에 천대받는 까닭은,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가계가 이전과 같이 앓는 사정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안이한 생활 풍조가 만연되면서 시민들의 정서생활이 불안정해져 독서의욕을 상실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찌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출판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편승하여 출판사도 엄청나게 늘어나 대구에서도 250여개사의 출판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활동이 미미하거나 유명무실한 편이며 제대로 실적을 쌓고 있는 출판사는 10개사 안 켜이다. 그중에도 전국규모 출판사인 螢雪출판사, 學文출판사, 理想출판사 등은 교양서적 각급학교 참고서와 교재출판이 주업이며,

文藝物출판을 주로 하는 업체는 다음 6개출판사 정도이다.

文昌社, 大一社, 그루사, 一峯社, 郷土社, 흐름社 등.

第3節 放 送

I. 日帝下の 放送

전파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방송은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정의되고있다. 오늘날의 방송은 20세기의 성숙된 공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크게 발전 개발되어 고질의 수신기와 수상기(TV)의 대량보급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만큼 방송은 인류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매체인 것이다.

20세기의 과학이 탄생시킨 ‘경이로운 매체’ 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20년 11월 2일 -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에서 개국한 KDKA방송국에 의해서였다.

그로부터 6년 3개월 뒤인 1927년 2월 16일에 서울에서 경성방송국(JODK)이 개국했다. 우리의 방송문화는 이처럼 세계방송사에 그리 뒤지지 않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사는 불행히도 일제식민지(1910~1945년)하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원초적 비극에서 출발했다.

일본이 방송시대를 연 것은 1925년 3월의 東京방송국(JOAK) 개국 부터였고, 그해 7월까지 일본 역시 大阪방송국(JOBK)과 名古屋방송국(JOCK)등 겨우 3개 방송국 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그러한 시기에 서둘러 ‘식민지 조선’에 방송국을 개국한 것은 대륙침략 정책 때문이었다. 즉 일제는 “아시아 팽창전략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방송국을 설치하여 정책목표를 수행하는데 몇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朴基成은 그의 한국방송사에서 ① 실험탐색기(1927~1932) ② 확대보급기(1932~1937) ③ 선전통제기(1937~1941) ④ 전시동원기(1941~1945) 4단계로 한국의 방송이 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일제가 식민지문화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 시기다. 그 때의 방송은 3·1운동 이후의 소위 문화주의에 입각, 일본의 방송편성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란 것이다. 2단계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첨병기지로 삼던 시기였으며 한국인에게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를 주입하는

방송편성이 이루어졌다. 3단계는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꿈꾸고 ‘신동아 건설’을 표방하던 시기로 방송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데 동원되었다. 4단계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 국운을 걸고 미국등 연합군과 일전을 펴던 시기였기 때문에 방송은 전쟁수행을 위한 전시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제하의 방송은 이처럼 식민지 통치당국의 정책 홍보수단으로 도입, 활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사단법인 京城방송국을 허가하면서 “반도민중의 문화를 개발하여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그럴사한 명분론을 내세웠다. ‘한국인을 문화적으로 선무한다’는 목표였기 때문에 개국 초기의 방송은 연예 오락에 무게를 둔 편성이 이루어졌다. 그 때의 방송은 한·일어 혼용으로 시간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한국어 방송의 경우는 남도단이 춘향가 서도잡가 평양가 등 국악이나 창곡이 많았다. 한·일 공동연예 프로그램의 경우는 트롯트 풍의 가요나 서양음악 하모니카 독주 등이 있었다(동아일보, 1927. 2. 15).

비록 암울한 시기였지만 라디오방송의 출현은 근대화 초기의 우리문화에 많은 변혁을 가져왔다. 전통음악이나 서양음악의 대중화 그리고 대중가요의 창작과 보급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26년에 영화 주제가 〈강남달〉이 라디오를 통해 대중가요로 크게 유행되었고, 1927년에는 흥난과작 이원수 작곡의 〈고향의 봄〉이 방송을 타고 국민동요로 자리잡았다. 1928년 작곡된 〈황성옛터〉(全壽麟작 李愛利秀노래)나 1929년의 〈타향살이〉가 애창가요로 유행, 정착된 것은 방송매체 특유의 매력과 영향력 때문이었다.

1928년 4월에 朴慶浩 洪蘭坡등 18명이 京城방송국 전속 관현악단을 결성한 일이나, 라디오극 연구회(1927년)를 비롯하여 京城라디오 드라마연구회 京城방송극협회 조선극우회 등 라디오 방송주변의 문화단체가 창설된 것도 우리 문화 변혁의 중요한 현상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서구의 명작 〈부활〉이나 〈베니스의 상인〉 〈카르멘〉 등이 연속 방송극으로 인기를 모았다는 사실은 문학발전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의 라디오 수상기는 “축음기나 영화처럼 문명혜택을 크게 입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특권의식을 가져다 줄 정도”여서 방송문화는 그 확산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京城방송국이 개국할 당시의 서울지역 라디오 수상기 대수는 고작 1,440대였다. 그러나 1929년 2월에는 8,204대(한국인 1,323대 일본인 6,881대)로 3년만에 약 6배의 증가를 보였음은 주목할 일이었다. 이해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의 라디오 보급대수는 335대로 경기(5,252) 경남(574)에 이어 3위였다(방송문화진흥회편, 《한국방송총람》, 1991).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1932년 4월에 사단법인 京城방송국을 조선방송협회로 개편하면서 방

송규제를 강화하고 방송망 확장사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확대보급기(1932~1937)의 시작으로 이 때 일본어 제1방송과 한국어 제2방송이 분리, 신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1차 확장기간(1933~1938년)에 부산(JBAK) 평양(JBBK) 청진(JBCK) 이리(JBFK) 함흥(JBDK) 5개지역에 방송국을 설립했다.

1936년 8월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南次郎(미나미 지로)은 방송운용에 있어 일본어교육을 강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황국신민화 정책수행에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한국어 제2방송에 부여한 정책 협조사항은 ① 心田개발 ② 농촌진흥 ③ 부녀교육 등 3대지침으로 사상개조를 통한 황국신민화의 확산이었다.

총독부 체신국에 방송감독계를 신설하여 한국어 제2방송을 감시하였고 방송국내에는 방송차단기를 설치하여 정책방침에 어긋나는 방송은 나가지 못하게 했다.

1934년 8월에는 JODK京城방송국의 상설기구로 방송심의회를 설치하여 체신국의 감리과장과 감독계장 경무국의 보안과장 도서과장 사회과장 해군무관 사단무관 京城日報 사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내용을 일일이 감시 감독, 통제를 가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방송국내에 방송편성회를 설치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반달치씩 사전에 심의하는 통제를 실시했다.

그처럼 엄격했던 방송통제시기에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1934년 1월에 제2방송에서 李王職 아악부의 연주와 경성방송국 오케스트라 반주로 王壽福의 노래를 일본에 처음으로 중계방송한 일이었다.

조선방송협회는 제2방송 실시 후 〈청취자 권유반〉을 편성하여 특히 한국인과 지방청취자 확대에 나서 라디오 수신기보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즉 1931년에 14,000대이던 라디오가 1937년에는 111,000대로 크게 늘어났다.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일원의 라디오 보급대수는 전국의 4%인 4,456대로 경기 경남 평남 함북 다음으로 5위였다(한국방송공사편, 《한국방송사》, 1977).

일제는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방송운용에 한층 강도 높은 통제를 가했다. 9월에는 총독부내에 정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문서과에는 보도계가 신설되어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통제했다.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공포되면서 방송은 〈국민정신 총동원령〉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황국신민화·內鮮一體·일본어 상용등 정책홍보에 총집중시켰다. 특히 한국어 제2방송은 기본편성의 틀을 잃고 오로지 정책방송에만 급급하게 되었다.

연예 오락 부문에서 우리 고전인唱과 민요 인기대중가요는 규제되었다. 이런 현상은 곧 방송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타났다. 즉 편성방침을 소위 국민정신 진작운동에 맞추

어 특별강좌를 수시로 방송하도록 바꾸고 이른바 〈銃後 미담〉같은 전쟁 프로그램을 〈주간정보〉시간에 방송하도록 했다. 심지어 그 미담을 소재로 하여 방송국으로 방송하도록 하였다.¹⁷⁾

1937년 9월에 방송된 〈우리들의 赤誠〉을 비롯하여 〈戰雲속의 충성〉 〈빛나는 용사들〉과 동화극 〈오빠의 入營〉 〈어린이 애국반〉 등이 그 예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시기에 제2차 방송확장계획을 세워 대구 광주 대전 마산 목포 춘천 신의주 해주 등 전국 12개도시에 방송국을 세웠다.

대구방송국(JBGK)은 1939년에 대구부 원대동 1169번지에 착공, 이듬해 10월에 제1방송 가방송을 시작했으며 1941년 4월에 완공되어 한국어 제2방송도 실시하게 되었다. 제1방송은 주파수 630KHz(뒤에 800KHz) 제2방송은 1070KHz로 방송되었다. 이것이 대구 최초의 방송국이었다. 중일전쟁으로 물자부족이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중선을 철탑 대신에 나무탑을 세워 방송했으며, 조선방송협회 기술부 시험계에서 제작한 공중선 출력 50w의 소출력 방송기로 개국했다. 8·15광복 직전인 1944년 3월에 공중선 출력을 300w로 증강하면서 철탑으로 바꾸어 면모를 일신했다. 당시 한국인 직원은 沈兢求, 金翼模, 趙璿紀 3명 뿐이었다.

전국의 라디오 보급대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1937년에 111,000여대이던 것이 1940년에는 221,000여대로 3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대구방송국이 개국한 직후인 1942년에는 전국의 라디오 보급대수가 277,281대(한국인 126,047대 일본인 149,653대)로 이 가운데 경북은 13,128대로 도별로는 경기 함남 평남 함북 경남 다음으로 6위였다.

일제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조선총독부의 방송운용은 제4단계인 전시동원기(1941~1945)에 접어든다. 조선총독부는 비상사태요강에 따라 국내 방송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운용했다. 방송은 일제가 조작한 전황 뉴스 등 보도제일주의로 편성되었으며 국내 뉴스 보다는 결전태세를 강요하는 東京방송을 중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양방송은 ‘황국신민화와 聖戰수행’을 주내용으로 꾸며졌으며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아예 일본군가를 방송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중국의 임시 수도 重慶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중경방송을 이용해 단파방송(주파수 9MHz)으로 하루 30분씩 한국어 방송을 실시한 것이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의소리(VOA)도 하루 3회 한국어 방송을 실시, 상세한 전황뉴스 등 해외소식을 전해 주었다. 단파방송을 이용한 해외의 한국어 방송은 이미 방송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

17)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1977.

들에게 방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 때문에 일제는 단파방송청취금지령을 내렸고, 철저한 단속을 벌였다. 1942년 12월에 개성송신소에서 발생한 한국인 직원들의 단파방송 수신사건은 宋珍根, 朴龍信 등 많은 방송인들의 검거사태를 몰고 왔으며, 급기야는 1943년 6월에 제2방송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선식민지’의 방송은 일제의 정책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요 당했으며, 1945년 8월 15일 낮12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선언 방송을 東京방송으로 부터 중계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II. 8·15와 새로운 放送文化

8·15 광복 당시 한국(남한)에는 서울의 중앙방송국(JODK)을 중심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이리 등 10개 지방방송국이 있었다. 한국인 방송종사자는 서울에 46명과 지방에 25명이 고작이었다. 8·15 일본천황의 항복방송은 그날 저녁 5시30분 뉴스에 재방되었고, 제2방송에서는 저녁 뉴스에 몇차례나 재방송되었다. 이러한 감격적인 방송은 서울 중앙방송국의 한국인 종업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 학도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 정동의 경성방송국을 경비하는 열성을 보였으나 일본군이 ‘미군 진주때 까지의 치안유지’를 내세워 다시 접수하고 말았다.

9월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의 선발대가 서울에 입성,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항복조인식을 가진 것은 그날 오후 4시였다. 이 항복조인식은 미군 정보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한·일 아나운서 각 2명씩이 참여한 가운데 10분간 전국에 중계방송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9월 15일자로 일제의 경성방송국을 접수함으로써 그날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어로 정규방송을 시작했다. 이것이 광복 후 미군정에 의한 우리 방송의 새로운 열림이었다.

미군정 하의 한국방송은 9월 15일자로 단행된 기구개편에 따라 조선방송협회장 李晶燮, 총무부장 權泰雄, 기술부장 韓德奉, 방송국장 李惠求와 편성과장 金晉燮, 방송과장 李啓元, 업무과장 金億의 진용으로 출범했다. 미군정청에서는 조선방송협회에 윌리엄 A 더글러스 중령을 감독관으로, 퍼시벌 대위를 방송국 고문으로 임명하여 한국방송을 지휘 감독했다.

미군정에 의한 새로운 방송의 시작은 민주주의 표본사회인 미국의 방송문화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군정 하에서 였지만,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방송은 “① 해방조국의 사회상 파악

과 내외정세의 신속 정확한 보도 ② 위축되었던 한국문화의 소생 ③ 자주독립정신의 함양 ④ 민주주의 발전에의 공헌”이라는 새나라 건설의 의욕에 찬 편성방침으로 시작되었다.¹⁸⁾

이러한 편성방침에 따라 보도방송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처음으로 방송기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뉴스의 형식은 알기 쉬운 구어체로 바뀌었으며 취재기자의 이름을 밝히는 등 일제하의 획일적인 홍보성 관급뉴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방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해 10월 16일의 李承晩박사 귀국방송과 11월 24일의 金九주석 귀국인사 방송 등은 국민들의 방송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미군정 하의 방송은 사회·문화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2월 초에 단행된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뉴스외에 국사와 국어강좌 국악 양악 음악감상 가요 경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매일 오후 6시30분의 어린이 시간과 방송스케치 야담 주간정보 등이 새로운 형식의 방송으로 출현했다.

한국방송사상 처음으로 기본방송순서가 짜여진 것은 1946년 10월 개편에서였다. 이 때 〈뉴스 리뷰〉 〈학생시간〉 〈신인연예〉 〈청취자 문예〉 〈질문응답〉 등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미국의 방송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편성이었다.

“미군정 방송관계자는 프로그램 개편때 마다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했다. 그것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식을 본딴 것이었다... 상업방송에서 방송을 익혀 온 미군정 방송관계자들은 그것을 프로그램 형식에서 시범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재미가 있어야 한 다든가 다른 방송국에 다이얼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 한국방송인들은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 들였다.”¹⁹⁾

1947년 8월 개편에서는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시사해설〉 〈스무고개〉 〈거리의 화제〉 〈라디오 3면경〉 〈천문만담〉 〈방송토론회〉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특이한 편성은 방송 기획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어 향후의 방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 방송사에 가장 감격적인 일은 1947년 9월 3일에 국제무선위원회(ITU)로 부터 한국방송 호출부호로 〈HL〉을 할당 받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방송국은 호출부호가 HLKA, 부산은 HLKB, 대구는 HLKG로 부여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미군정은 정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6월 1일 방송국을 조선방송협회에 반환했다. 이로써 미군정이 방송을 장악한 지 2년 2개월만에 우리 손으로 우리 방송을 운용하게 되었다.

18)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19) 위의 책, p.154.

미군정 치하의 방송은 남한에서만도 179,000여대의 라디오 수신기 (1946년통계)를 통해 새로운 미국문화를 보급하며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계도하는데 기여했다. 미군정 기간은 우리 라디오 방송이 “프로그램의 편성 기술 취재방법 등에 새로운 방송방법의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의 기반을 다진 때”였다.²⁰⁾

III. 政府樹立과 放送의 國營化

미군정으로 부터 방송국을 되돌려 받은 조선방송협회는 의욕적인 기구개편을 단행, 총무 업무 기술 중앙방송국의 4국체제로 새로운 출범을 했다. 그 첫 방송사업이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중계반(아나운서 閔정호)을 파견, 7월 30일 밤 11시45분부터 15분간 경기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영국 BBC 단파방송을 통해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런던올림픽 소식은 비록 수신상태는 좋지 않았으나 방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선방송협회는 8월 1일부터 청취료를 종전의 월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경영난 해소에 부심하기도 했다. 청취료는 광복 당시 월75전 하던 것을 미군정 때인 46년 7월에 10원, 47년 4월에 40원, 48년 5월에 50원으로 인상해 왔었다.

조선방송협회는 8월 6일부로 명칭을 대한방송협회로 바꾸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8월 7일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KBS는 공보처 방송국으로 흡수되었다. 초대 공보처장에 金東成이 취임했으며 방송국 직원은 공무원으로 발령되면서 국영방송시대가 시작되었다.

정부수립(1948. 8. 15) 후 국영방송의 역할은 정부의 홍보기능을 수행하는데 맞추어졌다. 이 시기의 편성은 〈이북동포에게 보내는 시간〉 등 북괴를 규탄하고 이북동포의 구출과 북한 실지를 회복하자는 내용이나 〈우리의 나갈 길〉 등 민주한국의 건설을 향한 단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특징을 이루었다. 보도방송에 있어서도 〈기록 뉴스〉라 하여 새로운 정부시책이나 정보사항을 청취자가 받아 쓸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했다.

1950년 4월 10일에 지방방송국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자로 중앙방송국은 공보처 서울방송국으로 개칭되었고 지방방송국은 공보처 ○○방송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조치는 광복 후 최초로 방송조직을 법제화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언론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7개 금지사항²¹⁾을 견지하고 있었다.

- ① 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 ②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 ③ 공산당과 이북

20) 박기성, 《한국방송사》, 1977.

21)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괴뢰를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 허위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정부 수립후 국영화된 방송은 이 7개 금지사항을 철저히 지켰으며 때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대개 역할도 수행했다. 1950년 5월 10일 북한당국이 ‘曹晩植을 金三龍, 李舟河와 교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李承晩 대통령은 KBS 방송을 통해 조건부 동의를 제의한 것이 그 한 예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동란은 신생한국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당시 우리나라(남한)에는 서울(KA) 부산(KB) 이리(KF) 대구(KG) 광주(KH) 대전(KI) 춘천(KM) 목포(KN) 마산(KO) 청주(KQ) 강릉(KR)등 11개 방송국이 있었는데, 전란을 겪으면서 대구와 부산방송국을 제외하고 모두 파괴되었다. 6·25전란은 방송의 전황 보도에서 정부의 그릇된 판단 아래 이루어진 정책차원의 의도적인 오보로 인해 국영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유리한 전황 보도’를 믿고 안심하고 있던 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난의 기회를 잃고 공산치하에서 갖은 굴욕적인 생활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어 환도한 뒤 8월 15일을 기해 중앙방송국을 서울지방방송국으로 개칭하고 공보처 내에 각 지방방송국을 관할하는 방송관리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영방송 제도로 공보처는 뒷날 민영방송이 탄생한 뒤에도 방송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지속할 수 있었다.

IV. 民營放送의 出現과 發展

6·25전란은 ‘신생한국’에 엄청난 파괴와 좌절을 몰고 왔지만 국민들이 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초토화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동정은 새로운 문화를 이 땅에 전파시키는 기회를 맞게 했다.

휴전 이듬해 1954년 12월에 기독교방송(CBS)이 생겨난 것이 그 한 예였다.

‘기독교적 교양을 육성하고 기독교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 설립된 CBS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이었다. CBS의 출현은 그것이 비록 특수종교방송이었지만, 국영방송(KBS) 유일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뜻을 지닌 것이었다.

CBS(주파수 840KHz)는 1957년 8월에 출력을 10Kw로 늘리는 한편 지방방송망 확장에도 힘썼다. 1959년 3월에 대구방송국을 개국한데 이어 12월에는 부산에, 1961년 8월에 광주 11월에는 이리에 지방방송국을 개국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것은 국영방송 KBS에 충

격을 주는 도전이자 민간방송의 출현을 예고하는 방송계의 큰 변혁임에 틀림 없었다.

CBS에 이어 1956년에는 한국복음주의방송국(HLKK. 1968년에 극동방송국으로 개칭)이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복음방송’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생겨났다.

6·25전란 중인 1950년 10월에 개국한 주한미군방송(AFKN)도 우리 방송에 영향을 끼치며 발전, 현재 67개 네트워크와 8개 중계소를 가진 방송으로 성장했음은 주목할 현상이다.

6·25이후 급변한 한국의 방송풍토는 1959년 4월 15일에 부산문화방송(라디오)을 개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드디어 민영상업방송시대를 열게 되었다.

호출부호 HLKU 주파수 1035KHz 출력1Kw로 출발한 부산문화방송은 광고방송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민영상업방송의 첫 출현이었다. 광고방송이라는 생소한 문화의 출현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부산문화방송은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부드럽고 알찬 현대적 감각의 프로그램과 부산·경남일대의 뉴스는 물론 전국 뉴스와 해외뉴스까지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해 방송에 대한 부산 시민의 이미지를 일신시켰다.”²²⁾ 부산문화방송은 국영방송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보도를 하는 등 시민에게 가까운 방송으로 인식되기 시작, 민간상업방송의 발전 가능성을 실증했다.

부산문화방송이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현지에서 생생하게 중계한 보도는 청취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방송계로서는 뉴스보도 변혁의 조짐이었다.

1961년 12월 2일에는 부산문화방송의 사주인 김지태에 의해 서울에서 한국문화방송(MBC)이 개국했다. MBC(호출부호 HLKV 주파수 900KHz 출력 10Kw)의 출현은 국영방송 KBS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이었고 국민들에게는 ‘새롭고 진취적인 상업방송’으로 받아 들여졌다.

MBC는 1963년 8월 8일에 대구국을 설립함으로써 이 지역에도 새로운 형태의 라디오방송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서울·부산·대구등 주요도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MBC는 상업방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오락과 음악 프로그램에 주력하여 청취자의 참여를 통한 MBC에 대한 대중인식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편성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때문에 연속극 오락물 음악방송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으며 ‘생동감 있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 보도’는 방송언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는 안주하던 국영방송에 자극제가 되었고 경쟁을 통해 방송의 구태를 벗는 계기가 되었다.

민영상업방송 - MBC의 성공은 1963년 4월에 동아일보사에 의해 서울에서 제2방송 동아방

22) 대구문화방송(주), 《문화방송사사》, 1994, p.93.

송(DBS 호출부호 HLKJ 주파수 1230KHz 출력10Kw)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1964년 5월에는 라디오 서울(HLCK)의 개국을 보게 되었다. (이 방송은 1966년에 TBC 동양방송이 됨)

서울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에 와서 CBS MBC DBS TBC들로 상업방송 4국시대를 맞았다.

이 시기에 등장한 FM방송이라는 새 매체는 한국방송사상 또 하나의 발전적 획을 그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국한 FM방송은 서울FM이었다. 불행히도 서울FM은 FM수신기 보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기에 개국했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이듬해 TBC에 흡수, 동양FM방송으로 재출발했다. TBC-FM은 1970년에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해 ‘음질이 좋은 음악방송’의 새 장을 열었다.

이해 4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두번째 FM으로 부산MBC-FM이 개국되면서 지방 FM방송시대가 열렸다.

1971년 4월에는 대구에서 우리나라 세번째의 FM방송인 한국FM방송(호출부호 HLCB 주파수 89.7MHz)이 개국해 대구도 FM시대를 맞게 되었다.

한국FM은 당초 1970년 3월 24일에 범한방송주식회사(대표이사 李光衡)로 허가를 받아 대구시 중구 동성로 1가 33번지 대구빌딩 4층에 스튜디오와 송신탑을 마련, 1971년 2월에 미국 콜린스사의 송신기를 도입하여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이해 3월 16일 회사명을 한국FM방송으로 개칭하여 4월 25일 개국하였다. 특히 한국FM은 1972년 4월 11일부터 4채널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 본격 음악방송을 하는 한편 교육방송도 편성하여 종합 FM방송매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어오다 1973년 11월 1일에 李茂一이 인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975년에는 미국 RCA 송신기와 방송기재를 새로 갖추고 사옥을 대구시 범어동 법원 앞 수강빌딩으로 이전하는 등 안정된 경영을 하게 되었다.

1965년에 서울FM이 개국할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 FM 수신기는 약 1만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는 FM수신기가 급격히 증가, 한국FM의 가청취지역인 대구시와 경상북도 일원만도 약 30만대로 추산될 정도였다(한국FM방송은 1980년 11월 30일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KBS에 합병되었다).

1971년 9월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네트워크를 가진 MBC가 음악FM방송을 개국함으로써 이후 대구 등 각지방 MBC 계열사에 음악FM방송을 확산시키게 되었다(이에 따라 대구 MBC는 1983년 10월 10일에 음악FM방송을 개국하였다).

이처럼 6·25직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민간방송과 특히 상업방송의 발달은 1970년대에 TV 방송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까지 라디오 방송의 성숙·발전기를 이룩하였다. 방송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1960년대 5·16군사혁명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기에 편승,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산업의 발달은 소비적 상품의 대량생산과 여가산업의 대두를 몰고 왔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나 농촌의 전기화를 통한 문화생활의 수준향상은 상업방송이 급진적으로 팽창, 발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방송이 갖는 친근감과 호소력은 광고매체로서 다시 없는 강점이거니와 5·16혁명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시책에 따라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기업들은 다투어 방송을 광고매체로 활용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²³⁾

우리나라에서 TV가 첫 등장한 1961년에 라디오 대수는 52만여대였던 것이 1974년에는 무려 550만여대로 증가해, 라디오는 국민의 필수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방송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져서 대중문화에 큰 변혁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V. TV時代와 放送의 成熟期

우리나라에서 TV방송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5·16직후에 군사정부가 1961년 12월 31일을 기해 서울TV방송국을 개국하면서 부터다. 서울TV는 기존의 KBS 라디오와는 별도로 공보부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탄생했다. 호출부호 HLCK 채널9 영상출력 2Kw 음향출력 1Kw로 미국 표준방식인 NTSC방식 TV방송이었다.

우리나라 TV방송국의 효시는 1956년 5월 12일 서울에서 개국한 대한방송(HLKZ-TV)이다. 미국 RCA사와의 제휴로 설립된 HLKZ-TV는 채널9 영상주파수 186~192 MHz 출력 0.1Kw로 격일제로 하루 2시간씩 방송했다. 이 방송은 6·25직후의 낙후한 경제사정 때문에 광고시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협소한데다 TV수상기 보급이 극소수였던 때여서 1961년 10월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5·16군사혁명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방송에도 과감한 개혁을 단행, 61년 8월 14일자로 서울TV방송국 설립계획을 하달했다. 서울TV는 10월에 미국 RCA로부터 시설을 도입, 체신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 12월 24일에 시험전파를 발사한 뒤 12월 31일 개국했다. 정부는 서울TV방송국 개국과 함께 2만대의 TV수상기를 일본으로부터 면세로 도입하여 월부로 국민에게 보급함으로써 TV방송의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서울TV는 서울과 경기일원을 주 시청지역으로 하는 극히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4~5시간씩 방송했다.

23)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사》, 1977, p.332.

초기의 편성은 보도 16%, 어린이프로 14%, 교양 17%, 연예 오락 24%, 영화 29% 비율로서 연예 오락 영화의 비율이 높았다.

TV방송을 조기에 허가할 정도로 방송에 적극적이던 정부는 1963년 12월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방송법을 제정(법률 제1535호)하여 “방송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중추적 법규”로 활용하였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정부는 TV 편성지침으로 보도 10% 이상, 교육·교양 20% 이상, 오락 20% 이상, 광고 기타 약간을 방송하도록 규제하였다.

이 방송법은 “방송문화가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 마련된 TV편성지침은 향후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적 TV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1964년 12월에는 서울에서 동양방송—TV가 개국돼 민방TV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삼성그룹의 TBC방송은 TV방송사업에도 과감하고 신속한 사업성을 발휘하여 그 해 12월에 부산에 지방TV국을 개국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TV방송망 확장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1967~1971년 5개년계획으로 전국에 TV중계소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67년 7월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산에 출력 300w의 TV중계소가 설립되어 대구·경북의 일부지방이 TV방송 가시청권에 들어갔다.

1968년 12월에는 대구시로 부터 범어동의 중계소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공사에 착수, 이듬해 5월에 출력 2Kw의 TV중계소를 준공했다. 이로써 대구 일원의 난시청은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방대한 경북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TV중계소의 설립이 요청되었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단의 자문에 따라 경북 일원을 가시청권화 할 수 있는 TV중계소의 입지를 팔공산 정상으로 정했고, 출력 10Kw로 증강된 팔공산 TV송신소가 이듬해 4월 18일에 준공되었다.

정부의 TVR확장 5개년계획으로 중계탑이 개통된 곳은 71년 4월 현재 전국 17개소에 이르렀다. 전국이 TV가시청권화 되면서 TV수상기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여 71년말 현재 등록된 것만도 616,392대에 이르러 10년만에 3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우리나라 제3TV인 MBC—TV가 1969년 8월에 서울에서 개국되면서 TV방송국은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5·16장학회가 운영하던 MBC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70년에는 부산·대구·광주·제주에, 71년에는 대전·전주 72년에는 마산에 TV지방방송국을 개국함으로써 불과 3년만에 7개 주요도시에 가맹사를 갖는 TV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구 최초의 TV방송사인 영남텔레비전방송주식회사(대표이사 王學洙)가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것은 1968년 8월 23일이었다. 이에 앞서 5·16장학회는 67년 11월에 대구 TV 무선국(HLKK)의 가허가를 얻어 TV방송사 설립을 추진, 이듬해 6월에는 호출부호=HLKY 명칭=영남텔레비전방송 식별부호=YTV로 바꾸어 설립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영남TV(YTV)는 정부로 부터 미화 82만달러의 차관허가를 받아 영국의 PYE사, 미국의 AMPEX사, 화란의 필립사, 서독의 슈발츠사 등에서 기자재를 도입하여 70년 7월 18일에 개국했다.

YTV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대구 백화점 8층을 빌어 현주소를 마련했으며 송신소는 해발 1,192m인 팔공산 정상에 건립했다. 개국 당시의 허가사항은 호출부호 HLAY, 채널10, 영상출력 2Kw, 음향출력 500w의 저출력 무선국이였다.

YTV의 개국은 중앙에 독점되었던 TV문화의 지방 분산화라는 뜻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대구지방의 시청자들도 직접 출연하고 참여하는 TV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YTV는 평일에는 하루 5시간 (18:00~23:00), 토요일은 6시간 30분(17:30~24:00), 일요일은 16시간 30분(07:30~24:00) 등 주당 2,880분을 방송했다. 이 가운데 자체 제작시간은 주당 565분으로 31%였다. 프로그램별 구성비율은 보도 10.1%, 교양 28.9%, 오락 43.5%, 스포츠 10.4% 광고 0.7%로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이 많았다.

대구시민이 참여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채널10의 초대〉〈YTV살롱〉〈카메라 산책〉〈선데이 모닝쇼〉〈YTV리포트〉 등이며 어린이 시간인 〈우리들 차지〉가 있었다.

YTV 개국 당시 대구와 경북 일원에 보급된 TV수상기는 23,000여대에 불과해 광고시장 확보가 참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YTV는 개국 1년만에 4,000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경영난을 겪었다.

그 즈음, 서울MBC도 확대경영에 따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5·16장학회는 경영난 해소책으로 전국의 라디오방송국과 TV국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대구방송국(라디오)과 영남텔레비전(YTV)은 쌍용그룹(회장 金成坤)에 매각되었다. 지역 연고권을 가졌던 쌍용그룹은 1971년 10월 1일에 두 매체를 통합한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회장 王學洙, 대표이사 사장 薛漢俊)를 창립, 대구 유일의 종합전파매체 회사를 출범시켰다. 대구문화방송(호출부호 HLCT)은 쌍용그룹이 주식 85%를 가졌으며 서울MBC는 15%의 주식을 가지고 가맹사 형태로 운용됐다.

서울MBC는 매각과정에서도 광고영업권만은 자회사인 한국연합광고(주)가 장악토록 하는 특이한 형태의 가맹사 체제를 유지했다.

MBC-TV 네트워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TV중계망을 구성한 것은 71년 7월 5일이었다. 이 때 부터 TV문화는 전국 동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도의 신속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양 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에 동시 방송, 안방에 전파되는 TV동시문화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TV수상기의 보급도 66년부터 국내조립이 가능 해지면서 급격히 확산, 71년에는 616,392대 이던 것이 72년말에는 905,363대로 높은 보급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70년부터는 농촌에도 TV수상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TV문화의 확산이 전국 획일화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TV문화의 전국 동시확산은 고급문화의 보급이나 건전한 대중오락과 문화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각 TV사간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저속·타락한 프로그램의 대량출현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빚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송문화의 자유방임적 위험현상이 증폭됨에 따라 72년 10월에 단행한 유신 체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10월유신이 방송문화에 끼친 영향은 심대했다.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두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라디오는 제4부요, TV는 특부”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유신이 선포될 즈음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이미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었다. 라디오 수신기는 이미 보급대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량 보급되었으며 TV수상기 역시 전국에 1백만대가 넘게 보급되어 일반국민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방송계의 변혁은 1972년 12월 31일에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탈바꿈하는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듬해 2월 16일에는 개정 방송법이 공포됨으로써 유신체제시대의 강화된 방송규제가 시작되었다.

개정 방송법은 방송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이른바 자율규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질서·품위를 유지’ 하도록 제도화했다. 방송윤리위원회는 ① 보도·논평의 공정성 ② 인권존중 ③ 민족주체성의 함양 ④ 민족문화의 창조 개발 ⑤ 청소년의 선도 ⑥ 가정생활의 순결 ⑦ 사회윤리의 신장 등 방송문화에 관한 폭넓은 심의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당시 방송의 역기능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조치로 받아 들여지는 측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유신이라는 정권 목표를 실현하는데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도 많았다.

방송은 정부 정책홍보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져 유신 하의 방송시기(1972~1980)는 “권위주의적 타성과 근대성이 상충된 시련기”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²⁴⁾

24)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총람》, 1991.

‘정화, 라는 차원에서 방송의 표현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정보기관원의 언론사 출입과 통제가 강화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74년 4월 5일에 방송협회가 결의한 <정화와 언론 부조리 제거>의 내용이 당시의 규제를 극명하게 설명하는 한 예라 할 것이다. 즉 ① 국가안보 위주의 방송편성 ②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방송의 선도적 역할 ③ 국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정신의 함양 등이 유신시대 방송의 편성지침이었다. 정부가 국론분열, 주체성 저해, 경제질서 파괴나 노사분규 유발, 퇴폐풍조의 조장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면 모두 방송이 금지되었다. 물론 방송에 대한 규제강화는 ‘방송의 순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서 홍보기관화 했다는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도 면할 수 없었다.

대구지역 방송계 역시 이 시기에는 방송정책의 방향에 따라 경제발전을 유도하거나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퇴폐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에 역점을 두는 편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는 KBS MBC CBS 등 각 방송국이 두드러진 발전상을 나타내 지역 방송의 기반이 성숙하게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KBS 대구방송국의 경우, 시민회관(옛 공회당)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 72년 2월에는 동구 신천3동 100번지에 현 청사를 신축, 이전했다. 또한 서울 중앙방송국의 TV를 중계만 해오던 것을 78년 7월 1일부터는 자체 지역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의 TV방송은 이때부터 대구MBC-TV와 함께 쌍두마차 시대가 열린 셈이었다. KBS는 76년 4월 19일에 안동방송국을 개국하였고 78년 6월에는 구미중계소를 개소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민방인 대구MBC의 경우, 71년 10월 1일에 라디오와 TV를 통합하여 창사할 당시만 해도 사옥은 중구 동문동 38번지의 구 대구상공회의소 건물과 중구 동성로 2가의 대구백화점 8층에 연주소와 사무실을 두어 제대로 갖춘 사옥이 없었다. 대구MBC는 73년 12월 15일에 수성구 범어동 1번지의 부지 5,700여평에 사옥을 착공, 75년 4월 30일에 건평 2,200여평의 현대식 사옥을 준공했다. 또 73년 8월에는 TV중계차를 도입,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생중계하는 등 통합창사 몇년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지역 방송문화를 선도했다.

기독교대구방송국(CBS)은 71년 5월에 출력을 10Kw로 증강, 75년에 연주소를 대구백화점 10층에 설치했으나 독립사옥을 갖지 못했다가 북구 침산동 3-7번지에 지상5층 지하1층 연건평 753평의 새사옥을 마련하여 78년 11월 7일에 준공, 이전했다.

한편 음악FM방송으로 71년 4월에 개국했던 한국FM방송도 75년 5월에 사옥을 수성구 범어동 13-12 수강빌딩에 옮기면서 미국 RCA사로 부터 최신의 방송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등 성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구지역 방송은 70년대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지역사회와 문화발전에 크게 기

여하면서 방송언론매체로서의 위상을 높여갔다.

VI. 言基法과 放送界 再編

1979년에 발생한 10·26사태와 12·12사태는 유신시대의 마감과 새시대의 개막이라는 엄청난 격동기의 변혁을 몰고 왔다. 방송계 역시 이 시기에는 지각변동이라 일컬어질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 80년대 한 시대의 특수한 방송문화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을 담당했던 합동수사본부는 1980년 4월에 언론대책반을 조직, 언론기관의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이라는 강경한 언론대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강제해직은 이해 7~8월에 전국에서 717명(지방 352명)의 언론인이 해직조치되는 사태를 몰고 왔으며 대구지방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많은 사람이 이에 해당되었다.

언론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언론기본법(법률 제3347호)은 이해 12월 31일에 공포되어 ‘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이 그 정리대상이 되었다.

이에 앞서 문공부(장관 李光杓)는 80년 11월 12일에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사실상 언론통폐합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는 11월 14일 문공부의 방침에 따라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통해 “우리 언론은 자랑스런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론의 구조와 문제를 정면에서 투시하고 자기 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한 때를 맞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5개항을 결의했다.

- ① 신문·통신·방송사의 통폐합
- ②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
- ③ 중앙언론사의 지방주재 및 지방사의 서울지사 기자제도의 폐지
- ④ 통신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신사 설립
- ⑤ 상업방송의 체제를 공영방송체제로 전환

언론사 자체의 이와 같은 결의사항은 언론기본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언론기본법이 시행된 즉시 통폐합 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대구방송계의 경우도 큰 변혁이 있었다.

한국FM방송(대표이사 李茂一)은 11월 30일자로 KBS에 합병조치되었다. MBC가맹사로 쌍용그룹이 소유(85%)하고 있던 대구MBC(대표이사 韓俊愚)는 소주주(15%)인 한국문화방송(MBC)에 주식의 36%를 양도함으로써 대주주(51%) MBC의 계열사로 되었다.

CBS대구방송국은 이해 11월 뉴스와 광고방송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보도·방송·기술 요

원의 일부가 KBS로 흡수되었다.

언론기본법 실시 이후의 방송 특징은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방송국 운영을 금지시켜 모든 방송을 국가 차원에서 공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종사자에게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공영방송체제를 이끌기 위한 외곽조직으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다. 각 방송국은 방송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성에 입각한 방송편성을 자문 받도록 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한데 대한 구제를 제도화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경상북도언론중재부는 81년 4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초대위원은 朴鍾允(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裴龍光(경북대 교수), 劉秉甲(변호사)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른바 ‘5共의 강력한 언론통제’는 1981년 1월 19일에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이 설치되면서 정책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당국은 81년 1월 계엄을 해제하기 직전에 각 언론사에 ‘보도협조사항’을 유인물로 시달렸는데 이 지시문은 5共의 보도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보도협조사항’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 4개분야로 나누어 사안별로 보도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컨대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나 金大中 재판관계를 정치성과 관련시키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보도는 자제하도록”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경제를 비판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나 해설을 자제하고 국민사기의 진작과 근검절약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5共 출범과 동시에 방송은 이처럼 국가차원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KBS와 MBC가 모두 공영체제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 TV방송이 ‘컬러화’라는 획기적 변혁을 맞아 방송사상 새로운 도약의 획을 긋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었다. 정부는 86년의 아시안 게임과 88년의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는데, 이를 위해 컬러TV방송의 조기실현이 불가피 했던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컬러TV 방송은 80년 12월 1일 KBS-TV부터 실현되었다. 잇달아 12월 22일에 MBC-TV가 컬러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컬러TV시대가 전격적으로 열렸다.

5共하의 방송은 사회정화와 국력신장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에 강력한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이 부하되었다. 특히 국가발전의 계기를 잡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방송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81년 9월 30일 밤 11시 45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결정한 것은 5共초 격변기에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전 세계에 방송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전국 방송사 별로 이루어졌으며, 대구에서도 KBS와 MBC가 컬러TV 시설의 개제, 보완에 힘을 기울였다.

KBS대구방송국은 83년 2월 1일에 제2TV 로컬방송을 실시했다. 대구MBC는 이해 10월 10일에 FM방송국(주파수 95.3MHz출력 5Kw)을 개국한데 이어 84년 6월에는 컬러TV중계차를 도입하는 등 지역방송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86년 아시안게임의 중계방송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중계방송을 점검하고 예행연습하는 성격이었다. 따라서 '86아시안게임의 TV중계방송에는 대구지역 각 방송국의 종사자들도 대거 참여해 경기 중계방송을 성공적으로 치뤄 났으로써 국제적 최대 스포츠 행사인 서울올림픽 중계방송에 자신감을 갖게 했다. 이 후의 방송편성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각 방송국에서는 선진질서·청결한 환경·친절한 손님맞이 등 계몽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발, 방송했다.

이 시기의 사회적 현상으로는 1987년의 6·29선언으로 인한 민주화운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시기에 돌출된 민주화운동의 물결은 사회 각계에 엄청난 혼란과 진통을 야기했다. 방송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5공시절에 억압되었던 갖가지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 방송국 마다 '방송민주화'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급기야는 금기시되었던 언론기관의 노동조합이 탄생되어 신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구MBC노조는 88년 3월에 설립).

각 방송사는 노조탄생으로 한 시대의 과도기에 과격한 '민주화투쟁'의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 방송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터 벗어나게 하고 편성권의 자율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80년대 방송계의 발전은 TV컬러화와 더불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고품질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실증되었다.

흑백TV시기에는 중앙과 지방방송사간에 프로그램 품질에 큰 수준 차이가 있었다. 컬러화 이후 각 지방방송국에서도 ENG카메라 등 최신의 제작장비를 도입하면서 제작기법이 크게 향상,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MBC가 87년 2월에 제작, 방송한 역사 다큐멘터리 <가야 5부작>은 이해 한국방송위원회가 수여하는 한국방송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TV방송의 제작수준이 향상된 또 한가지의 예는 이해 실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방송에서 부터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 득표상황과 선거성향분석 등 모든 투개표 정보가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과 함께 방송된 것이다. KBS MBC 두 방송은 전국 지방방송망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함으로써 종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투개표 방송을 실현, 방송언론사상 큰 실적을 남겼다.

‘88서울올림픽(9.17~10.2일)에서 한국방송단(KBS와 MBC로 구성)이 보여준 방송제작 능력은 ‘우리방송의 수준이 세계 선진국 수준임을 유감없이 과시’한 계기였다. 올림픽 방송에서 대구지방 방송이 담당할 역할 역시 상당한 비중이었다.

대구문화방송(주)에서는 30여명의 방송요원과 TV중계차를 서울에 파견하여 서울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의 일원으로 유도 태권도 탁구 마라톤(일부구간)경기를 국제신호로 직접 제작하여 세계 각국의 방송사에 배분함으로써 방송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80년대의 방송계는 컬러TV방송시대라는 도약의 획을 그으면서 국제수준의 방송을 실현한 한국방송사상 빛나는 한 시기였다.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민주화의 욕구분출로 영욕이 엇갈린 시대였지만, 그 현상들은 소중한 발전의 진통으로 기록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VII. 多채널時代의 到來

87년의 6·29선언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민주화과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걸쳐 많은 변혁을 가져왔다. 방송계 또한 이 시기에 큰 변화를 거듭, 방송다채널·다매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송공영화의 근기가 되었던 언론기본법은 87년 11월에 폐지되었고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새로 제정하여 KBS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방송의 주식 70%로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 MBC의 대주주가 되었다. KBS가 가지고 있던 MBC주식 70%는 5共초 언론정화때 MBC의 소주주로 부터 ‘강제헌납’ 받은 것이었다.

6共정부는 89년과 90년 두차례에 방송법을 개정하여 KBS와 MBC 두 공영방송체제로 이끌어 왔던 우리나라 방송구조를 다채널 구조로 변화시켰다. 즉 1990년에 와서 서울에서도 평화방송(4월) 불교방송(5월) 교통방송(6월) 교육방송(12월)이 개국해 비록 라디오 특수방송이지만 다매체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 해 12월에 설립, 개국된 특수민영방송인 서울방송(SBS)은 공중파TV방송의 다채널시대를 연 점에서 큰 뜻을 갖는다.

서울지역 방송계의 급격한 변혁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에서는 여전히 KBS·MBC·CBS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94년부터 金泳三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채널·다매체로 상징되는 뉴미디어시대’는 가시권에 이르고 있다.

새정부는 5월에 평화방송 대구방송국의 설립을 허가한 것을 비롯, 부산과 광주에 불교방송국을, 춘천에 기독교방송국을 허가하는 등 방송의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꿈의 채널’로 불리고 있는 종합유선방송(CATV)도 93년 안에 허가, 95년부터는 방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3년 8월말에 CATV 프로그램 공급업자로 20개업체를 선정했으며, 전국 116개소의 종합유선방송국(운영국) 사업구역 가운데 서울에 21개업체등 53개소에 허가할 방침이다. 대구의 경우 5개사업구역에 CATV가 설립된다.

이들 종합유선방송국이 개국되면 20개업체가 분야별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하게 되는데 11개분야별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다.

△보도=연합뉴스 매경유선 △영화=삼성물산 대우전자 △스포츠=국민체육진흥공단
△교양=제일기획 센추리TV △오락=금강기획 제일영상(드라마) △교육=동아출판사 미래교육
△음악=현대음향 뮤직네트워크 △어린이=아이뷰네트워크 △여성=동아텔레비전 새그린
△종교=평화방송 불교유선TV △교통관광=교통안전진흥공단

관계당국은 95년부터 개국할 CATV의 전국 가입자수가 △95년=80만 △96년=129만 △97년=212만 △98년=283만 △99년=382만 △2000년=476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국은 이미 우리의 가시권내에 들어 왔으며, 95년 개국 후에는 현재의 KBS, MBC 등 공중과 TV방송과 채널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TV문화는 큰 폭의 변화가 예견된다.

한편, 서울방송(SBS)의 전국 주요도시 네트워크화도 미구에 실현될 것이 확실해 공중과 TV방송의 다채널시대도 목전에 와 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지방 民放TV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히며 있어 대구의 공중과 제3TV 출현은 94년안에 실현될 전망이다.

이처럼 1990년대는 방송계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고 폭 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채널시대의 방송구조 개혁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유재천)를 구성, 방송구조개혁안을 모색중에 있어 △AFKN채널의 민영화 △MBC의 민영화 및 MBC 지방사의 독립 허용문제 △SBS의 지방네트워크 구성 등의 정책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매체정책으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직접위성방송(DBS)은 당초 95년에 발사예정인 방송통신위성 무궁화호와 관련하여 조기실현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정부가 93년 10월 초에 ‘98년 이후의 차기정권에 넘기겠다’고 발표해 실현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TV방송은 KBS MBC 등 ‘공중파방송의 독주시대’였으나 이제는 다채널의 경쟁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VIII. 大邱의 放送局 現況

대구의 방송역사는 1939년 4월 19일, 일제의 조선방송협회 대구출장소가 출력 50w의 라디오 방송을 개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50여년, 지금은 컬러TV 수상기 보급대수 만도 대구·경북지역에 1,162,945대(1993. 9. 1현재 등록대수)에 이를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방송계의 발전은 지나 온 반세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대구방송계를 이끌어 발전시켜 온 KBS대구방송총국·MBC대구문화방송(주)·CBS대구방송본부의 매체별 연혁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KBS 대구방송총국

1) 연혁

- 1939. 4. 19 조선방송협회 대구출장소 발족(출력 50w)
- 1965. 9. 23 김천중계소 개소
- 1966. 8. 25 점촌중계소 개소
- 1966. 11. 5 경산송신소 개소(출력100Kw)
- 1971. 4. 18 팔공산송신소 개소(10Kw)
- 1972. 9. 13 표준FM방송 개시(1Kw)
- 1972. 9. 28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100번지 현청사 이전
- 1976. 4. 19 안동방송국 개국
- 1978. 5. 9 영일송신소 개소(250Kw)
- 1978. 6. 2 구미중계소 개소(10Kw)
- 1978. 7. 1 TV로컬방송 실시
- 1983. 2. 1 제2TV 로컬방송 실시
- 1985. 10. 21 제2라디오 방송 실시
- 1986. 12. 8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승격

2) 현황(1993년)

- 가) 위치: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100
- 나) 매체: 1TV 2TV 1R(표준FM) 2R FM(교육TV 교육FM은 수탁송신)
- 다) 기구: 4국 10부 3송신소 2사업소(무인TVR 43개소)
- 라) 인원: 214명
- 마) 연간예산: 154억원(1993년도)
- 바) 로컬편성비율(전국대비): 1TV - 5.8%, 1R - 13.9% 2R - 7.3% FM - 19.0%

2. MBC 대구문화방송(주)

1) 연혁

- 1963. 8. 8 한국문화방송(MBC) 대구국 개국(R)
- 1968. 8. 23 영남텔레비전(주) 설립
- 1970. 7. 18 YTV(채널10) 개국
- 1971. 10. 1 대구문화방송(주)으로 상호변경(TV·R통합)
- 1980. 11. 25 MBC 가맹사에서 MBC 계열사로 됨
- 1980. 12. 22 TV컬러방송 실시
- 1983. 10. 10 FM방송 개국(95.3MHz)
- 1987. 12. 30 표준FM방송 개국
- 1988. 1. 11 수륜 앞산 화양 TVR 개국
- 1988. 12. 12 청도매전 TVR 개국

2) 현황(1993년)

- 가) 위치: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1
- 나) 매체: TV R 표준FM 음악FM
- 다) 기구: 1실 5국 1본부(건설) 2송신소(무인TVR 9개소)
- 라) 인원: 207(임원3)
- 마) 연간예산: 약160억원(1993년도)
- 바) 로컬편성비율(전국대비): TV 10.1% AM 29.7% FM 43.3%

3. CBS 대구방송본부

1) 연혁

- 1959. 3. 26 기독교대구방송국 개국
- 1963. 11. 15 연주소를 계명대학교 구내서 중구 전동 23으로 이전
- 1967. 1. 1 기독교대구방송으로 개칭
- 1975. 6. 5 연주소를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으로 이전
- 1978. 11. 7 북구 침산동 신사옥으로 이전(주파수 1251KHz로 변경)
- 1980. 11. 25 언론통폐합으로 뉴스방송 중단
- 1989. 1. 1 뉴스방송 회복
- 1990. 12. 1 기독교대구방송본부로 승격
- 1992. 3. 2 조야송신소 신축 이전

2) 현황(1993년)

- 가) 위치: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3-7
- 나) 매체:R 라디오
- 다) 기구:4국 1송신소
- 라) 인원:52명
- 마) 예산:약 15억원(1993년도)
- 바) 로컬편성비율(전국대비):28%

第4章 文化財

文化財라 함은 우리의 先祖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文化的 遺産을 말한다. 이것에는 歷史上의 遺蹟이나 建造物, 또 美術工藝品과 같은 형태로 전하는 것이 있고 또 傳統的인 藝能이나 工藝技術과 같이 기능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있고, 또 衣食住처럼 일상의 관습이나 용구 등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

역사상, 공예상, 학술상으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 땅에서의 긴 歷史와 많은 조상들의 활동을 생각한다면 수백만이 넘을 것이다. 대구의 경우도 비록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구가 갖는 歷史, 役割, 人口 등을 생각한다면 그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몇분지 일이 되는 수십만은 될 것이다.

국가나 지방기관에서는 이 많은 문화재를 모두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 가운데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만을 택해서 법률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기관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라 할지라도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있다. 따라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文化財保護法에는 文化財를 보존해서 이를 활용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다.

1. 有形文化財 : 建造物·典籍·書跡·古文書·繪畫·彫刻·工藝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考古資料.
2. 無形文化財 : 演劇·音樂·舞踊·工藝技術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3. 記念物 : 貝塚·古墳·城址·宮址·窯址·遺物包含層 등 史蹟地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및 動物(서식지·번식지·도래지), 植物(自生地를 포함함), 鑛物, 洞窟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民俗資料 :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 등에 관한 風俗, 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衣服, 器具, 家屋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부가결한 것.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정도에 따라 國寶, 寶物, 地方文化財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다.

大邱의 文化財는 대구가 갖는 문화적 재산이다. 따라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현재(1994.1) 대구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없고, 보물로 지정된 것이 19점이 있다. 이 가운데 新羅時代 것이 8점, 高麗時代 것이 4점, 朝鮮時代 것이 7점이다.

신라시대 것에는 戊戌銘塢作碑(보물 516)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유물이고, 奉化 北枝里石造半伽像(보물 997)과 石造如來像(보물 335)를 제외한 다른 6점은 원소재지가 大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고려시대 것은 모두 불교유물이다. 그러나 桐華寺에 있는 道鶴洞石造浮屠(보물 601)만이 원소재소재지가 大邱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문화재는 원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조선시대 것은 佛教遺物 2점, 典籍 1점, 繪畫 1점, 沙器 1점, 琴 1점으로서 종류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대구와 관련있는 유물은 불교유물 2점 뿐이다.

그리고 史蹟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3점이고, 이 가운데 古代의 것이 2점, 近世의 것이 1점이다. 모두 대구역사에 밀접한 자료가 되는 사적이다.

이외에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것이 1점, 重要民俗資料로 지정된 것이 2점이다.

위의 國家指定物외에 대구시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는, 현재(1994.1) 유형문화재 30점, 기념물 10점, 무형문화재 8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자료 24점이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는 신라시대 것이 7점으로서 모두 불교유물이고 고려시대 것도 4점으로서 모두 불교유물이다. 조선시대 것은 14점으로서 관아건물, 비석 등 종류가 다양하고, 開化期 것이 5점으로서 모두 서구식 건물이다. 또 대구시지정 기념물은 9점이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개개설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순으로 하였고, 또 시대순에 따랐다.

第1節 國家指定 文化財

I. 寶物

1. 戊戌銘塢作碑(보물 제516호/북구 산격동 1370)

이 비는 堤防을 축조한 기념비로써 水利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는데 동원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제방의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기념비의 형태는 얇은 板狀의 자연석이며, 윗쪽이 둥글고

넓은 비석처럼 생겼다. 碑文은 넓은 면에 새겼다. 書體는 淸鵝峻整한 六朝楷書이다. 전문이 9행이며 각 행의 자수가 일정치 않고 마멸된 곳이 많다. 비의 오른 쪽 아래가 약간 파손되어 있다. 발견된 장소는 대구 시내이고, 건립연대는 干支로 보아 眞知王3년(578)으로 추정된다. 대구는 주변 여러 곳에 있는 고분군의 분포와 규모로 보아 고신라에서 규모가 크고 중요읍락이었다. 이 비는 대구지역이 농경생산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농경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사진 4-1〉 무술명오작비

2. 桐華寺入口磨崖佛坐像

(보물 제243호/동구 도학동 산 124)



〈사진 4-2〉 동화사입구마애불좌상

신라사찰인 桐華寺의 계곡입구에 높이 솟아있는 암벽에 큰 탕화처럼 마애불좌상이 새겨져 있다. 손상을 거의 입지 않은 반양각의 이 좌불은 나발에 굽은 육계, 耳目口鼻가 뚜렷한 인상, 풍만한 몸매에 降摩觸地印의 두 손, 섬세한 通肩의 法衣등이 훌륭하게 조각되었다. 그리고, 화려한 연꽃대좌, 번잡한 연꽃무늬의 光背, 대좌를 떠받치고 있는 두터운 구름무늬도 불상과 더불어 균형을 갖추었고 섬세하다. 특히 오른쪽 발을 쭉내밀어서 굳은 자세를 피하게 한 구도나 생동감 있게 새겨진 구름과 불꽃무늬는 匠人의 탁월한 구상과 솜씨를 나타낸다. 양식은 신라전성기에서 下代에 걸친 기법이 반영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불상조성은 9세기경의 작품이다. 全高 2.6m, 佛高 1.1m

3. 桐華寺 毘盧庵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보물 제244호/동구 도학동 산 124)

화강석에 조각된 이 불상은 대좌와 광배까지 손상 없이 깨끗이 보존된 작품이다. 조각에 생동감은 없으나 온화한 얼굴, 규격화된 얇고 평판적인 가슴, 섬세하고 화려한 대좌와 광배 등은 9세기후반의 비로자나불 조각기법의 전통적 구도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이 불상이 봉안된 비로암은 신라 閔哀大王(838~839)의 願刹이다. 이 불상은 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이 암자의 三層石塔(보물 제 247호)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石塔에서 출토된 사리함의 명문에 따르면 景文王3년(863)경의 작품이다. 佛高 1.29m, 臺座高 8.9m

4.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보물 제247호/동구 도학동 산 124)

이 탑은 이중기단 위에 三層石塔을 올린 新羅의 전형적인 石塔이다. 樣式은 상하기단의 각 面石에 隅柱와 撐柱를 모각했고, 上下甲石은 上面에 약간의 경사를 둔 같은 형식의 것이다. 탑의 塔身石은 單石이고 隅柱만을 모각했다. 屋蓋石은 각 층이 모두 4단의 계단식 받침을 모각했고, 추녀는 轉角까지 직선으로 되어 신라석탑의 기본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또, 相輪部는 露盤, 覆鉢, 寶珠가 남아 있고, 복발에는 띠와 꽃모양이 모각되었고, 보주에는 蓮瓣을 모각하였다.

이 탑은 큰 탑은 아니나 각 부분간의 비가 균형을 이룬 美塔이다. 1967년 해체, 보수할 때 초층탑신에서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이곳 사리공에서 출토되었다는 사리함의 명문을 통해서 이 탑은 閔哀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景文王3년(863)에 세워졌던 탑임을 알게 되었다. 全高 3.71m, 基壇幅 1.97m



〈사진 4-3〉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사진 4-4〉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5. 桐華寺 金堂庵 三層石塔

(보물 제248호/동구 도학동 산 124(金堂庵內))

이 탑은 極樂殿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배치된 이층기단에 삼층탑을 올린 양식으로서 雙塔이다.

東塔은 基壇이 뒤에 보강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石材의 結構에 균형을 잃고 있다. 형태는 이층기단 위에 삼층탑을 올린 신라전형의 양식에 따르고 있다.

상층과 하층의 中石에는 隅柱와 撐柱가 모각되어 있고 上甲石에는 副椽이 모각되어 있다. 또, 탑신에는 隅柱만이 모각되어 있고, 屋蓋에는 4단의 계단식 받침이 모각되어 있다. 相輪部에는 露盤, 覆鉢, 仰花, 寶輪, 寶珠가 잘 남아 있다. 복발은 扁球形으로, 仰花는 8花를, 보륵은 8葉蓮花를 모각했다.

西塔은 東塔과 樣式 및 규모를 같이 하고 상륜부에 露盤과 鐵擦柱만을 남기고 있다.

이 탑은 1957년 해체, 복원했을 때, 일층탑신에서 사리공을 확인했고, 그 속에서 99개의 토제소탑과 사리장치를 발견한 바 있다. 이들 두 석탑은 결구수법 규격의 비례 등이 통일신라 下代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東塔高 5.62m · 基壇幅 3.62m, 西塔高 5.24m · 基壇幅 3m



〈사진 4-5〉 동화사 금당암 삼층석탑



〈사진 4-6〉 동화사 당간지주

6. 桐華寺 幢竿支柱

(보물 제254호/동구 도학동 산 124)

原 位置에 原狀대로 兩支柱가 66cm의 간격을 두고 東西로 대치해서 서 있다. 양 지주의 內面에는 아무런 장식 가공이 없으나 外面은 양측 角을 죽이고 중간부를 깎아서 굽기를 줄이고 또 중심에 세로의 稜線을 細彫하여 장식했다. 그리고, 지주의 내면 上端에 당간을 고정시키는 長方形杆溝를 마련하고 아랫쪽에는 圓孔의 杆孔을 구비했다. 전체의 형태가 경쾌한 맛

은 없으나 견고하고 장중한 인상을 주는 형태이다. 건립연대는 동화사 창건과 관련있는 統一新羅의 下代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화사는 寺蹟記에 의하면 통일신라 下代인 興德王 7년(832)에 心地王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지주의 조성도 가공형태의 유형으로 볼 때, 이 시대와 부합된다. 材料는 花崗石이다. 高 3.10m

7. 石造如來坐像(보물 제355호/북구 산격동 1370)

原 所在地를 모르는 몇몇 보물급 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화재는 신라 下代인 9세기 후반기에 유행하던 毘盧舍那佛像의 전형적 기법을 잘 반영한 걸작품이다. 좁은 어깨와 밋밋한 가슴, 아담한 형태의 체구, 通肩의 法衣에 표현된 平行密集 옷주름 등에서 당시 비로자나불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내었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섬세하고 형식적인 면이 두드러진 光背와 臺座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당시 비로자나불의 얼굴이 대체로 굳어지고 단정하네 비해서 이 불상의 얼굴은 두 볼이 통통하고 눈과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제작시기는 景文王 3年(863)경에 조성한 桐華寺 石造毘盧舍那佛像(寶物 244호)과 비교할 때, 좌불상의 규격이 대좌에 비해 작은감이 있으나 그 외는 거의 비슷하다. 全高 2.79m

8. 奉化 北枝里 石造半跏思惟像(보물 제997호/북구 산격동 1370)

1965년 11月 新羅五岳調查團에 의해서 奉化郡 物野面 北枝里에서 발견한 石造半跏思惟像이다. 1966년 1月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옮겨졌다. 발견 당시까지는 엎어져서 앞면이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은 단순히 거북바위로 알고 있었을 뿐 佛像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半跏像은 上半身이 없어졌고 팔과 발도 없어졌으나 남아 있는 下半部의 조각으로 보아서는 石造半跏思惟像으로서의 최대규모이고 최상급의 傑作品이라 하겠다.

특히 兩脚의 솟은 힘있는 자세, 臺座 둘레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진 옷주름, 몸 좌우에 달린 고리와 띠의 표현 등은 뛰어난 장인의 작품임을 보여준다. 당당하게 모각된 이 思惟半跏像은 당시 미륵신앙이 왕성하였음을 잘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재료는 花崗石이다. 高 1.75m

9. 石造浮屠(보물 제258호/북구 산격동 1370)

이 浮屠는 八角圓堂의 형식을 따른 부도이다. 원위치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큰 결점이다. 하지만 方形地臺石 위에 基壇, 塔身, 屋蓋, 相輪이 균형있게 올려져 있다. 그리고, 基壇 面石에 조각한 동물상, 갑석상면에 조각한 要문, 상대중석에 양각한 樂天像, 또 탑신

에 양각한 四天王像과 菩薩像, 그리고 屋蓋石 下面에 수려하게 양각된 六體의 飛天像 등 전면
을 숙달된 솜씨의 조각으로 장식했다. 조각기법과 장식성 구도로 보아 高麗初期의 작품이고
우리나라 浮屠 가운데 傑作品에 속한다. 재료는 화강암이며, 높이는 2.39m, 지대석의 폭은 1.
5m이다.

10. 石造浮屠(보물 제135호/북구 산격동 1370)

이 浮屠는 어느 高僧의 것인지 또 원위치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이 큰 결점이다. 그러
나, 조형으로 보아 신라 이래의 八角圓堂型의 기본양식을 따르면서 고려시대의 장식성 구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걸작중의 하나이다.

方形의 下臺石과 中臺石에서 麗代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중대석에 양각된 용
과 구름은 雄麗하여 당시기상을 엿보게 한다. 이는 塔身이나 屋蓋에 비해 기단부를 안정되고
장엄스러운 느낌을 준다. 中臺石의 雲龍彫刻은 복잡한 장식성을 피했으나 구도와 솜씨에서
걸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료는 화강암이며, 높이는 2.74m, 지대석의 폭은 1.57m이다.

11. 道鶴洞 石造浮屠(보물 제601호/동구 도학동 35)

이 浮屠는 心地王師가 창건했다는 桐華寺가 있는
八公山 계곡에 있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구시 동구
도학동 鶴부락에 있었다. 지금은 桐華寺境內에 옮겨서
보존하고 있다. 형태는 八角圓堂型의 기본형을 갖춘
부도로서, 地臺石 위에 팔각의 上·中·下臺의 基壇部
가 있고 그 위에 塔身과 屋蓋石을 올린 부도이다. 지
대석만이 方形이고 그 이상의 각 부재는 모두 평면
팔각으로 되어 있다. 즉 고대 석조부도의 전형적 형
식인 팔각원당으로 모각된 것이다. 하대의 眼象이나
蓮華文 등 장식 가공의 양식이나 형태로 보아 조성시
기는 高麗 初期로 추정된다.



〈사진 4-7〉 도학동 석조부도

12. 麻紙銀泥首楞嚴經 卷第十(보물 제271호/북구 산격동 1370)

寫經은 불교경전을 옮겨쓰거나 베껴 쓴 것으로 그 의도는 傳法, 教化, 研究 그리고 薦度와

功德, 勸善을 위한 신앙심을 두텁게 하기 위함에 있다. 처음은 王室과 貴族들의 번영과 壽福, 그리고 薦度를 祈願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것이나 高麗末頃부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故人の 천도와 현세의 수복 및 소원성취를 위하여 寫經功德을 취하게 되었다.

이 불경은 고려 恭愍王 5년(1356)에 星山의 前直講인 李邦翰이 돌아가신 어머니 李씨를 위해 만든 冥福經으로 타 寫經과는 달리 紺色麻紙에 銀을 갈아서 쓴 經이다. 원래 30절로 되어 있으나 표지가 떨어져 현재는 29절로 되어 있다. 은색의 글씨는 오랜 세월로 그 빛깔이 퇴색해 약간 검은 빛을 띠고 있다. 뒷표지에 銀泥로 寶相 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본 사경에 쓰여진 글씨는 높은 수준의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紀年寫經 가운데서는 오랜 跋記가 있어 주목을 받는다.

13. 粉靑沙器 蓮華紋扁壺(보물 제268호/북구 산격동 1370)

이 粉靑沙器는 작은 口部와 두툼하고 안정감 있는 굽을 갖춘, 또 배가 볼록한 扁壺이다. 高麗靑磁와 같은 胎質위에 靑磁釉를 시유한 초기 분청사기이다. 조선시대 분청사기 특유의 인화문과 粉粧法을 제외하면 거의 高麗靑磁와 같은 질감을 준다.

문양은 어깨 상하에 印花蓮珠文帶를 돌리고 그 사이에 黑白象嵌의 覆蓮花辨文으로 장식하였다. 몸체는 넓은 면에 白象嵌의 蓮花文을 큼직하고 시원스레 장식하고 좁은면에는 忍冬과 牡丹문을 결합한 듯한 문양으로 장식했다. 몸체 아랫면에는 重蓮辨文을 상감했다.

器形, 圖案, 象嵌技法 등이 훌륭할 뿐 아니라 고려자기에서 조선분청사기로 이행하는 과도적 양식을 잘 간직한 15세기의 대표적 작품이다. 높이 18.5cm

14. 釋譜詳節 卷十一(보물 제523호/남구 봉덕동 1125)

釋譜詳節은 世宗 28年(1446)에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석가의 일대기를 엮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釋迦譜, 法華經, 地藏經, 阿彌陀經, 藥師經 등에서 가려 뽑아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弘治年間(1488~1505)에 출간한 甲寅字로 된 弘治板의 復刻本이다.

初刊 또는 飜刻을 막론하고 月印千江之曲과 함께 訓民正音 제정 이후 최초로 鑄成된 한글활자로 印出된 책이라는 것과 문헌의 내용에 있어서도 훈민정음 초창기 음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책이다.

15. 月印釋譜 卷二十一(보물 제745호/남구 봉덕동 1125)

月印釋譜는 世祖 5年(1459)에 月印千江之曲 全3卷과 釋譜詳節 全 24卷을 합편하여 兩書 題目的 윗글자 2자씩을 따서 月印釋譜라 이름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의 각절은 본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내두의 석보상절을 주석같이 하여 엮은 것이다.

이 21권의 책은 목판본으로 복간된 重刊本으로서 上下 2책으로 분책되어 있으며 卷末에 嘉靖 41년(1562) 壬戌 8월 18일의 刊記가 있고 卷首에는 兜率來儀像과 雙林涅槃像의 變相圖가 板刻되어 있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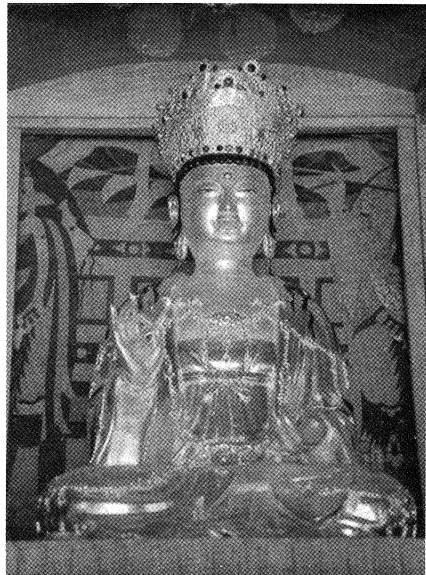
이들 초, 중간본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현재로서는 모두 유일본에 해당하므로 佛敎學, 國語學 및 書誌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16. 把溪寺 圓通殿 木造觀音菩薩坐像(보물 제992호/동구 중대동 7)

이 木造觀音菩薩像은 鍍金함으로써 원래 가졌던 古拙感이나 우아함을 잃었다. 하지만 三重의 높은 寶冠을 쓰고 通肩衣를 걸친 위에 胸飾과 복잡한 纓珞의 조각장식이 근엄한 얼굴 표정과 더불어 화려하면서 鈍重한 원래의 조각미를 엿보게 한다.

法衣 속으로 깊게 트인 가슴에 수평으로 입혀진 裳衣와 띠매듭이 보이는 것은 조선시대에 유행한 불상의 着衣法이다. 또한 가슴에 늘어진 목걸이와 양어깨 위로 걸쳐서 가슴과 배, 다리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영광은 보살상이 지니는 변상의 일면을 강조한다.

이 불상의 조성연대는 腹藏發願文에 世宗 29년(1447)에 重修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麗末鮮初期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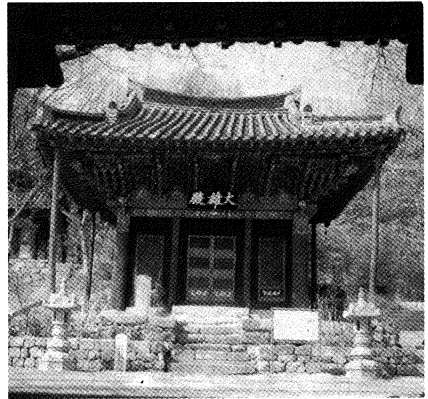


〈사진 4-8〉
파계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7. 北地藏寺 大雄殿(보물 제805호/동구 도학동 620)

北地藏寺는 北地藏寺有功人不忘碑에 보면, 신라고찰이라 했고 구전으로는 신라 炤知王 7年(485) 極達和尚이 창건했다고 한다. 사찰 경내에 조선시대 이전의 建物基壇, 석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사찰은 분명하다.

대웅전으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은 원래 地藏殿으로 쓰던 것을 大雄殿이 없어지니 이 건물을 증수하여 대웅전으로 쓰게 된 것이다. 그 時期는 朝鮮 仁祖年間(17세기)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정면 1칸이고 측면에 퇴칸을 달았다. 栱包는 多包系樣式의 내외 4出目이며 조선시대 중기의 사찰건축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내부가 亭子의 架構手法와 유사하여 불전의 구조로서는 특이하다.



〈사진 4-9〉 북지장사 대웅전

18. 濯纓 거문고(보물 제957호/남구 봉덕3동 1329-2)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160cm, 폭 19cm의 거문고이다. 조선조 戊午士禍의 주동자로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된 濯纓 金駟孫선생이 타던 유물로 149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 중앙부분에 濯纓琴이란 문자가 음각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의 사후에 玉岡이란 선비가 탁영의 거문고임을 밝히는 글을 거문고 전면에 음각해 두고 있다. 鳳尾등의 부품일부는 개수한 흔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거문고로서는 最古의 것이며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9. 辛亥生甲會之圖(보물 1045호/중구 대봉동 55-61)

이 契會圖는 上中下 三段으로 구성되었다. 상단은 契會名, 중단은 契會圖, 하단은 참석자의 座目, 內容, 贊詩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16세기 전반의 계획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식이며 상중하 삼단은 朱線을 횡으로 그어 구분했고 하단에는 다시 23줄의 縱行朱線으로 그어 그 사이를 記文으로 채웠다.

중단의 계획장면은 화면중앙의 큰 巖上에 주인공 삼인및 배석자 4인등 총9명을 작게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약간의 여백을 두고 좌우대칭되는 구도로 산을 그리고 동시에 전경, 중경, 후경의 삼단 구도가 되도록 했다.

계획도는 자연묘사가 주가 되고 인물은 작게 묘사했다. 이러한 구도는 17세기 작품이면서도 16세기 전반의 전통을 유지한 것이다.

II. 史蹟

1. 大邱達城(사적 제62호/중구 달성동 294-1)

대구는 신라때 達句火縣이라 불렸으며 統一新羅 景德王(742~765, 재위)때에 이르러 비로소 大丘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달성의 이름은 이 達句火 또는 達句伐에서 유래된 것이다. 달성은 경주의 月城처럼 평지에 접해서 형성된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축성한 것이 특징이다.

원삼국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쌓은 성곽이다. 성벽은 土石混合築으로서 여러 차례 증축과 보수한 흔적을 보인다. 성지는 많이 교란되었으나, 城基層에서 淡水貝塚와 木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경주 월성과 비슷하다. 성내에서는 원삼국시대 이래의 건물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주 월성과 비슷한 여건에서 축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 동물공원을 건설할 때 원삼국시대의 생활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達城은 삼국시대 성곽으로서는 잘 남아 있는 몇몇 土城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고대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성은 慶尙監營이 안동에서 옮겨오기 전까지는 大丘官衙를 두었던 곳이기도 하다.

주위 둘레는 1,300m, 높이는 바깥쪽에서 8m, 안쪽에서 4m가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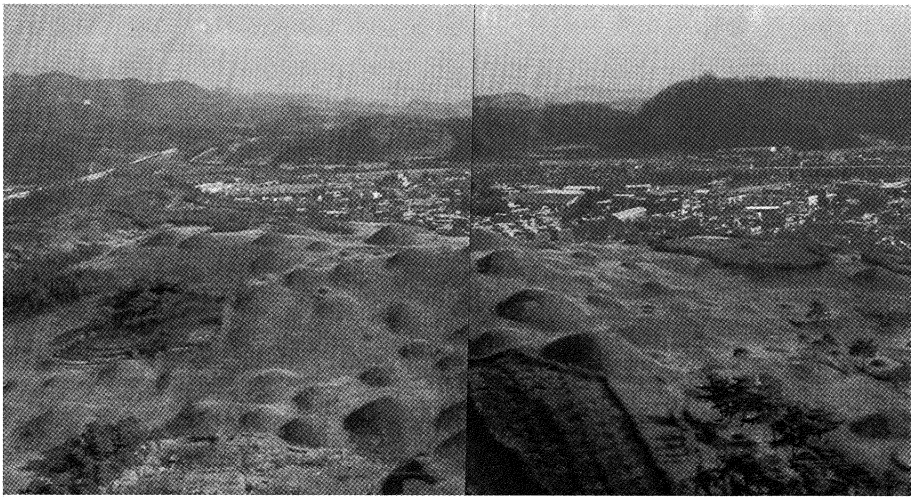


(사진 4-10)

대 구 달 성

2. 大邱不老洞古墳群(사적 제262호/동구 불로동 335)

불로동 고분군이 분포하는 일대는 금호강의 넓은 범람원에 돌출한 나즈막한 구릉지이다. 현재, 외형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고분만도 200여기가 된다. 대형고분의 규모는 직경 20m내 외이고, 높이는 4m내외이다. 구조는 냇돌과 할석으로 네 벽을 쌓고 천정은 큼직한 판석을 여러장 덮은 竪穴式石室 구조이다. 가까이에 土城과 山城이 있고 큰 마을을 조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 또 고분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에 금은제 장신구, 馬具類, 鐵武器가 다량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고분군은 대개 4~5세기경의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토착지대세력의 집단묘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4-11)

대구 불로동 고분군

3. 大邱桂山洞聖堂(사적 제290호/중구 계산동 2가 71)

이 건물은 개화기의 대구역사를 상징하는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 이 건물은 붉은 벽돌과 검은 벽돌로 건축한 고딕 양식의 성당이었던 것을 1918년 12월 24일 지금의 구조로 증축 낙성한 것이다. 증축될 때 건축 당시보다 鐘塔의 높이를 두 배로 올렸고 남북으로 翼廓을 달았으며, 시공자는 중국인 姜義寬이라 한다.

이 성당의 구조는 평면은 트란셉트(Transept)를 가진 라틴십자형으로, 서측 정면에 세운 두 개의 종탑부에는 8각의 높은 尖塔을 두었다. 특히 정면과 양 트란셉트의 박공부분에는 아름다운 장미창이 있다.

내부 祭臺 뒤로는 5각형의 평면을 이룬 반원 아아치 아케이드가 있고 이는 5각형의 에이프스(Apes)와 연결되어 있다. 또 제대 뒤 위쪽 중앙에는 ‘루르드 聖母洞窟’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진 4-12〉 대구 계산동 성당

III. 天然記念物

1. 達城의 側柏樹林

(천연기념물 제1호/동구 도동 산 180)

이곳에서 측백나무숲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식물의 원산이 중국이라 추측했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것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을 비롯하여 경북의 안동과 울진, 충북의 단양 등지에서 숲을 이루어 자라고 있음이 밝혀져서 渡來種이 아님이 인정되었다. 큰 것은 20m까지 되나 이곳 측백나무는 10m미만의 나직한 것들이다. 측백나무는 상록침엽수로서 灌木 또는 木喬木이다. 특징은 밑쪽에서부터 가지가 번져서 뻗뻗하게 자란다. 정원수로서 널리 재배되는 식물이다.

IV. 重要民俗資料

1. 英祖大王의 道袍(중요민속자료 제220호/동구 중대동 7)

이 도포는 1979년 파계사 圓通殿의 관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복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도포와 함께 발견된 발원문에는 乾隆 5년(1740) 庚申 9월에 대법당을 개금하고 불상과 나한을 중수하고 영조대왕이 탕불일천불을 회사하고 佛供願堂之處로 삼게 하였고 聖上의 만세유전을 비는 뜻에서 靑紗上衣를 복장하노라 했다.

형태는 넓은 두리소매이며 1670년대 서민의 것이 반달깃인데 비해 반목판깃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서민과 왕족양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展衫(뒤에 늘어진 자락)이 있어 시대에 따라 깃의 형태나 소매 옷깃의 밑단선이 달라짐을 보여 주고 있다.

2. 진주하씨묘 출토유물(중요민속자료 제229호/건들바우 박물관)

이 유물은 1989년 4월 경북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石門山城에 소재한 晋州河氏의 墓(忘憂堂 郭再祐의 종질부)를 이장하던 중 출토되었다.

피장자 진주하씨가 생존했던 1600년대 초기의 국문학, 국어학, 서지학, 복식 등의 특징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글편지 149건, 한문편지 5건, 置簿記錄 14건을 비롯한 168건의 서간문과 장의 4점, 창 의 1점, 저고리 8점, 버선 18점, 속곳 14점 등 70여점의 복식류이다.

서간문은 한글 흘림글씨로 17세기 초반의 국문학(특히 서간문), 국어학, 민속학, 서지학상에 많은 문제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복식유물은 17세기 것으로 주로 무명이 출토된 점이 같은 시기의 다른유물과 차이점을 보인다. 70여점 중 6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말에 목화재배를 시작, 조선중기에 직조기술, 재배법이 일반화되었거나, 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임진왜란 직후 물자가 부족하여 무명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복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第2節 大邱直轄市 指定文化財

I. 有形文化財

1. 八公山 磨崖藥師佛坐像

(유형문화재 제3호/동구 용수동 산1)

八公山 中央峰의 정상가까운 남쪽 암벽에 새겨진 藥師如來坐像이다. 형상은 蓮花坐위에 結跏趺坐한 반양각의 좌상이며 左手에 藥壺를 얹고 있다.

素髮에 큼직한 肉髮 어깨 가까이까지 내려온 긴 귀, 높다란 콧대, 가볍게 다문 입 등의 안상과 더불어 어깨가 당당하면서 굽지 않은 체구, 左肩偏袒의 섬세한 옷주름, 또 옆으로 벌어져서 안정감을 주는 무릎 등의 구도와 조각 솜씨는 회화적인 美까지 풍긴다.

龍頭가 받치고 있는 복련과 양련의 좌대와 연화문을



〈사진 4-13〉 팔공산 마애약사불좌상

새겨 돌린 頭光, 화염문을 새겨 장식한 身光은 균형있는 구도를 이루어 불상의 숭고성을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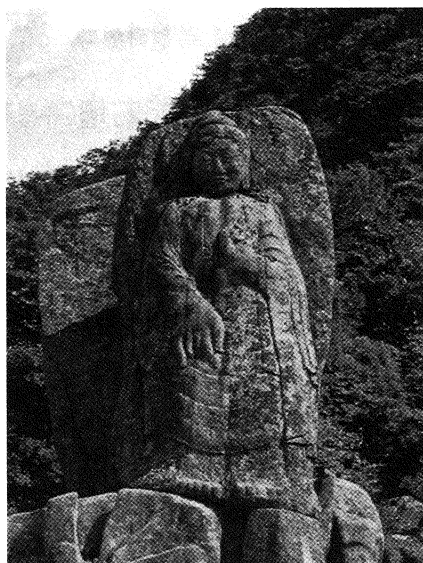
동화사 입구의 磨崖佛坐像(보물 243호)과 더불어 畫面形式에 안정된 규격과 流麗한 刻美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2. 八公山 東峰 石造藥師如來立像(유형문화재 제20호/동구 용수동 산 1)

이 佛像은 팔공산 중앙봉의 정상에 위치하며 전체 높이가 6m에 달하는 거대한 입상이다. 素髮의 머리와 얇은 肉髮를 가졌다. 두 볼이 풍만하고 입가에 약간의 미소를 띤 것과 잘 조화되어서 인자한 모습이다.

法衣에 가려진 직립 佛體下端에는 발끝이 노출되었다. 발가락의 조각이 뚜렷하여 높고 거대한 불상임에도 안정감을 준다. 오른팔은 안쪽으로 늘어뜨렸고 몸에 비해 크다. 다섯손가락의 길이가 고르지 않아 부자연스럽다. 왼팔은 가슴 앞으로 올려 장지를 엄지에 구부려 持物을 잡고 있는 듯한 손가짐이나 확실치는 않다.

이 불상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데서 造形에 畸形的인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대한 立佛이라는 점과 신라후기의 조각양식을 따르는 점에서 귀중하다 하겠다.



〈사진 4-14〉
팔공산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

3. 松亭洞 石佛立像(유형문화재 제22호/동구 송정동 363)

이 불상은 板狀으로 생긴 화강암을 이용하여 반양각한 立佛像이다. 풍화가 심하기는 하나 단정하면서 풍만한 조각미를 지니고 있다.

素髮에 큼직한 肉髮와 길다란 귀를 가지고 있으며 윤곽은 온화한 相好를 나타내고 있다. 法衣는 通肩衣로 얇게 모각한 법의가 몸매를 더욱 풍만하게 하고 있다. 양손은 가슴 앞에 모으고 있는 듯하나 훼손이 심하여 알 수 없다.

풍만한 좌세와 균형잡힌 造形 및 조각기법으로 볼 때,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4. 北地藏寺 三層石塔(유형문화재 제6호/동구 도학동 620)

동서로 배치한 雙塔이다. 형식은 통일신라기의 전형적 양식으로서 二層基壇위에 三層塔身石을 올린 형태이다.

下基壇의 각 面石에는 撐柱 2개, 隅柱 2개를 모각했고 上基壇 面石에는 隅柱 2개 撐柱 1개를 모각했다. 塔身部는 각층의 塔身과 屋蓋를 각 1개석으로 하고 塔身石에는 隅柱만을 모각하고 옥개석에는 4단의 받침을 모각했다.

1981년 5월 해체 복원하였다.

5. 夫人寺 石燈(유형문화재 제16호/동구 신무동 356)

이 석등은 다른 절터에 있었던 火舍石을 가져다가 복원하였다. 양식은 統一新羅期の 일반형인 基壇石, 竿柱石, 上臺石, 火舍石, 屋蓋石, 相輪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등의 기단은 네모난 지대석 위에 覆蓮을 모각하고 기단의 각 측면에는 2개씩의 안상을 음각해 두었다. 그리고 복련은 複瓣 八葉으로 조각하였으며 그 윗면에는 3단의 8각받침을 만들어 8각 간주석을 받도록 했다.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상대석은 복단 중엽의 양련문을 새겼고, 윗면에 3단의 괴임을 모각했다. 화사석, 옥개석 등도 역시 8각으로 된 한개의 돌로 조성했고, 옥개석 정상에는 음각의 蓮瓣文을 새기고 상륜을 받도록 했다.

이 석등은 추녀가 길고 얇으며 낙수면도 流麗하여 경쾌감을 준다. 또 조각이 섬세하고 전체의 균형미도 뛰어나 있다.

6. 夫人寺 西塔

(유형문화재 제18호/동구 신무동 215-1)

원래 雙塔으로서 도괴되었던 것을 1964년 西塔만을 복원하였다. 형식은 統一新羅期の 전형인 二重基壇위에 塔身部를 올린 형태이다.

下層基壇과 甲石은 4개의 돌로 짜여졌고 갑석상면에는 괴임을 각출하고 면석에는 탕주와 우주를 모각했다. 上層基壇은 탕주와 우주가 새겨진 4매의 면석으로 짚고, 갑석아래에는 副椽을, 상면에는 2단의 괴



〈사진 4-15〉 부인사 석등

임을 모각했다.

각층의 탑신과 옥개석은 모두 각 한개씩의 돌로 되어있고 塔身의 경우 우주를 새기고 옥개석은 하면에 5단의 옥개받침과 상면에 2단의 괴임을 모각했다. 낙수면은 완만하나 끝은 반전되었다.

꼭대기에는 擦柱를 삽입했던 方形의 露盤이 있을 뿐 覆鉢 이상의 상륜부는 없어졌다.

7. 新武洞 三省庵址 磨崖藥師如來立像(유형문화재 제21호/동구 신무동 산 16)

이 불상은 부인사 뒷계곡에 노출되어 있는 자연암석에 새겨둔 반양각의 立佛像이다. 素髮에 큰 肉髮를 갖추고, 긴 귀에 눈은 가늘며 반원의 눈썹이고, 콧대가 오뚝하고 입은 가볍게 다문 약사여래상이다.

불상의 어깨는 좁고 힘을 뺀 듯한 자세이다. 오른손은 밑으로 내려 가볍게 법의를 감고 왼손은 가슴 아래에 올려 寶珠形의 藥盒을 들고 있다. 法衣의 주름표현은 비록 단조로우면서 두껍게 모각하였으나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다.

풍우로 인해 조각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표현에서 唐風威容이 엿보이면서 한편 경직된 표현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불상은 신라의 기법에서 고려로 전환되는 磨崖佛임을 말해준다.

8. 新武洞 磨崖佛坐像(유형문화재 제18호/동구 신무동 215-1)

이 불상은 부인사 계곡 아래쪽에 위치하며 지상에 노출된 큰 바위를 이용해서 半陽刻으로 새긴 坐佛像이다. 肉髮를 두텁이 구분하지 않은 螺髮의 머리와 풍만감을 주면서 길쭉한 相好를 나타내고 있다. 眉間에는 白毫를 嵌入한 흔적이 있다. 목은 짧으면서도 三道가 표현되었고 어깨는 당당하다.

手印은 施無畏印을 하고 있으며 결가부좌한 모습은 상반신에 대해 안정감을 주고

있다. 법의는 通肩衣이고, 법의의 주름표현은 투텁고 경직되어 위엄을 풍긴다. 좌대는 양련과 복련을 상하로 새겼으며 仰蓮瓣 속에는 꽃무늬를 새겨놓았다. 광배는 舟形舉身光으로, 頭光은 연화문을 배치하고 身光은 고사리문을 돌리고 外椽에 화염문으로 彫飾하였다.

조각기법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高麗時代이다.



〈사진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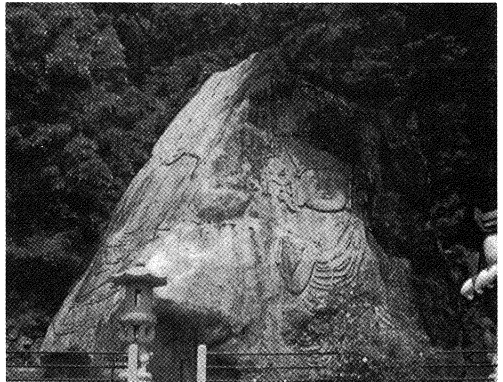
신무동 마애불좌상

9. 桐華寺 念佛庵 磨崖如來坐像 및 菩薩坐像

(유형문화재 제14호/동구 도학동 35)

왼쪽이 뾰족한 三角錐狀의 자연석암의 두 측면에 선각으로 조성한 여래상과 보살상이다.

여래상은 높이 4m이며 화사한 仰蓮座 위에 결가부좌하고 손을 妙觀察智定印으로 모아 무릎 위에 올린 아미타불이다. 상반신은 全裸形이고 法衣는 복부아래만 돌린 모습이다. 머리는 素髮이며 육계가 있고 相好는 모가 나서 네모꼴이다. 깊고 굵게 선각한 눈, 코, 입, 귀는 힘있고 근엄한 표정이다. 仰蓮花座 아래에는 구름 무늬가 있어 천상세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4-17〉

동화사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菩薩像은 높이 4.5m이며 蓮花座위에 結坐한 듯한 좌세이나 법의에 가려서 알아볼 수 없다. 扇形의 높은 寶鉢을 쓴 상호는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모가난 네모꼴이다. 코와 입 사이가 짧아서 특색이 있다. 두손은 舉手說法形이며 꽃줄기를 잡고 있다. 線刻된 아미타불과 보살은 표현기법으로 보아 동일인의 솜씨이다.

간결하면서 힘있는 윤곽은 감상적인 표현에서 벗어나고 또 인간적인 자연주의나 사실을 벗어나서 觀念의 像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10. 桐華寺 念佛庵 靑石塔(유형문화재 제19호/동구 도학동 35)

원래의 위치에 유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塔身 일부가 결실된 채 보존되어 있다. 재질은 黑色粘板岩으로 地臺石 기단위에 곧바로 靑塔을 올렸다. 탑에는 아무런 조각도 없다.

각 옥개마다 아래면에 2단의 角形받침을 모각하고, 上面에는 1단의 괴임을 모각해 두었다. 옥개석은 모두 두께가 얇고 낙수면도 平薄하고, 네 귀퉁이의 전각도 반전이 심해서 매우 경쾌한 느낌을 준다.

옥개석의 채감율이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넓은 지대석 위에 놓여졌던 小塔으로 볼 때 매우 안정감을 보이는 소탑이다.



〈사진 4-18〉

동화사 염불암 청석탑

11. 北地藏寺 石造地藏菩薩坐像(유형문화재 제15호/동구 도학동 620)

北地藏寺 경내에서 발견된 菩薩像이다. 座臺와 光背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손상은 입지 않았다.

머리는 素髮이며 왼손에 寶珠를 엮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아 觸指印을 취하고 있다. 頭部的 형태나 持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장보살이다. 法衣는 通肩으로 옷주름의 조각선이 섬약하고 형식화 했다. 이 점에서 시대가 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정한 자세와 온화한 相好 등으로 보아서는 羅末麗初期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12. 濯纓宗宅 文籍(유형문화재 제27호/남구 봉덕3동 1329-2)

濯纓宗宅 文籍은 金宗直의 門人으로 戊午士禍의 주동자로 처형된 濯纓 金駟孫(1464~1498)과 부인의 教旨및 紫溪書院의 笏記및 屯田沓 騰本이다.

김일손은 그 후 中宗反正 이후 伸冤되어 도승지, 이조판서로 追贈되었고 諡號까지 받았다.

교지 5종류는 도승지, 이조판서 추증교지와 諡號教旨및 前, 後 兩夫人의 貞夫人 追贈에 대한 것이다.

笏記는 金克一, 金駟孫, 金大有 등 3인을 配享하고 있는 자계서원의 春秋享祀用 笏記로 行禮와 祝文은 朱子家禮에 준하여 正統儀法으로 기재되어 있다.

屯田沓 庚子改量騰錄은 자계서원의 전신인 紫溪祠가 1578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자 서원의 재산목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둔전답을 개량하여 새로이 만든 등본으로 부록편에는 노비문서가 있다.

13. 月谷禹拜善 壬辰倭亂 倡義錄 및 關係文書

(유형문화재 제31호/달서구 상인동 950)

禹拜善 倡義錄은 임진왜란 당시에 작성된 고문서로서 倡義, 詩賊, 軍功, 上下級官員들의 왕복문서 및 서찰 등 10종 20건을 적절히 배접하여 帖裝한 것이다. 관계문서는 禹拜善의 教旨 7매와 宣祖 末年으로 추측되는 3정승 6판서를 위시한 司憲府, 司諫院, 承政院 관원의 職名과 始名, 서울 주소를 기재한 各宅記, 그리고, 鄭仁弘 간찰 등이다.

14. 桐華寺 浮屠群(유형문화재 제12호/동구 도학동 124-1)

桐華寺 서편의 境外에 위치하며 현재 10基의 크고 작은 浮屠가 한구역에 안치되어 있다.

이 부도군은 대체로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조성된 여러 형의 부도이다. 聖岩堂海淨大

師塔(1839), 霽月堂大師塔(1927), 箕城大師塔(1764), 性任堂笠尊大師塔(1700), 孤雲堂浮屠(1676), 涵宇堂浮屠(1720), 無名の浮屠(조성연대미상), 霜峯淨源大師塔(1709), 桂影堂克麟大師塔(1692), 孤閑堂浮屠(조성연대미상) 등에서 보듯이 桐華寺의 寺勢가 신장하게 되던 때의 人物들의 것이다.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모두 화강암으로 각조되었다. 규모는 총높이가 1.41m에서 3.32m이고 基壇部만의 높이는 0.25m에서 0.84m이다.

15. 夫人寺 浮屠(유형문화재 제28호/동구 신무동 36)

화강암으로 만든 이 부도는 조선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전통양식의 골격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 회귀하다. 형태는 통일신라 이후 많이 사용되었던 八角圓堂形을 따르는 형태이다. 基壇部, 塔身部, 屋蓋部 구성되어 있으나 相輪部는 분실되었다.

下臺石은 방형지대석 위에 연화대와 연화문과 사자상을 양각으로 조각하였다. 中臺石은 팔각으로 동물상, 동자상 및 花文을 양각하였다. 上臺石은 윗면을 넓게 하고 주위에 仰蓮文을 조각하였다. 탑신석은 팔각이나 상하의 각을 오무려 배흘림 기둥처럼 처리하고 앞면에 隱通堂이라 陰記하였다. 옥개석은 상면에 隅棟과 기와끝을 모각하고 우동의 끝에는 망와형의 귀면을, 하면에는 2중의 椽木을 모각하였다.

이 부도는 각부재의 구성비례나 표현기법의 약식화 등에서 신라, 고려에서 보여주는 섬세성이나 미려함이 부족한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16. 嶺營築城碑(유형문화재 제4호/수성구 만촌동 산 83-5 영남제일관앞)

大邱邑城은 처음 土城으로 축조되었다. 그 후 허물어지게 되어 영구성을 위해 朝鮮 英祖 12년(1736) 慶尙道 觀察使兼大邱都護府使 閔應洙가 나라에 건의하여 石城으로 개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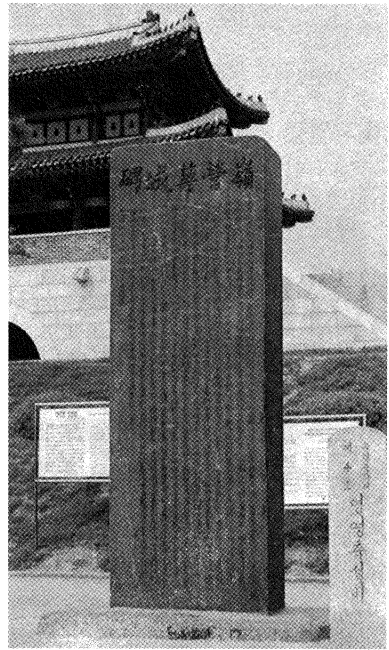
이 碑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비문은 閔應洙가 짓고 글씨는 白尙輝가 써서 英祖 13년(1737) 2월에 大邱 南門(嶺南第一關) 밖에 세웠던 것이다. 朝鮮 高宗 光武 10년(1906)에 당시 大邱 郡守 朴重陽에 의해 성은 헐렸고, 이 비는 대구향교에 옮겨졌다가 1980년에 현위치로 다시 옮겨졌다.

17. 大邱府 修城碑

(유형문화재 제5호/수성구 만촌동 산 83-5)

大邱邑城은 朝鮮 英祖 때 慶尙監司 閔應洙가 국방상의 이유로 石城으로 쌓은 후 門樓등이 훼손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高宗 7년(1870) 3월에 慶尙道觀察使 金世鎬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수리를 끝내었다. 이 때 원래의 성보다 높이를 더하고 동서남북 대문의 문루도 고치고 그 사연을 이 비에 기록해 세웠다. 高宗 光武 10년(1906), 대구부성이 헐리면서 갈 곳이 없어졌던 것을 1932년 大邱 鄉校 경내로 옮겨고, 1980년 嶺南第一關門이 중건되면서 현위치로 옮겨졌다.

비문은 관찰사 김세호가 지었고 글씨는 折衝將軍 崔錫魯가 썼다.



〈사진 4-19〉 영영축성비

18. 李公隄碑 및 郡守 李侯範善永世不忘碑

(유형문화재 제23호/중구 대봉1동 655)

李公隄碑는 李淑先生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대구의 주민들이 세운 頌德碑이다. 당시 대구 분지를 관유했던 하천은 지금과 달리 龍頭山—수도산—동산—達城公園앞—琴湖江으로 흘렀기 때문에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 正祖 즉위년(1776) 李淑이 대구 判官으로 부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염려, 정조 2년(1778) 주민 부담없이 私財를 털어 제방을 축조하였다. 이에 감응한 주민들이 제방이름을 [李公隄]라 칭하고, 물길을 돌려 새로 만든 내를 새내 또는 新川이라 불러 그해 8월에 이 비를 세웠다. 그러나, 그 후 없어진 것을 정조 21년(1797) 다시 세우고 純祖 5년(1805)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또 다른 비를 세워 현재까지 전한다.

군수 李侯範善永世不忘碑는 李範善이 대구지방 守令으로 재직 당시인 高宗 光武 2년(1898) 큰 홍수로 이공제의 하류부분이 크게 유실되어 大邱邑城이 위험하게 되자 공은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 보수공사를 단시일에 완성하여 백성의 근심을 덜어 주었다. 이에 그 이듬해 백성들이 이 비를 세워 이공제비와 함께 보호해 왔다.

이 비석들은 지방수령으로 재직 당시 治水에 힘쓴 업적을 기려 백성들이 세운 것으로 오늘날의 대구를 만든 사람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 把溪寺 圓通殿(유형문화재 제7호/동구 중대동 7)

과계사는 新羅의 心地王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圓通殿은 朝鮮 宣祖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 38년(1605)에 戒寬法師가 重建하고, 肅宗 21년(1695)에 玄應祖師가 다시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렀다.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기와기붕 건물로 자연석 柱礎위에 등근기둥을 세우고 多包式의 栱包로 조립하였다. 이 건물은 朝鮮後期 건축양식을 잘 갖춘 사찰건물이다.

20. 澄清閣(유형문화재 제2호/중구 포정동 21 중앙공원)

澄清閣은 慶尙監營의 觀察使가 處所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宣祖34년(1601)에 宣化堂 凝香堂등 여러 채의 건물과 함께 지어졌다.

그후 선화당처럼 여러 차례의 화재로 불타던 것을 純祖 7년(1807)에 觀察使겸 府使 尹光顔이 重建하였고 경상북도 청사가 이전된 후인 1970년 중앙공원 조성때 지금의 모습으로 중수하였다.

청정각은 정면 8칸, 측면 4칸에 넓이가 277m나 되는 큰 단층팔작 기와집으로 二高柱 七樑架의 翼工系 건축이다.

21. 宣化堂(유형문화재 제1호/중구 포정동 21 중앙공원)

건물명은 宣化堂이고, 慶尙道監營의 政廳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조선시대 官衙建物로서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다. 그러한 뜻에서 귀중한 건물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慶尙監營의 상징이 되는 건물이라는 데서 가치가 있다.

경상감영은 宣祖 34년(1601) 觀察使 金信元 때, 安東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그 후 顯宗 11년(1670)과 英祖 6년(1730), 그리고 純祖 6년(1806)의 세 차례에 걸쳐 燒失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純祖 7년 관찰사 겸 大邱府使인 尹光顔에 의해서



〈사진 4-20〉

선 화 당

중건되었다. 그 후 경상북도 청사로 쓰였다가 1970년 도청이 이전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보

수, 복원하게 되었다. 구조는 정면 6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기와집으로 柱心包 양식과 翼工式의 절충형 栱包를 이룬 二高柱 七樑架의 집으로 겹처마로 되어 있다.

22. 鳳舞亭(유형문화재 제8호/동구 봉무동 939)

鳳舞亭은 朝鮮時代 말기인 高宗 12년(1875)에 國子 生員이자 대학자인 鳳村 崔象龍이 동리 사람들과 의논하여 지은 것인바, 동편에 德教齋, 서편에 禮用齋의 兩室과 그 중간에 講堂을 배치하였다. 동서편 兩齋는 公이 宗約과 洞規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洞民들이 모여 의논한 곳이고, 강당은 농민들의 제물을 겸해서 동규등을 가르친 곳인 동시에 여러 선비들이 각지에서 모여 士友會를 열고 詩文과 풍악으로 풍류를 즐기기도 한 곳이다.

화강석 둥근 초석위에 둥근 기둥을 세운 5樑 집으로 홀처마에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쪽 박공면에 내림지붕을 달았다. 조선시대 말기의 대표적 건축양식을 나타내는 건물이다.

23. 盛才書堂(유형문화재 제9호/동구 미대동 169)

이 곳은 조선 仁祖 때의 선비 蔡明輔(1574~1644)선생이 亭子를 짓고 만년에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그 뒤 후손들이 선생의 높은 덕행을 널리 기리고자 새로 수축하고 그 이름을 성재서당이라 개칭하였다.

선생의 諱는 先見이며 字는 명보요 號는 兩傳軒이고 本貫은 仁川이며 蔡應麟의 다섯째 아들이다. 어려서 芝山 曹好益 선생과 寒崗 鄭述 兩門下에서 수학하였다. 光海君 9년(1617) 生員試에 합격하였다. 그 후 西宮유폐사건이 일어나자 마을 선비들과 함께 상소를 올려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仁祖 2년(1624) 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發憤倡義하여 鄉兵을 모집하고 軍糧米를 수집하였다. 인조 4년(1626)에는 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귀향하여 이곳에 盛才亭을 짓고 선비들과 학문을 강론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24. 桐華寺 大雄殿(유형문화재 제10호/동구 도학동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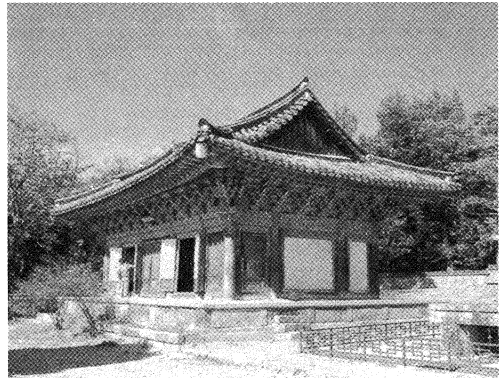
桐華寺는 新羅時代에 創建된 후 8차례의 중창을 거듭하였고, 대웅전 역시 여러 차례의 重建을 겪었다. 현재의 건물은 朝鮮後期인 英祖 3년(1727)에서 영조 8년(1732) 사이에 新羅時代 伽藍에서 벗어나 새로이 이곳에 建立하였다.

構造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多包式 팔작지붕 건물이고 栱包는 內五出目, 外三出目이며 바깥의 諸貢 쇠서끝이 날카로운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詹遮도 한몫으로 조각되고 끝이 뾰족한 연꽃봉오리로 裝飾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裝飾의 性向이다.

이 건물에서는 정면의 과살 문짝과 모서리 기둥이 주목된다. 문짝은 솟을 빗살에 활짝 핀 꽃잎을 색색으로 새기고 그 바탕에 네 개의 잎을 배열시키는 등 장엄한 장식을 하였고, 기둥은 가공하지 않은 아름드리나무를 그대로 세워 건물의 안정감과 自然美를 나타내었다.

25. 桐華寺 極樂殿(유형문화재 제11호/동구 도학동 36)

이 건물은 동화사 원래의 가람인 金堂境內에 있으며 조선 숙종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 중앙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二高柱五樑의 架構로 고주 위에 大樑이 걸리고 그 위는 우물반자를 가설하여 천장을 꾸몄다. 栱包는 쇠서가 빠드러져 있고 簷遮 아랫부분이 직선에 가깝게 마무리되는 등 朝鮮中期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진 4-21〉 동화사 극락전

이 건물은 架構式 기단이라고 부르는 신라시대의 기단유구 위에 중창한 것이다. 기단은 지대, 面石, 甲石이 남아 있고, 갑석의 모퉁이는 ‘ㄱ’자형으로 만들고 꺾이는 곳에 물매를 주어서 曲線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前面 중앙에는 계단이 있고 방형의 초석과 고막이돌, 信枋石 등도 그대로 남아 있다.

26. 宣教師 스윙즈 住宅(유형문화재 제24호/중구 동산동 194)

대구에 남아있는 開化期의 서구식 건물이다. 대구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1893년 美國 北長老教 소속 선교사가 대구를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부터이다.

본 건물은 1910년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것으로 스윙즈 선교사등이 거주하였다.

평면구성은 남쪽 우측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가 있고 현관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계단실, 욕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安山岩의 城돌(大邱邑城 철거시 가져옴)을 바른층 쌓기한 기초위에 붉은 벽돌을 4단 길이 1단 마구리로 한 美式쌓기를 하였다. 지붕은 韓式기와를 이은 박공지붕이었으나 함석으로 개조하였다.

이 집은 지붕재료와 마감재료의 일부가 개변되긴 하였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및 내부구조가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대구의 개화기에 처음 들어온 서구식 주택가옥의 표본이 되는 건물이다.

27. 宣教師 챔니스 住宅(유형문화재 제25호/중구 동산동 424)

대구 시가지를 내려다 보는 동산마루에 붉은 벽돌을 쌓아 지은 본 建物は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집으로 선교사 챔니스 등이 거주하였다.

평면구성은 남북으로 약간 긴 長方形으로 1층은 서쪽 중앙에 있는 主 출입구에서 계단실이 있는 홀과 연결되고 이 홀을 중심으로 거실 서재 부엌 식당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각각 침실은 배치하였다.

외관은 서측 정면 중앙부에 목조로 된 현관을 두고 동남쪽에는 목조베란다를 설치했으며 벽면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붉은 벽돌을 2단 길이 1단 마구리로 처리한 美식쌓기를 하였다.

28. 宣教師 블레어 住宅(유형문화재 제26호/중구 동산동 424)

본 건물은 1910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의 주택으로 지은 것으로 블레어 선교사등이 거주하였다.

平面構成은 남북이 약간 긴 장방형으로 1층은 서쪽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가 있고 현관홀을 통하여 응접실 거실 계단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부엌 식당등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ㄷ’자형의 계단홀을 중심으로 3개의 침실과 욕실을, 현관 베란단의 상부에는 선룸(Sun Room)을 두었다.

외관은 기초와 지하실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붉은 벽돌을 미식쌓기 하였다. 지붕은 박공면이 남북으로 향하는 것과 서향으로 향하는 것이 ‘ㄱ’字형으로 직교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경사진 지붕면은 웨드(Shed)형으로 하였다. 건물의 남측과 서측에는 목조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 지붕위에는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굴뚝을 돌출시켰다.

이 집은 외관상 같은 시기 미국의 방가로풍에 가까운 洋式住居 건물로서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29. 聖母堂(유형문화재 제29호/중구 남산동 225-1)

대구의 개화기에 건조한 구조물이다. 大邱 天主敎會 初代 敎區長이었던 드망즈(安世華) 主敎는 1911년 대구 주교관과 신학교 건축 및 聖母聖堂(現 桂山聖堂) 증축 방도를 마련해 주시면

주요관내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루르드 聖母窟을 본딴 건물을 지어 모든 사람들이 巡禮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노라고 誓願하였다.

본 성당은 드망즈주교의 서원에 대해 1918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건물의 설계와 모형은 루르드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은 전국 유일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유에 따라 가능한 "루르드 聖母窟"의 크기나 바위의 세부적인 형상까지 흡사하게 하였다. 平面形은 우측면의 背面이 약간 꺾여 들어간 長方形으로 內部는 암굴처럼 꾸미고 그 위에 마리아상을 奉安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基礎위에 흑색벽돌로 각 모서리의 버팀벽과 수평띠를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붉은 벽돌로 쌓았는데 각부의 비례구성이 아름답고 벽돌組積이 정교한 건물로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30. 大邱第一敎會(유형문화재 제30호/중구 남성동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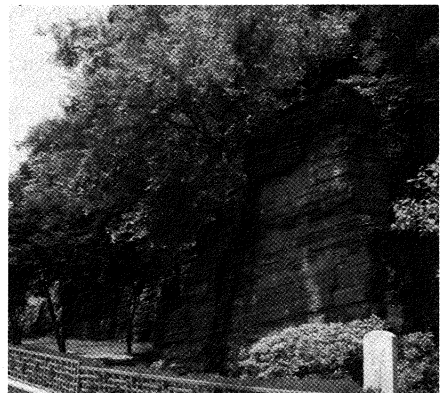
제일교회의 터는 경북지방에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건립되었던 곳이고, 선교사들이 대구의 개화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근대적의료 및 교육을 전개했던 거점이기도 하다. 현재의 건물은 1933년 9월 신도들이 헌금으로 건축된 것이나 대구의 수많은 교회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고 뿐만아니라 기독교가 근대화에 기여한 것의 상징이 되어 있다. 건물양식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고 정면중앙에 현관을 두고 또 우측에 종탑을 두고 벽돌쌓기한 2층의 간결한 고딕식 건물이다.

II. 記念物

1. 건들바위(笠巖)(기념물 제2호/중구 대봉2동 735-28)

건들바위는 어느 때부터 생긴 이름인지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갓쓴노인 같다고 해서 笠巖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大邱十景의 하나로서 徐居正(1420~1488)선생의 [笠巖釣漁]의 詩題가 바로 이곳을 두고 읊었던 것이다. 그 때에는 바위 앞에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낚시를 하면서 즐겼던 경치좋은 명소였다. 또, 이곳에 노출된 岩石은 大邱盆地의 地盤岩을 대표하는 中生代岩盤層의 표본



〈사진 4-22〉 건들바위

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기이하게 생긴 이 갯바위에 점장과 무당들이 몰려와 치성을 드렸는데 특히 아기를 갖지 못한 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러 많이 찾았던 무속적 장소이다.

2. 沙月洞 지석묘군(기념물 제9호/수성구 사월동 469)

대구 일원에는 많은 지석묘군이 하천유역별로 크게 구분되어 분포한다. 분포구역은 신천유역, 진천천유역, 옥수천유역, 율하천유역이다.

지석묘군은 대구 남쪽지역을 흐르는 옥수천 하류역에 분포하는 지석묘군 가운데 한 묘군이 다. 외형상으로 남방식지석묘로 분류되는 형태이고, 상석 4개가 밀집되어 유존한다. 옥수천과 남천이 합류하는 복합선상지에 위치하며 옥수천유역에서는 가장 잘 남아 있는 지석묘군이다.

3. 鳳舞洞 土城(기념물 제4호/동구 봉무동 26·27)

이 토성은 서남쪽이 금호강에 면하여 높은 단애를 이루고 동북쪽의 일부만 제외하고는 積土하여 가파른 경사를 만들었다. 서남쪽은 자연단애를 이용하고 동북쪽은 土石으로 높이 5m 정도로 성벽을 쌓아 서로 연결하여 외부로부터 차단되게 하였다.

토성의 둘레는 약 350m이고 높이는 서남쪽의 바깥쪽이 30m정도이고 여타구간은 바깥쪽에 서 6m내외가량 된다. 높이나 너비가 극히 소규모여서 군사적인 성곽이라기보다 鳳舞洞·不老洞의 古墳群을 남긴 上層人의 居住地이거나 이들 세력집단의 도피용 산성으로 판단된다. 城內의 산포유물로 보아 축성은 3~4세기경인 삼국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4. 龍岩山城(기념물 제5호/동구 도동 35,36)

이 산성은 중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군사적 요충지에 있었던 산성이다. 이곳은 대구에서 河陽으로 통하는 옛길목에 위치하며 해발 380m나 되는 산의 정상이다. 성 둘레는 약 1,000m 정도이다.

山頂上은 평평하며 동서 양쪽의 사면은 50도 가량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쪽과 남쪽의 산기슭과 능선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지에는 대규모의 인공절벽을 만들어 外侵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인공절벽에는 城門址로 추정되는 입구가 있다.

築城時期는 성내에서 발견되는 新羅의 土器조각 등으로 미루어 三國時代로 추정된다. 성벽은 土石混用이다. 성안의 동북쪽에는 玉泉이란 우물터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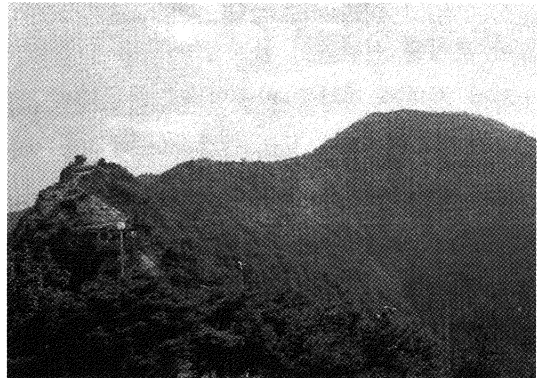
5. 八莒山城(기념물 제6호/북구 노곡동 526)

大邱盆地의 북쪽에 자리하는 八公山의 지맥 끝부위에 있다. 山頂에 구축된 산성으로 생김새가 函芝를 엮어 놓은 것과 흡사해서 이 산을 函芝山 또는 반티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城은 內城에 盆地 모양의 평지와 계곡을 두고 있는 包谷形 山城으로 해발 300m가 넘는 가파른 지세를 적절히 이용하였다. 정상 of 평지 둘레와 西走하는 兩山脚을 연결하여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았다. 이러한 축성방법은 비교적 전투 능력이 발달했던 때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서쪽 기슭 아래에는 4~5세기경의 대규모 고분군이 산재하고 그 아랫쪽 堆積平野에는 삼국시대 큰 취락이 있다. 이러한 유적분포로 보아 山城은 당시 이러한 古墳을 남긴 세력 집단에 의해 쌓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6. 大德山城(기념물 제7호/남구 대명동 산 224·226·227)

大邱盆地의 남쪽에 자리하는 大德山 頂上에 있다. 해발 580m의 대덕산 정상에서 북쪽의 안지랭이 계곡을 끼고 包谷式으로 축조된 산성이다. 邑誌의 古蹟條에는 成佛山에 古城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산의 능선과 접근이 용이한 비탈에 割石으로 쌓은 城壁의 자취만 남아 있다.



〈사진 4-23〉

대 덕 산 성

둘레가 3,051척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약 3km에 달한다. 자연암벽을 최대

한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산성으로 성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옛 그릇조각과 기와조각으로 보아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걸쳐지는 시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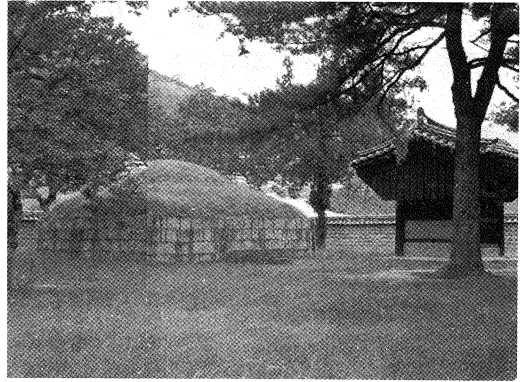
7. 申崇謙將軍 遺蹟(기념물 제1호/동구 지묘동 526)

이 곳은 파군재(破軍峴)라 하기도 하며 高麗 太師 개국공신 壯節公 申崇謙 장군이 순절한 곳이다.

신숭겸 장군은 泰封의 騎將으로 있으면서 裴玄慶 등과 포악한 弓裔를 내몰고 王建을 받들어 고려를 개국하였다.

장군은 그 뒤에 大將軍이 되어 太祖 10년(927) 태조와 新羅를 도와 後百濟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大邱 公山 싸움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태조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자신이 태조를 가장하여 태조를 숨기고 대신 戰死하였다. 태조는 장군의 죽음을 애통하여 그의 사신을 거두어 光海州(지금의 春川)에 禮葬하고 이곳에 殉節壇과 智妙寺(美理寺)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었다. 朝鮮朝 宣祖 40년(1607)에 慶尙道 觀察使 柳永詢이 廢寺된 智妙寺 자리에 表忠祠를 지어 공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顯宗 13년(1672)에 이 書院에 賜額을 내리어 관리토록 하였다. 高宗 8년(1871)에 書院撤廢令으로 표충사가 毀撤된 뒤부터는 후손들이 齊舍를 신축하여 지켜오고 있다.



(사진 4-24) 신승겸장군 유적

8. 夫人(符仁)寺址(기념물 제3호/동구 신무동 356일대)

이 寺刹은 新羅王族의 어느 부인이 願刹로 했던 寺院이라 추정된다.

문헌에 의하면 부인사는 부처의 힘으로 外侵을 막고자 새긴 高麗初雕大藏經板을 보관했던 곳이다. 그 후 대장경판은 高麗 高宗 19년(1232) 蒙古侵入 때 燒失되었다. 또한 부인사는 고려 후기의 무신집권에 항거하여 봉기한 승려들의 본거지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포도밭으로 변해버린 옛 寺域에 축대, 초석, 수조, 당간지주 등 당시 석조물이 많이 남아 있다. 부인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m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초석, 석탑, 석등 등의 부재가 남아 있다.

이 석조물들은 당시 부인사의 규모 위세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부인사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다.

9. 內谷 모감주나무 群落(기념물 제8호/동구 내곡동 산 91)

모감나무는 無患子나무科 모감주나무屬에 속한다. 중국, 일본, 대만등지에도 분포하는 落葉喬木으로 높이 9-10m까지 자라고 황색의 과이 6-7월에 피며 열매는 蒴果로서 10월에 익으며 주로 寺院 주위에 심겨져 있다. 種子는 念珠및 비누대용으로 사용된다.

모감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그 희귀성 때문에 보호받게 되었으나 이를 통해서 대구가 外地와의 교류가 植物分布相에서도 빈번했을 것임을 입증한다.

內谷의 모감주는 胸高直徑이나 樹齡面에서 타지것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老巨樹 보호측면이나 희귀수종 보호 및 학술적인 측면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10. 國優洞 탕자나무(기념물 제10호/북구 국우동 685)

탕자나무는 중국 남부 및 해안지대가 원산지이다. 가지에 예리한 가시가 있어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꽃열때는 약용으로, 묘목은 밀감나무류의 대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우동에는 천연기념물 제78호, 79, 경북기념물 제11호에 되지지 않은 크기와 수령의 것이 3그루 있다.

III. 民俗資料

1. 屯山洞 慶州崔氏 宗家 및 報本堂 祠堂(민속자료 제1호/동구 둔산동 386)

이 건물들은 朝鮮 仁祖 때 학자 臺巖 崔東集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집으로 대구지방의 朝鮮朝 주택 가운데서는 오래된 양식의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 齊室, 家廟, 別廟 등이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고 큰 규모의 이 주택은 조선조 양반주택과 그 생활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살림채는 肅宗 20년(1694)에 지어진 안채와 高宗 光武 9년(1905)에 重建된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박공지붕이다. 살림채 동편에 있는 報本堂은 英祖 18년(1742)에 지었으며 재실로 사용한다. 그 뒤편에 있는 두 동의 사당은 崔東集과 崔興遠(조선 正祖 때 학자)을 배향했다.

2. 新塘洞 石長性(민속자료 제2호/달서구 신당동 676)

이것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石長性으로 朝鮮時代 作品이다. 눈, 코부분이 떼어져 나가고 손에 如意珠棒을 든 것으로 보아 多産의 福을 내리고 마을의 평안을 지켜주는 所願成就의 守護神인 듯하다. 네모난 花崗石을 陰陽刻으로 다듬어 石像을 조성했다. 冠帽를 씌운 듯한 文官 石 형상을 연상시키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눈썹, 코, 입의 소박한 표현 등 미륵과 민간신앙적 요소가 풍기는 민속장승이다.

한편 이 마을이 예전의 양산골로서 절의 입구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석장승은 寺刹 境內에서의 사냥, 漁撈, 딸나무 채취 등의 금지와 풍수지리상 나쁜 형국을 좋은

형국으로 바꾸기 위한 呪術的인 상징물이었던 것 같다.

銘文은 없고 키는 212cm로 마을사람들이 장생비라 부르고 있다. 대구에서 예가 드문 長性信仰의 예술품이다.

IV. 無形文化財

1. 고산농악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제1호

전 승 지: 수성구 내환동

예능보유자: 미지정

지정년월일: 1984. 7. 25



〈사진 4-25〉 논 매 기 굿

1) 생성배경과 유래

고산농악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내환동에서 自生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내환동은 고려시대부터 ‘谷己’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 부락이며 各姓마을이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전승되어 오면서 농악 원래의 소박성을 그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내환동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동제(上堂·中堂·下堂)를 지내는데 이 동제의 왕복길에 농악을 잡히며 동제가 끝난 뒤에도 풍물을 쳤다 한다.

고산농악의 특징은 한 자연촌락의 노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미를 잃지 않고 마을 단위의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유지하는 점이다. 연행 과정에서 "닭쫓기"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마당이다.

2) 예능보유자

고산농악은 상쇠 장이만(남, 사망)에 의하여 쇄가락이 전승·보존되어 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락마치, 조름세, 굿거리, 살풀이가락 등의 가락을 칠 수 있었다고 한다.

고산농악의 매구가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락마치(길매구가락): 4분박의 빠른 4박의 길매구가락이다. 팽과리는 ‘갱갱개개개개 개개개개 개개개개 —’하고 친다. 부락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가락이다.

(2) 조름쇠: 4분박의 매우 빠른 4박의 가락이며 팽과리는 네 가지의 가락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 개개개개 개개갠지갠지 개개갠’으로 치고, 둘째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 개개개개 개개갠 개개갠’이며, 셋째 쇠가락은 ‘개개개개갠 개개개개갠개개개개갠개개개개갠개개개개갠’으로 치며, 네째 조름세 쇠가락은 ‘개개개개갠 개개개개갠—’을 반복한다.

(3) 굿거리: 굿거리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자의 가락이다.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개개갠 개개개개갠—’으로 친다.

(4) 살풀이: 살풀이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가락과 4박 가락으로 이루어진 혼합박자이며, 팽과리는 ‘개개개개갠 개개개개갠지개개개개갠’으로 치고, 다시 ‘개개개개갠 개개개개갠’하면서 친다.

3) 편성과 복색

쇠: 2명(상쇠와 중쇠가 있다)

포수: 1명

징: 6명

양반: 1명

북: 10명

색시: 2명

장고: 10명

농기: 3명

소고(상모): 14명

땡각: 1명

4) 연행과정

(1) 길매구: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 북, 장고, 상모, 잡색이 놀이마당으로 향한다.

(2) 덩덕궁이(원진):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면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진하고 이어서 태극을 만들기 위하여 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태극무늬를 만들며 시계방향으로 돈다.

(3) 돌석(진굿): 원을 돌며 상쇠의 쇠 격음에 따라 뒤돌아가기를 두번한 후 상쇠가 다시한번 쇠를 격으면 뒤로 돌아 두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4) 춤굿(판굿): 상쇠의 덧배기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면서 각자 흥법계 춤을 췌어 나간다.

(5) 닭쫓기: 이는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상모팀 전원이 원 중앙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닭(각시와 양반)을 쫓는다.

(6) 방석말이(오방굿): 農旗를 구심점으로 상쇠가 원을 돌면서 좁혀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풀어 나온다.

(7) 모내기굿: 원이 풀어지면서 징, 북, 장고가 1열로 서고, 상모가 1열, 이렇게 2열 종대로 마주보고 상모가 중앙에서 쇠를 치는데 이는 모내기, 모심기, 김매기 놀이의 형태이다.

(8) 법고놀이: 상모, 장고, 북, 징의 순으로 각 악기팀 전원이 원 중앙에 나와 팀별 놀이를 진행한다.

5) 전승을 위한 조직

내환동은 농악의 전승유지를 위해 19세기부터契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때 사용한契牒도 남아 있다.

1983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공부 장관상(우수상)을 탔다. 그때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고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2. 날외북춤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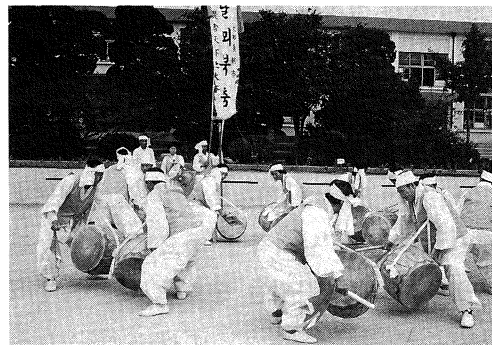
전 승 지: 서구 비산동

예능보유자: 金壽培(1927년생)

지정년월일: 1984. 7. 25

1) 생성배경과 유래

날외북춤은 비산농악과 함께 오랜 시간의 깊이를 가지고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만을 가지고 추는 북춤이다.



〈사진 4-26〉

모 둠 곳

날외란 말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한다.

아득한 옛날 달내(達川)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 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외’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는 飛山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대구직할시 비산동의 지명이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날외의 전설은 옛 달구벌의 산성이던 달성(지금 달성공원)이 있던 산의 기원설화로 우리나라 상고의 신모신앙에 근원하는 지명전설이다.

지금의 날외(飛山洞)의 원고개는 달성~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을 끼고 있는 ‘서울나들’길이다. 옛날 고을의 원이 부임해 올 때는 이 원고개에서 행차를 쉬었고, 원의 행차 때마다 촌민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였다고 전한다. 옛날에 한 원님이 특히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는데 이 원이 정사를 보다가 순직하니 이곳에 무덤을 쓰고 춘추로 제향하였다. 원

님의 외로운 혼령을 달래기 위하여 춘추의 제향 때 백성들은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피북춤’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날피북춤의 춤사위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으로 되어 있다.

2) 예능보유자

날피북춤의 대표적인 예능보유자로는 상쇠 임문구와 설북 김수배 등을 들 수 있다. 상쇠 임문구는 비산동 토박이로 이 마을의 최봉수(사망)를 따라 다니며 종쇠를 쳤고, 그에게 쇠가락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쇠가락은 모두 12채인데 임문구는 이 가락을 모두 치며, 특히 잔가락이 많다고 한다. 현재 비산농악의 상쇠이며, 그의 쇠가락은 종쇠 김수기(1943년생)에게 전수되고 있다.

김수배는 청도군 각북면 오산동에서 태어나서 16세 때부터 비산동에 정착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비산동의 상쇠 최봉수에게 북을 배웠다고 한다.

1947년 경에는 최봉수, 임문구 등과 함께 농악대를 만들기도 했다. 6·25사변으로 농악대가 없어졌으나 1953년 10월경에 비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수배는 1968년 처음으로 ‘비산농악’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며, 그 후 ‘비산천왕매기’, ‘날피북춤’ 등으로 여러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날피북춤의 춤사위는 방도수, 박윤수 등에게 전수되고 있다.

3) 편성과 복색

쇠:1 북:12 장고:1 징:1

복색은 모두 흰옷에 녹색조끼를 입고 머리에 흰띠를 두른다.

4) 연행과정

(1) 정적궁이: 상쇠는 단 마치로 전원이 자기 걸음폭으로 가락에 맞춰 돌면서 원자리로 돌아선다. 이때 상쇠가 2채 7채 가락으로 정적궁을 치면 전원이 함께 허리춤과 어깨춤으로 돌면서 넘어간다.

(2) 자반득이(반직굿):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다양한 2채, 3채, 4채, 8채, 12채의 순으로 일사불란한 단체무악의 기능을 발휘한다. 마지막에 전 단원이 돌면서 덧배기가락으로 추는 어깨춤, 허리춤이 흥겹게 전개된다.

(3) 엮어빼기: 상쇠가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서 설북이 2채와 3채로 치면 전단원이 한바퀴 돌면서 추는 춤이다.

(4) 다드래기: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 가락으로 넘어가며 전 단원이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몰아치면서 추는 춤이다.

(5) 허허굿:한줄로 圓舞를 추면서 설북이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로 踏舞하는 춤이다.

(6) 모듬굿:설북이 단마치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모였다 헤어졌다 하면서 각자가 3번 회전하고, 다시 모여 설북의 장단에 맞추어 4채, 8채, 12채로 치고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추는 춤이다.

(7) 살풀이굿:풍요의 환희를 상징하는 우렁찬 북소리와 어깨춤의 놀이이다.

(8) 덧배기:덧배기가락으로 대북이 3채, 6채로 몰아치면서 12채까지 흥겨운 굿거리 장단으로 한데 모여 춤을 춘다.

5) 전승을 위한 조직

날피북춤은 1953년 조직된 비산농악대가 그 모태가 되어 오늘날까지 연행되고 있다. 1987년 10월에는 ‘날피북춤 연구원’이 조직되어 비산농악대와 함께 조직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날피북춤’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예능보유자인 김수배가 춤의 전승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날피북춤은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文公部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옥수농악

지정번호:무형문화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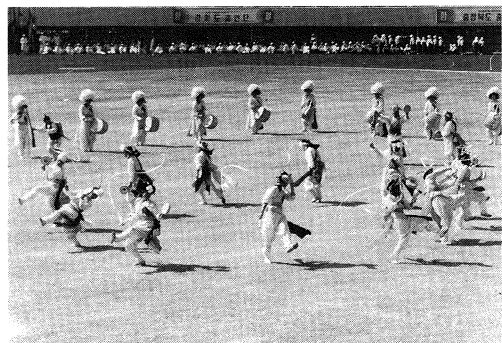
전 승 지:수성구 옥수동

예능보유자:金浩星

지정년월일:1988. 5. 30

1) 생생배경과 유래

옥수농악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옥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사진 4-27〉

오 방 진

옥수동은 1981년 7월 경산국 고산면 옥수동에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130여호의 주민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연촌락이다. 옥수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

흘날 관행하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농악이다.

원래 옥수농악은 동제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굿」과 이 내림굿에서 뒤따르는 판굿과 보름날의 구걸(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1970년대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단되었고, 달불놀이는 입산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농악과 지신풀이는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연행구성 중에서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드문 진형을 가진 놀이 이다. 쇠가락은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잔가락이 적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보유했으며, 특히 길곳의 가락이 독특하다. 옥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 즉 연희농악이 복합된 농악이며 경상도 내륙의 농악에 농사굿에 많은데 비하여 전체의 구성은 진곳에 가까운 농악이다.

2) 예능보유자

예능보유자 김호성은 20세 때인 1948년경부터 경북 경산군 압랑면에 거주하던 金次東에게 쇠가락을 배웠다. 그후 김차동이 사망할 때까지 20여년 간 마을의 구걸패 등에서 종쇠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후 고산농악대에 종쇠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85년 4월부터 6월까지로는 새로 창단된 현대중공업 농악팀의 지도를 맡기도 하였다. 1989년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 예능보유자로는 朴元鎬·李萬邦 등이 있다. 박원호는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이옥관(사망)→서병극(사망)으로 이어지는 전승자로서 옥수마을의 토박이다.

설상모 이만방은 13세때부터 이 마을의 상쇠였던 서병극을 따라 다니며 끝법구를 치고 상모를 돌렸다.

3) 편성과 복색

옥수농악 편성은 다음과 같다.

쇠:2명(상쇠 1명, 종쇠 1명)	징:6명
북:8명	장구:8명
법고:12명	목나팔:1명
양박:1명	포수:1명
색시:1명	농기수:1명
기수:2명	

복색은 다음과 같다.

- (1) 상쇠: 병치를 쓰고 흰옷을 입고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2) 종쇠: 흰옷에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병치를 쓴다.

- (3) 징: 흰옷에 적·황·녹색 삼색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회색 고깔을 쓴다.
- (4) 북: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5) 장구: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6) 법고: 흰옷에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7) 목나팔: 징과 같은 복색을 하고 오동나무로 만든 목 나팔을 분다.
- (8) 양반: 두루마를 입고 종이로 만든 정자관을 쓴다.
- (9) 포수: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며 등에 망태, 꿩털, 토끼털을 메고 목청을 든다.
- (10) 색시: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는다.
- (11) 농기수: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 (12) 기수: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4)연행과정

옥수농악의 연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질매구(질굿): 쇠는 2/4박자로 치며 3가지 리듬으로 변주하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의 길풀이 이다.
- (2) 천왕받이굿: 동계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 때 쇠가락이 「천왕님 천왕님 처령 처령 내리소」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 (3) 둥글데미: 대원들은 원형을 지어 상쇠가 무정지경이, 허허깅깅, 잣은모리의 3가지 가락으로 변주하면 대원들은 악기장단에 맞추어 원무를 춘다.
- (4) 마당놀이: ㄷ자형의 대형에서 징, 북, 장고, 법고잡이들이 각각 조별로 묘기를 보인다.
- (5) 외따기: 2열 중대의 대형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대원들을 상쇠가 빠른 가락으로 Z자형으로 돌면서 징, 북, 장고, 법고열로 끊어 일으켜 풀어나간다.
- (6) 덧배기: 상쇠가 춤매구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장단으로 어깨춤을 춘다.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을 가진 춤굿이다.
- (7) 오방진: 상쇠, 중쇠, 잡색이가 중앙에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고, 법고가 각각 네군데 원형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만들어 논다.
- (8) 덕석말이: 뿔뿔말이라고도 한다.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전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또 풀면서 태극형을 그리면서 두군데서 밀집적 원진을 그린다.

5) 전승을 위한 조직

육수동은 1963년부터 친목제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여하는 것을 계기로 육수농악대를 더욱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4. 비산동 천왕매기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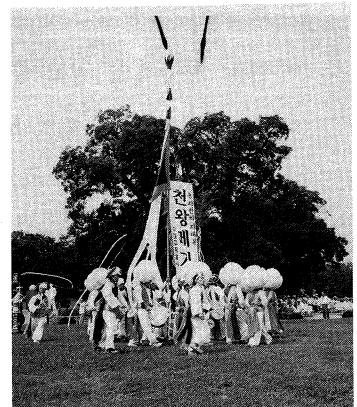
전 승 지: 서구 비산동

예능보유자: 金守基(1943년생)

지정년월일: 1989. 6. 15

1) 생성배경과 유래

‘천왕매기’란 오랜 옛날부터 현재의 대구직할시 비산동 일대 주민들이 신앙해온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 대한 정



〈사진 4-28〉 천왕매기

초의 ‘지신풀이’이다. ‘기천왕’은 현재의 북비산로타리 위쪽에 큰 고목이 있었으며, ‘말천왕’은 현 비산 3동 삼성예식장 위치에 역시 고목이 있었다. ‘중천왕’은 현 비산 1동 1번지 자리에 위치하였는데 고목의 천왕목과 사당 그리고 造山의 세가지가 짝이 되어 있었고, 사당안의 벽에는 天王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천왕목과 사당과 ‘조산’은 1960년대 이후, 대구시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天王매기’는 6.25동란 이전까지도 관행되었던 ‘지신풀이’다.

구전에 의하면, 약 400년전 대구지방에서 계속된 가뭄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마을 주민들이 ‘중천왕’ 자리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렸다 한다. 그 뒤, 주민들은 오고 가는 길목에 있던 당집에 돌을 하나씩 던지게 되었다. 그 돌이 쌓여 조산이 되었고, 주민들은 여기에 돌을 던지는 것을 천왕에 대한 치성으로 알게 되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돼지머리와 술, 떡을 차려서, 주민들은 심신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천왕기를 높이 들고 ‘천왕제’ 지내기를 계속해 왔다. 치성이 부족하면 또 다시 가뭄과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일제시대 방공호를 만들기 위하여 이 못을 파을 때, 엄청난 엽전이 나와 주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한다.

천왕제의 제관과 축관은 정초에 천왕대(기)의 내림으로 점지되었으며, 참석자들도 부정해서는 안된다. 유교식 제사의 獻酌과 讀祝 이외의 모든 절차는 농악으로 시종한다.

천왕매기의 절차는, 3대째 중천왕 사당 근처에 살아온 고 金朔不씨의 미망인 金順南씨의 말에 의하면, 정초에 대내림으로 제관과 독축관을 정하고 ‘천왕매기’는 음력정월 보름날에 행해지는데, ‘질굿’을 치고, 사당 앞까지 가서 사당문 앞에서 ‘문굿’을 치고, 사당에 들어 가서 고축하고 축문을 읽는다. 이 때는 일체의 악기는 정지되며, 제사가 끝나면 즉시 ‘천왕매기’로 들어가 신나는 지신풀이가 계속된다. 보통의 지신밟기가 가가호호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천왕매기’는 마을굿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어서 사당, 마당에서 흥겨운 가무로서 판굿이 벌어진다. 즉, 천왕굿은 대내림제관선출(정초)질굿→문굿→고사독축→천왕매기→판굿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서 ‘대내림’, ‘질굿’, ‘판굿’은 농악만의 절차이며, ‘문굿’, ‘천왕매기’는 지신풀이며, 고사와 독축은 순수한 유교식 방식으로 이 ‘천왕매기’는 그 이름을 불교적인 것으로 본다면, 巫敎(신)·불교·유교의 습합으로 하나가 된 제의무악이라 할 것이다.

2) 예능보유자

김수기는 15세경부터 고향인 밀양에서 쇄를 쳤다고 한다. 1960년경 대구에 이주하였고, 1978년경 현재 비산농악대의 김수배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쇄가락을 배웠다. 김수기는 비산농악 상쇠 임문구(71세)에게 쇄가락을 전수받았고 비산농악대에 종쇠로 활동하였다. 임문구는 비산동에 거주하던 최봉수(사망)에게 쇄가락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즉 김수기의 전수계보는 최봉수→임문구→김수기의 선으로 전승되어 온 계승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1984년 비산동 날뒤풀이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할 때 종쇠로 활동하였다. 그후 전국 규모의 여러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천왕매기가 우수상(문공부 장관상) 수상하는 데 상쇠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현재 임문구에 이어 비산농악대의 상쇠도 활동하고 있다.

3) 편성과 복색

쇠:2명	양반:1명
징:4명	포수:1명
대북:6명	축관:1명
징고:4명	각시:1명
소고:6명	기수:2명
들벅구:6명	
복색은 다음과 같다.	

(1) 상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붉은 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홍색은 허리에 두르고, 청색은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 쪽으로 하고, 황색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 쪽으로 맨다.

(2) 종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3) 징쇠: 흰 꼬깔을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4) 북: 징과 같은 복색이다. 단 설북은 상모를 쓴다.

(5) 장고: 징과 같은 복색이다.

(6) 소북: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한다.

(7) 양반: 흰 두루마きを 입고, 턱에 수염을 달고 갓을 쓴다.

(8) 포수: 누른옷을 입고, 등에 망태, 꿩 등을 메고 손에는 목총을 든다.

(9) 기수: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10) 나팔수: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4) 연행과정

(1) 질긋: 마을내의 모든 패랭이패가 모여 천왕당 앞문까지 가면서 질긋(길긋)을 한다.

(2) 문긋: 천왕당의 앞문에 도착하면 쇠의 4채와 8채에 맞추어 문긋의 사설로써 모든 부정과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해의 만복함을 기원한다.

(3) 대내림(천왕제): 천왕당 문앞에서 3채와 7채의 쇠가락에 맞추어 천왕당 앞까지 가서 2채, 4채, 8채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대내림을 비는 천왕긋을 치면 이때 대끝부터 신이 내린다. 이 대가 제관, 축관을 선정하여 천왕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축관이 고축한다.

(4) 천왕매기(지신풀이): 상쇠의 2채, 4채, 8채 가락에 맞추어 천왕에 대한 지신풀이가 시작되는 데 마을의 모든 병고와 액란을 쫓는 다양한 경을 읊으면서 축원한다.

(5) 천왕긋: 천왕매기 다음의 쇠마치는 4채, 8채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덧배기 춤을 추면서 소원성취를 빈다.

(6) 천왕놀이: 지신풀이와 판긋이 끝나면 3채, 5채, 7채를 치면서 천왕님의 돌레를 돌면서 노는 흥겨운 천왕놀이가 시작된다.

기천왕에서는 한판 다드레기로 끝나고 중천왕에서는 2채, 12채까지의 다양한 가락으로 덧배기 들놀이를 비롯하여 흥겨운 굿판이 벌어진다. 말천왕에서는 3채, 5채, 7채 가락의 모든 패랭이패가 판긋 한바탕을 치른다.

(7) 질굿(마을굿): 기천왕·중천왕·말천왕 3천왕에 대한 풀이가 끝나면 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천왕매기의 모든 가락이 동원되고 정적굿·엮이빼기·살풀이 장단에 어깨 춤으로 흥겨운 마을굿판이 된다.

5) 전승을 위한 조직

천왕매기는 1953년경부터 조직된 비산농악대를 그 모태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산농악대는 1958년 10월 1일 경주에서 개최한 영남농악경연대회에서 처음우승을 한 이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출전하여 대구지방의 대표적인 농악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천왕매기는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때 받은 상금으로 단장인 김수배와 예능보유자 김수기 등이 보존회를 조직하여 전수에 힘을 쏟고 있다.

5. 여창 가곡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5호

주 소: 중구 남일동

예능보유자: 권側伊(一枝, 1928년생)

지정년월일: 1989. 6. 15.



1) 생성배경과 유래

가곡은 판소리 범패와 함께 한국의 삼대가곡중 하나다. 시조와 같이 시조시에 엮어 부르는 가곡은 시조가 대중적인데 비하여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보를 따라 전승되어왔다. 〈사진 4-29〉 권일지의 가창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악곡의 하나로 만년장관지곡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에서 불려진 시조, 가사와 함께 정가에 드는 것으로 판소리, 민요, 잡가와 같은 하류사회에서 불려진 성악곡과 구별된다.

시조시를 5장형식에 엮어서 부르는 이 가곡을 피리, 젓대,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의 관현반주에 맞추어 불리며, 그 예술성은 시조와 가사에 비하여 훨씬 뛰어났다.

가곡을 위하여 많은 시조시를 모아 엮은 그 대표적인 책은 《청구영언》, 《해동가요》, 《고금가곡》 등이 있는데, 영언은 歌란 뜻으로 시경의 “詩言之 歌永言”에서 온 말이고, 가요나 가곡은 시나 노래의 일반 대칭으로, 현재 부르고 있는 가곡은 고금가곡, 가곡원류라고 부르던 그 가곡에서 온 이름이다.

가곡의 명인에 관한 기록은 《해동가요》의 古今唱歌諸氏조를 보면, 許珽, 張炫, 卓柱漢, 朴尙健, 朴大吉, 高善興, 金裕器, 朴後雄, 金天澤, 金壽長, 李世春 등 56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숙종 이후 영조 사이의 뛰어난 명인이었다. 그후 梅花點 장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張混(友壁 1730~1809)에게 가곡을 전수받은 계보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현재 가곡은 하규일에 의하여 전승된 가락이다. 河圭一(1867~1937)은 종형 河順一과 함께 숙부인 河仲鯤에게서 가곡을 배웠다. 그는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 학감을 거쳐 1926년부터 李王職 아악部 촉탁을 지내며, 1937년 사망때까지 가곡, 가사, 시조를 전수했다. 그가 전수한 가곡은 남창 89곡, 여창 71곡, 모두 160곡이며, 가사는 12지자 중 8곡, 시조는 3곡(평시조, 중허리시조, 지름시조) 등이다.

河順一, 河圭一 이후는 李炳星, 李珠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곡의 장단은 언제나 장고에 의하여 맞추어지는데, 두 종류로 분류된다. 16박을 한 주기로 하는 기본장단이 그 하나이고, 10박을 한 주기로 하는 변형장단은 기본장단의 쉬는 곳을 제외한 실제 장고의 점수를 종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본장단은 초삭대엽에서 통과 악까지에 모두 사용되며, 변형장단은 編종류의 악곡인 羽編, 編樂, 編數大葉에서만 쓰인다.

시조의 음계는 계면조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가곡은 우조 곧 평조와 계면조의 두 음계로 이루어진다. 우조는 우조평조의 약칭으로 옷조의 借字로서의 조의 이름이었고, 평조는 旋法名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선법명은 생략되고 조명인 우조만 남게 되었다.

우조와 계면조는 원래 5음계로 되었었는데, 순조시대 「유예지」 이후로는 우조는 5음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면조는 3음계 또는 4음계로 변질되었다. 즉 가곡의 우조는 黃鍾, 太主, 仲呂, 林鍾, 南呂로 구성되는 5음계이고, 계면조는 황종·협종·중려·임종·무역의 5음계이던 것이 황종·중려·임종의 3음계, 또는 그 둘째 음만 쓰지 않는 황종·중려·임종·무역의 4음계로 변질되었다.

《해동가요》나 《가곡원류》에 의하면, 우조는 淸壯激勵 또는 淸澈壯勵라 하여 맑은 소리로 굳세고 씩씩한 남성적인 소리라 하였고, 계면조는 哀怨激烈 또는 哀怨悽愴이라 하여, 슬프게 원망하는 듯한 애처로운 여성적 소리라고 하였다.

2) 예능보유자

가곡의 예능보유자 權側伊(藝名:一枝)는 1928년 경북 금릉군 봉산면 복천동에서 출생하여 6·25 때 가족과 함께 대구로 피난하였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 마을에 가설극단이 오면 부모 몰래 구경을 가기도 하였다. 또 음악에는 타고난 소질이 있는 듯 하다. 국악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국악원을 찾게 하였다. 그때 동생인 權明花

와 함께 남산동 경북 국악원(현재 남산교회 근처)에서 朴基洪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무용에 남다른 소질을 보인 동생은 그때부터 민속무용을 시작하여 지금 대구지역에서 민속무용의 맥을 잇고 있다. 음악에 소질을 보인 權一枝는 시조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3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북 정읍 출신인 柳鍾求(사망)에게 完制時調와 가곡을 전수받았고, 인간문화재 41호인 鄭炯兌에게도 사사한 적이 있다.

정경태는 류종구의 스승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끔 대구에 오게 되면, 권일지에게 시조·가곡을 지도하였다 한다. 정경태는 서울의 斗峯 李炳星에게 전수받았고, 李炳星은 이왕직 아악부의 河圭一의 가곡 전수자로 알려져 있다.

권일지의 전수 계보는 하규일→이병성→정경태→류종구의 선으로 이어진다 하겠다. 현재 전창되고 있는 가곡이 하규일에 의하여 전승된 가락인 점으로 볼 때, 권일지는 우리 전통가곡 계보의 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드문 唱者라 하겠다.

권일지의 가곡은 이미 1960년에 「전국 가곡 가사 경창 전주대회」에서 가곡부 1위, 같은해 대전대회에서 가곡부 금상이라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3년 제3회 대한민국 국악제 가곡부에서 지방인으로는 처음 출연하였다. 특히, 가곡은 국립국악원 밖에서, 전국에서도 完唱이 가능한 여인은 수삼인에 불가하다고 한다.

그는 歌歷 40여년으로 향토사회에서는 유일한 전승자이며, 전국에서도 드문 여창가곡의 전승자이므로 1989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끊어져 가는 가곡의 명맥을 5명의 전수자들에게 잇게 하고 있다.

권일지가 부른 여창가곡 15곡은 다음과 같다.

(羽調) 二數大葉: 버들은 실이 되고

中 舉: 靑鳥야
平 舉: 一笑百媚生
頭 舉: 한숨은
半 葉: 남하여

(界面調) 二數大葉: 황산속돌아

中 舉: 산촌에 밤이 드니
平 舉: 楚江 漁夫들아
頭 舉: 뒤메에
平 弄: 북두칠성
羽 樂: 밤은 지동치듯
還 界 樂: 앞내나
界 樂: 靑山도
編數大葉: 壯丹은
太 平 歌: 太平聖代

6. 영제시조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6호

주 소: 남창 남구 대명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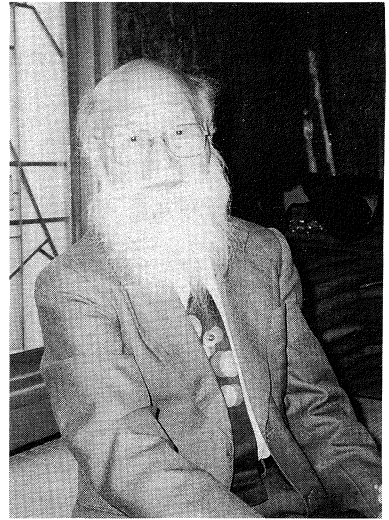
여창 중구 남산동

예능보유자: 남창 李基綾(1901년생)

여창 蔡月丹(淑子, 1908년생)

지정년월일: 남창 1990. 5. 15

여창 1990. 12. 15



1) 생성배경과 유래

시조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고유한 시 형태로서의 시조와 가악의 한 형식으로서의 시조가 그것이다. 시조시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여러 가지이나 歌集 들에 보면, 고구려의 乙巴素, 백제의 成忠, 고려의 崔冲 등의 작품이 실려 있으나, 고려말에 禹倬, 李兆年, 李芳遠, 鄭夢周 등 다수의 작가를 발견할 수 있으니 시조시의 등장은 고려말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날로 발전하여 鄭澈, 尹善道, 朴仁老 등의 대가와 黃眞伊와 같은 기녀작가 등의 출현으로 시조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가악으로서의 시조가 시조시와 병행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시조창이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영조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영조때의 학자인 신광수는 《石北集》, 《關西樂府》에서 “일반시조에 장단을 배열한 것은 서울에서 온 李世春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였다.

정조때 사람 李學逵는 시에서 “시조소리는 참으로 처량하다”하고 주해하여, “시조는 또한 時節歌라고도 하는데, 모두 거리의 俚語(순수한 우리말)로 되었고 느리게 부는다”고 하였다. 철종때 사람 柳晩恭은 《歲時風謠》에서 “時節短歌 부르는 소리 질탕한데 찬바람 밝은 달밤에 3장을 부르더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어로 느리게 부른다는지 3장으로 노래한다는 말은 시조창을 가리킴이 분명하고, 시조시절가 시절단가는 모두 같은 이름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시조에 대해서 “太眞의 죽음을 恨하는 것 같다” “참으로 처량하다” “음조가 질탕하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등에 계면조는 비교적 격렬하고 처량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 하였으니 시조는 계면조에 속하는 음악이다.

시조의 창법은 크게 평시조, 시름시조, 사설시조 셋으로 나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창법을 가지고 있어 서울 중심의 경제와 지방의 향제로 구분한다. 향제는 충청도지방의 내포

제, 전라도지방의 완제, 경상도 지방의 영제로 구분한다.

영조시조는 다른 계류에 비해 씩씩하고 경상도 사람의 기풍이 그대로 나타난다. 속언에 ‘영관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조 시조가 좋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2) 예능보유자

(1) 남창 영제시조 李基綾

예능보유자 李基綾은 본격적인 시조수업을 하기전에는 경주 대구 등지에서 15년간 국민 학교의 교사생활을 했다. 출생지는 경북 성주군 용암면 하개마을이며 호는 一觀이다.

고종 황제 때 영조의 三大名唱으로는 경상도 군위의 고영태, 경주의 이명서, 경남 의령의 손덕겸을 손꼽았다. 그 다음 세대는 김영도, 이제석 등을 들고 있다. 예능보유자 남창 李基綾은 바로 김영도에게서 사사하였다고 한다. 김영도(사망)는 경남 의령의 손덕겸(사망)에게 영조시조를 배웠다고 한다.

그는 嶺調 삼대명창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손덕겸에게서 전수 받았다는 김영도에게서 傳習 하였다 한다. 김영도는 한말 조선아악전습소에서 시조를 학습하기도 하였다. 김영도는 그의 친구로서 그의 권유로 40여년전부터 영조시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5년정도 배운 뒤 사람들 앞에서 시조를 불렀을 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다 한다. 그 후 영조의 독특한 장단을 익히기 위해 산에 가서 발성연습을 하는 열성을 보였다. 20년 전부터는 대명동에서 사단법인 「국민정신계발원」을 개설하여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끊어져 가는 영조시조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1개월에 15일 정도는 서울에서 영조시조를 전수하고 있으며 전수생은 15명 정도 된다고 한다.

(2) 여창 영제시조 蔡淑子

예능보유자인 채숙자는 80세를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한 목소리의 소유자로서 높은 경지에서 창 의 마디다미가 굳굳하고 중후하며, 웅심하고 수려한 세련미가 있다.

채숙자는 창법, 선율, 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영제시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또 정확한 음성처리와 박자, 搖聲, 그리고 시율 진행에 있어서 영제시조만이 지닌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미 중앙시조계에 원로 영제시조인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동경독지 권3 명기조에 경주의 명기로서 유사 이래 신라의 天官, 고려의 轉花鶯英梅 및 蔡淑子 등 4인만이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채숙자는 어려서부터 재예가 출류하여 歌·舞·鼓·琴이 유명하였고, 경주국악원 교사로 있으면서 전국 시조대회에서 일등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채숙자의 영제시조의 몇가지 특징적인 면을 평시조 창법을 기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성의 폭이 곳곳하고 강하며, 요성의 처음 시작이 분명하게 활달한 느낌을 준다. 특히 완제의 장식음(경과음) 처리가 완만하고 기교가 붙어 있음에 비하여 장식음 처리가 간소하다. 시을 형태는 영제의 특징적인 면을 잘 표출하고 있다. 사설시조의 시을 구조상의 특이한 점은 완제처럼 직접 꺾는 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성에 가까운 목을 사용함으로써 늘씬한 느낌을 준다.

그의 전승계보는 영제 대가인 李明瑞, 金永道로부터 사사하였다고 한다.

3) 전승을 위한 조직

영조시조는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완조에 비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李基綾 옹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조 보급에 관심이 있는 분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국민정신계발원」을 개설하여 시조의 전수에 힘쓰고 있다. 1987년 4월에는 대구대학 강당에서 「전국영조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여 서울과 대구에서 10여명 참석하였다 한다.

1987년 5월 경에는 영조시조 보급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결의하여 88년 6월에는 「영조시조부흥회」를 발족시켜 5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7. 공산농요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7호

전 승 지: 동구 평광동

예능보유자: 宋文昌(1933년생)

지정년월일: 1990. 5. 15

1) 생성배경과 유래

공산농요는 대구직할시 동구 공산동 일대에서 전승된 농업노동요이다. 원래 이 지역은 팔공산 기슭의 넓은 들의 문전옥답을 끼고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었다. 현재는 도시의 팽창으로 농토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양식의 전통적인 농업노동이나 노동농업관행인 두레, 품앗이 등이 사라지고 노래만 잔존하고 있다.

공산농요는 전체적으로 선소리꾼이 노래를 메기면 농꾼들이 받아서 뒷소리를 함께 부르는 문답창 형식이다. 인원은 과거 농요를 부른 경험이 있는 남자와 여자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찌기노래와 모심기노래에는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노래는 종류마다 가락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어사용(나무꾼노래)과 벼베기노래는 같은

가락이다. 특히 세벌 논매기 때는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뒤에서 사설을 엮어 나가면 앞에서 논을 매는 사람들이 뒷소리로 “어이오호어이호야”의 후렴으로 받는다. 논을 다 매고 조금 남아 있을 때 논매던 사람들은 원형을 이루면서 모두 ‘우아전례’란 소리로 전례를 한 후 목나팔을 불고 ‘칭치이(챙지나칭칭나네)’를 부르면서 논두렁으로 나온다. 이때 큰머슴은 소대신에 ‘깽이자루’를 타고 일꾼들과 함께 ‘방아타령’을 부르면서 마을로 돌아와서는 주인집에 들어가 마당에서 한바탕 논다.

2) 예능보유자

공산농요는 고로들의 기억에서 복원하고 뛰어난 선소리꾼을 찾아 재현하게 된 것이다. 선소리꾼 宋文昌은 과거사 아래마을인 송정동에서 태어나 같은 마을의 이태용으로부터 매구와 소리를 배웠다 한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났다. 그는 기억력도 좋아 농요 뿐만 아니라 지신밟기 사설 등도 알고 있어 뛰어난 예능보유자라 할만하다.

3) 편성과 복색

선소리:1, 쇠:1, 북:1, 장고:1, 기수:1, 나발:1, 농군:40.

4) 연행과정

공산지역은 과거 논농사에 의존하던 지역이라 많은 종류의 농요가 전승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농요는 다음과 같다.

(1) 어사용: 어사용은 ‘나무꾼’혹은 ‘들노래’라고도 한다. 일꾼들이 산이나 들에가서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거나 쉬면서 혹은 일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지게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며 부르는 노래로, 사설은 주로 신세타령의 내용이다. 벼베기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2) 가래질노래: 봄철 논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泔의 수로를 티우고, 독을 쌓을 때 노래하는 노동요이다. 가사의 내용은 단순하나 선소리꾼이 이 작업의 내용과 분위기에 맞춰 가사를 즉흥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3) 망개노래: 못독을 다질 때 통나무로 만든 망개를 내리치면서 선소리꾼의 매김소리에 이어 “어이 여로차”하는 뒷소리로 모두가 받으면서 땅을 다진다.

(4) 도리개 타작노래: 보리타작을 할 때 선소리꾼이 먹이는 짹짹한 사설을 도리개꾼들이 “옹해야”로 받는 극히 힘차고 강박한 리듬으로 부른다.

(5) 모찌기노래: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논을 하여 모를 심을 경우 모내기 할 모를 묘판에서 꺼낼 때 모자리에 빙둘러 모를 찌면서, 한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뒷소리로 받는 노래다.

(6) 모심기노래: 모심기 때 부르는 노래로 ‘모노래’라고도 한다. ‘줄모’를 심을 때도 물론 부르지만 옛날 ‘벌모’를 심을 때면 모노래를 부르면 작업의 속도가 일정해지고 손이맞기 때문에 즐겨 모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7) 논매기노래: 논매기는 아시논매기와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가 있다. 논매기노래는 여러명이 논을맬 때 즐겨 부르는 것으로 파로와 지루한 논매기 과정에서 선소리꾼이 사설을 엮어나가면 노매기하는 사람들이 뒷소리로 후렴을 구성지게 받아 부른다.

(8) ‘전례’: 세벌논매기의 끝 날 무렵에 조금 남아 있는 논을 매던 사람들이 원형으로 조아들면서 “우아 전례”하는 사설을주고 받으면서 목나발을 불고 ‘칭칭이’를 하면서 논두렁으로 나온다.

(9) ‘깨자리타기’(괭이자루타기)의 칭치이: ‘전례’를 하고 논두렁에 올라온 농꾼들은 큰머슴을 소 대신에 ‘괭이자루’에 태워 메고 칭칭이를 부르고 춤추면서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에서 농사장원을 한 집의 마당에서 모여 품물을 치면서 ‘판굿’을 벌인다.

(10) 방아타령: 논을 다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로를 풀고 여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메기고 받는 형식인데, 메기는 사람은 북이나 장구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나가고, 받는 사람은 북, 징, 장구 등을 들고 춤을 추면서 받는다.

5) 전승을 위한 조직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문화부장관상(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공산농요보존회’를 조직하여 그 전승의 맥을 잇고 있다.

8. 판소리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8호

주 소: 남구 대명동

예능보유자: 李明姬(1946년생)

지정년월일: 1992. 9. 8

1) 생성배경과 유래

판소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사진 4-31〉

이명희의 창

東便制·西便制·江山制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시나위권 음악에서 파생한 소리로서 경상도 음악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조는 창제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우조와 계면조가 된다. 우조는 5음 음계로 된 우조 평조를 많이 쓰고 있으며, 계면조는 3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판소리의 많은 부분은 계면조의 음계로서 요성법, 전성법, 퇴성법의 특징에 따라 조성의 성격도 달라진다. 기본적인 원칙외에 따라서는 느낌에 따라 3음계이면서도 우조목 혹은 평조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조이면서 계면조목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성외에 감정이 따로 개입되므로서 다른역할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결국, 판소리는 계보에 따른 창제가 그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다. 또 음악적 특성 이외에도 지역적인특징과 문화적 배경도 연관되어 있다.

지리산은 지리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인접한 지역이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은 서편제를, 경상도 지역은 동편제를 탄생시킨 곳이다. 대구권을 비롯한 경상도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동편제의 창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예능보유자

예능보유자 이명희는 타고난 음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국창 김소희(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로터 판소리 5마당을 이수하였다. 또 가야금 병창과 무예도 익혀서 歌·舞·樂을 겸비한 사람이라 하겠다.

이명희의 창제는 김소희의 창제를 전수받아서 송홍록을 조종으로 한 송만갑의 계통으로 동편제에 해당된다. 이명희의 음악적 특징은 소리를 아끼거나 깎아서 하지 않고 영남지방의 지역적 방언과 같이 소리의 처음은 신중히 내고 우겨 나감으로서 씩씩한 느낌을 준다. 동편제의 특징인 장단의 한 배가 짧고 빠르지만 장단에 허실이 없이 성실한 청음을 구사하고 있다. 소리성, 질성, 총구성을 고루갖춘 음성으로 동편제의 특징인 우조대목도 잘 처리하고 있다.

이명희의 계보는 경상도의 명창 朴線珠로부터 그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第3節 文化財資料

1. 法藏寺 三層石塔(문화재자료 제5호/남구 봉덕동 산 148)

이 탑은 잔존부재로 보아 新羅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基壇部는 부재가 분실되고 교란

되어 구조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잔존하는 塔身石에 모각한 隅柱와 옥개석에 모각한 5단의 받침, 그리고 낙수면이 완만하고 轉角을 반전시킨 기법으로 보아 신라석탑임을 알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일명 高山寺라 전하는 사찰이 전소되고 석탑도 무너진 채 방치되어 오던 것을 1961년 法藏寺를 이곳에 건립하면서 탑재를 모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2. 夫人寺 逸名庵址 石燈(문화재자료 제22호/동구 신무동 355-3)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偏六角形의 이 석등은 원래 부인사 남쪽의 일명암지에 廢石塔과 같이 있던 것을 이전한 것으로 下臺石, 竿柱石, 上臺石, 火舍石, 屋蓋石으로 구성되었고, 相輪部는 결실되었다.

하대석은 장방형 지대석의 4측면에 眼像을 2區씩 음각하고 상면에는 연화대를 받침을 각출시켰다. 상대석은 연화문으로 장식한 뒤 蓮瓣내에 花文장식을 가미하고 위에는 3단의 받침을, 아래에는 2단의 괴임과 간주석의 돌기를 꽃기 위한 홈을 만들었다. 화사석은 파편을 통해서 복원한 것으로 넓은 측면에는 長方形 火窓을 2개 좁은 면에는 1개씩 뚫었다. 옥개석은 정상부에 편팔각의 홈과 괴임을 만들었고 괴임 둘레에 蓮花冠을 조각하였다.

이 석등은 구조의 기본요소나 조각의 기법으로 미루어 보아 전형적인 팔각형 석등 양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새로운 양식이다. 조선시대 전기의 작품이다.

3. 大邱鄉校 大成殿(문화재자료 제1호/중구 남산동 735-4)

大邱鄉校는 朝鮮 太祖 7년(1398)에 초창된 것으로 전한다. 지금의 향교는 원래 太平路 1街 大邱驛 동편에 있었던 것을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1932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그후 1973년 시에서 향교를 보수 정화하고 전통적인 儒敎文化의 진흥을 위하여 영남각지에서 儒林들이 모여 연 2회(春秋) 釋尊大祭를 올리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栱包를 기둥 위와 기둥사이에 짜올린 다포식 건축으로 단층 맞배기와집이다.



〈사진 4-32〉

대구향교 대성전

4. 龜岩書院 崇賢祠(문화재자료 제2호/중구 동산동 735-4)

朝鮮 顯宗 6년(1665) 창건한 건물로 처음에는 連龜山에 있었다.

肅宗 1년(1675) 龜溪 徐沆先生을 봉안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다가 숙종 44년(1718) 현위 치로 이전하였다. 이때 四佳 徐居正선생을 합享하고 그 후 藥峯 徐省선생과 涵齋 徐嶰선생을 追享하였다.

1868년 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924년 지방 儒林들이 중건하고 1943년과 1974년에 보수하였다. 건축구조는 前面 圓柱에 5樑架 八作지붕이고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5. 觀風樓(문화재자료 제3호/중구 달성동 294-1)

이 건물의 원형은 조선후기에 慶尙監營의 正門으로 쓰였던 건물이었다. 당시 正門인 布政門을 세우면서 그 위에 門樓를 만들어 관풍루라 하였다.

觀風樓는 당시 閉門樓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주위에 북, 중, 피리, 나팔 등 風樂器具를 갖추어 놓고 매일밤 10시에 閉門, 새벽 5시에 開門하는 풍악을 울렸다고 한다.

폐문루를 관풍루로 부르게 된 것은 監司가 樓上에서 숙세를 살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觀風樓는 1906년 大邱邑城이 헐리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그 후 건물이 노후하여 1970년에 해체하였다가 1973년에 복원하였다.

6. 漆谷鄉校 大成殿(문화재자료 제6호/북구 읍내동 600)

칠곡향교는 前學後廟의 배치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앞쪽에 明倫堂을, 뒷쪽에 大成殿을 두었다. 대성전은 박공지붕의 翼工系 건물로 一高柱五樑의 구조이고, 前退가 개방되어 祭禮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孔子, 孟子, 宋朝十哲이 봉안되어 있다. 옆의 東廡에는 朝鮮 十八賢이 봉안되어 문묘공간을 구성한다.

전하는 바로는 17세기 초기에 건립되었다고 하나 1907년에 대수리가 있었다는 대성전 현판의 기록과 건물의 구조양식으로 미루어 19세기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7. 把溪寺 說禪堂(문화재자료 제7호/동구 중대동 7)

이 건물은 仁祖 1년(1623) 戒寬法師에 의해 創建되었던 것으로 1646년, 1725년 두번의 중건과 1762년 重葺工事が 있었다고 전한다. 그 후 1922년과 1973년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있었고

1976년에 다시 대수선이 있었다.

건물은 正面 7칸, 側面 7칸의 규모로 平面이 ‘ㄱ’字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構造樣式은 鼓腹礎石위에 기둥을 세우고 柱上에 柱頭를 얹은 민도리집이고 上部架構는 5樑架이다.

이 건물은 구조양식과 가구수법 등이 간결하면서도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33〉

파계사 설선당

8. 把溪寺 山靈閣(문화재자료 제8호/동구 중대동 7)

화강석 외벌대 基壇위에 건립된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에 박공지붕이다.

건축양식은 화강석 정평 초석위에 圓柱를 세우고 柱上에 柱頭와 함께 양서와 봉두를 장식한 초익공양식이다. 3樑架로 구성된 지붕 하부구조는 우물천장으로 가려져 있고 건물 내외부에는 금단청을 올렸다.

이 건물은 익공계 건축으로 조선후기에 발달한 번잡한 장식수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9. 把溪寺 寂默堂(문화재자료 제9호/동구 중대동 7)

光海君 12년(1620)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肅宗 21년(1695)에 중건되고 1920년 重創되었으며 1976년 번와공사가 있었다.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6칸 규모로 평면이 ‘ㄱ’字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만 겹처마인 팔작지붕이다.

건축양식은 柱上에 柱頭를 얹은 굴도리집으로 上部架構는 5樑架다. 비교적 소박한 朝鮮後期の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10. 把溪寺 鎮洞樓(문화재자료 제10호/동구 중대동 7)

肅宗 41년(1715)에 창건된 건물이다. 1970년 丹青工事와 1976년에 번와공사가 있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2층 樓閣으로, 지붕은 팔작 겹처마로 꾸며져 있다.

건축양식은 柱上에 柱頭와 함께 2개의 쇠서를 장식한 二翼工양식이다. 가구는 5樑架이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되었으며 건물의 내외부에 모노단청을 올렸다.

후대에 유리창문을 넣는 등 일부 개조된 부분도 있으나 이익공의 쇠서 등은 조선시 중,후기의 양식에 어울리는 고격을 보이고 있다.



〈사진 4-34〉

파계사 진동루

11. 把溪寺 祈永閣(문화재자료 제11호/동구 중대동 7)

숙종 35년(1696)경 玄應大師가 聖殿庵과 더불어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1974년과 1983년의 두번에 걸친 보수공사가 있었다.

건물은 화강석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건축양식은 덩병초석위에 圓柱를 세우고 柱上에 柱頭와 함께 양서와 수서를 장식한 外一出目 柱心包系 양식이다. 상부가구는 5樑架이나 우물천장으로 가리어져 있다. 이 건물은 주심포계 건물로 주두의 장식이 번잡하게 발달한 조선후기 공포양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12. 獨巖書堂(문화재자료 제12호/동구 봉무동 223-3)

朝鮮 高宗 2년(1865) 이곳 崔氏 門中에서 건립한 서당이다. 이곳에서 유능한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鄉約을 만들어 주민교화에 힘쓰고 鳳舞亭을 세웠던 崔象龍선생도 이 서당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건축양식은 3樑 홀처마에 박공지붕이고 대청위에는 童子臺工을 세웠다. 이름을 獨巖이라한 것은 서당의 서쪽에 高麗 太祖 王建이 公山싸움에서 견훤에게 패하여 혼자 피신해 앉아 있었다는 獨坐巖이 옆에 있어 그것에 연유한 것이다.

13. 瞻栢堂(문화재자료 제13호/동구 평광동 979)

효자로 이름난 禹孝重의 효행과 조선말 기울어가는 국운을 안타까와 하며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숨어 살던 선비 禹命植의 節義를 기리기 위하여 고종 33년(1896)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건물은 5樑架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의 박공면에 내림지붕이 붙어 있다.

14. 倂叟亭(문화재자료 제14호/수성구 상동 139-1)

秦氏門中の齊室로서 1900년경에 건립되었다.

건물은 건립당시 正面 5間, 側面 間半의 규모였으나 후대에 背面部分 전체가 半間 증축되었다. 화강석 기단위에 圓柱形 주초석을 놓고 앞면 6柱는 圓柱로 나머지는 角柱로 세운 민도리 소로이다.

이 건물은 마루 밑에 붉은 벽돌을 쌓고 마루에 장마루를 깔고 유리창문을 사용하였으며, 천장은 일본식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수법은 1900년대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통건축양식이 변화되어가는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15. 孤山書堂(문화재자료 제15호/수성구 성동 산 22)

고산서당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退溪 李滉(1501-1570)과 愚伏 鄭經世(1563-1633) 선생이 이곳에서 講을 한 바 있다함으로 원 건물은 1500년대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두분의 死後 서당 뒷편에 祠堂을 건립하여 兩선생의 位牌를 모시면서 書院으로 개칭하였다. 사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講堂은 대원군 서원철폐령 때 훼손되었다.

고종 16년(1879) 慶山 儒林에서 강당만 다시 중건하여 孤山書堂이라 扁額을 걸었으며 1904년 중수한 바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으로 간결한 민도리 형식이며 架構는 3樑架다.

16. 桐華寺 須摩提殿(문화재자료 제16호/동구 도학동 36)

1702년경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물은 두벌대의 長臺石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이고, 겹처마 박곡지붕이다. 건축양식은 내·외 二出目の 多包樣式이고, 上部架構는 5樑架이며, 우물천장으로 가리워져 있다. 이 건물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조선시대 中,後期 다포양식의 소박한 기법과 짜임새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사진 4-35〉 동화사 수마제전

17. 獨茂齋(문화재자료 제17호/수성구 만촌동 188-1)

이 건물은 선비 夏時贊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과 유림에서 세운 건물이다. 하시찬은 당대의 석학이던 金鏡湖 宋性潭의 門에 나아가 학문을 익히고 그의 고향인 대구 孝睦洞에 獨茂巖樓란 齋室을 지어 기거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弟子와 儒林들이 學契를 만들어 獨茂巖樓가 있던 자리에 獨茂齋를 건립하였다. 그후 사정에 의해 1968년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이때 선생이 저술한 八禮節要와 悅庵文集 板刻을 보관하기 위한 景德祠와 장판각을 서북쪽에 세웠다.

이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1칸반 규모의 맞배기와집인데 박공 양측에는 風板을 설치하였다. 평면은 어칸의 2칸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2통칸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전면에는 반칸의 퇴칸을 두었다.

18. 夏孝子 旌閭閣(문화재자료 제18호/수성구 만촌동 389-9)

이 비는 경북지방 일원에서 가장 오래된 孝子碑의 하나로 고려때 吏部侍郎을 지냈던 夏光臣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正門을 세운 것이다.

高麗 忠肅王은 하신광의 효행을 전해 듣고 1327년 그가 살던 마을에 ‘吏部侍郎夏光臣之間’라는 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이 旌閭가 세워진 곳은 수도산 부근 達城夏氏의 종산이었으나 壬亂때 소실되어 없어졌다. 현재의 정려비는 1781년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중건하였으나 일제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헐려 현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전면은 홍살창이고 후벽은 약 50cm높이의 고맥이 위에 판벽으로 설치했다. 양측면은 板壁上에 홍살창을 설치하여 4면을 구성하고 겹처마의 박공지붕으로 하였다.

건축양식은 화강석의 원형정평초석으로 받친 圓柱위에 柱頭와 함께 양수와 수서로 장식하고 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한 익공양식이며 모로단청을 올렸다.

19. 文昌公 影堂(문화재자료 제20호/동구 도동 766-4)

이 건물은 崔致遠의 影幀을 모시기 위하여 1912년 그의 후손이 세운 것으로 그들의 始祖가 남긴 위업을 후손에게 전하는 목적 이외에도 이름난 선현의 영정을 모심으로서 亡國의 한을 달래고 있던 백성들에게 민족정기를 심어주기 위한 뜻도 있었다. 문창은 최치원의 증호이다.

건물은 원형 초석에 圓柱를 세우고 柱上에는 柱頭를 놓았다. 쇠서의 돌출은 이익공계로 분

류할 수 있겠으나 연화문이 복잡하게 조각되어 매우 번잡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어칸 솟을 지붕에는 주상의 대량위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주두를 봉두와 익공장식을 하여 마치 重層처럼 처리하였다.

20. 綏陵香炭禁界 標石(문화재자료 제21호/동구 용수동 39-1)

화강암의 자연석에 새겨진 이 표석은 원래 현위치에서 10m가량 아래쪽에 있었던 것을 이전하였다.

碑에 刻書한 銘文 綏陵香炭禁界의 수릉은 조선왕조 憲宗의 父王인 翼宗陵이고 향탄은 왕릉에 사용하는 木炭을 말하며 금제는 출입금지 경계를 뜻하는 말이다. 즉 이 표석은 수릉에 사용되는 목탄의 생산을 위해 국



(사진 4-36)

수릉향탄금계 표석

가에서 봉산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금하게 한 표석이다. 禁界石은 이곳 집단시설지구외에도 수태골에 1기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의 夫人寺와 이곳 집단시설지구 사이의 산림은 봉산으로 지정된 보호림임을 말해준다.

이 표석은 조선시대 산림정책의 일면을 말해주며 또한 자연보호운동의 한 단면을 반영해주는 기념물이기도 하다.

21. 文昌公影幀(문화재자료 제25호/동구 도동 766-4)

文昌公은 孤雲 崔致遠으로 이 영정은 1860년경 그려진 것이다. 全身坐像으로 神仙境을 배경으로 암바위에 앉아 있고 좌우에 卷書를 두고 있다. 신선도계열 화풍의 민화이다.

재료는 국채색 絹本이며 색채는 9종(紅,黃,灰,綠,紺,橙,白,黑,淡綠)으로 되어 있다.

문창공의 영정은 알려진 바로는 智異山 雙溪寺本과 伽倻山 海印寺本을 들 수 있으며 본 영정은 가야산 해인사본 계열로 1860년경 改模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泗溟堂大將眞影(문화재자료 제26호/동구 도학동 35)

임진왜란때 僧軍을 통솔하여 크게 공을 세웠던 사명당의 眞影으로 의자에 앉아 跏趺坐한 全身像이다. 손은 拂子를 잡은 채 무릎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있으며, 衣褶은 白色長衫에 紅色袈裟를 입고 있다. 이 사명당초상은 조선전기 功臣圖像이나 일반 士大夫像에서 보여주는 필법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畫法의 시기는 대체로 18세기 작품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肖

像의 제작년기가 嘉慶年間(1796-1820)이라 명기되어 있어 이러한 화법상의 흐름을 분명히 해주는 사례가 된다.

23. 聖유스티노神學校(문화재자료 제23호/중구 남산동 219-3)

붉은 벽돌쌓기 2층건물로 대구 천주교회의 初代 教區長이었던 드망즈(安世華)主敎가 중국인 벽돌공을 동원하여 1913년에 착공, 1914년에 완공했다. 신학교 건물로 서울 明洞聖堂의 건축에 참여했던 프와넬 신부가 건립계획을 세웠고 공사는 中國人 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 책임목수는 프랑스 영사관을 건축할 때 참여한 사람이었다.

학교는 'ㄷ'字形 평면으로 중앙에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게 했고 1층 前面에는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연속아취(Arcade)로 퇴칸을 설치하여 복도로 사용하고 2층은 계단실을 통하여 각 실을 연결하였다.

이 건물은 프랑스인 신부들이 서구의 근대건축양식과 함께 벽돌제조 및 벽돌쌓는 기술을 대구시민에게 소개한 의미 뿐만 아니라 대구의 천주교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 건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풍에 준하는 비교적 순수한 서구식 건물로 벽돌의 조적이 정교한 우수한 건물이나 당시 'ㄷ'字形이던 건물이 현재 전면으로 돌출되었던 양익이 철거되고 중심부의 일부만 남아 있다.

24. 살트르 聖바오로 修女院 코미넛관(문화재자료 제24호/중구 남산동 190-1)

이 건물은 1915년 대구천주교회 초대 교구장이던 드망즈(安世華)主敎가 로베르신부의 도움을 받아 지은 수녀원이다.

안세화 주교는 1912년 神父를 보좌하면서 고아와 노인을 돌보고 의료교육사업을 담당할 修女의 파견을 프랑스 聖바오로修女會에 요청하였다. 그후 1914년에 수녀의 파견이 결정되자 안세화 주교는 수녀원의 건축에 착수하여 1915년 코미넛관의 낙성과 함께 대구 살트르성바오로 수녀회를 건립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기초위에 붉은 벽돌과 흑색 異形벽돌로 벽을 쌓고 지붕은 木造 트러스위에 골합석을 이은 모임지붕형에 도머窓과 굴뚝을 돌출시켰으며 처마는 흑색 벽돌로 3단 내쌓기하여 코니스처럼 장식하였다. 북쪽으로 연속아취인 아케이드에서 길게 돌출된 聖堂부분은 1927년에 증축한 것이다. 로마네스크와 고딕풍에 준하는 비교적 순수한 西歐式 건물로 서구의 건축양식과 함께 벽돌쌓는 기술을 대구시민들에게 소개한 의미와 大邱天主敎會史와 건축적 상황을 담고 있는 역사적 건물로 지금까지 당대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第5章 體育·스포츠

第1節 解放前の 體育·스포츠(1895~1945)

I. 發芽期

“어느 역사학자의 말에 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날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고, 그러한 사관에 따라서 자기반성을 하기 위한 기록인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온 원시인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무의식적인 신체활동이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천에 관련되면서 각기 그 지역마다의 특수사정에 따라 오랜동안 인류 문명에 크게 공헌, 생존경쟁을 위한 의도적인 신체단련과 기능적 수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발전을 거듭한 체육·스포츠의 역사가, 비록 그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까지 오늘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랜 옛날 부족국가시대에서 삼국 및 통일신라의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주로 무예이고 생활 그 자체이긴 하였으나, 말하여 체육·스포츠가 있어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근대이후 구미 여러나라의 체육·스포츠의 변천과정과는 다르게,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다만 조용한 아침의 나라 자연에 의지하고 과학을 외면한 근대사회의 미아로서 이웃나라 일본에서까지도 개화의 물결이 요란할 때 한결 고요하기만 하였다.

이와 같이 극도의 모화사상과 유교의 인습에 젖어 신체성은 심히 천시되었으며, 근대적 체육·스포츠에의 접근은 전혀 도외시,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정상적인 보급 발전은 고사하고 접촉조차 못한 채, 그때 마다의 시운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면서 독자적인 위치마저 찾지를 못하고 있었다.

미국의 에밀, 라이스(E.A, Rice)는 그의 저서 《체육 概史》에서 “체육의 역사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어떤 요소와 체육사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종교적인 신앙은 체력의 발전을 장려하나 그와 반대의 신앙은 그를 부정한다. 또 어떤 정치적 조건은 강력한 신체적 훈련을 지지하지만 다른 정치적 조건은 소극적인 영향을 기도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의미서 볼 때 우리나라 근대 체육·스포츠의 실상은 동·서 철학의 상대적 관계(動

의一靜的)인 세계관과 인간관에 근거한 것으로 보겠으나, 정치적 상황의 혼미와 모화·숭유(崇儒)사상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서양의 체육·스포츠가 나름대로의 접촉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1895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날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그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체육·스포츠 또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체성은 심히 천시되었고 소위 양반계급의 횡포와 儒生들의 병적 관념이 공리공론만 일삼는 문약 퇴폐적인 국민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안으로 당쟁이 그칠 줄 모르고 밖으로는 외세를 막을 길이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과 민생고는 극심하였다.

한편, 대원군은 이의 수습책으로 쇄국적 전제정치를 강행, 외국과의 문화의 교류가 전혀 없어, 근대적인 체육·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체육 역시 그 발아를 보지 못한 채, 부실한 상태에 있더니 봉건제도의 종식을 예고하는 갑오경장의 대혁신을 계기로 고종 31년(1894) 6월 24일에 종전의 淸制에 의한 관제(二部八衛)의 學務衛門制를 폐하고, 1895년 2월 2일 전국에 교육조서를 내려 지·덕·체 등의 삼대강령을 표방하고 그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먼저 학교체육서부터 신시대적인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25일에는 폐단이 많았던 과거제를 폐하고 官吏登用制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¹⁾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전제 봉건주의적 봉토확장을 위한, 즉 병력강화를 위한 무술 그 자체이던 체육·스포츠가 일부 武人들 사이에서만 행해졌고, 스포츠나 레크레이션을 위한 놀이는 소수 귀족들의 독점된 위안물이거나 여흥을 위해서 있을 뿐, 서민들의 생활 속에는 자리할 틈도 겨를도 없었던 지난날의 체육·스포츠는 만민평등의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한 전기된 바 교육조서로 해서, 비록 완전한 형태나 내용을 갖춘 신체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위한 지적·정서적 도야, 사회적 성격의 함양, 사고·행동의 정확 신속성과 안전지도, 레크레이션까지를 내용으로 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체육·스포츠를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일반화시킬 기초를 닦은 것이라 하겠다.

1) 羅絢成, 《韓國體育史》, 靑雲出版社, 1963, p.94.

II. 胎動 및 開化期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왕비 민씨가 세도를 부리게 될 때 비로소 나라를 개방하여 외국과 수교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종 19년(1882)에 팔도에 繪을 내리어 양반도 장사하고 서민도 학교(향교와 성균관)에 참례하라 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을 내세운 한편,²⁾ ‘고종 22년(1885)에 배재학당과 1886년에는 이화학당을 설립, 한국 남녀 교육의 효시가 되게 하였으며, 육영공원³⁾ 등의 현대적 성격을 띤 학교를 개설하였다.’⁴⁾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체제를 갖추고 설립된 학교는 역시 1895년 4월 16일에 설립공포된 한성사범학교이다. 그리고 이때를 기하여 현대적 스포츠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896년 5월 2일 동소문밖 三仙坪(지금의 삼선교)에서 영국인 헛치슨(Hutchison)교사의 지도 아래 베풀어진 花柳會를 비롯해서, 같은 해 5월 30일 역시 삼선평에서 거행된 각 관립소학교 운동회, 다음해 6월 16일 훈련원에서 거행된 영어학교 대운동회의 개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⁵⁾ (독립신문, 建陽元年 5월5일, 제13호, 同, 建陽2년 6월 19일, 同, 光武 2년 5월 31일). 그러나 그때의 스포츠의 소개나 운동회의 참가가, 귀족이나 정부고관의 자제들만의 것이었음은 어찌면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이 비록 그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초보적인 것이긴 하였지만 우리나라에 현대적 체육·스포츠의 초창기적 보급 발전에 크게 공헌한 영어학교 교사 헛치슨과 핼리팩스(Hallifax) 두 사람의 은혜와 공로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학교체육에 있어서도 전기 한성사범학교의 뒤를 이어 총 13개의 각급 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비록 4개교에 불과했지만 교칙대강 및 학교규칙에 체조과의 지도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고, 불완전한 위치이긴 하였으나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으며, 학교에 따라 극히 간단하고 형식적인 점이 많기는 했지만 지도내용이 정해져 있었음은,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형편으로 봐서 한국 학교체육의 역사상 큰 공헌이 될 기초적 터전이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1904년 군부 관제칙령 제17호로 발표 설립된 陸軍研成학교는 장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관이었는데, 그 당시 학교에 체육지도자가 없어 그 운영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허다하여,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학교 관제의 공포와 동시에 체조, 검술과를 설치하여 학교

2) 羅絢成, 앞의 책, p.93.

3) 귀족 및 정부고관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4) 손인수 외, 《韓國教育年誌史》, 대한교육연합회, 1971, p.122.

5) 羅絢成, 위의 책, pp.106~108에서 再引用.

체육 지도자 양성의 첫 시도를 하였으니, 이는 오늘의 학교체육으로 이르는 과정에 크나큰 공헌이었고, 그 토대를 마련한 한국 최초의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이라 하겠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비록 귀족 정부고관 위주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여타의 지방은 물론 우리들 고장 대구·경북지역에는, 이보다 월등히 뒤진 1906년에 와서야 신시대적 물결의 흐름으로, 미국 기독교 북장로회 선교사 앤더슨(Anderson)에 의해 계성학교가 설립되고, 뒤이어 1907년에는 신명여학교가 설립되는 등⁶⁾ 신교육의 싹이 트면서 체육·스포츠의 소개와 보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운동경기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에 尹洪烈의 주도로 수동에 자리잡은 민족주의 단체 簡易會가 주관하여 달성공원에서 개최한 시민운동 대회이다. 여기에는 대구공립보통학교, 海星(효성국교전신), 계성, 농림, 大南(희도국교전신) 학교 등이 참가하여 비록 육상경기 뿐이었지만 열띤 경기를 벌였고, 응원도 대단하여 시민들을 축체분위기 속에 몰아넣었으며, 한편으로는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주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서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의 직접 참가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주로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과 스포츠에 머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즐기차게 태동 개화하던 때이긴 하였으나, 고루한 유교사상에 따른 신체성의 천시와 심신이원론적 교육관과 지도자의 질적·양적 결핍, 그리고 제반조건의 미비로 의욕과는 달리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III. 日帝의 統制期

2천만 동포의 붉은 피가 역류하고 3천리 강산에 민족적 울분이 용솟음치게 한, 외무대신 朴齊純을 비롯한 5인의 奸賊들에 의하여, 소위 을사보호조약(1905년 11월 17일)이 체결되자 모든 국민은 격분하였고, 당시의 언론기관을 비롯해서 우국지사들은 치열한 반대운동의 봉화를 치켜들었다. 5역적의 암살사건, 화란(Holland) 海牙(Hague)의 밀사파견사건을 비롯하여 국내 도처에서 민족적 투쟁은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日帝의 주구들은 실권을 잡고 드디어는 1910년 8월 29일 역적들의 손에 의하여, 만고에 씻지 못할 치욕의 합방조약을 체결되고 말았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와 식민지정책은 날로 격화, 구체화되어만 갔다.

6) 손인수 외, 앞의 책, p.137.

7) 경상북도, 《경북도사》 하, 1987, p.1151.

당시의 우국지사들은 국권의 회복과 국력의 부강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불태워버릴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지적 계발과 강건한 심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일대 교육운동을 전개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립학교 설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투철한 민족적 이념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강화하는 한편, 강건한 심신을 단련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을 양성 배출하고 8·15의 감격을 맛보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조국광복의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과학적인 투쟁의 역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국투쟁으로서의 교육운동은 국민들의 자성과 자각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의식수준은 향상되고 교육열은 크게 높아져서 전국각지에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체육·스포츠에 관한 이해와 관심도 한결 높아졌다.

이와 같은 기운에 따라 우리들 고장 대구·경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한 1911년의 시민대 운동회를 뒤이어 1912년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계성학교를 중심으로 보급된 야구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울려 경기를 갖고, 1914년에 대구청년단 팀과 東京유학생 야구단이 시합함으로써 공식적인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20년 1월 恩賜館에서 문화부와 운동부를 둔 대구청년회가 창립되어, 金宗鉉, 朴肯鎭, 孫萬洙, 丁鶴俊, 李昌達, 馬達出, 李敬珍, 金東學, 崔學得, 張萬鎬, 鄭永奎, 李鐘範, 金仁出 등 여러 사람이 운동부에서 활동, 야구, 축구단 등을 결성하여 경북의 체육·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⁸⁾

한편 서울에서는 1919년 3·1운동의 조류를 타고 1920년 4월 11일부터 3일간 동아일보 邊鳳現이 〈체육기관의 필요성을 논함〉이라는 논설을 실어, 당시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체육·스포츠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기관의 형성이 시급하다는 민족적 요망에 따라, 같은 해 7월 13일에 조선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요, 활동력의 원천이 된 조선체육회가 조직되었고, 그 첫 행사로서 그해 11월 4일에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가 개최되었다.⁹⁾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각 지방 체육단체의 조직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경북지방에서도 1922년 정구인을 중심으로 한 대구운동 협회가 고고의 소리를 외치고 嚴成文, 尹龍基, 梁圭植, 宋箕贊, 南庭九, 車性鎬 제씨의 발기로 탄생되어 역사적인 간판을 달성공원 입구 朝陽會館(현 원화여고자리)에다 높이 내걸었다.¹⁰⁾ 이것이 오늘의 대구·경북체육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운동협회는 1922년에 동아일보사의 후원을 얻어 대구소

8) 《경북도사》, p.1152.

9) 羅絢成, 앞의 책, pp.143~144.

10) 경상북도체육회, 《경북체육》 4, 1980, p.11.

년축구대회, 전조선 정구대회를 개최했고, 1923년 10월에는 동경유학생 학우단과 대구청년단의 야구경기와 축구경기, 조국을 방문한 하와이교포 학생야구단과 대구청년단의 야구경기 등 애족 애향적인 뜻깊은 친목경기가 있었다.¹¹⁾ 그리고 1924년 봄에 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겨울에 스케이트가 도입되어 다음해 1월에 영선못에서 스케이트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다른 도에 비해 체육·스포츠열이 높은 경북은 1925년 5월에 소년야구대회, 역시 같은 해 5월 5일에는 진해 올림픽에서 대구고보 농구팀이 朴泰植, 裴相羽, 崔榮浩, 朴三祚, 孫季哲등의 선수들으로써 원정, 결승전에서 진해 海員 양성소팀에게 승리하여 기세를 떨쳤고¹²⁾, 7월에는 전조선 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역시 10월에 東雲町(동인동)에 길이 63m, 너비 27m의 대형 수영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영장이 된 것이다.¹³⁾

이와 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체육·스포츠의 활동이 1926년 순종의 승하와 6.10만세 사건으로 각종 집회와 체육활동의 통제로, 체육대회의 개최허가를 얻지 못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가운데서도, 1920년에 창설된 기독교청년회(Y.M.C.A)가 농구를 보급하였고, 한편으로는 1927년에 종전까지 일본인 경영의 조선민보사가 주최하던 시민운동회를, 대구운동협회 주최로 인수하여 대구 춘계대운동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해인 1928년 4월에는 대구사상 최대 규모의 거시적 종합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의 경기장으로는 달성공원, 동인동 공설운동장, 조양회관 및 백사장 등을 이용하였다.¹⁴⁾ 또한 이 해에는 직장 야구팀이 처음으로 창단되어 한 때 주춤했던 야구에 힘을 불어 넣었다. 그리하여 이 해 9월 10일에는 대구청년회팀을 비롯하여 10개팀이 참가한 야구대회가 열렸고, 해체되다시피 한 계성학교 야구부를 비롯하여 대구상고, 대구고보와 소학교인 해성, 수창, 대구보통, 대성, 교남 등의 학교에 야구부가 조직되었다. 이리하여 1929년 대구상업 야구부는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 같은 해 8월에 일본으로 원정, 일본관서신문사가 주최한 首相旗 쟁탈 중등학교 선발야구대회에서 우승, 日人들을 놀라게 하였다.¹⁵⁾

그리고 이 해에는 계성학교 체육교사인 평양 출신 김영제(金永濟)씨와 金極珉씨가 중심이

11) 대구시, 《대구시사》, 1973, p.766.

12) 당시 대구고보에만 실내체육관이 있었다.

13) 《경북도사》, p.1153.

14) 《대구시사》, p.766.

15) 《경북도사》, p.1153.

된 축구인들이 대구축구협회를 조직하고, 1929년 11월에 제1회 전국축구대회를 계성학교 구장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⁶⁾ 또한 1930년 5월에 일본 甲子園야구대회 전조선 예선대회에서 대구상업 야구팀은 용산중학교를 2:1로 제압 팀 창단 3년만에 전국을 제패하여 경북 야구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체육회가 1924년부터 개최해 온 전조선 육상경기대회에 대항하여 1928년에 일본인들이 만든 전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제3회 대회(1930년)에 참전한, 대구상업의 表文哲선수가 100m달리기에서 11초 1로 전국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투포환 경기에 출전한 李俊甲 선수는 11m, 17cm를 던져 제1위를 차지함으로써¹⁷⁾ 일인들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탁구가 대구·경북지방의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여기에 이르러 일제는 그 동안에도 우리에게 제압당하는 종목에의 일본인의 참가중지와, 경기회의 개최를 폐지하는 등의 통제를 더욱 더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가던 우리민족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따른 울분과 원한은, 그리고 주권회복을 위한 의지는, 일인들과의 정면대결이 허용되는 체육·스포츠에로 관심과 정열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성과는 일취월장 거의 모든 스포츠의 대결에서 일인들을 월등 능가하였고, 그 때마다 망국의 한을 달래며 애국애족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권회복의 의지는 강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일인들의 허세와 자부심은 여지없이 허물어져만 갔으니, 그들의 갈등 또한 대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1929년 11월 3일, 지난 3·1운동 이후 최대의 광주학생의거가 1930년까지에 걸쳐 계속되었으니, 1931년 9월 9일에 중국침략을 위한 만주사변을 일으켜 조선인들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경악과 분노가 극에 다다랐을 것이고,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통치방침을 전환하여 교육, 문화에 어느정도 양보하던 형식상의 융화정책으로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강화된 체육·스포츠 억압정책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적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향토 체육인들의 조국애와 의지는 꾸준하여 1931년의 제5회대회를 성황리에 치루었다. 그리고 1932년 5월에 제6회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일본인 교장들의 방해로 쓸쓸한 대회로 끝났다. 그러나 이해 5월에는 1920년대 초반부터 운동장으로 사용해오던 공지인 東雲町 공설운동장을 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다듬었다. 그리고 1934년 6월에 제8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로 발전했고, 마지막으로 1935년에 열린 제9회 대구 춘계대운동회에는 일인 교장들의 허락이 있어, 거의 모든 학교가 참가

16) 《경북체육》 14, p.12.

17) 《경북도사》 하, pp.1153~1154.

했으며 많은 단체도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¹⁸⁾ 그러나 야구와 정구는 일인들의 관장하에 움직였고, 축구 하나만은 조선인 일색이었기 때문에 대구축구협회는 발족 이래 그 사업이 매우 활발하였으나, 한동안 존재와 업적이 뚜렷하던 대구운동협회는 왕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적적하였다. 이를 우려한 유지들은 그 위축됨을 통탄, 체육·스포츠계의 부흥을 위해서 협의, 1935년 6월 17일 대구시 남성로 裨日佑씨가 경영하는 고등사진관에서, 우리 향토체육의 모체인 영남체육회를 창립하였다. 당시의 산파역으로서는 尹龍基, 韓應列, 全極珉, 李能植, 金永濟, 裨日佑씨 등이다. 그리고 창립 당시의 진용은 회장: 尹相泰, 이사장: 尹龍基, 이사: 金永濟, 徐炳彦, 裨日佑, 全極珉, 宋箕替, 李能植, 車性鎬, 徐炳直, 崔榮浩, 감사: 千甲辰, 徐文圭씨 등이다.¹⁹⁾

위축된 대구운동협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립된 영남체육회는 그 첫사업으로 1935년 추석에 전조선 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체육회는 국기인 씨름을 장려하고 전국장사들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로 상영(上營)터 (현 한일극장 자리)와 동운정 공설운동장에서 5월 단오에는 남선씨름대회를, 8월 추석에는 전조선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함흥, 황주, 사리원, 경성, 부산, 마산, 창녕, 대구, 고령, 현풍, 신동 등지에서 장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또 영남체육회는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 달성공원에서 조기보건체조회를 열기도 하였다.²⁰⁾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달성공원에서 해마다 열리던 대구춘계대운동회도 막을 내려 운동회의 주종목이었던 육상경기가 차차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 경북육상경기가 많은 종목에서 전국을 석권하는 등, 빛을 본 것은 대구 춘계대운동회라는 거도적인 운동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경북 육상경기대전을 위해서 왕년의 스타들인 裨榮岩, 崔戊龍, 金木鐸씨 등 대구의 육상경기인들은 선수선발을 위한 경기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것이 바로 경북 육상경기선수권대회인데 매년 4월 체육의 날에 각급 학교대항전을 가졌다. 이 대회와 함께 경북 육상경기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은 대회는 조선신궁대회 경북예선대회와 더불어 4월중순에 열리는 80聯隊 軍旗祭 행사의 일환인 각급학교대항전을 들 수 있다. 이 군기제의 학교대항전은 1930년대 후반 들어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면

18) 《경북도사》, p.1155.

19) 《경북체육》 4, p.12.

20) 《경북도사》 하, p.1156.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金永濟, 崔榮浩 두분이 강사로 봉사하였음.

서 경기내용이 한층 알차게 되었다.

조선단체의 체육행사가 일제 금지돼 선수들이 참가할 대회가 줄어들자 군기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종목도 주로 육상경기였다.

80聯隊는 지금의 대구중학 앞자리에 주둔한 일본군으로 그들의 행사였기에 학교측은 수업을 전폐하고 학생들을 동원했다. 이 군기제는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30년대 초반부터 열려왔다. 여기에는 대구고보, 대구상업, 대구사범, 대구농림, 대구중학, 계성학교 등 대구부내 중학교 전체가 참가, 열전을 벌였다. 이 대회와 경북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었다.²¹⁾

이와 같이 일제의 엄격한 감시와 회유 그리고 통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향토의 체육인들은 투철한 애국 애족정신을 발휘, 그칠 줄 모르는 저력과 투지로 비록 제한된 국방체육의 테두리에서 실시된 종목이긴 하였으나 내실을 기하면서, 대회개최와 체육활동을 통한 민족적 결속을 더욱 더 굳건히 다져나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36년 백림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의 孫基禎 선수의 세계제패와 일장기말소사건을 비롯해서, 우국지사이자 소설 “상록수”의 작가이며 시인인 沈熏의 민족적 정기와 혼을 불러 일으킨 「그날이 오면」에서의 외침,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人聲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카〉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라는 부르짖음은 억압된 국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 회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상대적으로 일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좌절이었으며, 보다 더한 통제와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그들은 체육·스포츠를 통한 우리들 민족정신의 고취와 민족문화의 창달, 항일사상의 양양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드디어는 당시 우리의 강력한 민족지였던 동아일보의 폐간을 비롯해서, 민족단체와 우리들 신문사가 주최하던 모든 체육행사를 중지시키고 강압적인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드디어는 1938년 7월 4일 발전적 해체라

21) 《大邱毎日新聞》, 1981. 9. 1. 제11427호.

는 명목으로 자치단체인 우리 체육회를 저네들의 어용단체인 조선체육협회로 강제 흡수시켜 자기들의 뜻을 하나 하나 구체화해 나갔다. 이러한 체육회의 통합은 대구·경북에도 어김없이 덮쳐왔다. 1938년 9월 하순 경, 당시 대구부내 일간신문에 ‘조선인단체 영남체육회는 해산하라’는 기사가 게재되고, 그 다음날 ‘영남체육회 간부전원은 오후 1시까지 府尹실로 출두하라’는 호출장이 떨어졌다. 당시의 부윤 고이찌 스즈무(古市進)는 ‘嶺體는 해산하고 대구체육협회에 가입하라’고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강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영남체육회 측에서는 尹龍基, 梁晚植, 徐丙直씨 등은 몇 번이나 해산령을 막아보려 노력했으나, 결국 강압에 못이겨 강제 합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동안 영남체육회의 간관은 고등사진관에서 서병직, 양만식씨가 경영하는 대구운동구점으로, 그 후 다시금 서병직씨의 私宅 등으로 전전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는 가운데서도 관계 체육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손기정 선수 세계제패기념 마라톤대회, 동경유학생 환영축구대회, 올림픽빙상선수 徐正淵, 李聖德, 張佑植환영 영사회, 권투선수 徐廷權환영회, 기타 정기적인 축구, 빙상경기, 탁구, 마라톤 등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²³⁾

1939년 일제의 만주침략이 시작되면서 학교체육이 국방체육으로 변모하자 각종 학교에서는 유도, 검도 등이 활기를 띠었다. 당시 유도의 전력이 가장 좋았던 학교는 계성학교, 일본 체육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崔榮浩씨가 계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유도부를 중점 육성했다. 물론 일본인 학교인 대구중학과 대구상업학교에서도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학교서는 도장까지 갖추고 학과목에 유도시간을 두었다.

1939년 계성유도부의 전력은 막강했다. 이 해 4학년에는 辛道煥, 鄭德昌, 崔二權, 吳英模, 3학년에 朴重根, 2학년에 李進和씨 등 대구부내 중학교 대항전에선 최강으로 군림했다. 최씨 등은 당시에 벌써 2단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⁴⁾ 그러나 1941년 12월 8일 무모하게도 일제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마침내 우리 민족에 대한 발악적 탄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점차 시국이 긴박해감에 따라 일제는 체육운동을 전쟁목적에 결부시키고 이를 완수케 하기 위하여, 1942년 2월 14일 조선체육진흥회라는 체육통제기관을 발족시키고 ‘체육운동은 국가사업이다’라는 미명하게 체육·스포츠를 완전히 통제하에 두고 소위 국방경기라는 것을 등장시켜, 종래의 각종 대회가 모두 중단되고 전력증강 운동이니 전력경

22) 《경북체육》 4, p.13.

23) 《경북도사》, p.1156.

24) 《大邱毎日新聞》, 1981. 9. 1, 제11427호.

기이니 하는 등, 특수한 운동만을 강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체육·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공백, 암흑시대로 화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⁵⁾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쩌면 자체적으로 와해되고말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일 뿐이었다. 안으로는 극에 다다른 사대주의와 사색당쟁이 그칠 줄 몰랐고, 밖으로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개화의 물결일 거세게 밀려 들었던 것이다. 꾸준히 덮쳐드는 구미열강들의 외교적 압력과 아시아대륙과 중국침략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의 집요한 술책에 전혀 무방비, 무대책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할 것이다.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 있었고 사태판단의 후진성과 무지 무기력한 나태함과 주체성의 허약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한·일 수호조약이나 한·일합방이 불가피했다고 보아진다.

아무튼 일본 제국주의의 초기 對朝鮮 식민지정책하의 체육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그 식민지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의도 외에도 조선인을 철저하게 일본화하는 것에 의해서 조선민족을 영원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정책의 슬로건이 되었던 皇國臣民化 ‘內鮮一體’·‘一視同仁’·‘共存共榮’·‘內地延長主義’라고 하는 미사여구는, 그 본질적 표현이다. 일본은 조선을 일시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화하는 것에 의해 완전,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예속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을 점령하는 것으로 해서 그를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대륙 지배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조선의 철저한 일본화를 과제로 했던 것이다.²⁶⁾ 이러한 그들 일본인들의 용의주도한 정책수행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민족적 위기의식을 실감한 조선에서는 민간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그 일환으로서 사립학교의 설립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체력훈련이 중시되고 병식체조나 운동회가 성대히 행해졌다. 이 시기의 체육정책은 그것을 억압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것은 조선인을 우민화하는 정책이었다.²⁷⁾ 그러나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 통치방법이 전환되고 교육, 문화에 일정한 양보가 보였다.

25) 羅絢成, 앞의 책, p.144.

26) 文部省, 《明治以後 教育制度 發達史》10, 1939, p.60.

27) 國民スポーツ研究所, 《體育·スポーツ評論》1, 不昧堂出版, 1985, p.88.

그것은 20세기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 민족자결주의의 세계적인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인 차별과 수탈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스포츠도 의도적으로 보급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학교체육의 목표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스포츠에 있어서의 반일의식은 강해지기만 하였다.

그러한 스포츠의 지도 보급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 조선체육회이었다. 그것은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가물은 대지에 비가 내리고 초목에 새로운 생기가 돌듯이’ 그 정신을 소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양보는 드디어는 ‘一視同仁’ 정책의 야심을 본격화하고 체육·스포츠계의 통제와 체육단체의 해체로 향하는 것이다.²⁸⁾

그것은 일제말기에 ‘황국신민선서’ 등과 함께 ‘황국신민체조’를 강제시행함으로써 국가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실시시킨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민족의 독자성을 부정해서 완전하게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민족말살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것이다.

²⁹⁾ 여기서는 학교체육을 군사훈련화하고 조선체육회의 강제적인 해체, 각종 체육활동에 대한 통제, 중국에 가서는 조선학생들의 군사의무의 강요 세계2차대전의 말기에 가서는 우리 학생들의 전쟁소모품으로서의 “육탄적 육체”까지를 강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 8·15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신구시대의 경계를 지은 갑오경장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의 문물과 접촉하고 문화의 교류가 시작됨으로써 근대의 체육·스포츠 역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미처 한국적인 것으로 소화 흡수되기도 전에 일제의 세계정복을 노린 야욕에 할퀴우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저네들 목적달성을 위한 희생적 도구로 삼고자 형식적인 융화정책과 통제, 때로는 탄압으로 우리를 억압 구속하면서 민족정기를 말살, 자기들 손아귀에 귀속시키려 혈안이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1920년 7월 13일 高元勳 선생을 비롯한 여러 우국지사들의 발기로, 조선체육회가 조직되어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눈치챈 일인들은 우리 민족의 체육활동을 통한 강건한 신체의 단련과 정신의 함양을 두려워했으며, 집단적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적 단합과 독립사상의 양양을 두려워한

28) 國民スポーツ研究所, 앞의 책 2, 1987, pp.101~102.

29) 國民スポーツ研究所, 위의 책 3, 1988, p.155.

나머지 우리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간섭 통제하면서 침략세력을 부식하기 좋은 스포츠정책을 시행, 안일무사한 인간을 만들기에 꾸준하였고 전투력양성을 위한 일본식 전체주의의 체육형태로 뒤집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체육·스포츠의 모국에서 직접 순수한 스포츠와 스포츠맨십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들 일인들의 손을 거쳐 자기들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다시금 가공된 망국적인 것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자주 일어나는 경기불상사와 현대사회의 관련사실에 기인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지난날 日人들과의 스포츠대결에서 독립투쟁으로서의 공격성과 원한에 서린 적개심으로 웅어리진 스포츠관과 승패관이 오늘에 있어서까지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그 까닭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 섬나라 민족의 편협성과 침략성, 무모한 야욕 등, 때묻은 독소를 근절하지 못한 채 또 별다른 대책없이 8·15해방을 맞이 하였던 것이다.

第2節 解放後의 體育·스포츠(1945~1993)

I. 過渡期的 努力과 6·25의 受難時代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감격의 날 해방을 맞이하여 36년간의 치욕과 통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영위해 나가게 되었고 삼천리강산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조국광복의 기쁨과 감격은 체육인들에겐 또 다른 환희와 광명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체육·스포츠대회의 부활이었다.

우리 향토 체육인들은 1945년 8월 16일 대구시내 봉산동 尹龍基씨 댁에 모여 감격의 손을 맞잡고 향토체육의 재건을 위해 영남체육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회장이었던 尹相泰씨를 비롯하여, 徐丙彦, 裴日佑, 車性鎬, 李龍植, 全極珉, 徐丙直, 崔榮浩, 千甲辰, 徐文奎씨 등 15명이었는데, 임시총회에서 尹龍基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1938년 9월에 간판을 내리고 지하로 숨어든 영남체육회가 6년11개월만에 梁晚植씨가 보관해왔던 간판을 서문로에 있던 金聖在씨댁 2층에 내어걸었다. 이리하여 체육활동을 위한 기금을 모우고 11월 8일은 丘山閣(대구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다음해의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12월 2일 초대 경북도지사로 金宜均씨가 임명됨에 체육회장도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맡게

되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했던 영남체육회가 지방행정기관의 종속적인 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12월 28일에는 해방후 첫 총회를 개최하여 향토체육발전에 많은 공로를 남겨두고 초대 이사장이었던 윤용기씨는 당시 젊은 재력가이자 체육인인 金成坤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 주었다.³⁰⁾ 이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한 영남체육회가 조직되었다.

이무렵 수도 서울에서도 같은 해 11월에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가 제26회 전국체육대회인 것이다. 광복을 맞은 민족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축제로 마련된 이 대회는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다. 그때의 경기종목은 육상경기, 자전거경기, 승마, 축구, 야구, 배구, 정구, 럭비, 탁구, 농구 등 10개종목이었으며(남북한 모두가 참가) 다음해 1월에는 빙상경기대회도 부활되었는데, 이 대회가 오늘의 동계빙상대회와 동계스키대회로 발전하였다.³¹⁾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은 체육인들의 의욕적인 노력과는 달리 정치단체의 난립과 좌 우파의 대립으로 조국광복을 기뻐만 하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복잡미묘한 정치적 혼란으로 민심은 극도로 교란된 채, 일시적인 무정부상태가 계속 되던 9월 8일 미군이 진주하여, 한·미 양부장관제도의 군정이 시행됨으로써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전의 준비나 대책없이 인수받은 모든 분야는 매사 서툴렀고, 관계지도자를 비롯한 인적 물적 빈곤으로 적지않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체육·스포츠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영남체육회는 첫 사업으로 대명동 공설운동장(현 미군장교숙소)에서 8·15경축 운동회를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개최하였다. 육상경기만으로 구성된 이 운동회는 계성, 대구중학, 대륜, 경북, 대구농림, 대구상업, 대구사범, 대구공업학교 등 9개교가 참가하여 계성학교가 종합 우승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계성학교 운동장에서는 해방 경축 전국중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려 계성, 경북, 대륜, 대구상업, 대구농림, 대구공고, 김천, 안동중학교 등 8개교가 참가하는 등의(계성중학교 우승) 활발한 행사가 치루어졌다.³²⁾ 그러나 당시 체육회는 운영난에 빠져 1946년 6월 21일 시내 공평동(전 부산일보 경북지국)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러던 중 체육을 깊이 이해해주신 고 徐丙國선생의 유족들로부터 선생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토지 42,606평이란 거대한 재산을 기부받아 체육회 재정비작업을 단행하고, 건전하고 충실한 기틀을 잡았다.³³⁾ 그

30) 《경북도사》 하, pp.1157~1158.

31) 대한체육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프로그램〉, 1992, p.63.

32) 《경북도사》 하, p.1158.

33) 《경북체육》 2, 1967, p.17.

리하여 1946년에는 대구야구연맹이 결성되어 직장과 학교의 야구를 지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해방후 처음 열린 전국도시대항 야구대항전에는 전대구 야구단이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역시 같은 해 3월 1일에는 대구시가지를 일주하는 3·1절 경축 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고, 4월에는 경북서 처음으로 역전경기대회가 열려 대구-하양간 55km를 왕복하였다. 또 경북의 탁구인들은 영남체육회 산하의 단체로 대구탁구단을 결성하여 먼저 일본식의 연식탁구를, 1946년 여름부터는 국제식 경기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체육회는 영남일보사와 공동주최로 시민운동회도 개최하였다.³⁴⁾

또 한편 1946년 5월에는 향토체육지도자 崔榮浩선생이 당시의 절대부족인 체육교사의 수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체육과 임시 중등교원양성소를 개설, 역시 일본체전출신인 金在根, 張基一 두 선생을 강사로 초빙하여 체육지도자를 양성 배출함으로써 그 효시를 이루었다. 여기에 선 丁海文, 郭星祐, 呂仁鐘 등 37명의 향토체육지도자를 배출, 향토 학교 및 사회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하였다. 그러나 체육회의 또 하나의 난관은 운동시설의 문제에 있었다.

동인동에 있던 공설운동장(전 대구여고자리)이 없어지고 현재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명동의 대구시 공설운동장마저 8·15해방기념 대운동회를 마지막으로 미군이 주둔하여 자연히 없어졌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인들의 노력이 꾸준하여, 마침내 1947년 4월 12일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대구종합운동장 건설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 기지로서는 조선방직 자리인 칠성동 소재 소채경작지 37,477평을 당시 신한공사 대구지점장 權熙昌씨의 주선으로 체육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사진 5-1)
체육과 중등교원 임시양성소(1946)

건설기금으로서의 시내극장(한일, 대구, 국제, 송죽, 만경관)등의 입장료 부과금과 독지가의 찬조 또는 학생들의 거출금과 노력지원, 특히 공사에 있어서는 경북후생회장 徐東辰씨와 동이사장인 金鐘煥씨의 노력동원과 미군 원호물자 등으로써, 1948년 2월 8일 착공하여 동년말

34) 《경북도사》 하, p.1158.

토건공사를 마쳤다.³⁵⁾ 이러한 가운데서도 1947년에는 朴萬泰, 李慶鐵, 李命煥, 金洪大, 金濼 仙 수 등이 모여 경북 학생육상경기연맹을 결성하였고, 이 해에는 영남체육회 산하에 각종 경기 단체가 조직되어 각종경기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었다.³⁶⁾ 그리고 1949년 1월 전국적인 체육체계에 순응하여 영남체육회는 발전적인 해산을 하고 경북체육회로 명칭을 개칭하였다.³⁷⁾ 또 국가적으로도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제29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부터 조선 종합경기대회 또는 조선 올림픽대회 등의 명칭을 전국체육대회로 고치고 이제까지의 자유참가제를 시·도 대항제로 바꾸었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향토의 명예를 건 치열한 경쟁은 이때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정부수립과 함께 모든 단체와 행사의 관사는 ‘大韓’ 또는 ‘韓國’으로 통일되고, 1949년에는 尹石重씨 작사 金順愛씨 작곡의 체육대회가(후에 金熙祚 작·편곡)가 등장하였다.

전국체육대회라는 국가적인 이 행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체육인들은 놀라운 의욕으로 좋은 기록과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1948년 우리나라가 전국후 최초로 런던올림픽의 참가를 앞두고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여러 부문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기록이 작성되고 많은 유망선수들이 나타났다.³⁸⁾ 그러나 전기한 바 있었듯이 인적·물적 빈곤은 여전하여, 그나마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학교체육은 우리 향토의 경우도 예외없이 교지, 운동장 등의 기지화로 그 활동의 장소를 대부분 교외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정과의 체육수업은 유명무실하였고, 학교경기는 일반인 선수들과 혼합일체가 되어 사회체육의 테두리 속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일부 선수중심의 활동을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하여 1950년 6월 25일, 6.25동란은 나름대로 활기있고 의욕적으로 전개되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다.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정부를 수립, 우리의 손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사회교육의 터전을 닦고, 나름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본 궤도에 올라서려던 체육·스포츠 역시, 과거 일본 체육전문학교 출신의 중견지도자들의 발기로,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이 설립되었고 기지화되었던 교지와 운동장을 하나 하나씩 반환받아 그 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한편, 행정부는 체육국을 설치하여 사회체육과와 학교체육과를

35) 《경북체육》 2, p.17.

36) 《경북도사》, p.1158.

37) 《경북체육》 2, p.17.

38) 대한체육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프로그램〉, pp.63~64..

두고 그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며, 각 시·도에 체육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체육은 물론 대한학교체육회가 창설되고, 1950년 6월 2일에는 문교부령 제9호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을 심의 결정 공포하는 등 참으로 값있고 분주하게 그 터전이 다져지고, 한편 사회체육의 영역에서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산하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각시·도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들이 향토의 명예를 걸고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는 등 체육·스포츠활동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려고 하던 1950년에 뜻하지 않은 6.25동란은, 재건의 의욕이 가득하던 우리에게 또 한 차례의 무서운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1959년 대한연감 교육상황면(P.352)을 살펴보면, 사변전의 42,478개 학교 중 약 80%가 파손되었고, 665,303명의 남녀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적, 물적 손실이 막대하여 국민경제는 말이 못할 정도로 궁핍해졌으며, 강산은 폐허로 변하고 민심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생명의 보존 외에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으니, 무려 3개년에 가까운 전쟁에서 온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완전한 공백과 보건체육환경의 파괴, 지도자 및 선수, 그리고 젊은이들의 사망 등등으로 사회체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체육도 역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경북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먼저 인명의 피해를 보면 1952년 3월말 현재, 사망 34,878명, 납치 3,555명, 행방불명 50,461명, 부상 50,615명, 학살 6,501명 등 총 96,249명이고, 귀속재산 총 피해액은 6십8억7천1백만원이며, 각급학교 피해수 및 피해액은 全·半燒破교실 수 2,585개, 전·반소과 연건평 73,826평, 전, 반소 피해액 6백9십7억5천5백만원, 기타 피해액 2백3십1억7천5백만원, 피해총액 9백2십9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³⁹⁾ 이러한 동족상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 경북체육회도 당시의 회장과 선배체육인들의 피 땀나는 노력으로 칠성원두에 마련한 종합운동장마저 부득이한 군의 사정으로 증발되어 버렸다. 그리고 경북체육회는 그 기능이 미비된채 경북도청내의 한모퉁이에 자리잡고 집무하기에 이르렀다.⁴⁰⁾

모처럼 우리 손으로 그 기틀을 잡고 의욕적으로 그 터전을 다져가던 전국체육대회도 비록 한때이긴 하였으나, 제31회대회는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 통제 속에서도 용솟

39)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보》, 1952, pp.321 ~ 328.

40) 《경북체육》, p.17.

음쳤던 체육인들의 정열과 투지는 다음해인 1951년에는 그 무서운 민족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제32회 대회를 치루어내었다.

전기한 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치루어진 이 대회는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초라하긴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굵힐 줄 모르는 정열과 스포츠에 대한 깊은 애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각국의 스포츠키관과 체육·스포츠 지성인들을 감격, 감동하게 하였고, 세계의 스포츠 애호가들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격려가 있었다. 여기 더한 힘을 얻은 우리 체육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에 파견할 선수의 선발과 그들에 대한 강화훈련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그칠 줄 모르는 정열과 투지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깊은 애정은 세계의 스포츠 지성인들의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전투의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제15회 헬싱키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체육·스포츠는 다시금 어느 정도 활기를 띠게 되고 학교체육도 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군사교련이 대두되는 등 순수한 것의 변질이 불가피하였고, 체육·스포츠도 그 본질이 왜곡되는 등의 기록 위주의 승리지상주의로 치닫는, 경기중심시대로 급전하기 시작하였으니 여기에서 파생되는 폐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II. 異常發達과 第2共和國時代

이미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서구사회에서 체육·스포츠가 받아들여진 과정과 보급 발전된 경로와,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의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그것은 원시생활에 있어왔던 체육·스포츠적인 행동이, 먼저 귀족들의 여가와 부의 축적이 스포츠를 수용, 전유물이다 싶이 구체화 시켰던 것을 그들 자녀들의 학교로 전달 보급 발전시켰고,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라 신흥 부르조아에게로 수용되고, 다시금 대중화의 물결에 밀려 일반대중 즉 프롤레타리아에게로 확산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특히 이조시대에 와서는, 송유사상에 젖어 신체성의 천시와 정적인 생활이 귀족의 생활로 숭상되는 등의 나태함으로, 신체활동은 천시 배척됨으로써 체육·스포츠는 거의 수용되지를 못하였고 그의 보급 발전이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가, 소위 개화기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미처 정착 보급되어 일반화 되기도 전에 일제의 체육·스포츠의 통제를 받

면서 사회로까지 확산되지를 못하였고, 그들 식민지정책의 억압밑에서 올바른 체육문화내지는 스포츠문화의 수용이나 보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에 체육·스포츠의 본질적 왜곡과 성격의 변질 또한 불가피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체육·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서 경기관 내지는 경쟁태도는 물론 더구나 승패관에 있어서까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결과만의, 다시 말해서 선의의 경쟁이 아닌 투쟁논리를 정당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경기태도를 수정하기도 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인간이란, 신체적인 형태만이 아닌 생리 심리적으로 조화된 유기체가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통합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운동과 영양 그리고 휴양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셋째, 오로지 신체활동에만 강조점을 둔 그리고 경기기술의 향상에만 치중하는, 편향된 일방적인 강조가 빚어내는 부작용이 도외시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도 대항전으로 변경된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국제경기대회 크게는 올림픽의 이상이고, 스포츠 본래적인 성격과 내용을 왜곡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 체육지도자들의 체육철학적 빈곤과, 일제시대의 잘못된 스포츠관 내지는 경기관 및 승패관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 스포츠대중의 사회교육적 노력의 부실로, 그릇된 일제시대의 잠재적 의식이 아직껏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그 까닭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世人들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에게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신문이나 보도매체들이 다투어 크게 보도, 선전하며 국가는 그들 선수에게만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사리의 판단력이 미흡한 청소년들을 자극하여 공명심에 불타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한결같이 경기성적에만 몰두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다. 또한 대부분 무지무능한 체육·스포츠지도자들은 그들을 선도하기는 커녕, 향토의 명예니 국위선양이니 하면서 앞장서서 지도, 장려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니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와, 심하여 체육·스포츠 불필요론이 대두될 만도 하였고, 하도 많은 운동경기장의 불상사는 체육·스포츠를 천시하게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본질을 왜곡하면서까지 유행을 추종하고 그 화려함에 현혹되어 버린 경박한 시대풍조는 사회체육은 물론 학교체육까지를 병들게 함으로써 그 우를 범하였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장래를 그르치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 했던 것이다.

아무튼 한국 체육·스포츠의 근대사는 참으로 수난과 유린의 역사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서 日帝 36년간의 제국주의 식민지정책하의 체육·스포츠가 그러하였고, 8·15해방의 감격과 정치

적 혼란이 그러하였으며, 모든 것이 서투른 자생적 노력과 의지로 간신히 기틀을 잡아 미처 발판을 굳히기도 전에 또 한차례 조국분단의 6.25동란이 활궤고 지나간 동족상잔의 쓰라린 아픔이 그러하였다. 더구나 뜻밖에 물밀듯이 덮쳐온 중공군의 남침이 활궤고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것이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체육·스포츠의 역사 역시 수난과 시련의 역사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특히 6.25동란이 가져다 준 상처와 피해는 앞에서 살펴진 바 있듯이 전국이후 첫번째의 시련으로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다시 또 한번의 피난길을 떠나게 한 중공군의 전쟁개입이 빚어놓은 상처는 더욱 더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참한 비애와 고난의 물결이 수습되고, 다시 말해서 민심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국제연합군의 반격이 성공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즉 전세가 호전되고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야 확실히 분단된 조국을 인식 민족적 비애가 서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수복이 되면서부터 모든 분야의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고, 체육·스포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우리 향토 경북에서도 1953년 5월 미군으로부터 야구장만을 인수받아 각종 체육행사를 치루어오다가, 1955년 2월 26일 군으로부터 당시의 체육회관을 반환받고 같은 해 3월 16일 이전하여 집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고는 하나, 해를 거듭할수록 야구장 하나만으로써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다.⁴¹⁾ 한편, 국가적으로도 수복이 완료되고 차츰 사회가 정돈됨에 따라 전국체육대회도 질적으로 충실해지고 양적으로 대형화해갔다. 그리고 1952년의 제33회 대회때부터 계속 다섯번을 서울에서만 개최하였던 전국체육대회는 중앙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순회개최를 기하여 제38회 대회(1957년)는 부산, 제39회는 서울, 제40회도 서울, 제41회는 대전, 제42회는 서울, 제43회는 대구, 제44회는 전주, 제45회는 인천, 제46회는 광주에서 열려 애초의 의도한 바 스포츠의 전국적인 보급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또한 제36회 전국체육대회(1955년) 때부터 처음으로 성화가 등장했다. 고 李相佰 박사의 아이디어로 단군강림의 전설이 깃든,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성화를 대회장까지 봉송하게 된 것이다.⁴²⁾ 그리고 종전까지는 비록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서 체육회 회장이 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순수한 체육·스포츠동호인들의 모임이라 할

41) 《경북체육》 2, p.17.

42) 대한체육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프로그램〉, p.64.

수 있었으나, 1954년 3월 16일자로 사단법인체로 되면서 정관을 바꾸고, 전국의 각 시·도체육회도 여기에 준하도록 그 체계와 조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 구체화하였다.

정전회담이 조인되고 수복, 재건이 완료될 무렵, 갈라진 두 개의 조국이 확인되고 상호대치하는 가운데 총칼없는 남북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스포츠의 경쟁장면으로 옮겨지면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총력전이 추진 전개되는 이면에는 스포츠의 순수한 정신은 간데없고 국력을 가늠하려는 탈 사고적인 정치성의 개입이 깊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스포츠 본래의 경쟁논리가 아닌 체제의 우열을 판가름하려는 투쟁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민정책에서보다는 국위선양정책만으로 치닫는 스포츠정책상의 왜곡이 합리화되기 마련이라 하겠다.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당시 자유당의 실력자인 고李起鵬씨를 추대한 것도 따지고보면 전기 한 바 시책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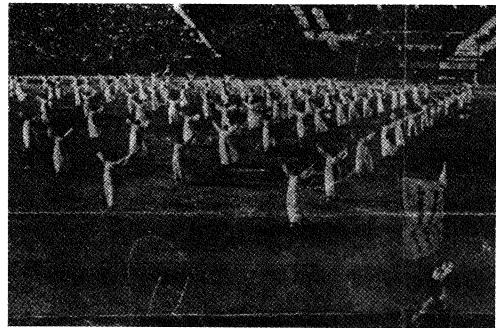
우리의 향토 경북체육회 역시 미군정시대를 위시해서 1948년의 정부수립이후에도 그러하였지만 1950년의 6.25동란의 수복이후의 1955년까지도 체육회 회장에는 도지사를, 부회장에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있었던 것이나, 1956년에서 1961년에 이르기까지 비록 향토의 원로 체육인이라고는 하더라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던 金成坤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있었던 것도⁴³⁾ 역시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6.25동란의 진통을 밟고 일어난 우리의 체육·스포츠도 1950년대의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체육·스포츠의 사회에도 정치성의 개입이 구체화됨으로써, 형식상으로 분주한 반면 내용적으로는 체육·스포츠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체육·스포츠는 역대 전국체전에서 1953년(제34회)에서부터 종합순위 2위, 제35회는 3위, 제36회에는 4위, 제37회 3위, 제38회 3위, 제40회 3위,⁴⁴⁾ 특히 제40회 전국체전에서는 崔榮浩·金正默 두 선생이 고문을 맡아 발의하고, 林聖愛 선생이 중심이 되어(지도위원, 이경인, 이영숙, 주연희) 지도한 母性教養會의 마스게임이 전국체전 식전행사에 초청 참가(30세이상의 어머니 300명)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운동장까지의 시가행진 도중, 장대같은 소나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박수 갈채 속에 행진을 계속한 일,

43) 《경북체육》 3, 1969, p.179.

44) 《대구시사》, p.771.

林聖愛선생의 지휘 아래 “건전한 모체는 민족 발전의 모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입장하여 훌륭하게 시연했다. 비에 젖은 옷이지만 음악에 맞춰 휘날리는 선율은 선녀가 하강한 듯 마스게임이 끝나자 운동장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였다. 이는 시연이 끝난 다음날 진명여고 이세정(李世楨)교장이 전 지도위원을 초청 전교생을 교내 3.1당에 모아놓고, 감격한 어조로 ‘너희들도 경북 모성교양회의 어머니처럼 되라’는 훈시에서도 그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향토 대구를 모성체육의 발상지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⁴⁵⁾



〈사진 5-2〉

제40회 전국체전 식전행사에 갈채를 받았던
大邱의 모성체육회원들의 매스게임.

이와 같이 경기에서는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구를 위시한 향토의 지역별 경기회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우리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빈약한 당시의 대구를 비롯한 지역마다의 시설로써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만가는 인구의 증가와 스포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경북체육회에서는 끈질긴 노력으로 수차에 걸쳐 군부와 미군당국에 진정하여 1960년 8월 1일에 경기장과 시설전부를 반환받아 허물어져가는 경기장 및 시설 모두를 새롭게 보수 확장하기 위하여⁴⁶⁾ 관계요로에 건의하기에 박차를 기하였다. 그러나 그 결실은 1960년 4.19학생의거와 張勉 내각의 무기력, 혼미의 시대를 거쳐 5.16군사혁명과 혁명정부의 혁신정책의 시대를 지나 제3·제4공화국시대로 접어들어서야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정치체제의 강화와 체육·스포츠 외교의 기운이 감돌고, 체육·스포츠 남, 북대결의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매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하튼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전환은 대한체육회의 기본시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산하단체인 경북체육회에서도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운영방침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5) 《대구매일신문》, 1986년 6월 6일자.

46) 《경북체육》 4, p.14.

III. 第3共和國 ~ 第4共和國時代

1960년의 4.19학생의거 이후는 학생데모의 홍수의 시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의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갑작스럽게 정권을 이어받은 민주당 내각이 지난날 자유당정권이 저질러놓은 엄청난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적 타락과 혼탁한 사회를 어찌면 정신을 차리고 척결 수습하면서 집무를 수행하기엔 너무나 짧고 벅찬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5.16군사혁명의 정당성 여부는 오늘에 있어서까지 논란이 없지 않다.

아무튼 학생들의 힘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정권은 나름대로의 민주화작업의 의지와는 달리,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정국의 위기적 사태수습은 고사하고 자체분열 속에 스스로의 무능과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혁명정부는 군정 3년 동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나 강력한 규제와 혁신정책을 추진하였다. 혁명정부가 내세운 “조국근대화”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체육)에도 물결처럼 도도하였다. 이는 문교정책에도 즉시 반영되어 “교육근대화”란 말로 각급 학교로 번져 나갔다. 그리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라는 혁명공약이 “가난을 극복하는 교육” <제9회 교육주간 주제(1961년)>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⁴⁷⁾ 또 정부는 체육·스포츠에 관해서도 체육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기에 종전처럼 재정난에 허덕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혁명정부는 그 이유야 여하튼 체육·스포츠에 대한 비중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이러한 체육진흥책 시행의 결과로 1960년에는 서울에 체육회관이 준공되었고, 태능에는 선수촌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시설면이나 연구기관, 외국인 코치의 초빙 등 체육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⁴⁸⁾

여기에 힘입어 경상북도에서도 전도민의 체육·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짐으로써, 체육경북을 위한 전국체육대회의 유치가 그 염원이었다. 고崔仁浩선생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하여, 제43회 전국체전을 이 고장 대구에서 개최토록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운동장 보수 확장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1962년 8월 1일 대구종합운동장 건설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고보조 200만원, 일반모금 140만원, 독지가 찬조 180만원, 합계 520만원의 기금으로써 군·관·민이 일치단결하여 보조경기장으로 시내 원대동 1,600평에 전국 제1가는 운

47) 이규일, 《주간중앙》, 1973년 10월 14일자.

48) 대한체육회, 《체육백서》, 1972, pp.32~33.

동장을 마련했고 허물어진 종합운동장을 전국 굴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대경기장으로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명칭도 대구종합경기장으로 개칭하였다. 더우기 제43회 전국체전이 거국적인 제전으로 대단한 성황리에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4백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각 시·도 선수들의 선전분투정신에 힘입은 바 크며, 본회 산하 경기단체의 치밀한 운영계획, 단결의 결실임을 새삼 자부할 수 있다. 우리는 1963년 4월 13일 초대 원장인 최영호선생의 발의로 전국에 없는 경북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년제의 체육훈련기관을 종합경기장 내에 부설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였으며, 1963년 5월에는 종래에 보지 못한 호화차란한 제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를 시·군 대항으로 처음 개최하였다. 그리고 유서깊은 불국사, 석굴암, 토함산에서 성화봉송의 점화식을 올려 신라 천년의 민족문화를 되새겼다.

또 본회에서는 당시 회장이었던 朴敬遠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공무원으로 동용, 시·도 및 달성군에 19명이나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1963년 8월 5일 대구종합경기장 관리권을 朴敬遠 경상북도 도지사, 姜元採 대구시장, 崔榮浩 체육회장 삼자회동하여 선수들의 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건만으로, 대구시로 이양하였다.

또 경북체육회는 그동안 사무실로 사용해온 당시의 회관(107평)을 체육회의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대동에 있는 1,600평의 삼도장을 처분(농지정리관계)하여 시내 신천동에 3,00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30평 건평의 건물을 세우고 전국서 유일한 三道場을 세웠다.

근대스포츠는 경기기술 발전의 기초가 그 시설면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북체육계가 오랜 숙원인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경북체육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같은 해 5월 8일 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체육회는 또한 일반적인 초보훈련만 실시해오던 경북스포츠학원을 재정비 강화하고, 명실공히 우수선수훈련에 중점을 둔 기구로 바꾸어 원의 규칙을 개정하였다. 우리는 또한 지방체육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제4회 도민체육대회를 화랑의 발상지 고도 경주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도민체전상 최대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훌륭한 경기장이 그곳 황성공원 숲 속에 마련된 것은 경북체육계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역대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 및 순위⁴⁹⁾

(表 5-1)

회 수	연 도	개 최 지	시 부			군 부		
			1 위	2 위	3 위	1 위	2 위	3 위
1	1963	대 구	남 대 구	중 대 구	김 천 시			
2	1964	극심한 한발로 중지						
3	1965	대 구	남 대 구	중 대 구	동 대 구	예 천 군	문 경 군	상 주 군
4	1966	경 주	남 대 구	경 주 시	포 향 시	예 천 군	의 성 군	문 경 군
5	1967	대 구	남 대 구	안 동 시	경 주 시	의 성 군	예 천 군	상 주 군
6	1968	대 구	북 대 구	안 동 시	남 대 구	예 천 군	의 성 군	상 주 군
7	1969	대 구	남 대 구	경 주 시	안 동 시	상 주 군	의 성 군	예 천 군
8	1970	대 구	남 대 구	경 주 시	동 대 구	상 주 군	예 천 군	의 성 군
9	1971	대 구	경 주 시	남 대 구	동 대 구	상 주 군	예 천 군	영 천 군
10	1972	대 구	남 대 구	포 향 시	경 주 시	예 천 군	상 주 군	의 성 군
11	1973	대 구	포 향 시	남 대 구	동 대 구	상 주 군	예 천 군	의 성 군
12	1974	포 향	포 향 시	안 동 시	경 주 시	상 주 군	예 천 군	의 성 군
13	1975	대 구	포 향 시	남 대 구	안 동 시	상 주 군	문 경 군	경 산 군
14	1976	대 구	포 향 시	남 대 구	안 동 시	경 산 군	예 천 군	상 주 군
15	1977	대 구	포 향 시	안 동 시	남 대 구	경 산 군	상 주 군	예 천 군
16	1978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개최로 중지						
17	1979	대 구	포 향 시	경 주 시	남 대 구	경 산 군	문 경 군	상 주 군
18	1980	대 구	포 향 시	안 동 시	경 주 시	문 경 군	상 주 군	경 산 군

특히 제47회 전국체전 참가준비에 있어서 기술향상을 서둘러야 했다. 그것은 지난 수 년 동안 경기성적이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이다. 경북팀은 제47회 전국체전에서 2위로 입상했다. 결국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 체육인이 일치단결한 결과요, 산하경기단체 임원 선수들이 평소 협동하여 노력한 결실인 것이다.

우리는 제43회 전국체전에선 3위를 했고 전국 제2위의 성적은 14년전의 제33회(1952년) 대회와, 제34회 대회의 두번 연속 준우승의 성적이 있으며, 육상경기부는 15년만에 전국을 재패했다. 그러나 소년체전에서의 성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경북체육을 짊어지고 나갈 소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49) 《경북체육》 13, 1922에서 인용.

〈表 5-2〉 역대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별 득점표⁵⁰⁾

회수	연도	개최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 기도		강 원 도		충 청 남 도		충 청 북 도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1	1972	서 울	5	11,427	9	9,947	2	11,805	4	11,645	1	12,790	7	10,219
2	1973	대 전	8	11,217	3	12,868	7	11,364	6	11,385	2	13,884	1	15,412
3	1974	서 울	6	13,281	7	13,231	5	13,676	10	10,177	8	12,344	1	20,807
4	1975	부 산	3	14,253	8	12,689	10	11,305	9	11,898	4	13,655	1	18,853
5	1976	서 울	3	15,391	7	11,729	9	11,112	10	8,431	2	15,517	1	17,927
6	1977	서 울	4	13,800	6	12,094	3	14,669	9	10,573	7	11,719	1	17,634
7	1978	대 구	5	13,533	7	11,887	6	12,025	10	9,455	2	14,731	1	16,193
8	1979	청 주	3	13,930	7	11,236	8	11,025	5	11,677	2	16,303	1	17,259

회수	연도	개최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재일지부		재미지부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순위	득 점
1	1972	서 울	6	11,382	10	9,251	2	12,490	8	10,088	11	2,356	—	—		
2	1973	대 전	9	11,177	10	11,074	4	12,493	5	12,179	11	3,203	12	639		
3	1974	서 울	3	13,812	2	14,014	4	13,741	9	12,217	11	3,303	12	497		
4	1975	부 산	6	13,026	7	13,011	2	15,490	5	13,281	11	2,176	12	65		
5	1976	서 울	6	12,334	8	11,526	4	13,435	5	12,511	11	3,188	—	—		
6	1977	서 울	8	10,735	5	12,200	10	10,238	2	15,327	11	3,012	—	—		
7	1978	대 구	3	14,250	8	11,695	9	11,510	4	13,540	11	3,488	—	—		
8	1979	청 주	10	8,509	6	11,305	4	12,656	9	10,983	11	3,211	13	150	12	760

본도는 4백만 인구를 자랑하는 용도이다. 전국에서 뛰어난 재질과 기능을 가진 우수한 체육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을 가지고 있다.

경북체육의 장래는 실로 양양하고 희망적이다. 체육경북의 자랑을 간직하고 훌륭한 시설을 사이없이 활용하여 경북체육의 발전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⁵¹⁾ 그리고 다음 〈表 5-3〉의 1), 2), 3), 4), 5), 6), 7)⁵²⁾까지의 체육시설은 타 시·도·군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50) 《경상북도사》, p.1162에서.

51) 《경상체육》 2, pp.17~19.

52) 《경북도사》 하, pp.1169~1171에서 인용.

體育施設現況

〈表 5-3〉

1) 道·市·郡 陸上競技場(公設運動場)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市 民 運 動 場	大邱市 北區 古城洞 3街6	1960. 10. 1	40,000名 收容	公認綜合競技場 野 球 場 新設中 테니스場
頭 流 山 公 園 窟 은 이 의 廣 場	大邱市 西區 聖堂洞	1976.	陸上, 사이클, 럭비	
浦 項 公 設 運 動 場	浦項市 상대동	1974. 5.	25,000名 收容	
慶州隍城公設運動場	慶州市 隍城洞	1964. 5. 3	20,000 "	
安東市公設運動場	安東郡 南先面 亭下洞	1972. 12. 10	24,000 "	
永 川 公 設 運 動 場	永川邑 也史洞	1972.	20,000 "	
尙 州 "	尙州郡 尙州邑	1969. 10. 1	20,000 "	
榮 州 "	榮川邑 可興里	1962. 7. 5	20,000 "	
醴 泉 "	醴泉郡 醴泉邑	1971. 6. 20	20,000 "	
東海面 "	迎日郡 東海面 都邱洞	1975.	15,000 "	
烏川面 "	迎日郡 烏川面 世界洞	1970.	10,000 "	
九龍浦 "	迎日郡 九龍浦邑	1960.	10,000 "	
義昌面 "	迎日郡 義昌邑	1958.	10,000 "	
清 河 面 "	迎日郡 清河面 縣內洞	1957.	10,000 "	
金 泉 "	金泉市	1978.	20,000 "	

2) 道 體育館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慶 北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1. 4. 13	14,000名 收容	多目的

3) 教委傘下體育館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高 靈 體 育 館	高靈郡 高靈邑	1976. 10. 29	500名 收容	
義 城 "	義城郡 義城邑	1976.	1,940	
盈 德 "	盈德郡 盈德面	1976.	1,940	
鬱 陵 "	鬱陵郡 南面	1976.	1,000	
慶 州 "	慶州市 北部洞	1977.	1,800	
金 泉 "	金泉市	1977.	1,500	
尙 州 "	尙州郡 尙州邑	1977.	1,500	
醴 泉 "	醴泉郡 醴泉邑	1977.	1,500	

4) 學校體育館(初中高)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協 成 體 育 館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4. 11. 12	300名	排球, 籠球
啓 聖 "	大邱市 中區 大新洞	1974. 12	100 "	籠球, 體操
曉星女中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65. 5. 29	1,500 "	籠球, 排球
聖 光 高	大邱市 北區 七星洞	1973. 9.	100 "	
大邱女高	大邱市 中區 東仁洞	1960. 8. 25	60 "	排球
大 邱 高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1.	1,000 "	籠球, 排球, 배드민턴
五 成 高	大邱市 壽城區 壽城洞	1973.	100 "	
心 印 高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7.	500 "	籠球, 排球, 卓球
慶 北 高	大邱市 南區 大鳳洞	1976.	1,000 "	排球, 핸드볼
曉星女高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6.	1,000 "	籠球
玄 風 高	達城郡 玄風面	1978.	1,500 "	
金烏工高	龜尾工團內	1974.	1,000 "	
明德國校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2.	200 "	體操
壽昌國校	大邱市 中區 壽昌洞	1972.	200 "	體操
中央國校	大邱市 中區 公坪洞	1976.	500 "	籠球, 卓球
信明女高	大邱市 中區 東山洞	1978.	500 "	籠球, 排球

5) 大學體育館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慶 北 大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2. 9.	600名	
慶 北 大 女 子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8.	200 "	
嶺 南 大 體 育 館	慶山郡 대동	1973. 5. 20	200 "	排球, 籠球
"	"	1975.	100 "	體操, 柔道
曉 星 女 大 體 育 館	大邱市 南區 鳳德洞	1971.	500 "	體操, 卓球
教 育 大 體 育 館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2.	500 "	排球, 籠球
安 東 大 體 育 館	安東市 明倫洞	1974.	1,000 "	排球, 籠球

6) 體育會施設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慶北 스포츠 공원	大邱市 南區 大明洞山	1975.	國 際 規 格	國弓, 洋弓, 乘馬
慶北 綜合 射 擊 場	漆谷郡 漆谷面	1975.		射擊
복싱 專 用 道 場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1. 4. 13		慶北體育館 內
레슬링 專 用 道 場	"	"		"
펜싱 專 用 道 場	"	"		市廳舍 臨時貸與 舊(北區廳舍)
柔 道 專 用 道 場	大邱市 北區 七星洞			"
劍 道 專 用 道 場	"			

7) 民間團體施設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浦項製鐵體育館	浦項市 製鐵洞	1973.	1,500名	多目的
大邱煙草製造廠體育館	大邱市 中區 太平路	1976.	200 "	배드민턴
大邱 스포츠 센터	大邱市 東區 巴洞		500 "	水泳, 水上
韓 國 水 泳 場	大邱市 東區 下洞		200 "	水 泳
그린파크 水泳場	大邱市 東區 東村		200 "	水 泳
앞산 풀 場	大邱市 南區 大明洞山		500 "	水 泳
民間 테니스 코트	大邱市內		52面	營業用(室內 6面)
"	慶州市內		16面	"
民間私設복싱道場	大邱市內		8個所, 11個所	私 設
民間私設柔道場	大邱市內		6個所, 9個所	"
跆拳道場	大邱市內		60個所	"
"	地 方		71個所	"
民間私設卓球場	大邱市內		180個所	"
民間私設射擊場	市 內		1個所	"
民間私設洋弓場	市 內		2個所	"

그리고 전천후로 연습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인 경북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1966년 9월 27일에 착공하여 1969년 12월 31일(3년3개월)에 준공되었다. 여

기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2억9천6백3십6만원이었다.⁵³⁾ 이러한 그 당시로서는 막대한 경비는 70%이상이 대구시민을 위시한 경북도민의 찬조금이라는 점은 이 고장 주민들의 공공정신의 발로로서 향토 체육·스포츠의 앞날뿐만 아니라, 이 고장 모든 분야의 장래에 밝은 빛을 약속하는 것이며 해외 멀리서 향토애를 발휘한 교포들의 정성도 놀랍고, 거액을 찬조한 金成坤씨를 비롯한 사업가들의 협조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이 관·민의 협력이 응결된 경북체육관은 시내 산격동 언덕에 높이 솟구쳐 경북체육의 앞날의 큰 발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1968년 3월에는 체육단체의 일원화 정책으로 대한체육회, 대한학교체육회, 대한 올림픽위원회 등이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북체육회도 경북학교체육회 등을 통합하였다.⁵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는 국민체육진흥법(1965년 6월 14일공포, 법률 제1698호) 동 시행령(1966년 2월 7일 공포, 대통령 제2403호) 제1장,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 제5장 보칙, 부칙⁵⁵⁾의 내용에 발맞추어 경북의 체육도 눈부신 업적을 이룩한 시기였다. 시설면에서도 종합운동장의 시설확장, 실내체육관의 준공, 체육행사로는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1966년 제47회 체전, 1967년의 제48회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경북체육의 저력을 착실히 길러 1968년의 제49회 전국체전에서는 실로 반세기만에 서울의 독주를 막고, 지방팀으로서는 최초로 우승을 얻는 감격적인 장면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북체육의 저력은 1970년대 초반에도 계속되어, 1970년 제51회 전국체전에서도 서울을 제압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또 1975년에는 발전하는 향토체육을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제56회 전국체전을 대구로 유치하여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시설면에서는 1977년에 모든 산하 경기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일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 서편에 부지 350평을 확보 1979년 6월 28일에 기공하여 동년 12월 26일에 준공하였다. 총 사업비 2억5천8십9만8천원을 들여 건립된 이 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모든 체육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경북체육진흥에 함께 힘쓰는 경북체육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조해가는 경북체육의 중흥을 위하여 1972년부터 개최되던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대구로 유치하였다. 그러나 제7회의 이 대회에 3위로 입상하는 정도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전

53) 경북체육회, 《경북체육》 3, p.141.

54) 《대구시사》, p.770.

55) 《경북체육》 2, pp.82~84.

국체전에서의 성적은 계속 부진하였다.⁵⁶⁾ 그러나 시설면에서는 시민의 숙원이던 수영장이 太鐘鶴 대구시장의 대 대구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66년 7월 26일에 착공, 동년 8월 23일에 완공 개장을 보았고,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개수하고 수영장도 선수용과 일반·아동용으로 구분하여 확장하였다. 시민운동장 안에 주둔하던 병참부대를 철수케하고 보조경기장을 만들었고, 경기장 주변의 환경을 정비, 정문을 만들고 주변에 포장공사를 하여 환경을 깨끗이 정비했다. 스탠드를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스탠드 밑에 점포를 만들어 대여하기도 하였다.

대구시는 1975년 제56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다시금 운동장시설을 확장하여 오늘날과 같은 시설을 이룩하였다.⁵⁷⁾

한편 국가적으로는 1966년 47회 전국체전이 5년만에 서울에서 열리자 대회규모는 선수 13,000명 참가로 1956년의 37회 서울대회 때의 참가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되었다. 이 대회 때 처음으로 대회표어인 “새희망, 알차게, 보다 힘차게”를 제정하였으며, 횃수가 거듭될 때마다 표어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 1967년의 48회 대회에선 카드섹션이 등장하였다. 이는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배워 도입한 것이다.

다음해인 제49회 대회 때부터 입장상제도가 실시되었고, 개회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1위 선수단장에게 수여하는 이 상의 매력은 경기성적 못지않는 또 하나의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5년 제56회 대대회 이후 계속 지방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이 입장상은 개최지 시·도선수단에만 돌아가는 묘한 전통이 생기고부터 경쟁열이 식는 듯한 경향이 있다가 제61회 대회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하나의 잘못된 유산이 있다면 씩씩한 기상을 표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굳어져 어색한 행동보법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 1969년의 제50회 대회는 대회 반세기를 기념하여 ①성화 전국일주, ②카드섹션 動畫 등장, ③이북5도 임원단의 입장식 참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 선수단 입장 때 출신도의 선전효과를 노린 갖가지 휴대물과 동작 등이 크게 유행하였으나, 성화 전국일주는 경비관계로 선전동작은 미관상의 이유로 제53회 대회부터 중지되었다.

1970년에 태능 국제수영장의 개장과 함께 제51회 대회부터 하계대회(수영, 조정)를 추계대회로 통합하고, 1972년의 제53회 서울대회 때 국민학교부와 중학교부가 따로 떨어져서 전국

56) 《경북도사》, pp.1159~1162.

57) 《경북도사》, p.1169.

소년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분리되기 직전인 제52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27개종목에 16,000명이 넘는 임원·선수가 참가하는 과잉비대의 현상으로, 대회운영의 어려움과 지방개최의 길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뚜렷하게 부각되어, 1983년 제12회 전국소년체전 때부터 자연스러운 보법의 행진으로 전환되었고, 지난 제64회 부터는 전국체전에서도 시정되어 시기적절한 조치로 보인다.⁵⁸⁾

아무튼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 걸쳐 한국체육계는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남, 북 단일팀구성을 위한 3차의 회담(결국 결렬되고 말았지만)이 열렸고, GANEFO 문제로 하여 제4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육상경기와 역도가 경기를 못한 일, 李起鵬씨의 종말이 있었고, 1966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 총회에서 K.O.C가 제6회 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일(결국 국내외 사정으로 반납)등이 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부가 체육에 기대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경기기술의 향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정신이 전체국민에게 침투되어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상 조성과 국민체력향상에 공헌하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정부의 체육·스포츠 정책과 시책수행의 의지는 1968년 제49회 전국체전이 개막된 9월 12일에 행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의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많은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민간외교의 면에서도 커다란 공헌을 이룩 해 왔습니다.” “체력은 국력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곧 싸우면서 건설하는 우리 국민성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비록 그 치사의 내용 속에 “국민체육의 대중화운동이 신흥 국가건설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육·스포츠의 성격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변화와 왜곡의 조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체육·스포츠의 정책이나 기획 운영이 정부에 귀속될 수 밖에 없고, 정책수립의 기본방침 역시 주권권력의 목적달성이 우선되기 마련인 것이다.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 뻗어나간 1969년의 한국 체육·스포츠는 60년대를 총결산하고, 대망의 1970년대에서도 비약할 준비를 갖추었다. 지금까지의 스포츠가 고전적 “아마추어리즘”에 대신하여, “스태이트 아마추어리즘” “챔피언쉽 아마추어리즘”의 풍조에 따라,

58) 대한체육회, 제73회 체육대회 프로그램, pp.61~62.

59) 《체육백서》, p.33.

국제 스포츠무대에 적극적인 참가자세를 취하여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본격적인 남북대결이 시도되었고, 이에 앞서 7월 프랑스 상디에서는 뮌헨올림픽 남자배구 예선전에서 우리팀이 북한을 3대1로 제압했다. 그리고 동년 8월 26일부터 개최된 뮌헨올림픽에는 우리가 62명 북한이 82명의 선수단을 각각 참가시켜, 여자배구, 복싱, 사격, 유도, 레슬링 등 5개 종목에 남북대결이 전개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스포츠는 국위선양의 한 방편이나 국력의 척도로서 발전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 같다.⁶⁰⁾

1970년대는 참으로 우리나라 체육·스포츠의 변천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시기로서 비록 그 시기와 본질적인 왜곡이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일대전환점이 되었던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한편 북한 역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대결을 가져 북한은 사격에서 금메달을 얻은 반면에, 우리는 유도에서 재일교포 吳勝立이 유일하게 은메달 1개를 얻는 데 그쳤던 것이다.

광복 30여년간 분단된 남북의 스포츠대결은 올림픽과 일부 경기종목에서 이뤄져 나오다가, 급기야는 1974년 테헤란의 제7회 아시안게임에서 사상최대의 전면적인 대결이 이뤄진 것이다.

1973년 일본과 이란의 지지를 받은 중공이 국제스포츠계에 파란을 일으키면서 A.G.F(아시아경기연맹)에 가입한 데 뒤이어, 1974년 3월 북한이 중공의 뒤를 따라 A.G.F에 가맹함으로써, 남북 간의 전면적인 스포츠의 실력대결은 아시안게임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었다. 전면적으로 스포츠전쟁이 이뤄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가 하키를 제외한 15개 전종목에 2백30여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고, 북한도 남북대결을 의식한 가운데 테니스와 하키를 제외한 14개종목에 2백명이 넘는 선수단을 참가시켰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참가종목에 걸쳐 남북대결이 이뤄졌는데 우리는 금16, 은26, 동 15개를 따내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금 15, 은14, 동 17개를 얻어 5위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대결에서 사격을 제외한 대다수 종목에서 북한을 앞서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기량이나 외교면에서 우리의 지위는 북한을 월등 능가하고 있으며, 언론 또한 전반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공이 국제 스포츠무대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자, 중공세력에 편승한 북한의 움직임도 눈에 두드러져 앞으로 우리의 스포츠외교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스포츠외교는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박정희 대통령의 6.23외교선언에 입각, 비적성 동구권 공사국가들과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0) 《한국연감》 23, 1970, p.459.

1973년 모스크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여자농구, 남자배구, 여자테니스 등 3개종목의 선수단을 파견 공산블럭의 심장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것은 우리들 스포츠 외교의 커다란 성과로 손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구공산권 국가들과의 스포츠교류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스포츠외교도 중공의 국제무대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신축성 있는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탁구가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이나 테헤란의 A.G.F총회에서 중공을 등에 업은 북한이 집행위원국으로 뽑힌 것 등은 우리들 스포츠외교의 어려운 면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의 진출이 눈에 띄고 있는 1970년대에 들어서는 경기력향상과 발을 맞추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하겠다.

해방 30년을 맞는 남북 스포츠는 촌각의 여유를 주지 않는 대결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경기력이나 스포츠외교에서 지금까지 우위를 달려온 우리의 스포츠는 현시점에서 과거 30년을 냉철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⁶¹⁾

1970년대 한국 체육·스포츠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벅찬 업무와 도약의 기로에서 시련을 겪어야 할 중대국면에 접어들었다.

첫째 세계 스포츠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1976년 7월의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과 1978년 12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릴 제8회 아시안게임, 기타의 국제경기 등에서 특히 올림픽에서는 지금까지의 NO메달의 후진성을 탈피해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에 호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의 대결에서 종전까지의 우위를 지켜야하며, 각종 국제경기의 한국 유치와 스포츠외교의 폭을 보다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들만의 스포츠외교를 중동 및 동구권의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와 스포츠교류도 아울러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림픽의 이상이 참가와 국제간의 친선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호증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는 하더라도, 오늘에 이르러 국제 스포츠의 경쟁장면이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되고, 그것에서의 승리가 바로 국력 가늠의 척도로까지 간주되면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로 치닫는 세계적 추세속에, 우리들만이 고전적 아마추어리즘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모든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체육의 재정적 확보의 어려움과 민첸올림픽을 시발점으로 해서 국제스포츠의 경쟁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을 능가해야 하는, 새로운

61) 《대구매일신문》, 1975년 8월 3일자.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릴 수 없는 정부차원의 부담과 고민이 체육·스포츠정책의 기본방침을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에서 보다, “국위선양정책으로서의 선수주의”에로 치닫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제3~4공화국시대의 공헌 또한 매우 컸던것도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그 간에 활기를 잃었던 체육·스포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나치리 만큼의 주체성의 강조가 빚어내는 경직성과 구태의연한 국가주의에로 역행하는 후진성은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건민정책이 도외시된 일방통행식의 체육·스포츠정책의 추진은 스포츠대중화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되는 것으로서, 입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을 외치면서도 기실 세계속의 소외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내실이 없는 가운데 의욕만이 앞서는 체육·스포츠의 정책적추진은 기실 대단한 무리가 수반되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체육·스포츠의 진흥이란 이름아래 오히려 체육·스포츠 대중화의 물결을 정면에서 가로막고선 장벽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지칠줄 모르는 군사문화적 사고방식과 당시의 일방통행식의 추진력은 합리화 환영받기까지 하였다. 특히 당시의 주권권력자들은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필요이상으로 과장선전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공포감 내지는 국가적 위기감을 조성 국민들을 기만 우롱하면서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였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3~4공화국의 시대는 비록 민족중흥의 대단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겠으나 철두철미하게 스포츠에 정치를 개입시킨 최초의 시대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제3~4공화국의 공과와 허실이 있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IV. 第5共和國～第6共和國時代

1. 국위선양정책과 선수주의

제5공화국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4대 국정지표와 각종 개혁시책을 가지고 자주민족국가의 궤도에 올라서고야 말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례히 있어온 일로서 어찌면 하나의 관례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더구나 시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마치 5.16군사혁명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 정부라는 기성관념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 목적 목표가 주권권력에 있는 국민에게 있든지 간에 당시의 체육·스포츠는 강력한 “체육입국”이라는 의지적 표현과 뒤따른 정책수행으로 비록 관련개입이라는 모순과 새로운 인물의 대거기용의 무리가 없지 않았으나, 체육부를 탄생시켜 국민 체육진흥사업과 본격적인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서울유치운동의 전개, 스포츠과학연구소의 확대강화, 체육단체의 재정비, 체육인 복지향상, 경기장 질서확립, 신인선수의 발굴, 그리고 국가대표팀 전임코치제 채택 등 많은 업무를 계획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 스포츠외교를 정부의 과감한 문호개방정책에 부응하여 다변외교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각국과 스포츠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제스포츠계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체육선진화를 향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⁶²⁾ 그 결과로서 제5공화국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체육계의 활력과 경기력의 향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먼저 제1회 서울 오픈 국제탁구대회를 개최하여(35개국, 330명 참가) 한국은 7개종목 중 4종목 석권, 제7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쿠웨이트) 준결승전에서 한국대표 북한에 2-1로 역전승한 일이나, 1981년 9월 30일, 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유치(서독 바덴바덴, I.O.C총회, 한국 서울과 일본 나고야 경합, 표대결 끝에 52-27로), 제86년도 제10회 아시안게임 국내유치(뉴델리; 11월26일 A.G.F평의회 총회, 만장일치). 黃善愛선수 전영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우승(3월 29일)을 비롯해서 일본, 자유중국, 스웨덴 등 4개 대회 제패, 제12회 세계 유도선수권대회(9월 3일~6일) 한국유도사상 최초로 朴鐘學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등⁶³⁾의 사실로써 입증된다.

이와 같이 제5공화국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체육·스포츠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기찬 움직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체육·스포츠에 정경유착의 상업주의가 깊이 개입되고, 정책방향 역시 제3·제4공화국시대와 상당한 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전자의 경우가 남북간의 스포츠대결과 스포츠교류 및 외교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정치체제의 구축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이들의 기반구축과 구체화작업의 시대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는 거의 손놓아버린 오로지 “국위선양정책으로서의 선수주의”로만 치닫는 시대착오적 모순이 한결 심화되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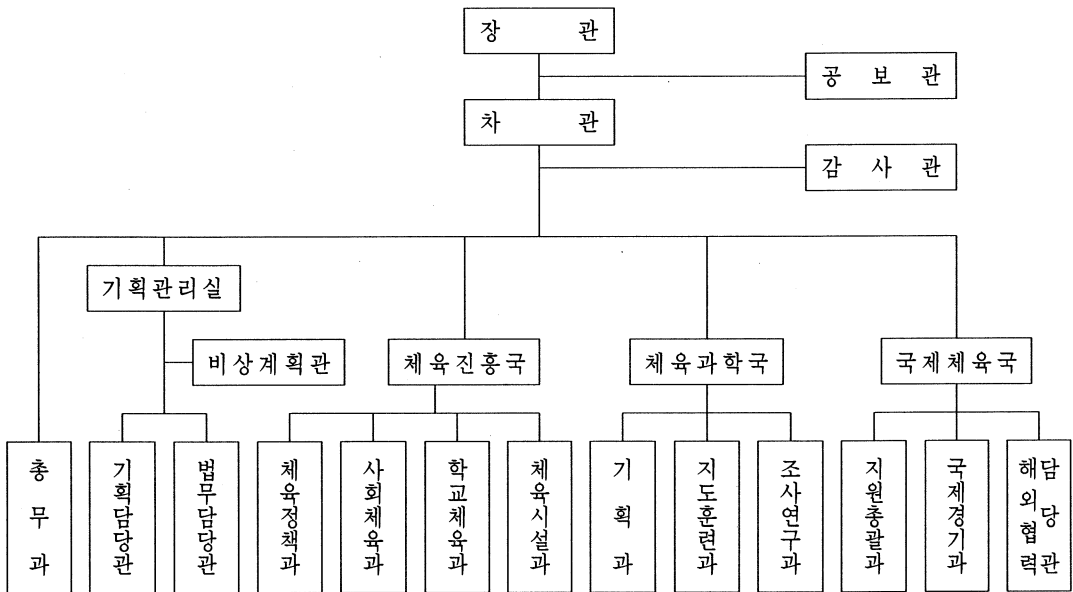
이와 같은 국가적인 시책 아래 정부가 탄생시킨 체육부는 대한체육회 및 K.O.C까지를 감독 지휘하는 꼴로써 각 시·도 산하단체로 그 기운을 뻗쳤으니 전국이 오로지 86·88 양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62) 체육부, 《체육한국》, 1983, p.23.

63) 《체육한국》, pp.642~645.

〈表 5-4〉

체육부 기구표(창설당시)⁶⁴⁾



아무튼 체육부의 발족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그간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지방단위의 체육진흥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2년 12월 28일자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86아시아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지원기구 정비강화방안과, 1983년 1월 14일자 내무부지침인 시·도 체육지원 전담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체육지원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하였다. 여기에 따른 각 시·도 및 교육위원회의 체육행정 담당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는 그 지방의 행정형편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체육지원 담당관” 또는 “체육지원계”를 두고, 지방체육 진흥시책의 수립, 추진, 지역체육 진흥협의회 및 올림픽 추진위원회의 운영,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올림픽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 재정지원, 체육회 업무지원,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토록 하고 있다.

다음에 대구직할시의 경우는 기존 기획담당관실에 “체육지원계”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이보다 앞서 86·88 양대회 준비업무를 전담하는 “올림픽 기획단”을 설치, 그 아래에 “올림픽 기획담당관” “올림픽 시설담당관” “올림픽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올림픽 준비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체육진흥 지원업무, 예컨대, “지역체육 진흥협의회” 운영, 체육회 지원업무 등은 시·도의 경우와는 달리 기존 총무과 서무계에서 분장하고 있다.

64)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 행정10년사》, 1992, p.20.

또한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에 사회체육과를 두고 체육단체 운영의 지도, 감독, 학교 체육, 시민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관리의 지도, 감독,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 감독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직제상 사회체육과가 없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학무국 초등체육과 및 중등교육과에서 전기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체육부 및 시·도 외의 체육진흥에 관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민체육진흥 심의위원회”와 “지역체육진흥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1962. 9. 17 제정공포, 1982. 12. 31 전문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그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13개 시·도에 아래와 같이 구성토록 되어 있다.

- 의장: 시장 또는 도지사
- 부의장: 시·도 교육감
- 위 원: (당연직 7명)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군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대공분실장, 보안사령부 지구보안부대장, 경찰국장, 범민족올림픽 시·(도)추진위원장, (위촉직 6명) 민간체육계 1명 및 경제계 2명을 포함한 의장이 위촉한 자⁶⁵⁾

이상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직할시의 경우도 이와 같은 체육의 행정조직과 체육진흥 자문기관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른 체육·스포츠 진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1년 4월 1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대구직할시 체육회 창립준비위원 선임과 실무위원 구성 요청이 있었다. 이는 1981년 7월 1일자 대구시의 직할시의 승격에 따른 것이다. 드디어 1981년 7월 20일에는 대구직할시 체육회 발족 초대회장(정채진 시장) 취임이 있었고, 1981년 8월 4일, 26개 경기단체의 조직구성과 가맹이 있었으며, 1981년 8월 5일 6개구 지부 조직구성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1981년 10월 2일에는 4개 경기단체 조직구성 추가가맹 1981년 12월 3일 창립총회, 1982년 5월 3일 제2대 회장(이상희 시장) 취임, 1983년 4월 8일, 사무국 기구개편(차장제 폐지 기획과 3과 신설), 양궁협회가 궁도협회에서 분리가맹, 1985년 2월 22일 제3대 회장(이상연 시장) 취임, 1985년 8월 20일 카누협회가 가맹하는 등 분주하였다.⁶⁶⁾

65) 《체육한국》, pp.36~39.

66) 대구직할시체육회, 《현황》, p.1.

이러는 가운데서도 경상북도와의 분리로(제61회 전국체전 불참) 축소·위축된 체육·스포츠의 모든 분야에 걸친 취약성을 극복, 회복하기 위하여 향토체육인들은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였다. 그러나 1981년 10월 10일서부터 15일까지(6일간) 서울서 개최된 제6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임원 284명, 남·녀선수 828명, 경기종목 26개종목에 출전 전국 15개 시·도에서 종합순위 10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밖엔 거두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국체전에서는 1982년의 제63회 대회에는 총 26개 종목에 임원 311명, 선수 987명 참가로 다소 높아진 8위에 오르더니, 1983년 제 64회 때는 보다 많은 임원(337명), 선수 (1,073명)로 총 29개종목에 참가했으면서도 9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4년 제65회 대회 때는 총 29개종목에 임원 389명, 선수 1,499명의 대부대를 데리고 참가, 6위로 경충 뛰어올랐다가 1985년 제 66회 춘천대회때는 또 다시 11위로 뚝 떨어지더니 1986년 제67회 때도 역시 11위에 맴도는 저조한 전력을 노출하고 있다⁶⁷⁾.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제5공화국시대인 1981년서부터 1986년(제10회~제15회대회)까지 다음 페이지(表 5-6)에서 볼 수 있듯이 저조한 성적에서 맴돌고 있다.

〈表 5-5〉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기간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등 위			종 별	특 기 사 항
						1위	2위	3위		
62회	1981.10.10~15	6일	서울	27	15,429	서울	전남	충남		채스웨덴교포 참가
63회	1982.10.14~19	6일	마산 진주 진해 창원	27	16,418	서울	전남	경남	"	재판동포선수단 참가, 해외동포선수별도 종합순위제 실시, 질서체전
64회	1983.10. 6~11	6일	인천	32	17,543	서울	전남	충남	"	모범선수단상을 질서상으로 변경, 입장식때 자유스러운 보법으로 행진, 성취상 제정1) 대통령배 2) 국무총리배 3) 체육부장관배

67) 대한체육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프로그램〉, 1992, p.65에서 인용

회수	개최년월일	기간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등 위			종 별	특 기 사 항
						1위	2위	3위		
65회	1984.10.11~16	6일	대구	33	18,409	서울	전남	충남		경기운영전산화, 입장상부 활, 올림픽경기 종목 시범 종목으로 채택
66회	1985.10.10~15	6일	춘천 원주 강릉	33	19,636	서울	전남	부산		○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전종목 정식종목 채택 (요트, 카누, 근대5종, 다이빙, 수구) ○ 선수촌 아파트 운영 ○ 카드섹션 입체화면 연출
67회	1986. 6.20~25	6일	서울 경기 부산	34	20,191	경기	전남	서울	고·대·일	○ 아시아경기대회 예행연습 ○ 골프 정식종목 채택

〈表 5-6〉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⁶⁸⁾

회	개 최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순 위			대 회 종 목 수
				1위	2위	3위	
10	1981. 5.29~6. 1	광주, 목포	7,189	종합체접제 잠정 유보			22
11	1982. 5.19~5.23	대전	9,041	충남	전남	서울	25 (시범종목 3포함)
12	1983. 5.21~5.25	전주, 이리	10,378	서울	전북	충남	26 (시범종목 1포함)
13	1984. 5.25~5.29	제주도 일원	11,553	서울	전남	충남	26 (시범종목 1포함)
14	1985. 5.22~5.26	포항, 경주	11,556	서울	경기	대구	26 (시범종목 1포함)
15	1986. 5. 5~5. 9	전국시도(제주제외)	11,337	서울	경남	충남	25 (시범종목 5포함)

68) 체육청소년부, 앞의 책, p.149에서 인용.

한편 체육시설 역시 경상북도와의 분리로 1981년 현재 〈表 5-7〉의 1), 2), 3), 4), 5), 6)까지의 내용과 같이 축소된 상황에 놓여 있다.

〈表 5-7〉 體育施設現況⁶⁹⁾

1) 市 陸上競技場(公設運動場)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市 民 運 動 場	大邱市 北區 古城洞 3街6	1960. 10. 1	40,000名 收容	公認綜合競技場
頭 流 山 公 園 은 이 의 廣 場	大邱市 西區 聖堂洞	1976.	陸上, 사이클, 럭비	野 球 場 新設中 테니스場

2) 市 體育館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慶 北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71. 4. 13	14,000名 收容	多目的

3) 學校體育館(初中高)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協 成 體 育 館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4. 11. 12	300名	排球, 籠球
啓 聖 "	大邱市 中區 大新洞	1974. 12	100 "	籠球, 體操
曉星女中 "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65. 5. 29	1,500 "	籠球, 排球
聖 光 高 "	大邱市 北區 七星洞	1973. 9.	100 "	
大邱女高 "	大邱市 中區 東仁洞	1960. 8. 25	60 "	排球
大 邱 高 "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1.	1,000 "	籠球, 排球, 배드 민턴
五 成 高 "	大邱市 東區 壽城洞	1973.	100 "	
心 印 高 "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7.	500 "	籠球, 排球, 卓球
慶 北 高 "	大邱市 南區 大鳳洞	1976.	1,000 "	排球, 핸드볼
曉星女高 "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6.	1,000 "	籠球
明德國校 "	大邱市 南區 大明洞	1972.	200 "	體操
壽昌國校 "	大邱市 中區 壽昌洞	1972.	200 "	體操
中央國校 "	大邱市 中區 公平洞	1976.	500 "	籠球, 卓球
信明女高 "	大邱市 中區 東山洞	1978.	500 "	籠球, 排球

69) 《경북도사》 하, pp.1171 ~ 1172.

4) 大學體育館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慶 北 大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2. 9.	600名	
慶 北 大 女 子 體 育 館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8.	200 "	

5) 體育會施設

名 稱	位 置	竣工年度	規 模	備 考
慶 北 스포츠 公 園	大邱市 南區 大明洞山	1975.		國弓, 洋弓, 乘馬
복싱 專 用 道 場	大邱市 北區 山格洞	1971. 4. 13		慶北體育館 內
레슬링 專 用 道 場	"	"		"
펜싱 專 用 道 場	"	"		市廳舍臨時貸與 舊(北區廳舍)
柔 道 專 用 道 場	大邱市 北區 七星洞			"
劍 道 專 用 道 場	"			

6) 民間團體施設

名 稱	位 置	設立年月日	規 模	備 考
大邱煙草製造廳體育館	大邱市 中區 太平路	1976.	200名	배드민턴
大 邱 스포츠 센터	大邱市 東區 巴洞		500 "	水泳, 水上
韓 國 水 泳 場	大邱市 東區 下洞		200 "	水 泳
그 린 파 크 水 泳 場	大邱市 東區 東村		200 "	水 泳
앞 산 풀 場	大邱市 南區 大明洞山		500 "	水 泳
民 間 테니스 코트	大邱市內		52面	營業用(室內 6面)
民 間 私 設 복싱 道 場	大邱市內		8個所, 11個所	私 設
民 間 私 設 柔 道 場	大邱市內		6個所, 9個所	"
跆拳道 場	大邱市內		60個所	"
"	地 方		71個所	"
民 間 私 設 卓 球 場	大邱市內		180個所	"
民 間 私 設 射 擊 場	市 內		1個所	"
民 間 私 設 洋 弓 場	市 內		2個所	"

그러나 대구직할시 체육회는 1986년 1월 4일에 사무국 기구개편(기획과 폐지, 훈련과 신설)을 단행,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상위 입상을 노리는 신인선수의 발굴과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에 힘써 두류산공원 내에 안병근유도장을 비롯해서 봉무 사격장, 만촌동 싸이클경기장 등을 증설,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향토체육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노력과는 달리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언제나 하위를 맴도는 경기성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체 대구시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체육·스포츠의 정책적 원리에 따른 정책적 균형에서 오는 결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현대국가들의 대부분이 국위선양정책에서 건민정책 쪽으로의 방향전환의 추세에 있고 많은 스포츠지성인들의 선수주의 내지는 승리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우리들 상황을 그렇게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시책에 따라 전체 대구 시민들의 건강의 보호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오락으로의 유도를 위하여 유희공지와 하천고수부지에 체육·스포츠시설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우선 그 시설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로서 체육청소년부의 후원과 대구시의 예산으로써 조성한 것으로 1982년도에 동대구로 동네체육공원과 앞산시민체육공원, 그리고 1983년에는 동촌유원지 시민체육공원, 안지랑이골 체육공원, 앞산 심신수련장, 산격시영아파트 체육공원, 범어 시민체육공원, 1985년도의 용두골 체육공원, 두류산공원, 시민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상업용 스포츠 시설로서, 1) 등록 체육시설업소, 2) 신고 체육시설업소, 3) 체육도장업소, 4) 볼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등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시설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여가와 스포츠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아직 86·88 양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추진과 이에 따른 체육부의 역점사업이 주로 두 가지 대회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나 체육부가 내세우는 생활체육에 대한 의식의 개혁이나 진흥사업 및 활성화방안은 물론, 그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전체대구·경북도민이 대상이던 도민체육대회가 때맞추어 시행된 대구직할시의 승격으로 대구직할시민만의 대회로 축소되자, 그 대회가 시청 생활체육과로 이관되어 달구벌축제로 통합됨으로써 그 명칭도 대구 달구벌축제 생활체육대회로 개칭되었고, 대회의 내용도 종래의 경기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변경, 경기종목도 성격을 달리하는 노장 마라톤대회(3km), 직장 야구대회, 축구대회 등으로 바뀌고, 민속놀이 행사로서 줄다리기, 그네뛰기, 씨름 등으로 전체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직할시 6개구(달서구 제외) 대항전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과 경향은 따지고 보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결 뒤쳐진 자각에 따른 조처라 할 것이다. 물론 스포츠의 경쟁사회에 뛰어들어 이상 고전적인 아마추어리즘만 고집하면서 언제나 뒤떨어진 성적에 머물고만 있을 수가 없는 국가적 위신과 긍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고 국제경기에서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민족적 감격과 응집력을 생각할 때, 전국체육대회를 통한 각 시·도마다의 경기력의 향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누차 언급된 바 체육·스포츠의 정책적 원리가 국위선양정책과 건민정책 간의 길항적 관계가 아닌 상부상조적 관계에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수립의 선후문제와 비중상의 우열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이러한 경향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보다는 개발도상의 국가나 후진국가일수록 국위선양쪽으로만 치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제 스포츠선진국의 대열에서 승패에 초연할 수 있는 스포츠지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정책의 균형적 시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 서서 86·88 양대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위신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것만을 위해서 보다 소중하고 귀한 전체국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스포츠활동까지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줄로 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대구직할시의 전국체전에서의 하위의 경기성적이 다행히 두 가지 정책의 균형적 시행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할 성격의 것이 못되는 것으로 알겠다. 그것은 국위선양정책에 관련된 국제경기에서의 승리가 비록 민족적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응집된 힘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일과성의 찰나적인 것인데 비해, 건민정책으로서의 그것은 민족의 영원한 건강에 연결된다는 사실이 그 중요성에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제5공화국의 시대인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체육·스포츠정책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진흥이니 평생스포츠의 활성화니 그 구호만 무성했지 그의 기반구축에는 매우 인색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하여 “우수선수의 양성을 통한 국위의 선양”에 있어서는 “세계각국이 스포츠를 국위선양의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보고, 막대한 국력을 경주하여 우수선수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해야 할 우리로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에 국위선양을 위한 우수선수양성 또한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수가 없다.”라는 표현과 국제 체육교류의 강화, 86·88 양대회의 완벽한 준비⁷⁰⁾등의 국민체육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적 표현에서, 체육·스포츠의

70) 체육부, 앞의 책, pp.54~55.

본질적 왜곡과 변질된 모습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5공화국의 국위선양정책의 구체화 작업으로서의 선수주의는,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를 거의 완전히 손 놓아버린 상태에서 사회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에 있어서까지 전체학생들의 정상적인 체육수업은 소수정예주의 그늘에서 도외시되었으며 더하여 입시경쟁에 따른 소외과목으로 취급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체육은 시간표만의 과목이고 체력검사 역시 명목만 검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더구나 빈약한 학교재정과 시설마저도 선수들에게 독점되는 참으로 열악한 경비와 시설, 그리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과 수업이고 과외활동이었으며, 형식만의 체력검사가 국위선양이라는 구호에 밀려나서 그 존재의의마저 상실된 허구의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2. 86과 88대회의 서울개최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시대와 1986년서부터 1993년 초반까지(특히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는 전자가 제3 제4공화국의 체육·스포츠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그 기반구축과 구체화작업의 시대라고 하면 제6공화국의 시대는 그의 실천 강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부터 비록 세계적인 스포츠대중화의 물결과 생활체육(평생스포츠)에로의 추세에 따른 태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갑작스런 정책전환의 탓으로 매사 낮설고 미진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도 올림픽환상에서 쉽게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체육인과 체육·스포츠관계자들이 적지않아, 생활(평생)체육·스포츠의 대중화는 쉽게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의 자생적 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관 주도의 것이라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마저 없지 않았다.

여기 제6공화국의 체육·스포츠정책과 시책이 지닌 허실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체육부는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으나, 양대회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86·88 양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진되어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경기력향상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기반이 확대,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1988년 6월 18일 체육부는 직제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1실 3국 8담당관 9과에서, 1실 4국, 5담당관 13과로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부는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게되어 체육업무와의 연관성과 상호보완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업무영역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만 하는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⁷¹⁾ 그러나 타 부처와의 업무중첩 등등의 이유로 한때 체육부의 존재문제까지 거론되었으나 이제까지 체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민복지정책의 성과와 함께 아직까지 체육청소년분야의 행정수요는, 국가주도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지도로 수행함이 효과적이고, 제6공화국이 표방한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결국 체육부는 관련업무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 9월 10일 직제개정으로 정원 42명의 청소년국을 정원 62명의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1990년 12월27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육부의 명칭을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여 체육 및 청소년업무에 대한 행정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체육부문에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체육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서울올림픽 이후 더욱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90년 3월에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근로청소년, 유아, 여자,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대하여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국민 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 전국에 보급하였으며, 1988년 12월에는 국민여가활동 참여실태를 조사하고 1989년 이후 해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동호인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민속경기 경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였고, 직장에서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체육 활성화방안과 직장체육대회 모형개발을 하고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직장체육지도서를 발간하는 등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 주민체육업무를 전담한 행정부서를 생활체육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민간체육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91년 1월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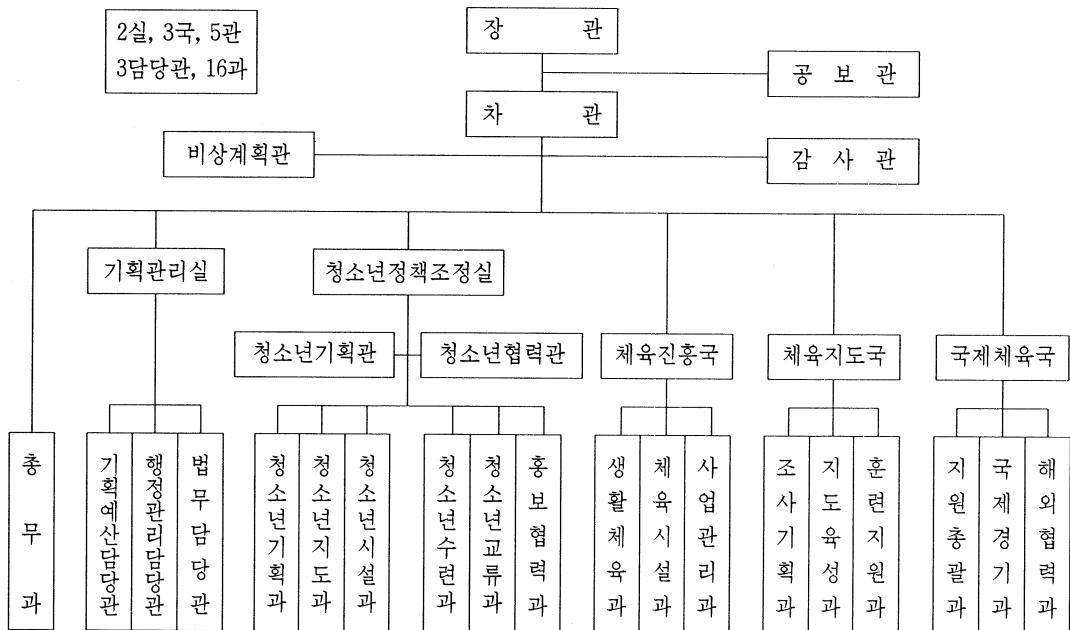
또한 체육시설 공간확보를 위해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였고, 종래까지 경기시설 위주의 투자를 가급적 지양하고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을 목표로한 시·군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단계별 확충계획을 1990년도에 수립하여 1991년까지 전국에 걸쳐 306개소를 설치하였고, 1992년도에는 150개소를 더 확충할 예정이며, 아울러 낙후된 동계체육

71) 체육청소년부, 앞의 책, p.31.

시설을 확충하고자 그 건설계획을 1991년도에 수립, 19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교통부, 보건사회부, 문교부에서 지도 감독해 오던 시설을 체육부에서 일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1989년 3월 31일에 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으로 국민의 건전여가선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²⁾

〈表 5-8〉

체육청소년부 기구표(1992. 4. 30)



이와 같이 체육부는 그 허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체육·스포츠의 발전 보급에 미친 커다란 공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각 지방마다의 체육·스포츠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 대구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먼저 대구직할시 체육회는 1987년 2월 4일에 사무국 기구개편(훈련과 폐지, 총무, 운영 2과 신설)을 하였고, 1987. 2. 26에 2개 경기단체(골프협회, 근대5종 바이아드론경기연맹)가맹, 1987. 6. 1 제4대 회장(박배근 시장)취임, 1988. 1. 4 1개 구지부(달서구)조직 구성완료, 1988. 12. 14 제5대 회장(박성달 시장) 취임, 1989. 7. 7

72) 체육청소년부, 앞의 책, pp.32~33.

2개 경기단체(우슈협회, 보디빌딩협회) 준가맹, 1990. 3. 7 2개 경기단체(수상스키협회, 수중협회) 준가맹, 1990. 12. 29 제6대 회장(이해봉 시장) 취임, 1992. 2. 28 2개 경기단체(요트, 보디빌딩 협회) 가맹, 1992. 4. 22 제7대 회장(한명환 시장) 취임, 1993. 3. 5 제8대 회장(이의익 시장) 취임⁷³⁾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본 체육회 기구는 대의원 33명(미 위촉4명-양궁, 사격, 카누, 골프) 이·감사 30명(이사 27명, 감사2명) 가맹, 경기단체 37개 경기단체, 구지부 7개지부(각 지부장은 구청장), 사무처 2과 4계(15명)이다. 그리고 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수는 총 4,387명(남 3,275명, 여1,112명)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5-9〉

대구직할시 체육회 기구



73) 대구직할시체육회, 앞의 책, p.1.

74) 위의 책, p.11.

등 록 된 선 수 수⁷⁵⁾

〈表 5-10〉

1) 등록인원 : 4,387명(남 3,275명, 여 1,112명)

2) 부별 등록선수 현황

계			국 교 부		중 학 부		고 등 부		대 학 부		일 반 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387	3,275	1,112	570	284	803	289	860	289	384	76	646	203

그러나 우선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은 여전히 경상북도와의 분리로 허약해진 체질을 회복하지 못한 채, 1987년의 제68회 체전에선 총 32개 종목에 임원 425명 선수 1,170명으로 참가 9위에 머물렀으며, 1988년도는 88서울올림픽의 예행연습을 겸한 대회라 종합시상제가 폐지된 가운데 8개 시·도에서 치루어졌고, 89년도의 경기도 제70회 대회에선 10위, 90년도 충북 제71회 대회때는 9위로 약간 오르는듯 하더니, 91년도 제72회 전북대회에서는 7위로 다소 희망적인 기색이 감돌더니, 1992년 대구 제73회 대회에선 개최지의 강점 때문인지 갑자기 종합 순위 3위로 경풍 뛰어올라가더니, 1993년 10월 11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제 74회 전국체전에는총 38개 종목에 임원 473명 선수 남 792명, 여 354명, 계 1,619명으로 참가 했으면서도, 또 다시 11위로 뚝 떨어진 하위권의 성적을 노출하고 말았다. 이러한 우리들 경기력의 취약성은 1987년의 제16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⁷⁶⁾

〈表 5-11〉

회수	개최년월일	기간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등 위			종 별	특 기 사 항
						1위	2위	3위		
68회	1987.10.13~18	6일	광주	34	21,797	서울	경기	부산	"	○ 부별 종합시상제 실시
69회	1988. 5. 9~22	기간중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와 고·대·일 실시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와 겸해	종목별 종합시상만					○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와 겸하여 개최 ○ 종목별 종합시상만 실시

75) 대구직할시체육회, 앞의 책, p.2.

76) 대한체육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프로그램〉, p.65.

회수	개최년월일	기간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 인원	등 위			종 별	특 기 사 항
						1위	2위	3위		
70회	1989.9.26~10.1	6일	경기	34	20,447	경기	서울	경남	고·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한민족체육대회와 동시개회식 거행 ○ 경기도 일원13개 지역 분산개최 ○ 종목별 종합시상식운영 (각시·도 노래에 맞추어 시상) ○ 입장상 폐지 ○ 질서상을 모범선수단상으로 변경 ○ 관중섹션 연출
71회	1990.10.15~21	7일	충북	35	21,293	서울	경기	충북	고·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일원 12개지역 분산 개최 ○ 해외동포 별도경기 실시 (축구, 테니스, 볼링, 골프) ○ 충청북도 전지역 성화 봉송 ○ 보디빌딩 시범종목 채택
72회	1991.10. 7~13	7일	전북	35	22,068	경기	서울	전북	고·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일원 지역 분산개최 ○ 전라북도 전지역 성화 봉송

〈表 5-12〉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현황⁷⁷⁾

회	개 최 기 간	장 소	참가인원	순 위			대 회 종 목 수 (시범종목 5포함)
				1 위	2 위	3 위	
16	1987. 5.21~5.25	부산, 대구, 마산, 포항	12,927	서울	경기	부산	26
17	1988. 5. 9~5.22	전국일원	14,570	종합채점 미실시			"
18	1989. 5. 9~10. 5	전국일원	49,714	종합채점 미실시 (시·도단위대회)			26
19	1990. 5.10~7. 6	전국일원	63,579	"			26
20	1991. 5.28~6.13	전국일원	68,563	"			26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기존시설에 더하여 1992에는 만촌동 롤러스케이트장과 팔공정 국궁장을 설치했으며, 대구시민운동장에 스케이트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 고장 대구의 자라는 지난 86·88 양대회 때, 축구경기의 일부를 이곳에다 유치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점이다. 그때의 참가규모 및 경기일정 경기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⁷⁸⁾

(1) 각국별 선수단

참 가 국	계	선 수	임 원
U.A.E	25	20	5
OMAN	23	18	5
IRAQ	31	20	11
THAILAND	26	20	6
PAKISTAN	18	16	2
합 계	123	94	29

※ 1986. 9. 19 입촌시 기준

○ 각국별 참가선수 명단: 별첨1

77) 체육청소년부, 앞의 책, p.149.

78) 대구축구대회 운영본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결과보고서》, 1986, p.42, p.27, p.52.

(2) 일자별 경기내역

일 시		대진결과		
9. 17	19:00	S W E	2 : 2	T U N
9. 18	19:00	U S A	1 : 1	A R G
9. 19	19:00	S W E	2 : 0	C H N
9. 20	19:00	U R S	2 : 1	A R G
9. 21	19:00	S W E	2 : 1	F R G
9. 22	17:00	U R S	4 : 2	U S A
9. 25	19:00	S W E	1 : 2	I T Y

(3) 운영방법

○ 운영방법

- 5개팀이 풀리그 경기
- 1, 2위 준준결승 진출

○ 중요 경기규칙

- 승자2점, 무승부1점, 패자0점
- 무승부시 : 고율득실차, 다득점순으로 결정
- 고율득실점 동일시 : 추첨으로 결정

(4) 경기결과

○ 경기결과

- 예선경기(대구, 부산 간 순회경기)
 - A조 1위 : 스웨덴(3전1승1무0패)
 - A조 2위 : 서독(3전2승0무1패)
 - C조 1위 : 소련(3전2승1무0패)
 - C조 2위 : 아르헨티나(3전1승1무1패)
- 준준결승(대구경기)

조 별		A조 1위	B조 2위
국	명	스 웨 덴	이 탈 리 아
득	점	0 점	2 점
승	패	패	승

2) 제24회 서울올림픽⁷⁹⁾

(1) 참가선수단 현황

○ 선수단 : 215명*

국	별	계	선	수	임	원	비	고
	계	215	155	60				
미	국	26	19	7				
서	독	27	19	8				
소	련	28	20	8				
스	웨	덴	27	20	7			
아	르	헨	타	나	26	19	7	
중	국	25	18	7				
이	탈	리	아	29	20	9		
튀	니	지	27	20	7			

○ FIFA : 13명(임원6, 심판7)

* 입촌시 기준

(2) 경기일정 및 경기결과

○ 일자별 경기내역

일	시	대	진	결	과
9. 17	19:00	S W E	2 : 2	T U N	
9. 18	19:00	U S A	1 : 1	A R G	
9. 19	19:00	S W E	2 : 0	C H N	
9. 20	19:00	U R S	2 : 1	A R G	
9. 21	19:00	S W E	2 : 1	F R G	
9. 22	17:00	U R S	4 : 2	U S A	
9. 25	19:00	S W E	1 : 2	I T Y	

79) 대구직할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구대회 결과보고서》, 1989, p.48, p.39, p.35, p.52.

(3) 경기방식

- 예선전 6게임
 - A조 4개국(스웨덴, 튀니지, 중국, 서독)과
 - C조 3개국(소련, 미국, 아르헨티나)의 조별 풀 리그 경기
- 준준결승전 1게임
 - A조 1위팀과 B조 2위팀간의 토너먼트 경기
- 중요경기 규칙
 - 예선전
 - － 무승부시 연장전 없으며 골 득실차 다득점순
 - 준준결승전 이상
 - － 무승부시 연장전 30분(전후 15분)
 - － 연장전 무승부시 PK 결정

(4) 경기결과

- 경기결과
 - 예선경기(대구, 부산 간 순회경기)
 - － A조 1위 : 스웨덴(3전1승1무0패)
 - － A조 2위 : 서 독(3전2승0무1패)
 - － C조 1위 : 소 련(3전2승1무0패)
 - － C조 2위 : 아르헨티나(3전1승1무1패)
 - 준준결승(대구경기)

조 별		A조 1위	B조 2위
국	명	스 웨 덴	이 탈 리 아
득	점	0 점	2 점
승	패	패	승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 대구직할시체육회는 여러가지 다방면적 체육·스포츠진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경기성적은 여전히 경상북도와와 분리로 허약해진 체질을 회복하지 못한 채 1987년의 제68회 대회에선 32개 종목에 임원 425명, 선수 1,170명으로 참가하여 9위에 머물렀으며, 1988년도는 88서울올림픽의 예행연습을 겸한 대회라

종합시상제가 폐지된 가운데 8개 시·도에서 치루어졌고, 1989년도의 제70회 대회 땀 10위, 1990년도는 9위, 1991년도 7위의 다소 뛰어오른 성적이다. 1992년도의 대구대회인 제73회 때는 개최지의 강점타인지 전국 3위로 크게 뛰어올랐다가 이번 제74회 광주대회에서는 또다시 11위로 뚝 떨어지는 매우 불안정된 전적에 있고 이러한 경향은 소년체전에서도 비슷한 현상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조차 없겠거니와 이는 전기된 바 두 가지 체육·스포츠정책의 균형적 시행에서 오는 어찌면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경기성적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도 짐작된다. 그러나 한편 전국체전과는 달리 외국에서의 종목별 국제경기에서의 전적은 대구시청 핸드볼(여자)팀이 지난 91년 12월 16일, 홍콩 구룡공원 실내체육관에서(제8회 홍콩초청대회) 대만팀을 가볍게 물리치고, 홍콩팀을 41-16으로 크게 이긴 중공팀을 결승전에서 28-11의 큰 점수차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여, 지난 6, 7회 대회에서 우승한 초당약품팀과 광주시청팀에 이어 대회 3연패의 위업을 세웠다.⁸⁰⁾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대구 담배 인삼공사 체육관서 열린 한·일 친선고교 배드민턴 대회에서 일본 도쿄 남녀선발팀을 대구고등학교팀과 제일여상팀이, 모두 이겨 향토 배드민턴의 기량이 일본에 비해 한수 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등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⁸¹⁾

그러나 역시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의 정책적 소외현상은 오늘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하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 기계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신체활동의 기회와 장소가 제한됨에 따라서 운동부족에 따른 기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을 “통계청 1992년도 사망원인 집계”에서 살펴보면, 각종 암이 20.9%로 지난 83년의 12.3%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지난 9.5%에서 15.4%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 사망율은 29.5%로 83년의 27.9%에서 조금 늘었으나, 감염성 질환은 4.5%에서 2.6%로 오히려 줄었다. 다른 세계 여러나라들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 폐암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율은 각각 세계 제1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80) 《大邱毎日新聞》, 1991. 12. 27日字.

81) 《大邱毎日新聞》, 1991. 12. 27日字.

〈表 5-13〉

성별·연령별 3대 外因순위

		1 위	2 위	3 위
전	체	암 43,570(110.9)	뇌혈관질환 31,600(80.4)	불의의 사고 27,168(69.1)
남	자	암 27,886(136.9)	불의의 사고 20,434(100.3)	뇌혈관질환 15,350(75.4)
여	자	뇌혈관질환 16,250(86.7)	암 15,684(83.6)	심장병 8,387(44.7)
0	세	선천이상 605(94.8)	주산기질환 360(56.4)	불의의 사고 152(23.8)
1 ~ 9	세	불의의 사고 1,920(32.6)	선천이상 309(5.3)	암 307(5.2)
10 ~ 19	세	불의의 사고 2,370(30.3)	악성신생물 477(6.1)	자살 332(4.2)
20 ~ 29	세	불의의 사고 4,751(57.0)	악성신생물 848(10.2)	자살 841(10.1)
30 ~ 39	세	불의의 사고 4,982(66.5)	암 2,446(32.6)	만성간질환 1,291(16.3)
40 ~ 49	세	암 5,077(107.3)	불의의 사고 3,934(83.1)	만성간질환 2,664(17.2)
50 ~ 59	세	암 11,099(289.8)	뇌혈관질환 4,476(116.9)	불의의 사고 4,075(106.4)
60 ~ 69	세	암 12,371(588.3)	뇌혈관질환 7,714(366.8)	심장병 3,121(148.4)
70	세 이상	뇌혈관질환 16,717(1531.2)	암 10,897(988.1)	심장병 8,347(764.5)

()안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여하튼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이환율은 1982년 7.6%에 불과했으나 1986년에는 12.5%, 1989년에는 16.6%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병, 순환계 질환 등의 진료비가 연평균 24.7%씩 증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⁸²⁾

82) 체육청소년부, 앞의 책, p.163.

여기에 이르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당연한 현상의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대구직할시의 시민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각과 요구에 따라 정부는 물론 체육부에서도 정책전환의 시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대구시 생활체육과와 뒤이은 문화체육과 및 사회진흥과의 노력으로 기존 공공체육시설인 유희공지와 고수부지에 조성한 중리 체육공원, 매자골 체육공원, 범어 체육공원, 신천(대봉동) 고수부지 체육공원, 효목 체육공원, 신천(수성4가) 고수부지 체육공원, 안심 시민체육공원, 효목2동 주공아파트 배드민턴장, 불로 시민체육공원, 상리 체육공원, 앞산 제3지구 체육공원, 수성유원지 체육공원, 본리공원 배드민턴장, 상인 체육공원, 대봉교 제2신천교 체육장, 동촌지구 체육장, 동촌 고수부지 체육공원, 감삼동네 체육공원, 강당골 체육공원, 앞산큰골 체육공원, 복현주공1단지 동네 체육시설, 천을산동네 체육공원, 옥수동네 체육공원, 범양맨션 뒷산 체육공원, 송현동네 체육시설, 상동교~대봉교 체육장, 미대동네 체육시설, 이현동네 체육시설, 꽃보라동산 동네 체육시설, 용지동네 체육시설, 본동네 체육시설, 제2신천교~경대교 체육시설, 경대교~금호강 합류점 체육시설, 대봉교~제2대봉교(좌안) 체육장, 대봉교~제2대봉교(우안) 체육장⁸³⁾ 등등 참으로 많은 공공시설과 상업스포츠시설 1)등록 체육시설인 골프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21개소와 2)신고 체육시설인 실내수영장 3개소, 실외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업 권투 8개소, 유도 3개소, 태권도 184개소, 합기도 84개소, 육체미 10개소, 우슈 13개소, 요가 5개소, 원격도 1개소, 활기도 3개소, 수박도, 격투기, 공권도, 활법 각각 1개소, 볼링장업 5개소, 정구장업 34개소, 골프연습장업 20개소, 탁구장업 7개소,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3개소, 실외 롤러스케이트장 3개소, 체력단련장업 18개소, 미용체조장 38개소⁸⁴⁾ 등 실로 난립에 가까운 엄청난 수량의 시설이, 그래도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을 나름대로 보충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사회진흥과는 종전까지 체육회에서 주관해오던 도민체육대회를 이관받아 대구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긴밀한 연대성을 가지고 ○ 생활체육대회를 통한 시민화합과 체력증진, ○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저변확산, ○ 지역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이상 목적). ○ 참가선수는 체육회 비등록 선수로 제한, ○ 출전선수는 체육대회시 선발 또는 부서장 추천, ○ 달구벌축제 경축행사와 동시 실시 이상 추진방침에 따라 1988년까지의 “달구벌 축제 생활체육대회”와는 대회명칭이 다른 “시민화합체육경기 및 민속경기 한마당대회”를 1989년도에 이어 1990년도 10월 9일에 개최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육상경기,

83) 대구직할시, 《하천공원화 사업 금호강》, 1989, pp.1~9.

84) 체육청소년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사업 현황》, 대구직할시자료, 1991, pp.234~263.

건강달리기, 조기체조 등 9개종목으로 대구직할시 7개 구청선수단 1,800여명, 응원단 10,000여명이 각자 보조경기장에서 구청대항전을 펼쳐 대성황을 이루었고⁸⁵⁾ 1991년 10월 8일에는 경기종목 13개종목의 제3회 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선수, 응원단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으며,⁸⁶⁾ 1992년의 제4회 대회에 이어 1993년 제5회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위 말하는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스포츠의 중요 불가피성과 함께 스포츠대중화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또한 결코 놓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하고 지금의 사회적 시대상황이 그러하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짐작하건대, 생활체육(평생스포츠)의 필요 불가결성은 날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에 있어서까지 지난날의 올림픽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이고 탈사고적인 우매함을 지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지난 광주에서 개최된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문민정부 최초의 대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분 수정된 면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아쉬움이 있었다면 식전행사(26분) 동원인원(군악대 310명 제외) 1,000명, 식중 보조행사(군악대 31명 제외) 동원인원 5,966명, 식후행사(24분) 동원인원 6,228명 등 총 13,194명이 불과 50분(식중 보조행사 시간 제외)을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⁸⁷⁾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이 구체화됨으로써 질과 양적으로 크게 성장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도 86·88양대 대회이후 불기 시작한 생활체육(평생 체육·스포츠)의 물결이 “정치권의 영향”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나름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체육·스포츠정책과 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기된 바 전국체전에서의 식전, 식중, 식후행사의 내용적 단순화 노력과 동원인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져서 그들 학생들의 불가항력적 수업결손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 개최지별 과잉경쟁의 분위기의 조성을 지양함과 동시에 대회 개최자측 관계자들의 일대각성에 따른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구태어 종래의 방법들을 고집한다면 차기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중간체육시간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의 배려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문민정치에 걸맞는 전국체전을 위한 행정, 기획,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85) 《대구매일신문》, 1990. 10. 10일자.

86) 대구직할시 건전생활 담당관실, 《시민화합체육경기》, 1991, p.3.

87) 광주직할시,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안내서》, 1993, pp.39~41.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행정 권위주의적 상징인 시·도 체육회장의 순수체육인로의 교체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중앙집권적 대한체육회의 권한을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 대폭 이양되어야 하고, 셋째 제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구실로 한 관주도의 생활체육협의회의 기획 운영 관리를 민간주도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특기자 선정방법 및 과잉 스카우트에 따른 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의 비리척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특기자의 대입 수능검사 걸라인제 도입은 94년 입시에 서의 졸속주의가 극복된 가운데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여섯째, 과잉경쟁에 따른 시·도 임원 및 선수단의 종목별, 경기능력별 참가자격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일곱째 식전 식후 공개행사 등에 경기의 진행관리 보다도 오히려 신경을 더 쓰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관계자들의 일대 각성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대회규모의 거대화 문제는 심각하고 공개행사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결손의 문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강제성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선 군사정권의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의 문민정치 시대에선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V. 現代的 課題와 展望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체육·스포츠의 역사적 변천을 오랜 옛날 부족국가시대에서부터 삼국 시대, 통일신라의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강력했던 (武藝), 곧 체육·스포츠이었던 시대와 문약 무기력했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를 시대별로 개괄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조선조 말기의 개화의 물결에 따른 새로운 시대감각적 충격과 외국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체육·스포츠의 보급을 통해서 그런대로 짝이 움트던 시대에 와서, 미처 우리의 것으로 소화 흡수되기도 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의한 유린과 통제의 시대로 접어든 경위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간 식자들이나 우국지사들의 사립학교의 설립과 체육행사나 운동회를 통한 민족계몽운동의 전개와 일제에 대한 저항, 이것을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꾸준히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사상의 양양에 심혈을 기울여왔음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일본인들 역시 그들 아시아대륙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면서 그 발판으로서의 우리 강토의 지리 입지적 조건과 우리 민족의 말살과 그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꾸준한 일본제국주의식의 식민지정책을 펼쳐왔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체육·스포츠까지도 통제 탄압하면서 급기야는 그들 야욕의 제물로 삼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체육·스포츠의 역사는 참으로 수난과 유린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연합군의 승리로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제국주의 일본은 敗走하고, 우리에게 8·15해방의 감격과 조국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日人들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와 뿌려놓은 독소는 너무나 엄청나서 그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였다.

美 군정시대와 정부수립 이후의 재건과 과도기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자생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싹트던 시대에 6.25의 민족상잔의 슬픈 수난의 시대는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수복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또 한차례의 무서운 역사적 시련이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혼란은 체육·스포츠까지를 오염·타락시켜 이상발달의 시대로 휘몰아간 자유당시대가 있었고, 4.19학생의거로 정권을 잡은 張勉 정권의 무기력하고 혼미한 내부적 갈등은 5.16군사혁명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5.16군사혁명과 혁명정부의 재건과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있어 비록 비민주적 反스포츠 본질적 왜곡과 무리,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뒤이어 제3, 제4공화국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불가피했던 남북 간 스포츠대결과 스포츠외교를 적극적으로 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시대적 요청과 국민들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정치체제를 강화하더니, 제5공화국시대에 와서는 이의 구체화작업으로 국위선양 정책과 스포츠외교의 폭을 확대 추진하면서 86·88 양대 대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전력으로 투구하더니, 급기야는 다음의 제6공화국의 시대에 와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아시아에선 두 번째의 개최국가로서 유치, 비록 지나친 정부독주의 왜곡과 변질 그리고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스포츠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고 동·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 북방외교의 橋頭堡를 마련하는 한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연이나 우리의 참다운 모습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스포츠가 지니는 허실을 正視靜觀하는 스포츠지성의 회복과, 하루빨리 올림픽환상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대의 체육·스포츠의 참다운 모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깊이 명심, 정부를 비롯해서 체육·스포츠 관계자 및 지도자 나아가서는 스포츠 대중들의 의지적 표현이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1. 당면과제로서의 정책전환의 초점

이미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체육·스포츠의 본질적 왜곡과 변질은 자연발생적 자생이어야 하는 그 본래적 성격을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외부적 힘이 스포츠에 깊이 개입되거나 작용해서 스포츠를 즐거움의 수단이 아닌 어떠한 목적 수단적인 의도를 가지고, 획일적 타율

에 의해 깊이 관여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병리현상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그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진 바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기 정치체제의 연장이나 이데올로기적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까닭이 있는 것이고 일본제국주의 시대처럼 자기들 야욕을 채우기 위한 스포츠의 귀속도 통제도 본질적인 것의 왜곡인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전투능력의 배양이라는 목적에 결부될 때 이미 그것은 체육·스포츠가 아닌 것이며, 그곳에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승리만의 투쟁논리가 성립되기 마련이다. 또한 여기에 비록 시대적 상황이 불가피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들이 저항하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체육·스포츠 역시 그 이유야 여하튼 순수한 스포츠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스포츠의 실천과 그 정신의 함양이기보다는 잠재된 민족적 울분과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스포츠를 받아들였고, 결코 질 수가 없다는 결사적인 스포츠관 내지는 승패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현실사회의 경쟁을 스포츠의 경쟁사회와 동일시하는 정신적 미분화상태의 수준에서 땀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 수밖에 없었으나 스포츠의 대결에서만은 결코 질 수가 없었고 기실 여기서는 일본인들을 언제나 능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기기 위한 스포츠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가지고 마치 독립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체육·스포츠활동을 독립운동의 차원으로 합리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은 큰 잘못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포츠가 가진 허실에 대한 자각조차 없는 낮은 스포츠 民度를 지닌 채, 잘못된 체육·스포츠와 승패관에 관한 뿌리깊은 왜곡된 인식을 불행하게도 불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8.15해방을 맞이하였고 전기한바 각종 왜곡된 인식을 마치 상식처럼 옹고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복이후 우리의 손으로 정부를 수립한 자유당 시절, 비록 6.25동란의 민족적 비극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들 체육·스포츠가 혼동과 본질이 왜곡된 이상발달의 양상을 띠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행했던 지난날 우리들 체육·스포츠의 수난과 유린의 역사가 5·16군사혁명이후의 군사정권과 이어진 제3, 제4공화국시대에서 스포츠외교의 시도와 남북 간 스포츠의 대결에서,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에서보다 국위선양으로서의 선수주의에로 치달게 하는 왜곡을 조장한 까닭이라 할 것이고, 체육·스포츠의 진흥을 빙자, 오도하는 경쟁논리의 합리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제5공화국시대로 이어져서 경기성적만의 승리를 체력 또는 국력이라고 보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等式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탈사고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기

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86·88 양대 대회 유치에서도 어김없이 연장 강조되면서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는 거의 손놓아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한 것이 제6공화국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지난 올림픽의 환상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서울올림픽의 메달 집계 세계 제4위에서 4년뒤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7위를 하자 실망 좌절하는 까닭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스포츠가 갖는 허실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스포츠 민도의 후진성은 또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또 금메달이 갖는 참다운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적 표현이 구체화 될 때 스포츠관계자 및 소위 스포츠지도자 그리고 스포츠대중들의 의식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에 관련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동물로부터 인간 그 역사적 경과 국민성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 등의 면에서 추구해서 건강한 경쟁과 협동의 並存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⁸⁾

현대사회의 정치는 스포츠의 탈이데올로기성을 이용해서 윤리적인 현실문제의 해결 대신에 정서적인 성취감을 강조하고 정치적 과제가 自明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의 영위과정과 성과는 현실적 정치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연출되는 게임으로 보여지고 평가되기에 이르는 것이다.⁸⁹⁾ 그리고 이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구체화 내지는 顯在化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세계인의 축제올림픽인 것이다. 올림픽을 무대로 한 동·서 양대진영 간의 정치적 대결과 제3세력이라 호칭되는 신생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 들끓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그 뿌리가 깊은만큼 오늘의 냉전상황에서 말하여 올림픽의 이상과 현실의 乖離, 상극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란, 근원적으로 먼저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스포츠가 자유를 획득하는 일이고, 둘째 국제정치사회에서 슈퍼파워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내셔널리즘의 멍에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⁹⁰⁾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하고도 확실한 과제해결의 방도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데에 인간이 지닌 모순과 현대사회의 고민이 있고 스포츠의 역기능적 현상의 가속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스포츠의 본질적인 과

88) 加藤正明, 《競争社會の心理學》, 講談社, 1969, p.4.

89) R.Lipsky, *How We Play the Game—Why Sports Dominate American Life*. Beacon Press, 1981,

佐伯聰夫譯, 《現代スポーツの社會學》, 不昧堂出版, 1984, p.297에서 再引用.

90) 梅村清弘, 《人間とスポーツ》, 大修館書店, 1973, p.312.

제는 스포츠에 外在하는 사악한 사회적 제반세력이 신성하고 순수한 스포츠에 침입해서 스포츠의 선한 것을 파괴하는 것을 분석해서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포츠자체에 내재하는 근대의 원리를 재검토하여 그 모순을 超克하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⁹¹⁾ 따라서, 현대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원리로부터 스포츠가 자유롭게 되지 않고서는 현대스포츠의 각종 병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서, 이러한 과제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결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개선해 나간다면 스포츠의 건설적인 측면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⁹²⁾ 그러나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 경쟁적 스포츠의 기본적 일반적인 경향에 반해서 인간의 증오심을 流布한다고 하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쟁적 스포츠가 대중적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또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되고 있는 개체물로서의 그것이, 상업주의와 결탁하는 것에 의해서 오염, 타락하는 경우도, 나아가서는 통합적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국가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기도 한다.

금후는 스포츠의 순기능도 그러하지만 스포츠사회학에 있어서 그 역기능적 현상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집중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허구적인 지성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의 편에 서서 정권차원의 이익을 극복하려는 주권권력자의 실천적 의지의 표현이 구체화 될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체육·스포츠의 전망

우리가 오늘에 살면서 미래사회를 예측한다는 것은 비록 컴퓨터만능을 구가하는 시대라고는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현재-미래의 과정에서 때때로 불의의 사태가 야기되는 등 오늘날은 확실히 예측이 곤란한 까닭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서고 새로운 문명정부가 탄생된 지금에 와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勘耐)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미래의 예측과 전망은 어렵고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들의 희망, 기대, 지향하는 방향, 노력의 목표는 뚜렷하지 않으면 안된다.⁹³⁾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의

91) 佐伯聰夫, 앞의 책, p.297.

92) Dorcas Susan Butt, *Psychology of Sports*, 1976; 淺田隆夫外 譯, 《文明としてのスポーツ》, 일본경제신문사, 1978, p.2.

93) 宮下充正 外, 《二十一世紀の體育・スポーツ》, 杏林書院, 1982, p.195.

연속성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전면적인 후진성에서 전면적인 선진성으로의 변동과정을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과정이란 전면적인 후진성 속에 우선 「발전의 極으로서의 선진성의 조그만 교두보가 구축되고, 이 부분적 선진성이 점차로 확대하여 마침내 후진성의 영역을 덮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최후에 남는 부분적 후진성을 붕괴시킴으로써 과정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후진성의 극복을 위한 역사적 과정을 가르키는 일이며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일인⁹⁴⁾ 것이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전제를 두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감히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면서 21세기의 체육·스포츠를 전망 제의한 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들 주변에서 싹트고 있는 것, 태동하고 있는 과제들은 예의 검토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실천적 의지와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지난날의 우리들 체육·스포츠의 비정상적인 변천경로와 특히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왜곡 변질된 체육·스포츠의 현대사, 다시 말해서 20세기 체육·스포츠의 세계사적 과제를 유념하면서 20세기 한국 체육·스포츠의 과제의 해결에 초점이 겨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미래학자들의 예견과 주장을 깊이 음미해 봐야 한다. 그들 학자들은 하나같이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면서 보다 더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극도의 省力化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므로 생애체육, 평생스포츠에의 지향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즉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허약자, 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기초에 따른 제반 배려가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그를 위한 여러가지 조건의 준비를 추진하도록 경고하고 있다.⁹⁵⁾

중경대학의 木村吉次교수 역시, 21세기 체육·스포츠를 전망함에 있어서 첫째 운동부족은 보다 보다 확대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보다 확대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되며 스포츠권이 확립될 것이라 보고, 권리로서의 체육·스포츠는 타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 체육·스포츠가 아니고, 운동하는 것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체육·스포츠가 남녀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층에 속하고 여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모두가 스포츠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현대스포츠의 기능적 양면성과 그 상극의 관계는 스포츠의 대중화와 고도화, 매스스

94) 香山健一著, 崔林 譯, 《未來學》, 玄岩社, 1971, pp.314~315.

95) 宮下充正, 앞의 책, p.5.

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나아가서는 선수주의의 첨예화작업이 강행되기 시작한 이래 오로지 타락, 변질의 길로 치달는 역기능적 현상만이 가속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릇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충족」, 「화합」, 「업적」, 「공헌」의 네가지 가치를 필요로 하고 그의 조화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항문화의 가치는 근대이후의 사회에 있어서의 지나친 업적본위, 즉 업적가치와 공헌가치의 절대적 우위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 이름 그대로의 「대항」하는 것으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따라서 과정에 있어서의 「충족과 화합」이 결과에 나타나는 「업적과 공헌」에 조화되고, 상호지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스포츠에서는 승리에서 나타나는 업적과 공헌만이 중시되고 그것만의 합리적 추구가 자기자신의 인간적 권리와 상대의 권리까지를 희생시키는 상황을 꾸며왔던 것이다. 결국 현대스포츠의 기본적인 과제는 분열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통합해서 신체적 제반능력의 자립적 전개와 발전의 享受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근대이후의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실현이 타자를 약탈하는 관계의 지배를 초극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곧 스포츠에 있어서는 경쟁에 있어서의 타자 약탈적 관계를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의 상호체험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⁹⁶⁾

결과적으로 이것은 현대사회의 두 가지 대항가치의 길항에서 빚어지는 스포츠에 있어서의 대항가치 즉 스포츠 고도화 현상과 대중화 현상, 다시 말해서 「국위선양정책으로서의 선수주의」 내지는 첨예화작업과 「건민정책으로서의 대중적 체육·스포츠」를 잘못된 방향과 내용의 소위 스포츠대중화 간의 상극관계를 여하히 상승의 관계로 전환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연결된다.

누차 언급된 바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현대스포츠의 기능상의 변질과 현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항가치의 길항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의 경쟁사회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본래 스포츠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라고 하는 도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선수의 첨예화와 대중적 체육·스포츠와의 사이에는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실 그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타자와 자연으로 지향한 공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격심한 도전의 욕망은 끝없는 첨예화를 추구할 것이고 그것은 과학기술의 스포츠에의 적용에 의해서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현대사회

96) 佐伯聰夫 譯, 앞의 책, p.304.

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기능상의 발전은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빼놓고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로의 지대한 사회적 동향과 양진하는 스포츠 고도화를 생각할 때 현대스포츠가 보다 더한 과학기술과 결합, 테크놀로지화한 것으로 되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세분화된 역할에 따른 전문화나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분석과 그에 기초한 전술이나 전략의 조립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경기자의 소질을 합리적으로 판정해서 기술적인 과정에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최적의 것으로 양성할 것이며, 생물과학이나 유전공학의 적용에 의한 인간개조까지를 예상하게 한다.⁹⁷⁾ 그러나 여기에 대항해서 타자나 자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활동을 매개로 해서 「교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스포츠가 중시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에코(Eco)스포츠이다. 여기에는 하이킹, 캠핑, 올리엔테어링, 록클라이밍, 스쿠버다이빙, 세일링, 스카이다이빙, 윈드서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에코스포츠에 공통되는 특징은 참가와 협동을 최대한으로 하되 경쟁성을 최소화하고 엘리트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스포츠는 신체활동에 의한 개인 또는 집단표현의 한가지 형식일 뿐 타인과의 비교나 타인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코스포츠는 지금까지의 스포츠에 내재하고 있는 도전이나 경쟁의 성격을 부정하고, 다른 한가지의 대항가치를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테크노스포츠가 지금까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당하고 그것을 한층 더 정밀·첨예화하는 것인 데 대해서 에코스포츠는 그의 대항이데올로기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말이다.⁹⁸⁾

아무튼 체육·스포츠는 근대화라고 하는 정책에 의한 계몽·보급의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급의 당연한 산물인 혼란 끝에 움직임이 정제되기 전에 영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안정된 정책의 시대로 이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⁹⁹⁾

우리는 지난날 8.15해방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이 사전의 준비와 입안된 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겪었던 혼란과 혼미 그리고 무대책의 결과가 빚어내었던 산만하고 무질서했던 시대와 오늘에 이르는 과정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음미해 볼 필요가 크다 하겠다.

누가 어떠한 체육·스포츠의 정책을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에게 바람직한 21세기의 한국 체육·스포츠라고 생각하느냐, 체육·스포츠의 역사는 미래에로의 전망임과 동시에 현재의 엄격

97) D.S.Eitzen and G.H.Sage, *Sociology of American Sports*, 1978; 佐伯聰夫 譯, 앞의 책, pp.297~298에서 再引用.

98) J.J.Coakley, *Sport in Society*, The Mosby Company, 1978; 佐伯聰夫 譯, 앞의 책, pp.299~300에서 再引用.

99) 宮下充正, 앞의 책, p.198.

한 비판없이 생산되지 못한다. 「현대적 과제와 전망」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둘러싸고 서술되어 왔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이것은 새정부에 대한 희망이고 기대이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이다. 과거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체육·스포츠)이 위기에 놓여졌던 시대에 오랜 세계는 극복되어 왔던 것이다. 낡은 가치관은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지형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낡은 그것 속으로부터 새롭게 그것이 탄생되었던 것이며 사태의 모순 속에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추진해 온 힘이 비장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적 스포츠의 사회병리적 관련현상들을 기능적으로 스포츠 본래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한 바 현대사회의 대항가치의 전환을 전제로 해서, 미래의 스포츠이데올로기적 길항관계를 전망하면서 현대스포츠에서의 길항가치를 여하히, 지금의 상극의 관계, 상승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국내 국제 간의 주권권력자들의 공통된 의지표현적 실천을 위시해서 여기에 따른 사회교육적 제반 노력이 꾸준하고, 스포츠관계자 및 지도자와 경기자들의 일대 각성이 연대의식으로 다져진 추진과 실천을 통해서 경쟁과 도전의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에 의존하는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 우리들 모두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관주도가 아닌 자생적인 체육·스포츠가 실천 전개될 때, 요사이 유행되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이 없는 참다운 대중적 체육·스포츠(생애의 체육, 생애의 스포츠), 즉 생활 체육·스포츠가 뿌리를 내릴 때, 인류의 오늘날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밝게 하는 올바른 스포츠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의 가치와 공헌을 누리게 될 것이다.